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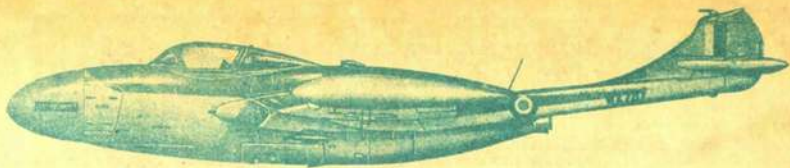
三 哩 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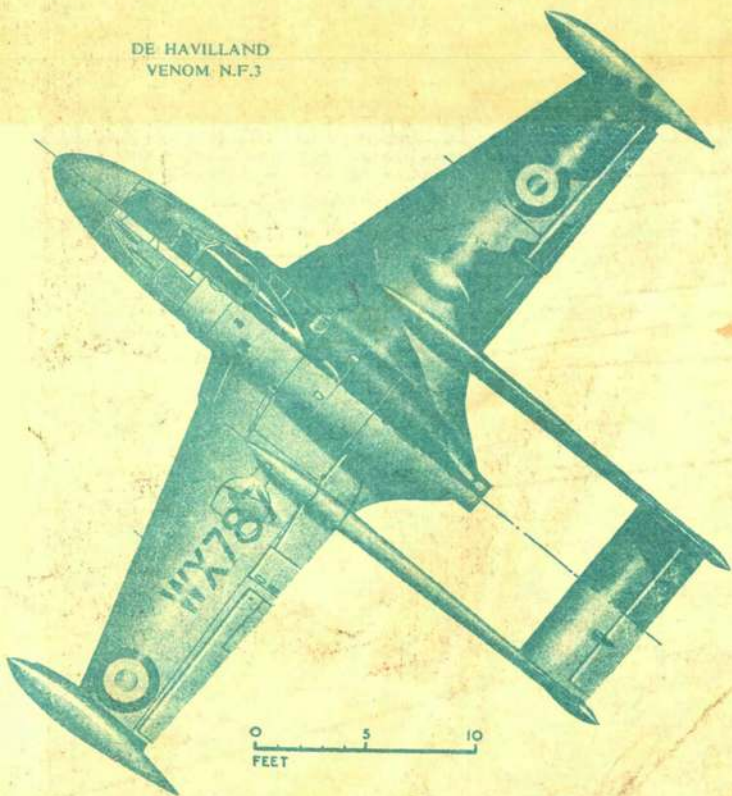
701
 701-86-3

1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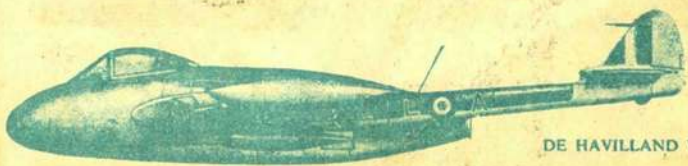
第 32 號



DE HAVILLAND
VENOM N.F.3



0 5 10
FEET



DE HAVILLAND VENOM F.B.I

1337

1958. 1

코메트·제 32호 目次

△目次刊·扉·卷▽
李 喜 世

★성 바오로 은수자와 성 안당 △趣味의 美術鑑賞▽
..... 白仁燁中將

報 告
◇ 눈송이 作戰시 李烈秀大尉는 가다
◇ 마나라 上空에 太極旗 날리다
◇ 前美一軍司令官 「트루도」 將軍 離任人事大 本部 禮訪
◇ 故 李烈秀大尉의 散華를 吊慰하며 金一封을 做達하는 白仁燁中將

△卷頭言▽ 生死存沒 金基完 (二)

世界政府提唱의 批判 徐 碩 淳 (三)

美國은 적도 誘導彈競爭에서 勝利할 수 있는가? 朴喜永 (四)

詩 金門 鳥 趙炳華 (五)
바위와 나비 朴喜璣 (五)

△將兵詩▽ 窓(창) 梁昌淑 (五)

一九五八年의 UN에 對 展望 高 濟 經 (六)

一九五八年의 東南亞 極東 柳 承 範 (六)

一九五八年의 宇宙科學 徐 同 運 (六)

一九五八年에 北韓가 企圖하는 企圖 朴 聖 煥 (六)

隨 筆 隨 感 崔 用 德 (三)
空軍을 退役하고 徐 壬 壽 (三)

卒業을 앞둔 士官生의 抱負 李 載 奎 (三)

西京別曲 評說 △教養▽ 梁 柱 東 (三)

立候補制度論 △教養▽ 申 鉉 經 (三)

우리글을 사랑하자 △教養▽ 金 奎 東 (三)

하나의 音樂人의 意見 △教養▽ 林 元 植 (三)

外交와 演說 △教養▽ 宋 光 植 (三)

아름다운 秩序의 天國 金 奎 東 (三)

沐浴과 理髮과 便紙 趙 聖 衍 (三)

語 錄 趙 聖 衍 (三)

「아이젠하워」大統領과 그의 令息 「존」少領 R·슈바이버 (三)

베스트트 플프 (一) 토미·아미 (一)

抵抗 △名作映畫鑑賞▽ 三角野人 (三)

愛 犬 日 記 金 庚 彥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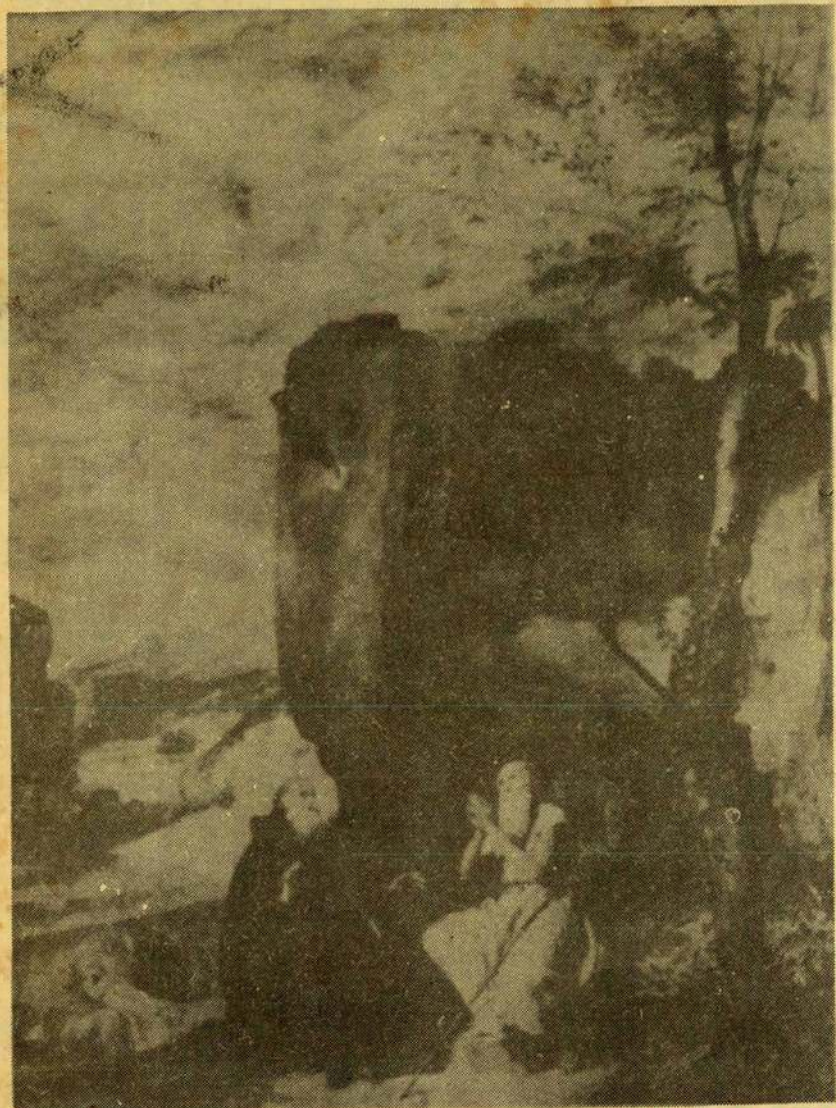
漫 畫 PILOT. 코주부 金 龍 換 (三)
明 朗 四 題 韓 聖 哲 (三)
어 느 刻 字 生 金 聖 哲 (三)

子丑寅卯의 由來 編輯室 (三)

金言·名言·格言 이 곳 저 곳

戰後軍縮協商 拾年史의 歸趨 崔 毅 英 (三)

陳 小 姐 △小說▽ 李 無 影 (三)
노을이 스러질 때 △小說▽ 孫 素 熙 (三)
북 은 밤 (二) △連載▽ 林 玉 仁 (三)
「에지레」의 갓난애 △翻譯▽ 李 允 熙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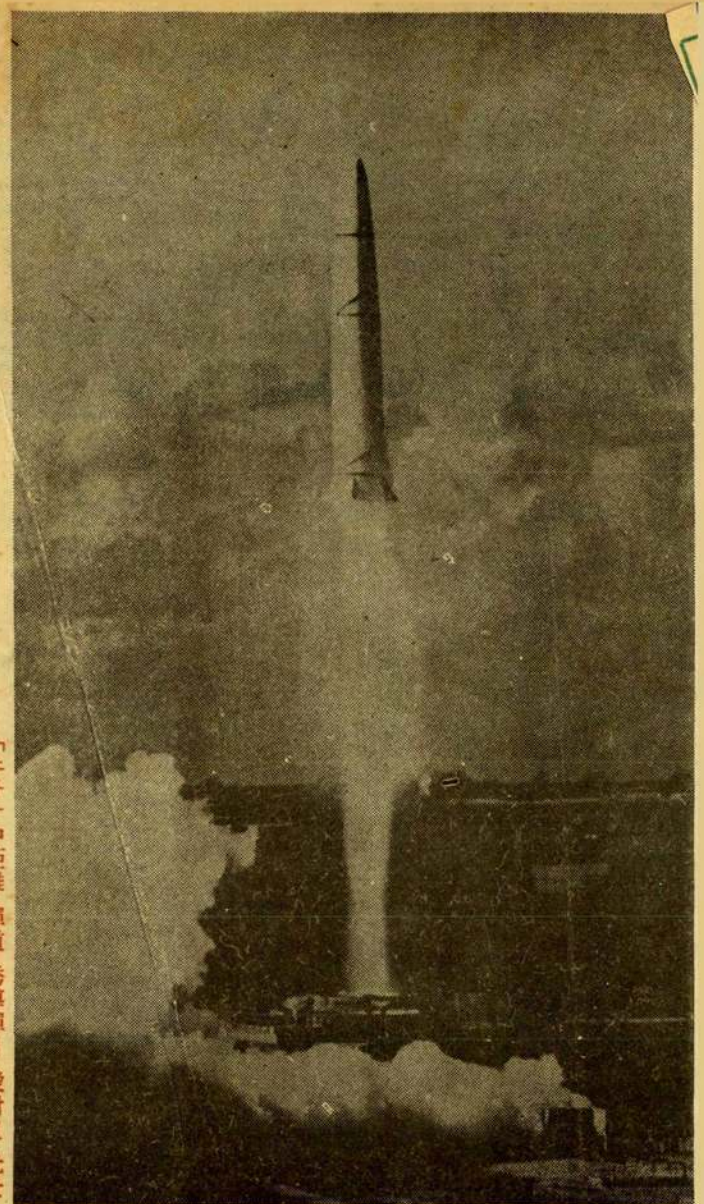
성 바오로 은수자와 성 안당

벨라스케스 作

1338

8882

「쏘아」中距離 彈道 誘導彈의 發射된 光景



〈趣味의 美術鑑賞〉

성 바오로 은수자와 성 안당

十七세기 에스파니아의 가장 代表的인 畫家、一五九九년 세비리아에서 나다. 十一才에 델라 門下에 들어 갔다가, 다시 프랑시스코 파제의 門下로 옮겨 갔으며, 그의 非凡한 才能이 눈에 띈게 되어 養子가 되었다. 義父가 제코는 그를 宮廷出納官에게 紹介한 것이 인연이 되어 宮廷 畫家가 되었다. 一六三三년 聖 루이스가 外交官으로 마드리드에 오게 되자 親交를 맺게 되었으며, 聖 루이스의 旅行을 三次에 걸친 이반의 旅行을 하게 되었다. 旅行中에 〈왕자의 대장간〉 등의 극히 寫實的인 그림을

그렸으며 이후 〈박카스〉 〈부메다의 開城〉 〈宮女〉 〈王妃〉 〈王女〉 등의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는 歷史畫、宗教畫 然의 光線에 의한 아름다운 變化에 着眼하여 그것을 正確한 油畫의 傳統的技法으로 表現하였으며, 寫實主義에서 印象主義로 이르는 先驅者이기도 하였다.

그림가 되어 있는 이야기로서 성 바오로 隱修者는 깊은 산 중굴 속에 홀로 숨어서 曠野의 修道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알려졌는

벨라스케스 작 (一五九九—一六六〇)

지 그의 聖德은 온 세상에서 알게 되었다. 때를 같이 하여 獨修者로 있던 성 안당이 그의 德을 思慕하여 그곳을 찾게 되었다. 이 그림에 있어서 하늘에서 까마귀가 한 개의 鵝鵝를 물고 날다 내려오는 것을 우연히 보며 感謝와 畏敬에 가득 차서 合掌하고 있는 白衣의 老人이 바오로는 수자이고, 그 영적에 놀라이 팔을 벌리고 있는 褐衣의 老人이 성 안당이다. 바오로는 수자는 「매일 반죽의 鵝鵝를 보며 오신 줄 알고 오날은 손님이 오신 줄 알고 온 것을 보내 주신 것이요」 하며 하례를 올린 主은 德을 感謝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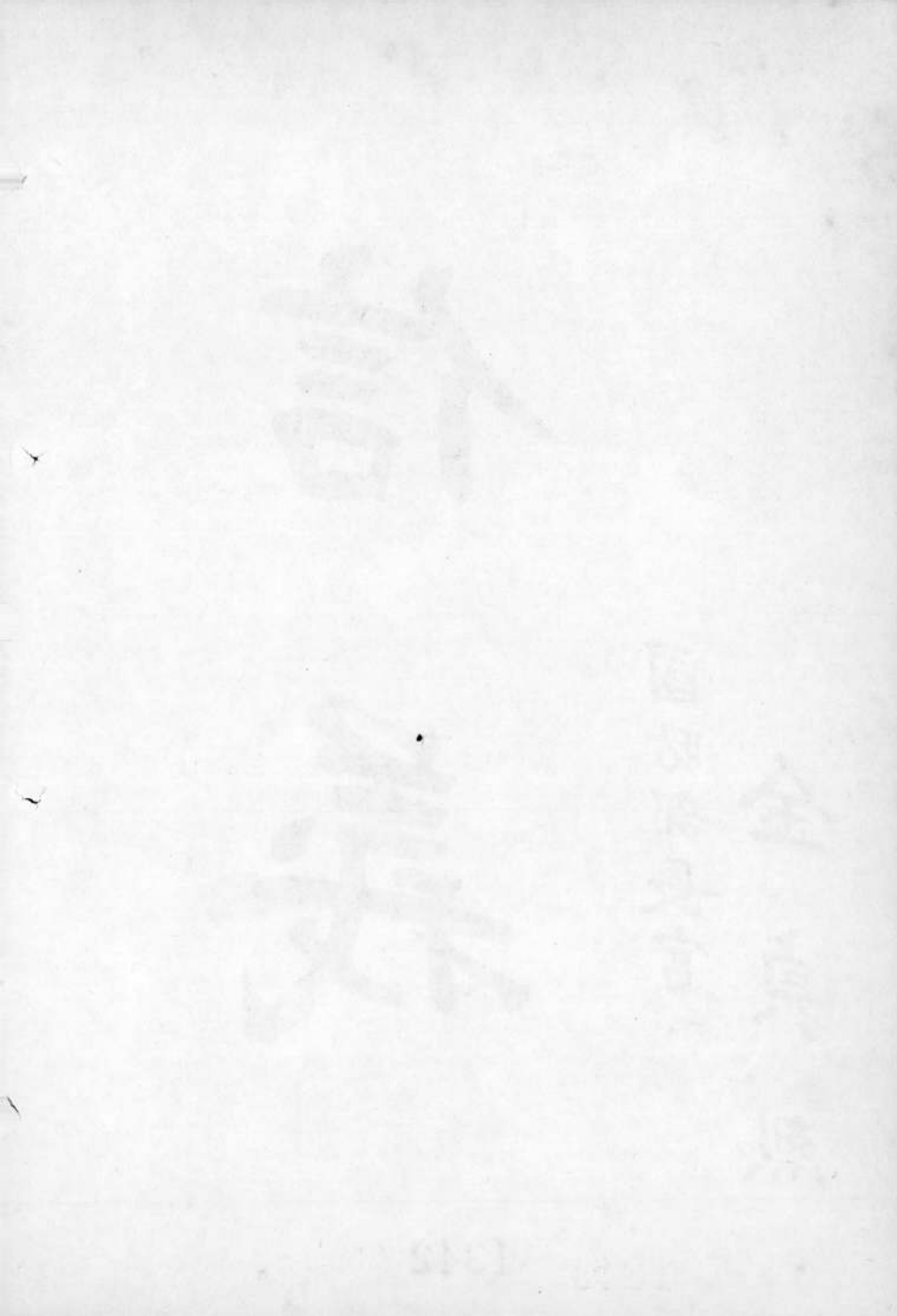
이었다. 안당이 물아가려 할 때, 다음에 올 때에는 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몇 달이 지나 안당이 다시 그를 찾게 되었는데 예전대로 그의 영혼은 이미 世俗을 떠났고 그의 靈魂이 裸體의 裸體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그림 아래 전 밑터에, 땅을 파고 있는 獅子와, 잠자듯이 누어 있는 성 바오로 은수자의 유해와, 그 곁에 앉아서 聖者의 冥福을 빌고 있는 성 안당의 모습이 보인다. 一六四〇作

信

義

國防部長官

金 貞 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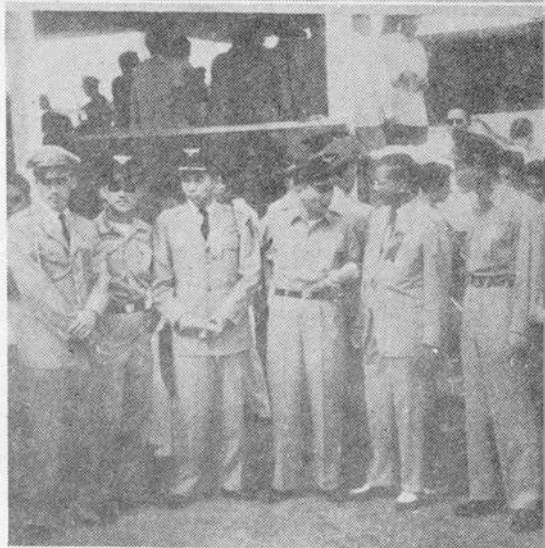
(上) 故李大尉 靈前に 焚香을 올리는
張參謀總長

(下) 故李大尉가 散華한 「눈송이作戰」
光景





에어·포에 參加한 韓國代
비율빈 市民들 (中央) 마
에어·포 本部 (左中) 大會
下) 마니라 上空을 날으는





(右上) 비율빈 에어·쇼
—表들 (右下) 我空軍機 F
나라에 휘날리는 우리 太極
場에 入場하는 가르샤와 上
우리 Z機編隊





- (上) 離任人事次 空軍本部 張參謀總長을 禮訪하여 儀仗隊를 查閱하는 前美一軍司令官 「트루도」 將軍
- (中) 故李烈秀 大尉의 散華를 吊慰하며 金一封을 傳達하는 白仁燦中將
- (下) 團隊長 會議 光景

1346

코 메 트

THE COMET



第 3 2 號

1347

△卷頭言▽

生死存沒

—李烈秀大尉의 戰死가 意味하는 것—

政訓監 金基完

죽음이라는 때가 왔을 때 그 生命을 끝내고 支拂하는 데 있어서는 모라토리엄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죽음이라는 피할 길이 없는 宿命과 더불어 生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凡夫의 生涯라 할지라도 그가 平均的인 壽命을 갖는다면 그 過程에서 喜怒哀樂을 겪으며, 비록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많다고 하더라도 人間界의 愛着을 갖지 않을 수 없는 人間으로서의 弱點을 갖는다.

生如不死니, 亂世니 하여 生을 虐待하는 傾向이 있는 요즘에 있어서도 亦是 生은 無限한 愛着과 끊임없는 未練속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여기 若冠 二十七歲 아직 童顏에 紅潮가 가지지 않은 젊은 操縱士가 삼시간에 幽明을 달리하여 버렸다.

實戰에서의 戰死는 아니라고 하나 그는 愛國하는데 殉하여 한방울의 草露처럼 눈감고만 것이다.

妻慘한 瞬間——한개의 生命이 爆音과 함께 한개의 意志와 더불어 散華한 그때 그時刻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六〇을 平均壽命으로 볼 때, 그는 人生의 正午까지도 다달이지 못했다. 허다하게 있을 기쁨과 슬픔을 추추들이 맞보지 못하고 저승으로 갔으며, 홀어머니에게 斷腸의 痛哭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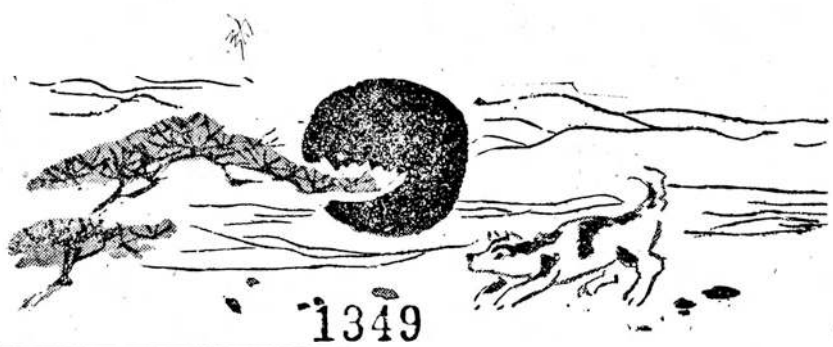
이 高貴한 犧牲앞에 우리는 우리의 生命의 存續을 確認하고 있는 것이다.

休戰이 되고 於焉 六年이 지나갔다. 그간 國民은 勿論, 軍人들까지도, 緊迫한 情勢라든가 國土統一의 課業을, 義務感이 없는 宿題처럼 忘却하고 解弛되어 왔으며, 解弛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故 李烈秀 大尉와 같이 生死存沒과 對決하여 連日 訓練을 하고 있는 軍人들은 많다.

來日의 國防과 祖國統一 聖業完遂를 爲하여 生命의 所重한을 돌보지 않는 愛國者들이다.

우리는 그 崇高한 國民의 代表者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世界政府提唱의 批判

— 世界政府는 果然 이루어 질 것인가? —

徐 碩 淳

世界政府 思想은 平和思想의 一部이다. 따라서 世界政府 運動이 大戰爭을 前後해서, 그리고 特히 戰爭의 恐怖가 增大될 때 더욱 活潑해지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오늘날의 世界政府 提唱은 國際聯盟과 國際聯合의 經驗과

眞心으로 熱望하는 사람들은 世界政府 思想을 檢討하고 批判할 義務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以下에 簡單히 最近의 世界政府 思想을 批判해 보기로 한다.

x x

또한 原子戰爭의 危脅을 背景으로 하여 더욱 具體的인 實感을 갖고 平和를 希求하는 人類에게 呼訴하고 있다. 平和를 職業的으로 空念佛하는 人士들을 除外하고 平和를

世界的인 規模의 組織을 樹立하여 各國間에 平和와 秩序를 確立 維持시키려는 생각은 最近에 始作된 것은 아니다. 일찍이 十四世紀에 「단테」가 그러한 것을 提案하

였고, 좀 더 유명한 것으로서는 十七世紀 初葉에 불란서의 「헨리」四世와 그의 大臣 「서리」가 「그랜드·데사인」이라는 恒久的 平和案을 作成하였었다. 十七世紀 末葉에는 「윌리엄·펜」이, 그리고 十八世紀 初에는 「압페·상피에르」가 國際機構를 通한 恒久的 平和論을 出版하였고, 또 十八世紀 末에는 독일의 유명한 哲學者 「이마누엘·칸트」가 亦是 永久的 平和論을 公開發하였다.

現世紀에 들어와서는 이 思想은 各國 政府의 眞摯한 關心의 對象이 되었고, 一九一九년에는 美國 大統領 「윌슨」의 領導下에 파리 平和會議에서 討議된 結果 國際聯盟이 誕生되었었다. 約二十年 동안 國際問題의 解決에 盡力하던 同 聯盟은 第二次 世界大戰과 더불어 消滅되고, 그後 各種의 案이 檢討되었었다. 一九四五年의 「센프란시스코」會議에서 結局 오늘날의 國際聯合이 다시 誕生되었었다.

한편 一九二〇年代와 三〇年代의 平和主義運動은, 國際聯盟이 侵略을 防止하지 못한 것을 보고, 從來의 國際組織보다는 一層 더 強力한 世界政府 運動으로 發展하였다. 이 世界政府 運動은 그 後 第二次大戰 末期의 原子彈 使用을 契機로 하여 더욱 拍車를 加하게 되었고, 國際聯合이 冷戰을 終焉시키지 못한 것을 보고는 이제는 着實한 實現方法까지를 摸索하게 되었다. 原子力武器가 出

現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戰爭의 勃發은 곧 「世界의 破滅, 人類의 絶滅」을 意味하는데 從來의 國際聯合같은 集團安全保障으로서는 到底히 그러한 戰爭을 防止할 수 없으니 그러한 무서운 戰爭을 없애려면 곧 世界政府를 樹立해야 된다는 것이다.

國際聯盟이 誕生되기 以前까지의 國際安全保障方式은 勢力均衡이었다. 이 勢力均衡은 國家間의 對立을 前提로 하고 그 對立하는 國家間의 힘을 均衡시킴으로써 戰爭을 防止하고, 安全을 保障하는 것이다. 그러나 各國의 國力を 構成하는 要素는 多數이며 恒常 變動하고 또 客觀的科學적으로 測定할 수 없기 때문에 均衡을 維持한다는 것은 恒常 不安을 免치 못하고, 따라서 各國은 相對方國家보다 優劣한 國力を 確保할 때에 비로소 安全感을 갖게 된다. 그 以上 各國間의 勢力均衡을 調停하는 公平한 國際機構가 없기 때문에 勢力을 均衡시킨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各國은 國力 增強에 專心하게 되고, 勢力均衡을 窮極의 目標로 한다고는 하지만 現實으로는 오히려 對立을 激化시키고 均衡을 破壞시키는 矛盾을 內包하게 된다. 그 좋은 例가 바로 第一次 世界大戰을 誘發시킨 三國同盟과 三國協商의 對立이었다. 이러한 不完全한 安全保障方式의 欠陷을 止揚하고자 案出된 것이 곧 集團安全保障制度이다. 그리고 그 具體的

인 것이 國際聯盟과 國際聯合이다。이 集團安全保障制度라는 것은 모든 國家 심지어는 對立關係에 있는 國家까지도 하나의 集團安全保障機構에 包含시켜서 全會員國이 相互不可侵을 約束하고 그中 一個國에 對한 侵略은 會員國全體에 對한 侵略으로서 看做하여 集團의 힘으로서 侵略國을 制裁하고 被侵略國의 安全을 保障한다는 것이다。이 集團安全保障制度는 勢力均衡에 依한 安全保障方式에 比하면, 制度 그 自體에 矛盾을 內包하고 있지 않으며, 各國이 『集團으로서의 行動』만 한다면 世界平和의 維持라 는 立場에서 더욱 合理的인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問題는 國際聯合같은 集團安全保障制度가 「集團으로서」 行動하느냐 하는 데 있다。그런데 지금까지의 經驗은 이 集團保障方式도 結局은 힘의 政治를 完全히 止揚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即 集團의 인 行動이 取해져야 할 때에도 國際社會의 힘의 政治라는 面으로부터 制約을 받게 된다。다시 말하자면 強大國의 利害關係에 依해서 左右되는 것이 普通이다。 國際聯合의 例만 보아도 充分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國際聯合의 集團安全保障措置는 반드시 集團 그 自體의 立場에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強大國間의 힘의 政治에 依해서 決定되었었다。例컨대 一九四八年 十二月에 和蘭軍이 前年の 休戰協定을 違反하고 印尼軍을 攻擊하였을 때나, 또는 印度가 一九

四八年 九月에 「하이데라바드」王侯國을 攻擊하였을 때나, 또는 더욱 最近에 「이스라엘」과 英·佛의 軍隊가 埃及를 攻擊하였을 때에 集團安全保障에 依한 強制措置의 發動이 當然히 問題되었어야 하였었지만 國際聯合에서는 이것이 問題가 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國際聯合 같은 組織은 그 組織 自體가 어떠한 強力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集團의 인 強制措置를 取하는 境遇에도 結局은 그 會員國의 武力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어느 強大國을 相對로 하는 또는 그 強大國이 擁護하는 弱少國家를 相對로 하는 強制措置는 事實上으로는 國家對國家의 戰爭이 되며, 또 世界戰爭의 性格을 띄우게 된다。그리고 原子力武器를 가진 國家에 對한 強制措置는 더욱 더 기나人類의 破滅을 意味하기 때문에 集團安全保障制度의 平和維持機能은 無意味하게 된다。이처럼 이 保障制度의 機能의 宿命的인 限界를 批判하는 것이 바로 世界政府論者들이다。

勿論 國際聯合 같은 集團安全保障制度의 宿命的인 欠陷을 批判하고 그것이 힘의 政治의 影響을 받고 所期の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指摘하는 것은, 世界政府論者에 限한 것은 아니다。所謂 地域的 集團防衛體制的 必要性을 強調하는 사람들도亦是 그러하다。그러나 後者는 그 基本觀念에 있어서 前者와 判異하다。即 地域的

防衛體制을主張하는 사람들은 集團安全保障制度가 不完全하니 結局은 國家間의 對立을 前提로 하는 以前의 勢力均衡에 依한 安全保障制度로 復歸하자는 것이고, 反對로 世界政府論者들은 集團의 立場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 強力한 世界政府를 樹立하자는 것이다. 卽 後者는 強力한 힘을 가진 中央政府 밑에 하나의 世界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X X

하나의 世界를 實現하는 方法에 있어서 世界政府論者들 가운데 여러 派가 있다. 하나는 어느 一國에 依한 武力的 征服에 依한 世界國家의 建設이다. 그러나 이 方法은 그다지 많은 支持者를 갖지 못하며, 또 소 聯 指導者들이나 其他 軍國主義者들이 內心으로는 좋아할지 모르나 적어도 이것을 公然하게 主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特히 自由 民主主義者들의 猛烈한 反對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自由意思로서 結合된 單一的인 世界政府의 建設이다. 「크레아텐스·스트레이트」는 그의 著書「유니온·나우」(Union Now)—— 이것을 一九三九年에 처음 出版되었고, 그後 一九四九年에 改訂版이 나왔다—— 가운데서 西方側 民主主義諸國家만이 우선 單一國家를 形成하여 核心的 統一體가 되어 窮極에 가서는 全世界의 인

政府를 樹立할 것을 提案하였다. 그에 依하면 北大西洋 諸國이 統一하여 ① 政治와 市民權, ② 防衛, ③ 關稅, ④ 貨幣, ⑤ 選信의 五分野에서 單一政府를 가지면 政治的 經濟的으로 強大해 지며 個人의 自由도 充分히 保障되기 때문에 外國이 敢히 侵攻하지 못할 뿐 더러 獨裁國家 內部の 人民들도 이것에 魅力를 느끼게 되고, 마침내 는 그들 自身에 依한 民主的 革命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武力을 利用하지 않고도 平和的으로 世界政府가 實現되리라고 한다. 이것의 特徵은 民主·共產의 兩陣營의 對立을 前提로 하고 結局에 가서는 民主陣營이 共產諸國을 打倒하여 하나의 世界가 이루어진다는 点이다. 그러나 「스트레이트」의 「프렌」은 어떤 意味에 있어서 勢力均衡에 依한 保障制度가 內包한 戰爭의 危險性을 亦是 內包하고 있다는 點을 指摘해 두어야 한다.

다음에 이러한 對立을 高次的으로 止揚하면서 世界政府를 志向하는 所謂 에데라리스트(聯邦主義論者)가 있다. 그 代表的인 人物로서는 「코너드·마이야」와 또한 시카고 大學校總長 「헛친스」를 中心으로 하는 「世界憲法起草委員會」(Committee to Frame a World Constitution)가 있다. 前者와 後者間에는 世界政府와 그 構成國家 사이에 權限關係에 對하여 若干 意見의 差異는 있으나 兩者가 다 聯邦主義者라는 點에서는 同一하다.

一 聯邦制度의 定義에 關해서는 學者間에서도 異論이 있으나

8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보아서 無妨한 것이다。即

一 ① 政府의 權限이 中央政府와 地方政府(構成單位)間

에 分割되어 있고 全體에 關한 問題는 前者가 그리고 地

方的인 問題는 後者가 處理한다。

② 兩政府의 權限分配는 어느 一方에 依해서 任意로

變更될 수 없다。

③ 兩政府는 各自의 權限內에서 國民들과 直接接觸

한다。

「마이야」는 中央政府의 權限을 最少限度로 적게 하자는
便이고 시카코委員會는 最大限度로 하자고 主張한다。

X X

그러면 以上과 같은 世界政府 提案에 對하여 어떠한 贊
成과 反對가 있었는가? 이것을 簡單히 要約하자면 다음
과 같다。贊成論者는 말하기를

① 人類는 核武器戰爭을 避하기 爲하여 非常措置를 取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各 主權國家가 存続하고, 軍備競走를 繼續하고, 어
느 때 누구를 攻擊할 것인가를 決定할 수 있는 限、戰爭
은 防止될 수 없다。

③ 平和的인 民主諸國은 團結하지 않은 限、全體主義

國家의 侵略을 防禦할 수 없다。

④ 國際聯合은 強大國間의 戰爭을 防止할 程度로 強

力하지 못하다。

⑤ 하나의 世界만이 冷戰을 防止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 反對論者는 말하기를

① 世界政府 思想은 國民的 獨立성과 主權과 市民的

自由를 危脅한다。

② 世界의 諸問題는 하나의 組織을 樹立하였다 고 해

서 解決되는 것이 아니다。

③ 各國의 힘을 再分配하려고 하며는 平和를 危脅하
는 分裂의 힘에 發生할 것이다。

④ 사람들의 支持를 받을 수 있고 또 虛無的인 希望을
주지 않은 健全한 方策을 세우는 데는 時間이 必要하다。

⑤ 格別한 主義와 保障策이 마련되지 않으면 世界政
府는 專制主義·獨裁主義를 招來한다。

⑥ 現 國際聯合은 아직도 그 機能을 完全히 利用當하
고 있지 않는데, 萬若에 各國이 그 意思만 있다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⑦ 어느 強大國이고 잔여한 強大國을 除外한 世界政
府는 原子力戰爭의 危險性을 減少시키지 않고 오히려 增
가시킬 것이다。

⑧ 人類는 虛無的인 希望과 萬病通治的인 思想을 갖

게되어서 平和의 維持에 關한 더욱 現實的인 眞摯한 努力을 하지 않게 될 危險性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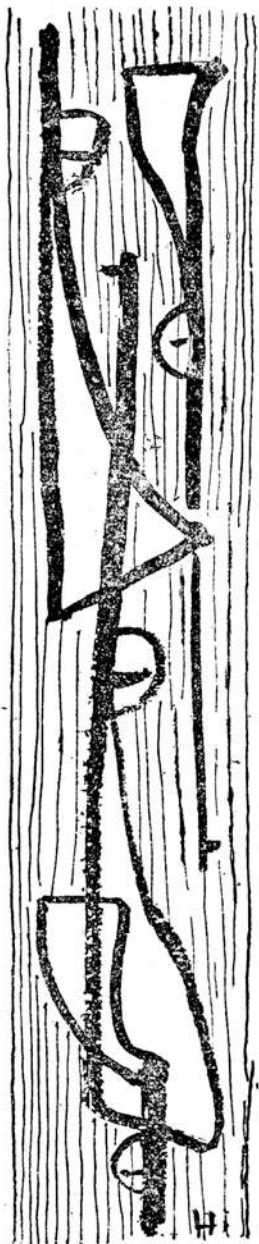
⑨ 國際關係의 改善이 要請된 것은 事實일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그 解決策이 반드시 있다고 斷定할 수도 없으며, 또한 비록 그 解決策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世界政府이어야 된다는 法은 없다, 라고 한다.

X X X

世界政府의 提案者들은 平和를 希求하는 그 意圖와 또 集團安全保障制度 및 勢力均衡에 依한 安全保障方式의 限界 및 欠陷을 指摘해 주는 點에 있어서는 積極的인 功獻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動機와 目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의 實現方法이 너무나 不安스러운 現段階에 있어서는 現在에 所有하고 있는 國民國家制度나 集團安全保障制度 또는 地域的 防禦體制를 그러한 不安한 世界政府와 交換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그 方向으로 움직여야 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目的의 에 이르는 길이 좀더 明示되지 않은 限, 多數人類를 領導 責任있는 指導者는 그 길을 擇하자고 主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重大한 結果를, 또는 危險을 招來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試驗삼아 해 보자」는 式으로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世界政府라는 것은 結局은 하나의 制度이다. 制度는 그 自體에 限界가 있는 것이다. 卽制度는 어 데까지나 하나의 道具에 不過하기 때문에 道具로서의 價値와 效果 以上을 가질 수는 없다. 人體에 比하면 制度는 手足과 같은 것이다. 本體가 分離되어 統合되어 있지 않을 境遇에 手足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世界政府를 利用할 수 있는 世界社會가 없을 境遇에 世界政府가 무슨 效果를 가져올 수 있을까? 世界社會는 아직도 美·소의 對立으로 因하여 統合되지 않고 있다. 世界社會(world dominunity)가 아직 形成되지 않고 있는 오늘날, 世界政府라는 것은 現實的인 價値를 갖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의 世界로 指向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한 理想社會는 우리 人類全體의 不斷한 그리고 容易치 않은 努力으로서 漸次的——너무나도 遲遲한——前途로서만 到達할 수 있다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一時의 모든 問題를 解決해 주는 萬病通治的인 方案은 없는 것이다. 이 冷酷한 事實을 直視하고, 이 現實에서 逃避하지 않기 위해서는 勇氣가 必要한 것이다. 人類의 特히 指導者들의 그러한 勇氣만이 人類를 救出할 수 있을 것이다.

(二月十五日)



戰後 軍縮協商 拾年史와 앞으로의 歸趨

崔 毅 英

1356

一、軍縮思想의 沿革

軍備를 縮少 制限 撤廢시킴으로써 世界의 安全保障을 圖謀할 수 있다는 思想과 試圖는 決코 戰後 새루운 것은 아니다. 始初는 強大國이 弱少國家에 對하여 그 優越한 地位를 維持하기 爲해서 一方의 으로 그와 같은 狀態를 強要한 歷史的事實은 오래 前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이 軍縮思想이 世界列強의 軍備에 關하여 國際的으로 表面化

된 것은 二十世紀初 卽 第一次大戰以後의 일이다. 第一次大戰後 世界平和와 安全保障을 目標로 創設되었던 國際聯盟機構를 通하여 米로소 軍縮問題가 國際的인 論議 對象으로 現實化되어 「워싱턴」(一九二二—二三年)、「제네바」(一九二七年)、「런던」(一九三〇年)等 軍縮會議가 開催되었었다. 同會議에서는 海軍力制限을 爲한 條約이 締結되었었다. 그러나 條約을 履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當事國의 誠意와 良心에 依할 뿐이지 條約自體에 對한有

効性を期하기爲한 아무런 制裁權도 規定하지 못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비록 軍縮을 하였다고 하지만 關係國이 저마다 이條約에 구해되지 않고 內面으로 戰爭準備를 進行시켰었다는 事實을 우리는 記憶한다.

第二次大戰後에는 「펠사이유條約」의 失敗를 想起하며, 그를 基礎삼아 亦是 國際聯合에서 優先的으로 原子力管理과, 制限된 兵力保有를 論議하게 되었다. 一九四六年十二月十四日 原子力委員會와 併行하여 UN 通常軍備委員會란 것이 創設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날 UN 總會는 軍縮大憲章이란 것을 滿場一致로 採擇하였다.

同 憲章은 原子力이나, 通常軍備를 國際管理機關이 國際管理토록 하되, 方法은 檢査制度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戰後 原子兵器의 出現에 따르는 軍縮思想의 特徵이다. 이러한 背景아래 出發한 軍縮協商은 原子力管理問題를 圍繞하고 美·소間에 意見이 對立되어 一九四九年 七月 原子力委員會의 活動은 停滯되었다. 소聯은 原子力의 國際管理가 이루어지지 않는 世界軍縮은 必要性을 缺如한다 하여 通常軍備委員會의 活動마저도 活動停止狀態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東西軍備競爭은 激化되었으며 一九五〇年 韓國戰爭과 같은 局地戰을 惹起시키었고, 또한 韓國戰爭은 軍備擴張에 決定的인 拍車를 加하였었다.

原子核武器가 強大國中 어느 한 나라의 獨占이 不可能

하게 됨에 따라 「디렘파」속에 빠진 軍縮問題를 打開하고 散發的으로 交戰中인 局地戰을 整備하여야겠다는 것이 強大國들의 共通된 理論으로 展開되기 始作하여, 마침내 一九五二年 一月 十一日 第六次 UN 總會는 現在까지의 原子力委員會와 通常軍備委員會를 統合하여 軍縮委員會란 機構設置案을 可決하였다. 소聯이 從來에 主張하던 原子力과 通常軍備를 分離審議하여야 한다는 原則을 拋棄하게 된 原因은, 이때 소聯은 이미 原子力水準이 美國과 相互競爭段階까지 發展하였다는 客觀的要件에 基因한 것이다. 그래서 軍縮委員會는 美國·英國·佛蘭西·加奈陀·소聯等 五個國으로서 軍縮小委員會란 것을 設置하였다.

二、戰後 軍縮協商의 經緯

UN이 原子力委員會를 設置하고 滿十一年, 通常軍備委員會를 設置한지는 十年半이 지났다. 그동안 軍縮協商은 數百次に 걸친 會合을 通하여 軍縮成案을 摸索하였으나 國際情勢의 變遷에 따라 아직 最終合議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軍縮協商이 進行되어오면서 美·소間에 論難된 諸點을 相互對比하면서 進行狀況을 綜合檢討하여보기로 한다.

軍縮問題가 本格的으로 討議하게 된 것은 一九四六年

六月十四日美國側代表「마루크」案으로부터 始作되었
다。이에 對應하여 亞聯도 同年 六月 十九일에 原子力兵
器禁止案과, 一九四七年 六月 十一日 原子力國際管理案
을 各各 提出하였었다。「마루크」案과 亞聯의 兩個案이
提出되었을 때 美國은 原子力管理機關이 完全한 機能을
發揮한 後에 原子兵器를 全面的으로 禁止하자는데 反하
여, 亞聯은 即時 禁止하자고 主張하였는데 意見이 對立
되기까지의 要因은 簡單하다。卽이 時期에 있어서 亞聯
은 原爆製造技術에 關한 美國의 獨占의 優位를 制止하고
將次 亞聯이 原爆을 生産한 後에 美國과 對等한 地位를
確保할 때까지 時間的餘裕가 必要하였던 것이다。 이때
美·亞兩側이 서로 論議를 하는 中에서 根本的인 差異點
을 對比하여 보면 이 時期의 軍縮思想을 概括적으로 나타
내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p>美國</p> <p>原子力問題에 限해서는 安保理 事會議에서 強大國의 拒否權을 放棄하여야 한다。</p>	<p>原子力管理機關에 原料 및 原 子爐에 對한 獨占의 所有와 經 營의 機能을 賦與하여야 한다。</p>
<p>亞聯</p> <p>如何한 境遇를 莫論하고 強大 國의 拒否權을 認定하여야 한 다。</p>	<p>原子力管理機關은 原料 및 生 産施設에 對한 定期檢査와 協 別檢査의 權의 行使가 있을 때는 特 別檢査를 實施할 수 있는 權限 을 賦與하여야 한다。</p>

1358

一九五一年 十一月부터 五二年 二月에 걸쳐 巴里에서
開催된 UN總會는 東西兩陣營의 原子力管理와 一般軍縮
을 一元化하는 提案이 처음으로 論議되었었다。亞聯은 이
때까지 定期檢査만을 認定한다고 主張하던 것을 拋棄하
고 常時檢査를 認定하였었다。그러나 西方三國國이 軍縮에
있어서 段階的 方式를 尊重하고 漸進的인 軍備縮減을 實
施하자고 하는 點에 對하여는 亞聯이 五個國現有兵力의
三分之一로 縮少하자는 比例的減縮을 主張하였던 것이
다。亞聯이 이 點을 고집하는 裏面에는 尨대한 野戰軍을
保有하고 있으므로 西方側에 比하여 그 武裝兵力과 通常
兵器의 優劣를 占하고 있다는 強點을 繼續 保持하려는 데
있었다。反面에 亞聯이 原子兵器를 包含한 各國軍備의 公
布條件에 關하여 即時 禁止를 主張한 것은 當時 亞聯이
西方側에 比해서 原子兵器의 劣勢를 恢復하자는데 있었
다。그리하여 雙方間에는 아무런 合議點도 發見치 못하
고 이어 同年 五月 軍縮委員會에서 西方三國國은 美國·
亞聯·中共의 最高兵力을 各各 百五十萬名, 英佛은 八十
萬名으로 制限하도록 提案하였으나, 亞聯은 이를 拒否하
였다。一九五二年 가을부터 五三年 봄에 걸쳐 開催되었던

管理機關이 全面的으로 機能을
發揮하게 된 後에 禁止하여야
한다。 原子兵器는 即時 禁止하여야
한다。

第七次 UN 總會 直前까지의 東西軍縮提案의 要旨를 相互比較함으로써 이 時期의 軍縮思想을 把握하여 보기로 한다.

美 國	소 聯
原子兵器를 包含한 各國의 軍備를 公表할 것. 公表된 軍備는 段階를 따라 檢査確認할 것.	原子兵器의 製造와 保有를 無條件으로 禁止하고 原子力은 國際管理를 實施할 것.
公表와 確認이 끝난 다음에 各國이 保有할 均衡된 軍備水準을 決定할 것.	美·英·佛·소·中共의 現有 軍備를 三分之一로 縮減할 것.
原子兵器의 禁止와 原子力管理에 있어서의 「바르-쿠」案을 基礎로 할 것.	原子兵器의 使用 및 製造禁止와 五大國 軍備縮少의 決議가 採擇된 後 一箇月內에 原子兵器와 通常軍備의 公式資料를 提出할 것.
安保理事會管轄下에 國際管理機關을 設定하고(拒否權) 同機關을 原子兵器의 禁止와 軍備를 保障하기 爲하여 各國의 內政에 干渉치 않는 限에서 常時 檢査를 實施할 것.	國際管理機關의 設置 恒久的機關設置 拒否權의 認定

一九五四年度에는 軍縮委員會가 結成되고 同 委員會에 小委員會가 構成되어 五月十三일부터 六月二十二日까지 「런던」에서 開催되었던 双方의 軍縮案은 大幅讓歩하여 一九五四年은 軍縮이 거의 接近할 수 있는 地點까지

内容	英佛案(6.11)	소聯案(6.11)	소聯案(9.30)
雙方側			
段 階	3 段 階	無	2 段 階
期 間	規定없음	即 時	6個月~1年
軍事費 支出	1953年度 支出額으로 制限	1953~54年度 支出額의 三分之一로 減縮	1953年度 支出額을 基準으로 削減量의 50%씩 二回로 區分減縮
武裝 兵力과 通常 兵器	1953年未 水準으로 削減하고 削減量은 50%씩 二次로 나누어서 實施	1953年未 水準의 三分之一로 減縮	1953年未 水準으로 削減하지 削減量을 50%씩 二回로 나누어 實施
原 子 兵 器	①製造費 支出停止 ②製造停止 ③全의 廢棄 및 平和利用	製造 및 使用 直時 禁止와 貯藏量의 廢棄 및 平和利用	製造와 使用의 保障을 禁止하고 平和利用
國際管理機關	恒久的機關을 設置 拒否權의 廢棄	恒久的機關을 設置 拒否權의 認定	臨時機關의 設置 恒久的機關設置 拒否權認定
軍 事 基 地	保 留	廢 棄	不 言 及

지 到達한 時期였었다. 六月十一日 美國의 支持를 받은 英佛案과 소聯案이 同時에 提出되었으며 九月三十日 에

는 소聯의 大幅의 讓步案이 나왔었는데, 이때 双方案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上記한 英·佛案은 一九四六年 六月에 提示한 「바루크案」과는 差異點이 많다. 卽 「바루크案」中 原子力兵器의 獨占의 研究와 우라늄等 重要原料 및 施設의 獨占의 所有와 經營에 關한 條項이 削除되었으며 原子兵器의 漸次的 禁止를 認定한 것이다. 理由는 소聯이 原水爆을 保有하였다는 事實과 이와 併行하여 美國은 對 소戰略을 封鎖政策으로 부터 「뉴욕政策」으로 轉換한데 緣由가 있다.

소聯의 六月十一日 提案은 原水爆의 卽時禁止 그리고 通常兵器를 一九五三年末 現在의 三分의 一로 比例縮小시키고 拒否權있는 國際監視 또는 外國軍事基地의 撤廢等 從來의 主張을 되풀이 하였다. 그러나 九月三十日 에는 原子兵器의 無條件禁止를 主張하던 從來의 態度를 突變하여 優先 武裝兵力과 通常兵器를 減縮하고 漸次的으로 原子兵器를 禁止시키자는데 同意하여 東西軍縮會談의 核心은 가까운 距離로 接近하였었다. 소聯도 이때에 는 原爆의 貯藏이 西方側만은 못하더라도 소聯이 保有해야 할 原爆數量을 積置할 수 있는 段階에까지 到達하였었다는데 있었다. 또 하나의 重大한 意義는 戰後 原爆이 美國의 獨占인듯한 第三勢力國家의 認識을 是正하려는 目的

으로 이를 誇張하였었다. 이것이 直接的인 動機가 되어 大幅的으로 讓步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도 더 直接的인 原因이 된 것은 소聯의 軍縮妥協案이 提起될 當時 「런던」에서 九個國會議(美·英·加奈陀·佛·西獨·伊太利·白耳義·和蘭·북셀랜드)가 開催中이었으며 歐洲防衛共同體에 對峙한 西獨의 再武裝論이 討議되고 있었다. 西獨이 再武裝을 하는 同時 西歐聯合(WEU)과 北大西洋同盟에 加入시키는 問題가 成熟되어가고 있을 때였다. 그를 爲하여 巴里協定調印이 可望이던 時期라는 것을 想起한다던 소聯의 이번 軍縮案이 무엇을 意味하느냐도 알 수 있다.

戰後 소聯의 對 西歐政策이, 直接이나 間接으로 西獨 再武裝의 阻止라는 點에 關與하여 생각하면 이 問題가 明白하여 질 것이다. 그러나 소聯의 九月三十日案과 英·佛案間에도 解決할 수 없는 諸要件이 介在하기 때문에 軍縮問題는 一步前進한채 다시 停滯되고 말았다.

一九五五年 五月十日 「런던」의 軍縮小委員會에서 소聯代表 「마리크」는 軍縮 原子兵器禁止 및 冷戰威脅除去란 形式으로 새로운 提案을 한바 있는데 이는 一九五四年 九月案을 좀더 詳細히 說明한 程度였다. 卽 段階期間을 六個月乃至 一箇年으로부터 各各 一年으로 하였으며 五大國 兵力水準을 美·소·中共은 百萬名으로부터 百五

十萬名、英・佛은 六十五萬名으로 明示하였다. 原子兵器를 第一段階에서는 實驗을 停止하고 第二段階에서 말하자면 通常兵器의 七五%가 削減된 後에 全面的廢棄와 平和利用으로 轉用시키자는 것이다. 그리고 第一段階에서는 大規模의 兵力地點을 監視하기 爲하여 重要な 空港・港灣・鐵道 接續地點에 監視所를 設定하며 第二段階에 들어간 後 비로소 恒久的機關을 設置하자는 것이다. 西聯은 一九五五年에 軍縮案을 通하여 比較的 西方側案과 接近시키는데 加一層 讓步를 하였었다. 西聯은 왜 從來의 主張을 끝내 고집하지 않고 讓步하였는가?에 對하여 생각하여 보면, 첫째로 西獨의 再軍備가 現實化되었 으며, 둘째로는 西歐陣營이 原子戰爭을 決議하고 NATO의 戰略이 原子戰略으로 改編되었음을 들 수 있다. 一九五二年 五月 二十七日 西獨의 再軍備와 西歐軍事機構에의 編入을 核心으로 하는 EDC條約이 巴里에서 締結되자, 西聯은 西獨의 再武裝을 한사코 反對하였으며 이를 阻止시키려고 갖은 方略을 다하였다. 西聯이 西獨의 再武裝을 反對하는 表面의 理由로는 西獨은 二次에 걸친 世界大戰을 通하여 敗戰한 나라이며, 特히 二次大戰에서 西聯과의 戰爭은 가장 慘酷하였으며, 「게르만」民族의 固有한 보부심은 뿌리깊히 박혀있는데, 萬若 西獨이 再武裝을 하면 NATO같은 軍事블럭에 加入함으로써 原子兵

器를 導入한다면 반드시 그 銃口는 西聯으로 向하여 질 것이라는 戰爭危險性을 強調하였던 것이다. 그보다도 西聯이 걱정하는 일은 萬若 西獨과 西聯이 싸워야 할 境遇가 생긴다면 東獨은 반드시 「게르만」民族을 爲하여 싸울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不安은 더하였다. 西獨의 再武裝과 西歐共同防衛體에 參加를 承認함에 있어 가장 큰 期待를 가졌던 佛蘭西下院마저 一九五四年 十二月 三十日 아슬아슬하게 批准되었고 其他諸國은 一九五五年 五月 九日까지 批准이 完了됨으로써 西獨이 正式으로 NATO에 加盟되었다. 이에 唐慌한 西聯은 國際戰略을 再檢討하기 始作하였다.

西獨이 西歐防衛에 參加함으로써 防衛體制는 一層 鞏固하여 졌기 때문에 東西間의 「힘」의 均衡은 不可能하게 되었다. 이러한 西聯의 弱點은 마침내 一九五五年 五月 十日 世界軍縮으로서만이 補填되리라 믿었다. 그外로는 西聯軍首腦者들에게 原子戰의 可恐性이 認識되었으며 그러한 原子兵器를 目標地點까지 運搬하는 手段이 未備하였다는 것과 水素爆彈이 再登場하였다는 事實도 重要な 일이었다. 이러한 背景아래 提議된 西聯의 軍縮案에 어떤 企圖가 隱蔽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첫째, 各國軍備를 一九五五年末로 制限한다면, 一例로 西獨같은 나라는 無裝備狀態로 있어야 할 것이다. 卽 W

EU나 NATO 등 西歐防衛機構를 壞滅시키려는데 있었다.

둘째, 美國의 海外軍事基地를 減少시키고 對소包圍網을 崩壞시키려는데 主眼點이 集中되어 있다.

셋째, 五大國兵力의 規定에 있어서 美·소·中共은 百萬으로부터 百五十萬名으로 制限하고 있음은 中共을 暗裡에 世界五大國常任理事會의 一員으로 取扱함으로써 UN에서 中共의 地位를 正常化시키고 亞細亞聯邦國의 一會員國을 增加시키자는 데 있다.

네째, 五月軍縮案이 西方側과 接近된 妥協形式을 取한 것은 當時 四巨頭會談, 亞細亞條約締結, 亞細亞首腦와 티토 大統領과의 會談等 一連의 外交的 제스츄어라고 할 수 있으며 四巨頭會談에 앞선 平和攻勢인 同時 四巨頭會談에서 主導權을 掌握하여 보겠다는 野望術策이었다.

以上과 같이 「마리크」提案을 契機로 同年 七月 二十一日부터 四巨頭會談에서는 軍縮問題가 論議된 바 있었다. 同會談에서 「불가닌」首相은 大體의 으로 「마리크」提案을 되풀이 하였으며, 다만 五大國外的 兵力을 十五萬乃至 二十萬名으로 決定하자는 新規定을 添加하였을 뿐이다. 「아이젠하워」大統領은 「불가닌」首相의 如斯한 提案에 對하여 正발로 軍縮을 爲한 誠意가 있다면 靑寫眞의 交換과 空中査察權을 許容하자는 劃期的인 提案을 하였다.

四巨頭會談에서 西方側은 從來 全般的인 軍縮을 主張하던 것을 變更하여 限定된 軍縮도 用意가 있음을 表明하였다.

美 國	소 聯
原子兵器를 廢棄하기 爲하여는 科學的 査察方法을 研究하여야 하며 査察報告制度를 容認하여야 한다.	四大國이 먼저 原子兵器를 使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宣言하고 난 다음 他國에도 이를 宣言하도록 勸告한다.
奇襲攻擊을 防止하기 爲하여 雙方間에 軍事機構靑寫眞을 交換 다음 相對國으로 하여금 空中寫眞 촬영權을 許容하여야 한다.	軍縮과 同時에 原子兵器의 使用을 禁止하지, 敵으로 하여금 侵略을 받게 되면, 安保理事會가 使用해도 좋다는 決議가 있을 때는 使用할 수 있다.
確定된 査察報告制度가 成立되는대로 即時 全般的인 軍縮을 實施하여야 한다.	美·소·中共은 百五十萬、英·佛은 六十萬、其他는 十五萬、二十萬名을 超過치 못하며, 通常兵器의 七十五%가 削減되면 原子爆을 全面廢棄한다.
軍縮小委員會로 하여금 査察報告制度를 研究하도록 한다.	原子爆 爆發試驗을 中止하며 國際監視機構를 設置한다.

四巨頭會談에서 軍縮協商은 새로운 方向으로 進展되기 시작하였으며, 第三次軍縮小委員會를 八月二十九일부터 十月七日까지 「뉴욕」에서 開催하였으나, 이 會談은 四巨頭會談에서 提議된 案件을 具體的으로 說明하는 程度 밖에 아무런 發展도 없었다. 四巨頭會談의 指令에 따라

四大國外相會議가 十月二十七日부터 十一月十六일까지「제네바」에서 開催되였고, 이 會談에서 軍縮問題를 討議한 것은 十一月三日부터 三日間이었다.

四大國外相會議에서도 軍縮을 하여야겠다는 基本方針만은 異口同聲으로 是認되었지만 方法에 들어가서는 進展된 것이 없었다. 外相會議가 끝나자 十一月二十三日 是聯은 超大型原子兵器의 實驗에 成功하였다는 報道를 하였으며 美國도 科學的으로 이를 是認하였던 것이다. 是聯이 超大型原子兵器의 實驗에 成功한 것을 契機로 十一月三十일에 開催된 第十次 UN總會는 美·英·佛·加等 四國의 提案으로 軍縮小委員會 開催案을 可決하였었다. 一九五五年의 軍縮協商도 亦是 많은 宿題를 남긴채 一九五六年으로 넘어 갔을 문인데 이해에는 雙方이 軍縮의 緊要性을 認識한 決定的인 해였다고 할 수 있다.

一九五六年 三月十九일부터 五月四일까지「런던」에서 第四次軍縮小委員會가 開催되었는데 開會 初日 英·佛共同案이 提案되었다. 同提案은 四巨頭會談에서의 各種提案과 同 九月佛代表「모루크」氏의 構想을 綜合한 것으로서 比較的 細密한 點까지 指摘하였었다. 이 英·佛案은 美國案과는 多少差異가 있으며 特徵은 長期計劃이라는 點을 들 수 있다. 提案의 內容을 概觀하면 二段階로 分類되었을 문더러 特殊한 制限軍縮을 構想하였다고 볼 수

있다. 英·佛案이 提案된 後 三月二十七日에는 是聯이 提起되었으며 四月三日에는 美國案이 提議되었었다. 이 세가지 提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56. 3. 19 英·佛共同案	
<p>第一段階 (執行委員會는 前년에 全採擇하는 滿足一致로 採擇해야 함)</p>	<p>五大國은 通常兵器를 削減하며 攻擊을 받을 境遇外는 原子兵器의 使用을 拋棄한다. 軍縮協定 調印國은 五大國 外에 其他 十個國으로 構成하는 執行委員會를 選舉한다. 美國의 空中 查察案과 是聯의 地上查察案에 다른 國際 管理制度를 實施한다. 三大國은 兵器, 兵力, 軍事豫算을 現水準으로 凍結시킨다. 五大國은 軍備制限을 爲하여 世界軍縮會議를 開催한다.</p>
<p>第二段階 (執行委員會는 再檢討後 三段階로 移行함)</p>	<p>五大國이 合意된 通常兵器와 兵力削減量의 5%를 削減完了하며, 他國도 削減을 開始함. 軍事的目的을 爲한 核分裂物質의 製造停止. 核兵器의 實驗을 中止함.</p>
<p>第三段階</p>	<p>五大國은 殘餘 25%의 軍縮을 斷行하며 其他 國家들도 兵力을 減少시킨다. 核兵器의 使用을 全面的으로 禁止하고 各國의 核兵器貯藏은 그대로 認定한다. 五大國은 最終 25%의 軍縮을 斷行한다.</p>
<p>最終措置</p>	<p>核兵器의 貯藏을 없애는 方法을 檢討하기 爲하여 國際科學者會議를 開催한다.</p>

一九五六年度軍縮協商도結局 成果없이 지냈고、一九五七年에 들어서서 亦是 三月 十八일부터 軍縮小委員會가開幕되어 왔으며、第十二次UN總會軍縮委員會로 移管되었으나、最近 公聯은 人工衛星의 成功裡發射와 誘導彈分野에 있어서 美國보다 優位하고있어 協商에 不振한 無誠意를 보이고 있다. 公聯은 지난 四月 三十日案을 되풀이 固執할 뿐 寸步도 讓步한 氣色이 보이지 아니한 채 一九五七年도 넘겨 버렸다. 美國은 지난 八月 四일에 軍縮三段階方案을 提示하고、西方各國과 事前協議裡에 對 妥協을 模索하고있으나 公聯은 이를 拒否하고 있는 것이다.

第一方案 美國 및 「아라스카」, 그리고 加奈陀의 全領域을 開放하는 代身 公聯도 全領域을 開放하여 이를 監視下에 둔다.

第二方案 萬一 公聯이 第一方案을 拒絶할 때 西方側은 北極圈안의 開放이라도 討議할 用意을 示唆했으며、開放地域은 「아라스카」·「카나다」·「그린랜드」의 一部가 包含되며、한편 公聯도 그 北端部와 「시베리아」一部를 包含되도록 한다.

第三方案 萬一 公聯이 第一·第二案을 모두 拒否할 때 太平洋沿岸으로부터 우랄山脈에 이르는 歐羅巴全域을 開放할 것을 提議하였다.

그러나 公聯은 이를 全面的으로 拒否하고 나온다.

三、結 論

東西強大國들의 軍備를 制限함으로써 世界平和를 維持해 보겠다는 UN憲章精神은 美·公聯의 偏重的 軍力集中으로 因하여 協商開始以來 十餘年이 經過한 今日에 이르러 十餘年 동안의 協商經緯로 보더라도 美·公兩國

은 그때 그때 必要에 依한 國際情勢가 協商全體를 左右하여 왔었다. 最近에 와서는 그보다도 會談決裂에 對한 責任轉嫁에 오히려 協商自體보다도 더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一九五八年以後 앞으로의 軍縮協商은 超科學競爭의 相互背馳를 前提로 한 試金石의 道場으로 化할 可能性이 濃厚하다.

(筆者 情報局 評價課長)

戰機는 「이스라엘」에서 무르익다

— 이스라엘은 적의 공격준비를 두려워 하고 있다. —

外 誌 에 서

또 하나의 아랍·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중동(中東)에 있어서의 쓰련의 손놀림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공산주의자들의 최후의 목표는 「아랍」 제 국가를 무장시킴으로써 미군이나 연합군을 중동지역으로부터 몰아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격적으로 이 계획을 진척(進捗)시키고 있다.

만약 「아랍」 제 국가가 완전히 무장되지만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고 따라서 전(全)중동지역에 불을 지르게 되는 것이다. 위험은 바로 이점에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미국측으로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위험지역인 중동에 있어서의 쓰련의 두가지 동태를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쓰련은 「아랍」석유의 서구(西歐)로의 유출을 막고 이 지역내의 미국의 전략기지(戰略基地)를 무력화(無力化)하며는 신중한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쓰련의 무기나 정치적인 영향을 퍼뜨리기 위하여 「아랍」 제 국가의 「이스

라엘」에 대한 전통적인 증오(憎惡)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 주일 유·엔 사무총장(대·참마숄드)씨의 조속한 중동방문 결정의 때후에는 이 아랍·이스라엘 간의 새로운 소요(騷擾)가 개재(介在)하여 있었다. 그러나 이 결정이 공포되기 전에도 이미 한 이스라엘 관리(官吏)는 쓰련의 전략을 간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쓰련은 현재 애급(埃及)의 「스에즈」 운하관리를 통제하고 있으며 또한 「프티올리」에 있는 미(美) 공군기지의 전투반경(戰域)에 들어 있다.

그들은 「서리아」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뒤로는 「예멘」까지 비행기 기지를 공급하고 있다. 「예멘」에서는 「싸우티·아타비아」의 「다이란」에 있는 미 공군력을 저지시킬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홍해(紅海) 양단(兩端) 지역을 제압하기 위하여 「아·멘」에도 손을 뻗치려 하고 있다.

쓰련이 바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

는 때 특별한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중동의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만 생각되면 공산주의자들은 당장 「아랍」의 「이스라엘」 침공을 원조할 것이다.」

☆ 「요르단」에 대한 걱정거리

쓰련의 「씨리아」 침입(侵入)은 애급(埃及)에 있어서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고 「이스라엘」 관변측에서는 말한다. 그들이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요르단」에서



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르단」의 청년층 친소(親蘇)관인들이 정권만 쥐면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쓰련 무장을 한 「아랍」인으로 구성된 세계의 적전선(敵前線)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군사정보에 의하면 현재 다수의 「씨리아」의 조종사들이 쓰련에서 쓰련제 「젯」기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씨리아」의 수병(水兵)들은 「몰덴드」

에 가서 「씨리아」의 「라타키아」 항(港)에 구축되고 있는 해군기지(海軍基地) 작전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면 쓰련 「이스라엘」의 전 주위(全周圍)에 이와 같이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

는 때 대하여 「이스라엘」측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스라엘」 국방부의 일 요직에 있는 장교가 지도를 보며 현재 「이스라엘」이 부닥치고 있는 제(諸)위협성과 기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중앙 벌이 겨우 十二마일밖에 되지 않는 코두보(橋頭堡)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전(全) 주위를 「아랍」인의 의하여 포위당한 이상해로(海路)나 공로(空路)를 통하여서밖에 우리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전략가에게도 골치덩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위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토 안에서 싸운다면 그것은 벌써 우리가 전쟁에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해야 할 국경이 너무도 많은 반면 후퇴할 곳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융통성(融通性)있는 공세적(攻勢的)인 전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탱크부대와 낙하산부대를 출동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출물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전쟁은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일 내지五日이면 승패(勝敗)는 결정될 것입니다.」

☆ 「아랍」軍의 評價

「이스라엘」육군(陸軍)의 전 부대를 통하여 그들은 작년 「스에즈」운하문제로 싸운 것이 상으로 존병히 아랍군과 대결해낸 것이라는 자신만만(自信滿滿)한 예언을 들을 수가 있다. 육군이 존속(存續)하는 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아랍」군을 별로 개의(介意)치 않아도 좋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층 장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랍」육군은 하나의 사회학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통솔면에 있어서 약하다. 그들의 장교들은 무까지 정치적 음모속에 잠겨 있다. 그리하여 군대내의 정치적 숙청(肅清)으로 인하여 그들은 빈번히 훌륭한 장교들을 잃고 있다.

행정(行政)과 군수(軍需)업무에 있어서도 그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의식적(儀式的)인 전쟁을 하려

다. 그들은 영웅적(英雄的)으로 적에게 물적할 뿐이지 그 뒤에 따르는 보급(補給)이나 행정(行政)에 관한 작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랍」인들은 자아비관(自我批判)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급자(下級者)는 상급자에게 전장(戰場)의 진상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일찌기 「시나이」전역(戰役)에서 우리가 이용한 바 있는 일종의 혼란(混亂)이 야기된다. 당시 「에질트」의 조종사들은 허허벌판에 폭탄을 퍼붓고 돌아가서는 「델·아비브」를 불바다로 만들었다고 보고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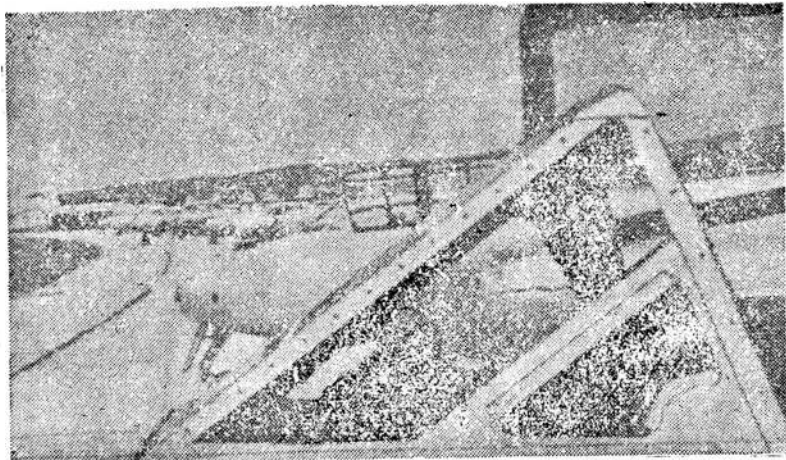
< 「이스라엘」의 전사(戰士) >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군사(軍事家)들은 만약 훌륭한 지휘자(指揮者)만 갖는다면 「아랍」인도 훌륭한 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한가지 일은 「아랍」인이 권요(權要)하는 일종의 세련(洗練)된 리더십(Leadership)을 마땅히 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무대 뒤에서 활약하는 쓰면 군사고문(軍事顧問)은 「아랍」등명군(等名軍)에 새로운 조능(效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쓰면 장교(將校)에 의하여

☆ 指導權의 問題



< 「이스라엘」공군의 「썬트」기 >

계회되고 지도되는 대(對) 「이스라엘」전은 「아랍」인들 자신이 회책하였던 어떠한 전투나 공격보다도 조작(조작)하기가 어렵은 것이다.

썬트의 지원(支援)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는 「아랍」군사력(軍事力)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군은 고도로 조직화(組織化)되고 있다. 一八세 이상 三九세까지의 모든 신체건강한 남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훈련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되어 있다. 그래서 四十八시간 이내에 二五만의 군대를 출동시킬 수가 있다.

「이스라엘」은 전국경선상에 보충을 세워 감시할만큼 많은 병력을 현역(現役)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국경 근처에 산재(散在)해 있는 농장(農場)들로 하여금 국경감시를 시킨다. 모든 농장은 각각 병기고(兵器庫)를 가지고 있어서 저기엔 소부기(小

武器)가 잔치되어 있다. 그래서 기습을 받았을 경우에 원군(援軍)이 도착할 때까지는 그것으로 적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이 나라는 대부분의 탄약이나 기뢰(機雷), 소화기(小火器) 등을 자국생산(自國生産)하고 있다. 그들이 보병용(步兵用)으로 제작하는 소형 경기관총은 그 성능(性能)이 매우 우수하여 외국(外國)에서 도사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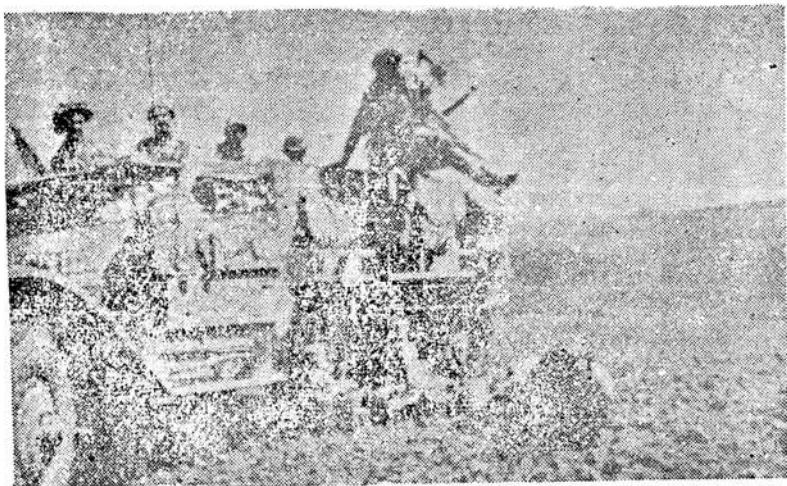
☆ 空軍力の 貧困

「이스라엘」의 커다란 군사적인 약점은 고사포, 탱크, 비행기 등 중무장이 빈약한 것이다.

작년에 「에집트」의 전리품이 된 그들의 다수의 장비(裝備)는 겨우 그 일부밖에 쓰지 못할 것들이었다. 한 병기장고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우리는 작짜이 장비를 얻었다. 어떤 것을 부분품의 여분(餘分)이 없는 장구였고 어떤 것은 부분품만이 있을 뿐 원체(元體)가 없는 것들이었다.」

중무기(重武器)에 있어서는 그들은 주



< 이스라엘의 육군과 장갑차의 모습 >

로 불탄서애 의존하고 있다. 국방부 관변측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에질트」 공격전에 불탄서로부터 「四만」톤에 달하는 장비를 철조받았으며, 만약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장비라도 얻을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지난해에「에질트」 공격시와 같이 먼저 사격(射擊)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그 때로부터 쓰면은 중동(中東)으로 향하여 움직였으며「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사태는 물러나 버렸다. 한 예(例)를 들자면「이스라엘」의 공격은 쓰면에게 그들의 공작원(工作員)들은 이미「에질트」나「서리아」,「에멘」등에 소굴을 정하고 있다.

중동으로 그들의 「의용군」(義勇軍)을 진격시키며 그들간의 유대(紐帶)를 더욱 공고히 할 구실(口實)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이스라엘」 관변측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중동문제엔 미·프랑스국이 다 짊어진다. 해방군을 가지고 관여(關與)하기 때문에 국부적(局部的)인 사적전은 급속히 대병력의 동원을 초래하여 전세계에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리

고「아랍」국가들이 먼저 전쟁을 초발(挑發)하는나 않는 것은 앞으로의 八년간이「결정적인 기간(期間)」이라고「이스라엘」 방위계획위원들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一九六五年쯤엔 우리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이민(移民)에 의해서 四백만 내지 五백만의 인구(人口)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에 가서「아랍」국가군이 八천만의 인구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서블리 우리들 공격해오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중동의 석유는 지금처럼 중요한 가치를 갖지 않게 된다.

그것은 남미(南美)나 「이란」, 「티비하」 「사하라」 등지의 새로운 유정(油井)들이 발굴되어 현재 중동의 석유의 위치에 대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까지엔 「핵」(核)에너지가 유익의 연료수요(燃料需要)에 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豫測 — 자라날 危險

그러나 이러한 희망되는 변화가 오기까지엔「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적이 전보다 더 위험성을 지닌다는 것과, 「아랍」을 지원하는 쓰면의 무기와 재력(財力)으로써「아랍」국가군이 강화되면 될수록 위험성은 점점더 커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宇宙船內의 生活은

어떠한 것일까

H·스트리그홀드 博士

序文

소聯은 개를 실은 人工衛星을 發射하였거니와 人間은 언제쯤 宇宙를 旅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地球의 大氣를 넘어 最初로 宇宙를 飛行하는 人間の 肉體와 健康은 어떠한 障害에 부딪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問題에 對해서 航空醫學의 世界的 權威者인 「유버터스·스트리그홀드」博士에게 물어 보기로 한다.

「스트리그홀드」博士는 美空軍航空

醫學校 宇宙醫部部長이 있으며 現在는 「텍사스」洲 「덴폴드」空軍基地에서 空軍航空醫學顧問으로 있다.

△博士와의 一問一答

〔問〕 「스트리그홀드」博士님, 人間은 언제 安全하게 宇宙를 旅行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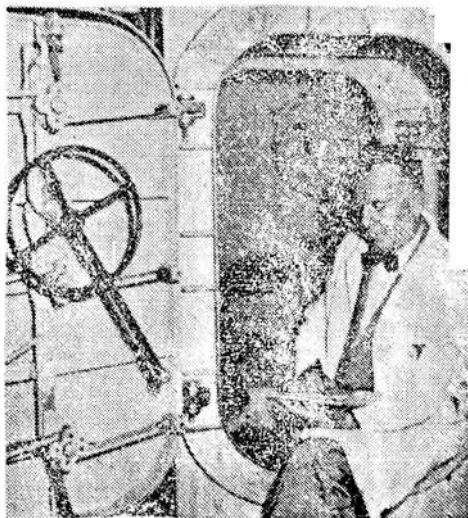
〔答〕 人間の 宇宙旅行을 準備함에 있어서는 어느 點에서는 醫學이 技術보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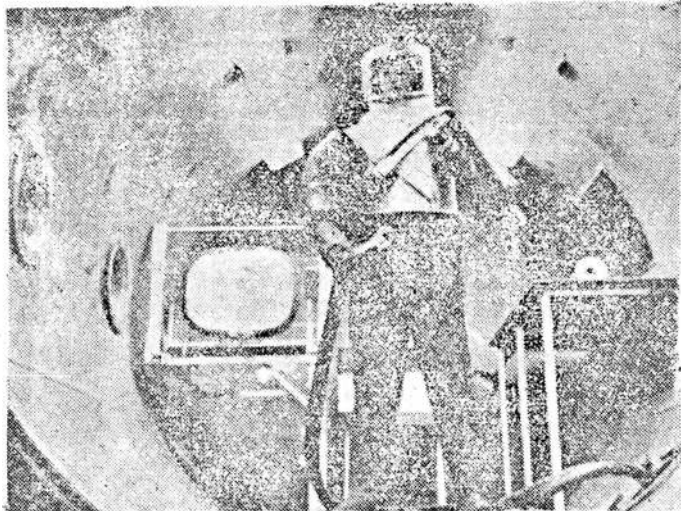
醫學上の 主要問題는 앞으로 三年 乃至 五年內로 解決되리라 믿습니다. 이 많은 問題가 解決되고 있으니까요.

〔問〕 宇宙旅行에서 人體가 遭遇하게 될 障害는 무엇입니까?

〔答〕 한 問題는 高度 六五、〇〇〇呎에서는 氣壓이 事實上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氣壓이 없어야만 人體가 酸素를 吸收할 수 있고 또한 體內의 流動體가 蒸發하는 것을 防止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保護策도 없이 高度 六五、〇〇〇

〈「宇宙」캐빈 안에서 研究하는 「스트리그홀드」博士.〉





< 宇宙旅行者는 密閉된 與壓「캐빈」안에서 旅行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與壓服을 着用하게 되리 라고 한다. >

眼 上空에 올라가면 體內的 流動體는 短時間內에 蒸發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壓力의 見地에서 말하자면 高度 六五、〇〇呎에 達하면 우리는 이미 宇宙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美空軍

의 「데이비트·시몬즈」少領은 最近 高度 十二萬呎까지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現在까지 알려진 바에 依하면 「시몬즈」少領은 健康에 아무런 좋지 않은 異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問) 蒸發로부터 人間은 어떻게 保護하는 것입니까?

(答) 與壓「캐빈」이 그 일을 해줍니다. 低高度에서는 「폼프레써」를 가지고 外氣로부터 酸素를 取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高度 七萬乃至八萬呎에서는 이것은 不可能합니다. 그러한 高度에서는 內部에서 「캐빈」을 與壓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壓縮空氣「탱크」를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飛行에 必要한 與壓「캐빈」은 事

實上 宇宙「캐빈」입니다. (問) 그 밖에 豫想되는 危險에는 모두 것이 있습니까?

(答) 우리가 더욱 더 높이 上昇함에 따라서 우리는 宇宙飛行의 醫學的 問題에 한가지 한가지 부딪치게 됩니다. 첫째로 酸素問題、그 다음에 壓力問題에 부딪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紫外線과 宇宙線問題에 부딪치게 됩니다.

우리는 地上에서는 太陽光線으로 부터 保護되고 있습니다. 太陽光線은 「필터」의 役割을 하고 있는 大氣에 吸收되니까요. 그러나 高度 十二萬乃至十四萬呎程度에서는 우리는 人間이 搭乘한 人工衛星 안에서 받는 放射線과 거의 같은 量의 放射線에 露出될 것입니다. 高度 二十五哩乃至七十五哩에서 우리는 隕石과 微隕石에 遭遇하게 됩니다. 隕石의 危險이라는 見地에서 말하자면 高度 七十五哩에 達하면 우리는 宇宙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高度 一二〇哩에서는 우리는 大氣의 마지막 「機能境界線」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 高度에서는 아무리 飛行機가 한

의 난을 지라도 空氣의 「서포르트」를 받
지 못합니다. 아직도 若干의 空氣는 있
지만 極度로 稀薄하기 때문에 抗力을
거의 가져오지 않습니다.

(問) 이것은 人體에 어떠한 障害를 가져
오는 것입니까?

(答) 宇宙에는 溫度가 없습니다. 大氣속
의 溫度는 主로 空氣分子의 運動의 結
果입니다. 空氣分子가 移動하고 衝突합
으므로 熱이 發生하는 것입니다. 그러
나 宇宙에는 空氣分子가 별로 없기 때문
에 衝突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 高度에서의 飛行體의 溫度는 純全
히 太陽光線에 依하여 左右됩니다. 太
陽을 向하고 있는 쪽은 太陽光線에 依
해 더워지고 다른 쪽은 熱을 喪失하고
차거워 집니다. 그러나 飛行體의 周圍
는 뜨겁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與
壓「케빈」은 때에 따라서 暖房 또는 冷
房裝置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問) 宇宙線은 危險한 것입니까?

(答) 그 危險性은 生覺한 것보다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시몬즈」
少領은 아무런 保護裝置없이 宇宙에서와

똑 같은 宇宙線에 約三十時間 동안 露出
되었는데 아직도 醫學的 「레스트」를 하
고 있는 중이지만 現在까지는 아무런
異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問) 宇宙飛行은 三十時間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繼續되는 데 어떤 保護裝置가
必要하지 않겠습니까?

(答) 平常한 본래의 宇宙微分子는 「알미
늄」板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微分子는 「알미늄」에 衝突할 때 二
次的인 宇宙線을 發生하는데 그것은 더
욱 平장합니다. 우리는, 본래의 적은
宇宙線과 많은 二次的인 宇宙線의 그
어느 쪽이 더 危險한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問) 宇宙船은 乘客이 數週日 동안이나
生存할 수 있을만큼 充分한 酸素를 搭
載할 수 있습니까?

(答) 問題는 非單 酸素問題뿐만이 아닙
니다. 우리는 與壓「케빈」內部에서 自動
적으로 再生되는 人工大氣를 만들어 내
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非單
酸素를 代置할 뿐만 아니라 炭酸「가스」
와 濕氣를 除去하고 溫度를 調節하는

裝置가 必要한 것입니다.
우리는 「펜들르」空軍基地에서 이 問
題를 研究中에 있습니다. 우리는 現在
一人用 宇宙「케빈」을 하나 가지고 있는
데 이것은 地上에서 某種의 宇宙狀態를
造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二人
用 宇宙「케빈」하나를 方今 또 建設中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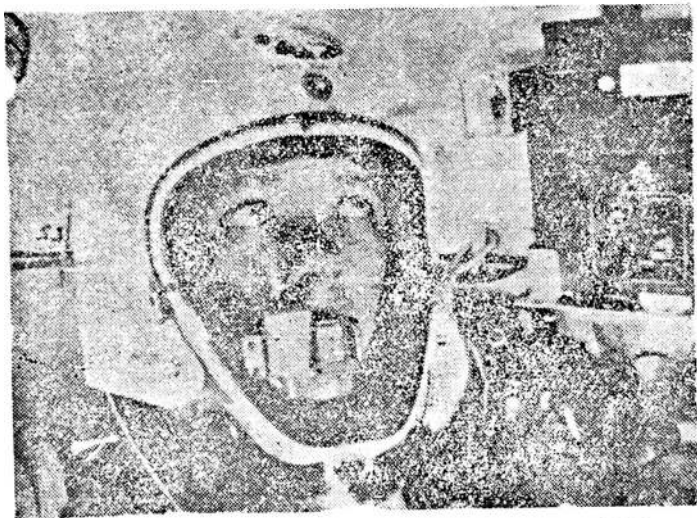
裝置가 必要한 것입니다.

充分히 쓸 수 있는 量을 搭載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問題가 數週日 或
은 數個月로 되면 다른 方法이 必要한
것입니다.

(問) 長期飛行에 必要한 人工空氣는 어
떻게 充分히 供給할 수 있겠습니까?

(答) 大氣를 再生하는 生物學的 方法이
必要할 것입니다. 植物이나 海藻類와
같은 것이지요. 이 問題를 解決하기爲
한 研究가 進行되고 있습니다. 이룰 때
엔 炭酸「가스」를 消耗하고 人間의 生命
을 維持케 할만큼 充分한 量의 酸素를
發散하는 一種의 海藻類를 發見하고 있
는 것입니다.

(問) 與壓「케빈」이 비단칸 새계되면 어



<宇宙의 先驅者—美空軍의 軍醫官「데이비드」시몬즈少領, 是은 實驗用 氣球로 많은 時間을 宇宙의 번두리에서 보냈다.>

떻게 됩니까?
〔答〕 乘客들은 下層의 大氣속으로 降下할 때까지 與壓服을 着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問〕 이 與壓服은 人間의 人工衛星이나 或은 宇宙船에서 나와서 스스로 宇宙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宇宙服과 同一한 것입니까?

〔答〕 바로 그렇습니다.

〔問〕 우리는 그러한 宇宙服을 가지고 있습니까?

〔答〕 네, 短時間동안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問〕 宇宙飛行에서 重量이 없는 狀態의 問題에 對한 醫學的 解決策은 무엇입니까?

〔答〕 人工衛星의 搭乘員은 重量이 없는 狀態에서 돌아다니고, 食事를 하고, 잠자는 일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도구를 받지 않고는 家具 食物 等과 마찬가지로 자라도 亦是

虛空에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椅子, 食器, 구루 等에 磁石을 利用할 수 있는 것입니다.

醫學上으로는 血液循環과 消化가 어떠한 影響을 받느냐 하는 問題가 있습니다. 그러나 醫學的 問題는 重大한 것이 아닙니다. 重量이 없는 狀態는 이미 彈道弧로 飛行하는 「로켓트」飛行機 안에서 三十秒 乃至 四十秒라는 短時間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벤틀리와 恰似하게 속이메시끄운 것을 經驗한 飛行士도 있지만 飛行士의 半數는 아무렇지도 않았읍니다.

重量이 없는 狀態에 關한 限結局에 는 그 狀態를 完全히 冒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萬若에 宇宙船을 廻轉시킬 수 있다면 遠心力이 乘客에게 重量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重量이 없는 狀態를 物理學的, 心理學的 或은 醫學的 問題를 取扱할 必要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 問題는 工學的 解決策으로 防止할 수 있는 것입니다.

(發聲露)

美國은 아직도 誘導彈 競爭에서 勝利할 수 있는가?

— 人工衛星과 ICBM 問題를 圍繞한 世界的 權威者들의 見解 —

朴 喜 永 譯

『美國은 一九六〇年에 實戰用 ICBM을 保有할 수 있다』

「레이더·본·칼먼」博士와의

一問一答

〔問〕 「본·칼먼」博士님, 美國은 「로켓로 모터」, 「로켓트」燃料, 長距離誘導彈等의 發展에 있어서 絲聯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答〕 그다지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는 생 覺지 않습니다. 그러나 美國은 「로켓트」建造를 爲한 새로운 燃料과 材料를 探究함에 있어서 速度가 緩慢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主要한 缺陷은 우리의 研究發展計劃의 組織方法에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發展段階에 들어 가기까지에 너무도 오랜 歲月을 要하고 있습니다. 이點 絲聯에서는 組織 織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問〕 絲聯이 人工衛星을 發射하였다는 事實은 大陸間彈道誘導彈生產에 關係되는 諸般問題를 解決하였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입니까?

〔答〕 豫告된 人工衛星의 軌道로 미루어

보아 絲聯은 誘導彈의 誘導問題解決에 接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人工衛星은 그 軌道에 매우 正確하게 發射되었 으며 이 事實은 相當히 正確한 誘導을 示唆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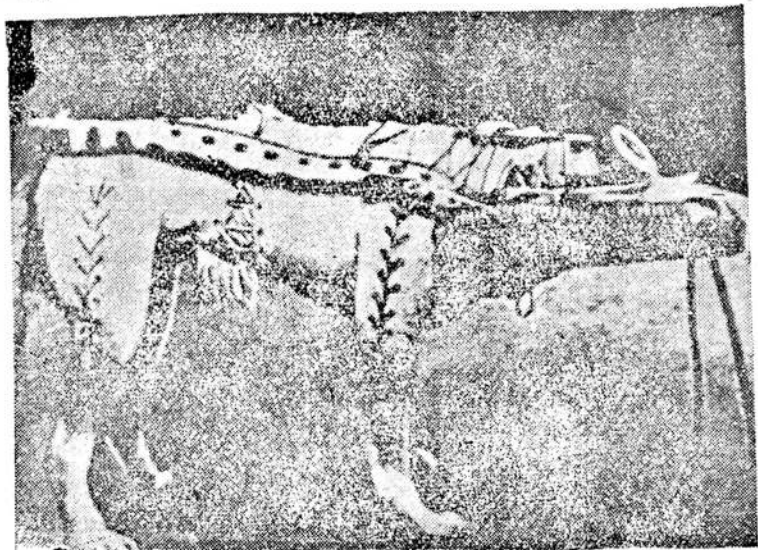
〔問〕 人工衛星이 보여준 誘導의 正確性으로 미루어 보아 ICBM은 目標에 어느程度 가까이 落下하겠습니까?

〔答〕 우리의 如何한 基地에 對해서도 損害를 加할 수 있을만큼 가까이 落下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鐵筋으로 地下에 建設된 施設과 같은 「堅固한」目標도 破壞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爲해서는 굉장한 爆發力이 必要할 것입니다. 그러나 兵員, 地上의 飛行機, 普通建物等에 對해서 莫大한 損害를 加할 수 있을만큼 充分히 飛行場 가까이 落下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都市를 破壞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問〕 그렇다면 正確한 것이 아닙니까?

〔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問〕 그럼 絲聯은 이미 ICBM의 誘導 問題를 解決하였다고 보십니까?



<宇宙服을 입은 개……소련科學者들은 實驗用 動物로서 개를 使用한다.>

(答) 네, 그렇습니다.

(問) 美國은 아직도 I C B M 競争에서 勝利할 可能性이 있을까?

(答) 美國은 努力만 한다면 아직도 勝利할 可能性이 있다고 確信합니다.

(問) 어떻게요?

(答) 보다 더 簡單한 것에 努力을 集中함으로써, 다시 말하자면 「로켓」의 部分品을 減少시킴으로써 可能한 것입니다. 우리는 一九六〇년에는 實戰用 I C B M 을 保有하게 되리라고는 確信합니다. 소련이 그 이전에 實戰用 I C B M 을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誘導彈을 生産하고 그것을 整備, 操作할 사람을 訓練시키

는데 더욱 拍車를 加함으로써 喪失한 時間을 메꿀 수 있을 것입니다.

(問) 美國은,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돈을 消費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答) 더욱 많은 돈이 必要하고 誘導彈 發展을 擔當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自由를 주어야 할 것이며, 三軍間의 無益한 競争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問) 各軍間의 競争은 어떻게 除去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答) 各種誘導彈을 責任지는 機關이 各 있어야 합니다. 卽 長距離誘導彈을 爲한 機關이 하나 있고, 中距離誘導彈을 爲한 機關이 하나 있고, 短距離誘導彈을 爲한 機關이 하나 있는 式으로.

(問) 소련은 人工衛星을 發射함으로써 根本적으로 무엇을 達成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答) 소련은 主로 示威運動을 할 것입니다. 그들의 能力을 世界에 誇示한 것입니다. 그리고 人工衛星 第二號는 그들이 새로운 種類의 燃料을 發展시켰거나 그렇지 않으면 高溫에 견딜 수 있는 「로

케트[材料]를 發見함으로써 現在의 燃料에서 더욱 큰 能率을 얻는 方法을 發見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습니다. 萬若 그렇다면 이것은 큰 일을 達成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읍니다.

(問) 美國이 萬若에 必要한 努力만 하였더라면 蘇聯이 人工衛星을 發射함으로써 達成한 일과 同等한 일을 達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美國은 最少限의 重量과 크기의 人工衛星을 發射키로 作定하였읍니다. 둘째로는 軍用「로켓트」는 使用치 않기로 決定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決定이 果然賢明한 것이었는가는 오늘날 스스로 判斷할 수 있는 것입니다.

(問) 美國은 「스푸르니크」二號와 重量이 同一한 人工衛星을 發射할 수 있는 軍用「로켓트」를 保有하고 있읍니까?

(答) 美國의 「에틀라스」나 「타이탄」 「로켓트」는 그와 크기가 같은 人工衛星을 發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蘇聯의 「로켓트」는 最初의 離陸重量이 四〇〇 噸 卽 八十八萬 「파운드」에 達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데 이것은 誇張된 말인지도 모릅니다.

一, 「一八」 「파운드」라는 「스푸르니크」二號의 重量은 單純히 換價荷重이 아니라 第三段「로켓트」의 重量도 包含하고 있을지도 모읍니다. 「스푸르니크」二號의 重量을 發表했을 때처럼 萬若에 이것을 除外한다면 「스푸르니크」二號의 離陸重量은 二〇〇 噸 乃至 二五〇 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타이탄」이나 「에틀라스」 「로켓트」의 能力範圍內에 屬합니다.

그리고 蘇聯은 第一段「로켓트」를 運搬飛行機로 濃密한 大氣권으로 싣고 가서 發射한 可能性도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技術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強力한 「로켓트」를 가지므로 人工衛星을 發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問) 蘇聯이나 美國이 人間을 싣은 人工衛星을 發射할 수 있는 時期는 가까워졌다고 보십니까?

(答) 技術的인 問題보다도 醫學的인 問題가 더욱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물대면 實驗結果에 依하면 動物은 重量이 없는 狀態를 싫어하지 않지만 人間에게는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美空軍에서는 무마리의 위가 空中에 떠있는 「레니스」 공을 가지고 노는 光景을 撮影하였는데 이 寫眞을 보면 위가 單純히 그것을 재미있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人間の 頭腦는 다르게 反應을 表示하며 心理的으로 重量이 없는 狀態에 數分以上 견디어 낼 수 있는냐 하는 것은 아직 分지 않습니다.

그리고 運用上 困難도 있습니다. 人間이란 人工衛星은 값비싼 물건일 것입니다. 脫出裝置— 卽 人工衛星의 乘客으로 하여금 衛星에서 나와 大氣속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 「파라슈트」로 地上에 내려가게 하는 「로켓트」 글라이더」를 만든다는 것은 可能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人工衛星을 喪失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單純히 乘客을 脫出시키는 것보다는 乘客을 代置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人工衛星으로부터 乘客을 脫出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代置시킨다는 것은 더욱困難한問題입니다. 衛星은 굉장한速度로 움직입니다. 燃料을 補充하기爲해서 「부스터」 로켓트를 裝置한 給油機를 그 軌道위에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곳저곳으로 움직

△「달리사카」라고 하는 이 개는 數次 飛行하였다. 密閉된 宇宙「艙室」 안에서 每番「파리슈트」로 無事히 歸還하였다. ✓

이는 것보다는 「파이프」를 通해서 燃料을 注入하는 것이 훨씬 容易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굉장한 速度에서 接觸하기爲해서는 給油機의 正確한 「콘트롤」이 必要합니다. 이것은 不可能하지 않지만 오랜 訓練을 要할 것입니다.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앞으로 十年乃至十五年은 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問〕 人工衛星이 軍事的 價値를 갖게 되면 어떻게 더욱 發展되어야 합니까?

〔答〕 人工衛星 그 自體는 武器로서 使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人工衛星은 매우 効果的인 偵察手段이 될 수 있으며, 이 問題는 매우 慎重히 研究되어야 할 것입니다.

人工衛星은 또한 長距離誘導彈의 正確性을 增進시키는 데 利用할 수도 있습니다. 現在 彈道誘導彈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는 「핀아우트」 로인트」以後에 그 彈道를 變更시키지는 못하고

1377

있습니다. 그러나 飛行中에 彈道를 矯正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小型「로켓트」를 그에 追加한다는 것은 可能할 것입니다.

人工衛星을 通해서 誘導彈에 或은 그 反對로 「命令」을 傳達할 수 있고 誘導彈안에 器械을 裝置하여 人工衛星을 照準「함으로써 그 自體의 彈道를 矯正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人工衛星의 位置는 正確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問〕 現在の 蘇聯 人工衛星과 美國이 「베가아드」計劃으로 現在 發展시키고 있는 人工衛星은 軍事的 價値가 있는 것입니까?

〔答〕 直接的으로는 없습니다. 軍事的 價値를爲해서 建造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誘導彈計劃에 도움이 될 大氣의 濃度, 宇宙線, 隕石, 地球의 磁氣 등에 關한 情報을 獲得할 수 있습니다.

地球의 磁界를 測定함으로써 地球의 形態를 더욱 正確하게 알 수 있으며 이 情報은 世界地圖을 是正하는 데 使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正確한 地圖는

長距離誘導彈을 目標에 誘導하는 데 없
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問) 우리는 人工衛星에 置重하여야 하
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軍用誘導彈에
만 置重하여야 하겠읍니까?

(答) 우리는 誘導彈分野에 있어서와 마
찬가지로 人工衛星에 對해서도 큰 努力
을 傾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는 統合할 수 있는 것입니다. 軍
部와 科學委員會들이 同心全力할 수 없
다는 理由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스·본·칼먼」博士 紹介



「본·칼먼」

博士는 當年

七十六歲의

世界的으로

有明한 「로켓

트」 및 誘導

彈의 科學的

權威者이다. 約十二年前에 그는 美
空軍을 爲하여 人工衛星, 大陸間彈
道誘導彈, 宇宙航法等, 보다 進歩한

것으로 생각된 特殊研究를 하였다.

「항가리」胎生인 「본·칼먼」博士는

一九二八年 現在, 그가 空氣動力學

名譽教授로 있는 「켈리포니아」工科大

學에서 教鞭을 잡기 爲하여 美國

로 건너왔다. 「칼테크」에서 그는 美

國最初の 「켓트」推進力實驗所를 創

立하였다.

「본·칼먼」博士는 一九五二年 以

來 NATO의 航空研究發展諮問委

員會議長으로 活躍하고 있다.

「소聯은 宇宙의 支配者가 되려는

野望을 품고 있는 것이다.」

「켈러·R·돈버거」博士와의

一問一答

(問) 「돈버거」博士님, 우리는 「소聯의」스

푸르니크와 同一한 重量의 人工衛星

을 發射할 수 있는 軍用「로켓트」를 保

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答) 네, 保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最
初의 「로켓트·부스터」들 우리의 武器

를 實驗하고, 우리의 防衛態勢을 確立
하는 데 使用할 것이냐 或은 이 「로켓트」
를 科學的 目的을 爲해서 使用할 것이
냐 하는 것은 軍當局의 決定如何에 달
려 있는 것입니다.

(問) 다시 말하자면 이 「로켓트·부스터」

란 것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答) 네, 아직 많지 못합니다.

(問) 「소聯」도 亦是 이 「로켓트·엔진」을

使用에 있어서若干 慎重을 期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答) 「소聯」은 우리가 現在 突入하고 있는

人類生活의 새로운 局面을 우리 以上으

로 認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

바다, 하늘에 있어서 마침내 宇宙는 征

服되어야 할 第四의 「미디엄」이 되었읍

니다. 宇宙는 人間이 搭乘한 宇宙船과

彈道「로켓트」 등이 行動하고, 航空하

고, 機動할 곳입니다.

英國이 數百年동안 바다의 支配者였

던 것처럼 「소聯」은 宇宙의 支配者가 되

려는 野望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하여 이것을 目標로 「소聯」은 宇宙를 征

服하고 宇宙에 關한 모든 것을 發見하



〔소련「로켓」의 頭部에 裝置된 器械속에 개를 넣고 있는 光景〕

기爲하여—그들의 武器에 宇宙를 어
떻게 利用할 수 있고 科學的 目的을爲
해서 는 어떻게 利用할 수 있는가를 發
見하기爲하여 그들의 軍用「부스리」—
部를 使用한 것임니다.

〔問〕 소련은 이 「스푸트니크」를 發展시
키기爲하여 많은 時間과 勞力을 들였
다고 생각하십니까?

〔答〕 소련은 그게 많은 勞力을 들였다
고 生屬합니다만 方便 그들은 이 計劃
에若干 먼저 着手한 것임니다. 소련은
一九五三年에 着手하였으나 우리는 一
九五五年까지는 着手하지 않았던 것입
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욱 時
間的餘裕를 가지고 있었던 것임니다.

〔問〕 소련이 人間을 대운 衛星을 宇宙에

發射하려면
아직 얼마나

멀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答〕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人工衛星二號

에 개를 실었

다는 事實은

그들이 人間

을 대운 衛星

을 發射할 것

을 目標로 하

고 있다는 것

을 證하는

것임니다.

〔問〕 언제쯤 소련은 人間을 올려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
나 發達하고 있는냐에 달려 있으며 나는
소련科學者들과 書翰을 交換하고 있지
않습니다.

〔問〕 美國에서 人間이 搭乘한 衛星을 建
造하려면 얼마나 큰 努力이 必要하겠을
니까?

〔答〕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人間搭乘衛
星」이라고 하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브라운」博士가 數年前에 提案한
바 있는 그러한 人間搭乘衛星, 即 直徑
이 數百「야드」나 되는 그러한 大型의
것은 即時 建造할 수 없습니다.

二,三名의 人間을 運搬하고 地球를
十四乃至二十四周 航行한 後에 다시 歸
還할 수 있는 人工衛星이라면 그 建造에
는 앞으로 十年以上을 要할 것임니다.

美國은 그 能力을 가지고 있으나 問
題는 누가 그에 所要되는 돈을 내느냐
하는 것임니다.

〔問〕 莫大한 돈이 所要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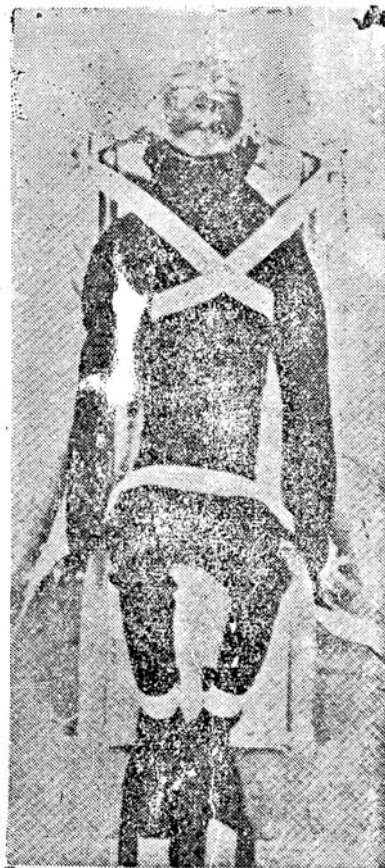
(答) 五十億乃至六十億弗은 必要한 것
입니다.

(問) 莫大한 頭腦도 必要하겠지요?

(答) 이제 頭腦는 問題가 안되고 있습니다. 宇宙旅行의 全般의 問題는 이제 科學的인 問題가 아니라 工學的인 問題로 되어 있습니다. 勿論 科學者는 細部의 問題를 解決하도록 도와야 하겠지만 全般의 問題는 工學的인 問題인 것입니다.

(問) 美國이 現在 發射할 것을 計劃하고 있는 人工衛星은 우리가 그것을 爲해서 들이고 있는 돈과 努力만큼 價値가 있는 것입니까?

(答) 勿論 그렇습니다. 人工衛星을 發射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現在는 어느 程度 科學的 目的을 爲한 것이랄지라도 軍事的 用途도 있는 것입니다. 人工衛星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高度에 關해서 많은 情報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情報은 우리의 長距離「로켓트」의 正確性을 增進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早速히 그러한 衛星을 發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美國의 實驗에서 使用하고 있는 「앨버트」라고 하는 宇宙探.

이와 같은 衛星은 非單 科學的 目的이나 目標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勿論은 人工衛星計劃의 次期段階로서 偵察用 衛星을 發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푸트니크」二號에 「텔레비죤 카메라」를 積載하였는지는 몰라도 萬若에 「텔레비죤·카메라」를 裝置한 人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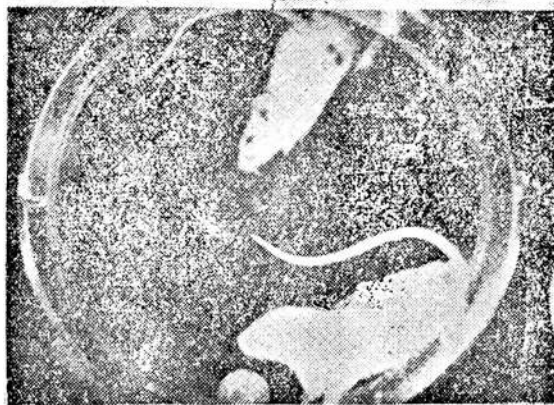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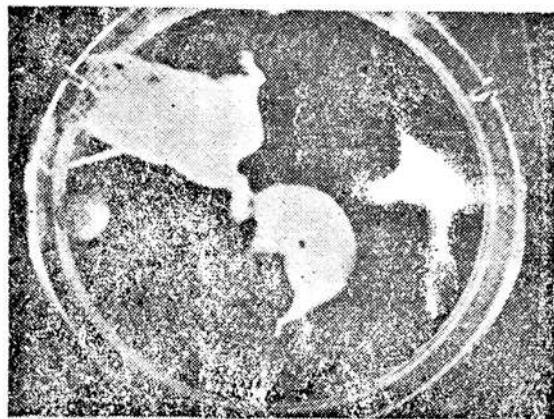
衛星을 發射하고 그 衛星이 地上을 恒常 飛行中 恒常 攝影할 수 있도록 正確한 高度를 取할 수만 있다면 地球를 내려다 보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

을 알리주는 一種의 「空中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人工衛星에는 偵察武器로서 軍事的 用途가 있고, 日氣豫報을 爲한 軍事的 用途가 있으며, 軍港을 出發하는 艦隊를 探知하는 것과 같은 軍事 用途가 있는 것입니다.

(問) 全世界를 空中監視할 수 있겠군요?
(答) 그렇습니다.

(問) 重量이 一,〇〇〇「파운드」以上에 달하는 「스푸트니크」二號는 「텔레비죤」



카메라를 積載하기에 適當한가?

〔答〕 勿論입니다.

〔問〕 「스푸르니크」號에 「텔레비죤·카메라」를 裝置했을 可能性이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美國의 實驗은, 重量이 없는 狀態에서 生쥐와 공이 真空에 떠 있는 光景(上)과 「로켓」의 速力이 緩慢해지자 다시 均衡을 回復하는 모습(下)을 보여주고 있다〕

〔答〕 그러한 可能性은 없는 것으로 보

다. 왜냐하면 개를 싣고 또한 개를

生存시키기 爲해서 가진 手段을 다 써

야하기 때문에 利用할 수 있는 換價荷 重의 大部分을 그러한 裝置에 消費하였

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問〕 이번엔 蘇聯科學者들이 行한 일에

對해서 큰 印象을 받으셨습니까?

〔答〕 나는 그 科學的 및 技術的 成就에

對해서 큰 印象을 받았읍니다. 이것은 一九〇三年의 「라이프」兄弟에 依한 最初의 飛行에 比較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問〕 그들이 行한 일에 對해서 놀라셨습니까?
〔答〕 조금도 놀라지 않았읍니까.

〔問〕 現在 軍事的인 見地에서 보아 空中에 떠 있는 人工衛星과 五,〇〇〇哩以上の 射距離를 가진 成功的인 大陸間彈道誘導彈과 그 어느 쪽이 더 큰 價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答〕 成功的인 ICBM입니다. 그러나 人工衛星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問〕 蘇聯은 現在 成功的인 ICBM을 保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蘇聯의 ICBM發展은 우리보다 若干 앞서고 있을 따름입니다.

〔問〕 이를테면 蘇聯은 南極에 있는 한

1381

目標地域을 指摘하고 ICBM을 發射하여 그에 命中시킬 수 있었습니까?

(答) 아니요. 아직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相當한 歲月을 要할 것입니다.

(問) 苏联은 人工衛星을 發射함으로써 成功的인 ICBM에 더욱 迅速히 到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答) 네, 그렇습니다.

(問) 現在の 豫定대로 잔다면 美國은 언제 成功的인 ICBM을 保有하게 될 것입니까?

(答) (필리포니아)州 「잉글우드」에 있는 美空軍 航空研究發展司令部 空軍誘導彈部長 「버나드·A·슈라이버」少將은 美國이 一九六〇年 乃至 一九六一年에는 實戰用 ICBM은 保有하게 되리라고 明白히 言明하였습니다. 이言 明은 매우 現實의인 것이며 慎重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더욱 努力함으로써 進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랜 歲月을 要하겠습니까?

(答) 이 質問은 매우 對答하기 困難한 問題입니다. 그것은 達成하려는 일의 性質如何에 달려 있습니다. 萬若에 來襲해 오는 敵 ICBM을 먼저 大洋위에 서 擊墜하기를 願한다면 그것은 몹시 複雜하고 값비싼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核彈頭의 有效爆發高度 조금 위에서 擊墜하기를 願한다면 그것은 容易한 일이라고 生覺합니다.

(問) 다시 말하자면 中部 大西洋上空에서 擊墜하는 代身에 더욱 가까운 距離에 接近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容易하다고 생각합니다. 水爆의 有效爆發高度가 어느 程度인지 確實히는 모르겠으나 二哩 程度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十哩乃至 十五哩上空에서 擊墜하면 될 것입니다. 그 結果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問) 이와 같은 式의 對 ICBM을 發展시키려면 얼마나 오랜 歲月을 要하겠습니까?

(答) 그것은 亦是 우리의 努力如何에 달려 있습니다. 이 問題는 慎重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卽 그러한 對 ICBM을 發展시킬 價値가 있느냐 或은 報復勢力에 注力하여야 하는냐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方法은 百分安全無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全國에 그와 같은 防衛體制를 確立할 수는 없으며 不過少數의 重要한 地域만을 그와 같은 式으로 防衛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값비싼 것이니까요.

(問) 그렇다면 對 ICBM은 몇年後에나 出現하겠습니까?

(答) 萬若에 우리가 本格的으로 努力한다면 簡單한 그러한 防衛體制는 三年乃至 五年後에는 發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廣範圍한 防衛體制는 最少限度 五年乃至 八年은 要할 것입니다.

(問) 우리는 第二次大戰後에 苏联이 高度로 訓練되고 有能한 獨逸科學者들을 끌고 갔다는 事實을 알고 있으며 오랜 날 많은 사람들은 이 苏联의 衛星計劃

를 알고 있습니다. 이 事實을 알고 있으며 오랜 날 많은 사람들은 이 苏联의 衛星計劃

이獨逸科學者들에 依해서 企劃된 것이 라는 見解를 가지고 있는데 그 點에 對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聯은 잘 訓練된 技術者와 科學者를 缺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쓰聯이 終戰 後에 獨逸科學者들을 끌고 간 理由는 그當時에 獨逸이 「로켓트」飛行에 있어 先進 進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獨逸의 水準을 따라가기 爲해서 그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獨逸科學者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파내고 배워

서 그들의 「아이디어」에 익숙해진 後에 는 그 이상 그들을 必要로 하지 않았을 니다.

이것은 쓰聯이 처음에는 獨逸式을 따 랐다가 後에는 그들 自身の 「아이디어」와 技術을 利用하였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比率로 따진다면 이번 의 쓰聯人工衛星發射에 獨逸科學者들이 行한 役割은 8% 乃至 10%에 不過하 고 나머지 90% 乃至 92%는 쓰聯科學者들 自身에 依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百年以上延長 未來의 壽命

「아이젠하워」大統領의 心臟專門醫 「콜·더드리·화이트」博士는 醫學이 結 局人間的 壽命을 一百年 乃至 그 以上 으로 延長시킬 것이라고 豫言하였다. 「화이트」博士는 當地「디스펜던드」 「호 텔」에서 十一日開會된 『未來의 家庭』에 關한 討論會에서의 主要演士로서 그와 같은 豫言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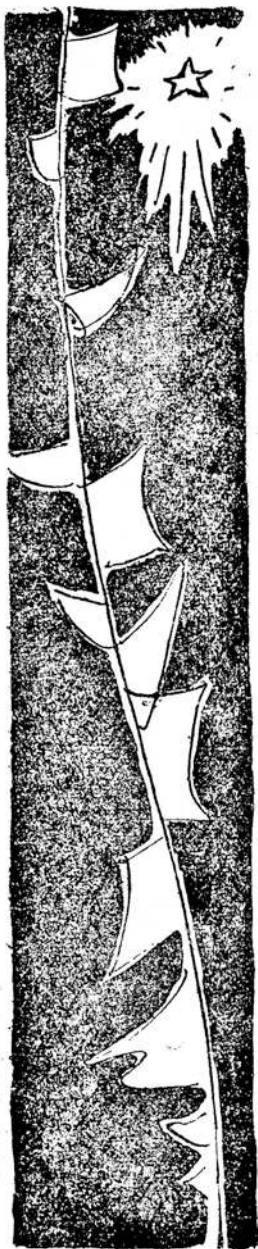
그 討論會는 北美保險會社 主催로 開 催된 것이다 『인젠가는 醫學이 모든 傳染病을 征服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癌과 같은 酷毒단 殺人病까지도 征服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一百年以上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화이트」博士는 말하였다. 그 心臟專門醫는 또한 『科學은 모든 사람들이 睡眠中 급작스러운 心臟痙攣로 平和하게 죽을 수 있을 程度로 人間의 苦痛을 덜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다.

「윌리·R·돈버거」博士 紹介



그보다 射距離가 긴 V-2 號를 發 展시킨 責任者였다.

「로켓트」設計의 先驅者인 그는 第 二次大戰期末에 V-1 號와 V-2 號를 만들어 낸 「본·브람운」博士를 包含한 獨逸專門家「팀」을 指揮하였 다. 이와 같은 武器는 宇宙를 나는 人工衛星과 誘導彈의 先驅者였던 것 이다.
一九四五年에 捕虜가 되었던 그는 獨逸軍少將이었는데, 一九四七年美 空軍의 顧問이 되기 위하여 美國으로 건너왔으며, 現在 「벨」航空機會社社 長の 技術顧問으로 活躍하고 있다.



一九五八年의 UN에 對한 展望

高 濟 經

「유엔」에 對하여 우리가 期待하는 바는 世界恒久平和의 確立이라는 그 自體의 使命을 爲하여 열마나前 進하고 있는가 하는 點이다.

昨年度의 「유엔」의 業績을 우선 돌아본다면 「유엔」 「합마솔드」事務總長은 「今會期의 活動은 「유엔」總會中 가장 意義깊은 것의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장 意義깊은 것」이 있다는 것은 「유엔」이 몇가지 分野에서 成就한 業績을 報告할 수 있게된

것을 말하는 것일 줄 안다.

즉 「유엔」은 昨年度에 「가나」와 「마라이」新生國을 會員國으로 加入시켜 八十二個國이라는 過去 國際機構에선 볼 수 없었던 多數의 會員國을 갖게 된 것을 비롯하여 原子力平和利用의 國際機構을 創設한 事實이 크나큰 業績인 것이다. 그 외에 「유엔」은 中東의 平和를 維持하기 爲하여 國際警察軍을 계속 維持하고 있고 尙便 「유엔」은 「스에즈」運河를 迅速히 掃河하여 그 國



「알제리아」問題等 모두 國際平和에 間接으로 또는 直接으로 聯關되는 問題이었었는데 지난해 第十二回總會는 모두 方法論만 討義해서 決議한데 그쳤으며 實際의 效果로 본다면 오히려 後退한 셈도 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陸水路를 再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이 發展하고 있는 많은 國家들에 對한 技術援助를 大規模로 擴大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리고 「유엔」은 또한 世界到處의 「마라리아」를 根絶하기 爲한 大대의인 措置를 하였고 共產壓政에서 亡命해 온 約二十萬의 「항가리」避難民들의 再定住를 도왔다.

昨年度에는 「유엔」의 主張에 依하여 「에집트」領土로부터 모든 外國軍隊가 撤收하였다.

이와 같은 成果를 가리켜 「가장 意義깊은 것의 하나」였다고 한 「함마술드」總長의 말은 自畫自讚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왜 그러냐 하면 第十二回 「유엔」總會의 主要議題인 軍縮을 비롯한 韓國統一問題 中東問題 「알제리아」問題等 모두 國際平和에 間接으로 또는 直

再昨年 第十一回總會만 하더라도 「스이즈」運河紛爭에 있어 「유엔」은 平和維持를 위한, 發揮할 수 있는 潛在的이나 불발한 한 힘을 보여주었으며, 「항가리」問題에 있어서도 國際的인 輿論喚起에 絕對的인 成功을 거두었었는데, 이에 比하여 第十二回總會는 「크리스마스」때 中東地方에서 「유엔」警察軍과 함께 지낸 「함마술드」總長의 빛나는 活動을 除外하고는 참으로 收穫이 적었던 것이다.

그럼 第十二回總會에서 合意를 보지 못하고懸案대로 그대로 第十三回總會로 넘어간 諸問題를 中心으로 新年度の 「유엔」을 展望하여 보기로 하겠다.



昨年 「런던」에서 열렸던 軍縮小委員會가 數個月동안 끝난 끝에 膠着狀態로 된채 總會를 맞았기 때문에 第十二回總會는 軍縮總會라고 까지 불리워졌었다. 「런던」軍縮小委員會가 끝날 무렵 蘇聯은 大陸間彈道彈(I C B M)의 發射成功을 發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窮極武機의 出現으로 軍縮이 지금보다도 더 要請된 때 는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겠다.

그런데 美國의 「런던」軍縮小委의 結論인 西歐四個國案을 提示하여 蘇聯의 同意를 얻으려고 했으나, 蘇聯은 「런던」會議에서 自國이 主張한 線을 조금도 讓步

안하였었다. 마침내 西方側の二十四個國家이多數의支持를 얻어 成立된데도不拘하고 蘇聯은 이를 無視하고 退場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軍縮委員會는 八十二個「유엔」會員國을全部 집어넣어야 된다고 固執하는 한便 冷戰緩和와 平和追求를爲한 東西頂上會談을 開催하자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蘇聯이 軍縮協商에 誠意를 보이지 않고 外交攻勢로 나오고 있는 것은 첫째로, 人工衛星을 二次나 發射하여 成功한 것을 背景으로 하여 힘의 優位를 誇示하여 보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유엔」밖으로 問題를 이끌고 나가서 解決하려는 意圖은, 八十二個國參加가 싫다면, 우리들이 마주앉아서 決定하자는 式의 論理로써 外交의 主導權을 잡아보자는 것이며, 「유엔」의 無力을 世界에 宣傳하자라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

東西頂上會談을 갖자는 「불가진」書翰에 對하여 「아젠하워」美大統領은 「頂上會談에 앞서 外相會談이 必要하다고, 會翰을 보냈다. 「아」大統領은 또한 「유엔」이라는 國際機構를 通하여 平和를 尙상 追求하고 있다는 信念을 披瀝하고 있다.

지난 一月 十四日 議會에 報告된 「아」大統領의 「유엔」內 移動에 關한 報告書에 있어서도 「美國이 世界平和를 維持하기 위한 道具로서 「유엔」

의 能率性を 增加시키기 위하여 「유엔」을 完全히 支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을 強化하기 위한 方法을 模索하고 있다는 證據를 提示할 것」이라고 強調하였다. 그러므로 美國의 立場으로서는 外相會談 또는 頂上會談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엔」을 通하여 集團安全保障을 찾는 努力은 决코 拋棄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戰爭은 地球上이 아니라 宇宙空間에서 일어 난다고 어느 將軍이 豫言하듯이 宇宙世界에 들어간 오늘날 軍縮은 宇宙에까지 擴大되어야 하는데, 東西間에 軍縮의 先行條件, 例를 들면 監視 또는 實驗中止 같은 問題에 있어서도 合意를 못보고 있는 現實인만큼 今年 「유엔」에서 蘇聯이 誠意를 보이지 않는 限 軍縮協商的 進展은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 ◇

韓國統一問題에 있어서는 兩斷된 韓半島를 西方側이 主張하는 路線에 따라 統一시킬 새로운 努力을 促求한 十一個國決議案을 採擇하였다. 民主的인 韓國統一을 再確認하였으나 再昨年 第十一回總會보다도 前進은 없는 것이다. 「유엔」은 韓國의 統一課業을 達成하기爲하여 北韓에서 中共軍이 撤軍하기 위한 強力한 措施와 可能한 方法을 講究하여야 마땅할 일이다. 侵略者로 「유엔」에서 烙印을 찍은 中共軍이 아직도 北韓에 머물

☆ 特 輯

러 있음이統一에妨害가 됨은 自明之理이기 때문이다.

今年「유엔」第十三次總會에서도 統韓問題를 議題로 上程하기로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韓委의 活動과 더불어 今秋總會에 또한 期待를 가지지 않을 수 없겠다. 우리 나라 加入問題도 越南加入問題와 함께 上程되었으나 蘇聯의 拒否權은 이미 八十二回나 實現을 못보고 있다. 蘇聯의 拒否權은 이미 八十二回나 行使하여 「불가년」에 대한 「아이크」回翰에서도 痛烈히 批難하고 있지만 「유엔」監視下에 誕生한 自由國家인 大韓民國이 피흘리며 自由를 守護해 오고 있는 데도 不拘하고, 또는 「유엔」憲章을 遵守하겠다는 國民의 熱望이 全世界에 充分히 反映되었는 데도 不拘하고, 蘇聯이 故意로 拒否權을 濫用하여 門戶를 封鎖하고 있는 것은 「유엔」은 公信力을 잃고 있는 結果밖에 안된다.

安保의 拒否權에 對하여 이미 識者間에는 不合理性을 指摘하고 「유엔」憲章의 修正을 提議하는 側도 있거니와 何如든 會員國으로 加入資格이 充分한 우리나라를 外蒙古마위를 집어넣은 一括加入案과 「바젠」하려는 蘇聯의 態度는 當然히 糾彈을 받아야 하겠다.

◇ 再昨年未에 새로 「유엔」에 加入되어 國際社會에 進出한 日本은 今年三月부터 安保非常任理事國으로서 登場한다.

最近 「유엔」은 그 構成이 前과는 차츰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小國의 加盟이 늘고 있어 이미 그 數는 二十八個를 滿계되었다. 從來에는 美國의 「라틴아메리카」諸國을 合쳐 投票權의 三

分之一을 事實上 掌握해 왔었다.

議會는 三分之二의 多數決로 表決하므로 나머지 三分之一을 掌握한다는 것은 總會에서 拒否權을 가진 것과 비슷한 일이다. 그런데 「아시아」 「아프리카」 「블럭」은 全加盟國의 三分之一을 넘어 그 發言權의 比重이 絶對로 無視 못할 程度가 되었다.

이 때문에 日本岸首相은 東南亞巡廻를 거듭하는가 하면 日本은 또한 「카이로」에서 열렸던 「아시아」 「아프리카」會議에는 四十名이 넘는 가장 많은 代表團을 보내었었다. 「유엔」內의 所謂 「아시아」 「아프리카」 「블럭」은 有色人種國이라고 하여, 또는 小國이라 하여 植民地에서 脫皮한 新生國이라 하여 반드시 利害가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바그다드」條約 SEATO 加盟 其他 英國과의 關係 또는 蘇聯과의 關係로 利害가 錯雜하여 行動의 一致가 보기에 어렵다 하지만, 安保非常任理事國으로서 登場한 日本은 옛날 「東亞共榮圈」의 盟主로 또는 「아시아」 「아프리카」圈의 「리더」로서 自處하느니만큼 「유엔」內에서의 日本의 活動은 앞으로 警戒을 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한다.

要컨대 一九五八年의 「유엔」은 軍縮問題나 「사이프러스」島紛爭 「알제리아」問題等 植民地問題에 있어서나 어떤 解決의 進展을 期待할 수 없겠다. 그리고 統韓問題나 우리나라 「유엔」加入問題 推進에 있어서는 民族의 興望에 副應하도록 우리나라 外交陣은 倍前의 活動과 努力있기를 冀望하여 마지 않는다.

(筆者·서울신문사 編輯局長)

一九五八年의 東亞와 極東

柳 承 範

1388

一九五八年의 極東 및 東亞細亞의 情勢를 展望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提起하여야 할 問題는 既存하는 SEATO(東亞細亞條約機構)와 이제 새로이 胎動할 氣運이 成熟해 가고 있는 東亞細亞條約機構와의 連結이라는 點에 있을 것이다.

勿論 東亞細亞條約機構가 形成되기 까지는는 많은 難關이 있다.

于先 그러한 機構가 形成되기 爲해서는 韓國과 日本과의 國家關係가 成立됨으로써 그 基本關係가 뚜렷해져야 할 것이고 自由中國과 日本과의 關係 亦是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現在 日本은 韓國 등의 諸反共國家와 防衛를 目的으로 한 條約에 參加할 것을 躊躇하고 있음이 明白하다.

그러나 早晚間 締結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同條約機構인 바에는 모든 地域的 防衛機構의 連結을 推進시키고 있는 美國의 政策에 依해서 그 連結도 實現되리라 봄이 妥當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情勢는 東亞와 東亞細亞와의 關係를 새롭게 하는 同時에 東北으로는 日本에서 韓國과 自由中國을 거쳐서 比律賓 泰國等地에 이르는 새로운 劃一된 秩序를 갖추는 바를 意味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美國으로서도 現在 東亞細亞條約機構를 形成하기 爲하여 魅力的인 「미끼」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로, 이러한 同盟體가 없다면 東亞細亞諸國은 急速히 그들의 防衛力을 確保할 수 없으며 둘째로 NEATO(東亞細亞條

☆ 特 輯

約機構)를 통해서 이 지역의 諸國家는 美國으로 부터의 財政的인 惠澤은 있을 수 있을 것이 라는 등이 그것인 것이다.

그러므로 NEATO 形成의 可能性은 더욱 더 顯著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SEATO 와의 連結를 가진 것으로 믿어서 잘못은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重要한 問題는 共產主義의 侵略目標가 다시 東北 및 東南地域으로 轉換될 可能性이 있다는 것이다.

共產主義의 侵略目的이 其間 中東地域에 있었던 것만은 事實이다. 그리고 中東地域에 紛爭을 일으킴으로써 自由世界攪亂의 企圖을 繼續할 것이라 함은 中東地區가 지닌 現下의 生理에서 自明해진다.

그러나 直接的인 關與가 없다 하더라도 蘇聯과 中共은 東南亞地域으로서 侵透와 紛爭을 惹起시킴으로써 國際的인 問題로 化할 導火線을 마련하리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이 地區가 直接 共產圈과 相持하고 있는 데다가 內部的으로도 相當히 強力한 共產主義의 威脅을 받고 있다는 데서 明若觀火해 지는 것이다.

그리고 事實上 東南亞地區와 「인도네시아」群島는 蘇聯과 中共의 共同活動의 主要目標가 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新生馬來는 數年來 武裝共產徒黨과의

鬭爭을 披瀝하고 있으며 「버마」에서의 共產主義活動도 相當히 顯著하다.

때문에 이 地域內에는 앞으로 相當한 波亂을 未免할 것이 豫想되는 것이며 이를 操縱하여 國際的紛爭으로 擴大시키려는 蘇聯과 中共의 兇謀는 끝끝내 間斷없이 繼續되어 진 것이 明白한 것이다.

或者는 韓國이나 自由中國 및 自由越南에 있어서 다시 熱戰이 展開되거나 얇을까 하고 憂慮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當分間은 內部侵透를 통한 攪亂은 있을 지인 正 熱戰으로 化할 可能性은 없다고 봄이 妥當하다.

왜냐 하면 韓國이나 自由中國 및 自由越南에 對한 武力侵攻은 第三次大戰을 惹起시킬 充分한 資料가 되기 때문이다.

蘇聯이나 中共이 第三次大戰의 危險을 무릅쓰고라도 이들 自由國家에 對한 武力侵攻을 不辭해야 한다면 勿論 問題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蘇聯이 「人工衛星」과 「大陸間彈道誘導彈」을 完成시킨바 있다 하더라도 그리 손쉽게 이 地域에 對한 武力侵攻을 敢行할 수가 없을 것이 韓國動亂이 發生하였을 當時와 現在는 그 情勢에 있어서 判異하다는 데서 明白해 지는 것이다.

美國은 現在 中距離誘導彈基地를 韓國이나 中國에까지 前進시킬 것을 考慮하고 있다. 共產主義國家에서 의 威脅에 對해서는 直刻的인 應酬가 있을 것이라는 證據인 同時에 美國의 防衛線은 日本, 韓國, 自由中國의 線으로 擴張된바 있다는 바를 明白히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이나 中共은 當分間 그들의 本土에 對하여 直刻的인 應酬가 加해진 冒險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들은 全面戰爭까지도 克服할 수 있는 國內에서의 基盤을 갖지 못했다고 봄이 妥當할 것이다.

따라서 東北亞細亞에 있어서는 韓國의 分割이 繼續되는 狀態에 있을 것이고 自由中國의 本土奪還도 不遠間에 期約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觀測될 수 있는 것이다.

세제로, 注目되는 것은 日本의 路線이 어떠한 方向으로 落着될 것이냐 하는 點이다.

勿論 日本은 그 生理에 있어서는 美國의 支援下에 있는 反共國家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性格에 있어서는 多分히 容共 乃至 親共의 傾向을 內包하고 있어 그의 行方은 自由世界의 運命에 至大한 影響을 끼칠 것으로 看做되는 것이다.

萬一 여기서 日本이 自由世界의 一員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繼續的으로 所謂 開放政策이라는 것을 撰擇한다면 共產主義로 하여금 韓國이라는 防衛線을 뛰어넘

고서 太平洋地區로 進出할 수 있는 布石을 마련해 주 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日本이 繼續하여 이러한 外交路線을 가지는 限에 있어서는 NEATO의 形成도 不可能하다는 結論이 나올 것은 勿論 美國의 外交乃至 軍事政策面에도 甚大한 蹉跌을 招來하게 할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더우기 日本은 東南亞地區에 그들의 經濟市場을 開拓하기에 狂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甚至於 共產圈과의 交易까지도 推進시키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國內的 經濟條件下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日本에 對해서는 그가 지닌 經濟的 生理때 문에서라도 所謂 開放主義政策을 止揚할 것을 期待할 수는 없다고 보는 外交消息通의 觀測도 全然 虛無한 臆測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日本의 經濟가 東南亞市場에서 西歐商 品을 追放할 수 있는 力量을 發揮하게 될 때 必然的으로 極東과 東南亞細亞의 經濟는 東京을 中心으로 하여 움직이게 될 것이 明白한 以上에는 政治的으로 그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제로는, 一部の 民族主義國家에 對한 威脅과 이로 인한 새로운 紛爭可能性이 있다. 現在 「인도네시아」에서는 和蘭人을 追放하고 그들의

☆ 特 輯

財産을沒收하도록 極端的인 反和運動이 高潮에 達하고 있다. 그러나 如斯한 事態는 單純히 反和運動이라 보기 보다는 오래동안 植民地라는 不利하고도 不遇한 立場에 있었음에서의 反動인 後進的 民族主義運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紛爭은 中東地區에 있어서와 같이 共產主義에 利用當함으로서 反西方 乃至 所謂 中立灰色主義의인 傾向을 示現한 것이 充分히 豫想되는 것이며 그것이 또한 隣接國家와의 사이에 擴大될 때는 共產主義國家의 猛烈한 宣傳攻勢의 目標가 될 國際的 問題로 化한 것도 생각되는 것이다.

共產主義가 後進 民族主義國家들을 利用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民族自決主義的인 路線을 支持한대서 가아니고 그 中에 包含되어 있는 反植民 乃至 反西方의인 感情을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卽 蘇聯과 中共은 西方自由世界를 排除함으로써만이 國家의 完全한 自主性은 確立되는 것이며 西歐와의 經濟的紐帶를 끊어야만 이 아무런 條件과 代價없이 獲得할 수 있는 蘇聯과 中共의 援助를 얻을로서 國家富強을 이룩할 수 있다고 宣傳하고 있음은 周知하는 바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相當한 警戒가 必要하며 그들의 離脫을 防止함에 資할 美國의 보다 많은 援助가 期待되

는 것이다. 하기가야 美國의 「아이젠하워」大統領도 그의 豫算敎書와 外援經濟敎書에서 이 地域에 對한 援助의 切實함을 指摘한 바가 있고 事實로 많은 援助가 提供될 것이다. 그러나 反西方이니 反植民이니 하는 「렛 덴」이 붙은 民族主義運動이라는 것은 結局 貧困과 饑餓에서의 解放만을 期한다면 얼마든지 克服할 수 있는 性格에 不過하다는 것이 明白하다면 보다 더한 援助는 없을 수 없는 切實한 느낌이 있는 것이다.

現在 東南亞地域諸國家들이 NATO의 境遇에서 보는 바와 같은 深刻한 意見對立은 아직 惹起시키지 않고 있다 해서 安心할 수는 없는 것이다.

SEATO 國家群들이 아직 그 紐帶의 弛弛를 結果 할만한 紛爭을 일으키지 않는 理由로는 元來가 貧困과 饑餓에 시달린바 있는 데서 그리 大端치 않은 美國의 援助라 하더라도 그것이 國內의으로는 相當한 效果를 내게하고 있기 때문에 不過한 것이고 反共이라는 信念에 있어서는 西方側諸國보다도 顯著히 微微하다는 바를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다섯째로, 이 地區는 美國의 援助로 因하여 새로운 開發이 推進될 것이라 하는 點이다.

그間 天文學的數字에 達하는 美國의 援助가 極東과 東南亞諸國家의 經濟與件을 打開함에 至大한 役割을 한

바 있음은 到底히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中 特定한 一部國家의 例를 除外한 多
 數의 國家는 經濟的 後進性을 克服하지 못함으로
 社會的으로는 極히 蒙昧한 常態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目的을 爲한 새로운 計劃으로서의 開
 發問題가 具體화된바 있는 것이니, 이는 極히 多幸스리
 운 바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特히 東南亞諸國은 相
 當히 豐富한 地下資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間 많
 은 資源을 西方國家에 提供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는 그보다도 自體의 富強을 爲한 開發까
 지 必要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實現될 때 結局 自體의
 防衛力도 強化하게 될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는데
 서 보다 至急히 서둘러야 할 性質의 것이 아닐 수 없
 는 것이다.

여섯째는, 韓日間의 問題이다.

비록 抑留者의 相互釋放과 久保田妄言의 取消 및 對
 韓財產權의 拋棄 등을 契機로 하여 五月 一日부터는 第
 四次會談이 開催될 素地가 마련된바 있다 하더라도 完
 全한 國交正常化가 實現되기 까지는 相當한 難關이 있
 는 것이다. 그리고 兩國間의 關係改善은 尙 東北亞細
 亞防衛條約의 實現과도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것이니
 더욱 큰 關心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難關이라 하는 것은 具體的인 問題로 平和線
 問題를 爲始하여 財產返還問題 및 漁撈問題 그리고 在
 日僑胞의 法的地位 및 處遇改善 등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그보다도 日本이 韓國과의 關係에서 그 基本的인
 線을 如何한 데다 두어야 할 것이냐에 있음이 事實이
 라면, 日本은 마땅히 그의 開放主義政策을 止揚해야 하
 는 것이다. 韓國은 아무리 韓, 日間의 國交正常化問題
 가 至急하다 하더라도 日本의 開放主義政策이 嚴存하
 는 限에 있어서 는 妥結에 到達할 수는 없는 것이다.
 韓國과의 基本關係는 어데까지나 反共이라는 데서 맺
 어져야 하는 것이며, 容共 乃至 親共이라는 線이 있음
 에도 不拘하고 서의 一律背反的인 것이 라면 이 妥結할
 수가 없는 것이 또한 韓國의 立場인 것이다.

그러므로 韓, 日兩國間의 國交正常化는 오직 日本이
 어떠한 線에서 韓國과의 基本關係를 樹立하고자 하는
 내에 달렸다고 봄이 妥當한 것이고 그것이 또한 反共
 이라는 原則에 立脚한 것이 라면 東北亞細亞條約機構가
 實現되는時機도 結局은 그때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一九五八年의 極東 및 東南亞의 情勢를 이렇게 展望
 할 때 結局은 하나의 事實에 集約되는 바가 있으니 그 것
 은 卽 國家間의 相互關係改善이라는 事實이라는 것이다.

☆ 特 輯

그러므로今年은 모든 亞細亞國家들이 反共이라는 뚜렷한 目標로 前提를 하고 相互關係가 相當히 改善되어 나갈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昨年 「고」自由越南大統領의 韓國訪問을 契機로 如斯한 徵候가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今年에는 美國의 보다 積極的이고 또 戰略的인 反共政策을 뒷받침으로 하고 現實的인 諸制約이 排除되어갈 것은 疑心할餘地가 없는 것이고, 더우기 韓

(五十三面에서 계속)

運動·天體現象·空間의 性質 등을 正確하게 究明할 수 있는 物理學의 發達——運搬體의 速度 및 軌道를 正確하게 計算해 낼 수 있는 數學——複雜한 「로켓」裝置를 精密하게 製作·運搬할 수 있는 工學——瞬間空間의 資料를 基礎로 하여 運搬體의 方向·速度를 電子計算機로 計算해 내고, 各機關의 動作을 自動적으로 制御·操縱하고, 天體間通信을 可能케 할 電子工學——空氣와의 摩擦에서 發生하는 高熱에 견딜 수 있는 特殊金屬을 實用化, 發展시킬 金屬學——高性能燃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化學——急激한 速力의 變化로부터 人間이 받는 衝擊 및 地球와는 判異하게 環境이 다른 宇宙間 또는 他天體에서 人體가 받는 生理的·反應에 關한 研究 및 防備策을 講究할 수 있는 空間醫學——等等이 宇宙科學의 將來를 決定할 것이다.

宇宙世紀 第一年이라고 볼 수 있는 一九五八年에 人間은 宇宙科學을 어떤 點까지 이끌어 갈 것인가? 이

國과 日本, 自由中國과 日本의 關係改善은 全體相互國家間的 關係를 改善시킬 契機가 아닐 수 없는 바에는 希望의 輪廓만이라도 나타나고 있다고 믿어 잘못은 아니다.

一九五八年——全世界가 「人工衛星」과 「誘導彈」의 威脅下에 있는 不安한 時代이다.

그러나 以上과 같이 展望할 때 極東과 東南亞細亞에 있어서의 그 어느 때보다도 希望이 바라보이는 「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筆者, 平和新聞 常任論說委員)

問題는, 오로지 以上에서 列舉한 여러가지 科學分野가 宇宙科學의 發展이라는 人類的 共同理念을 向하여 어느 程度까지 進展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보겠으나, 現在段階로서 우리가 宇宙世紀 一九五八年에 期待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 (一) 人工衛星에다 TV를 裝置하여 他天體 또는 地上의 現象을 地上으로 通信하는 것,
 - (二) 사람이 탄 人工衛星(Manned Satellite)의 우주 비행,
 - (三) 原爆이나 水爆을 실은 人工衛星을 달로 發射하여 月世界에서 爆發시켜 地上에서 觀測하는 것,
 - (四) 宇宙停留場 建設計劃을 樹立하고 試驗發射의 段階까지가 도록 하는 것,
 - (五) 새로운 固體燃料의 出現 등을 들 수 있다.
- 漠漠한 虛空에 空間停留場에 몸을 싣고 月世界旅行의 準備을 서둘러 있는 人類를 꿈꾸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한다. (筆者, 서울工大 電子工學科 主任教授)

一九五八年的 宇宙科學

— 宇宙世紀 第二年的 展望 —

徐 同 運

1394

- 一、머리말
- 二、宇宙의 限界
- 三、重力圈을 벗어나기까지
- 四、燃料問題
- 五、空間停留場
- 六、宇宙科學의 領域 및 展望

一、머리말

一九五七年은 人工衛星의 發射라는, 人類科學의 大飛躍을 이루었으며, 지금까지 數千年 人類가 꿈꾸고 渴望해 오던 宇宙旅行의 第一步를 디디놓았다는 意味에 서 人類歷史上 永遠히 記憶될 一年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해서 宇宙로의 첫발걸음을 디디는 人類는 第二年인 一九五八年에는 果然 어떠한 業績을 거둘 것이며, 宇宙征服의 過程에 있어서 어떤 哩程標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바야흐로 全人類의 注目과 關心의 中心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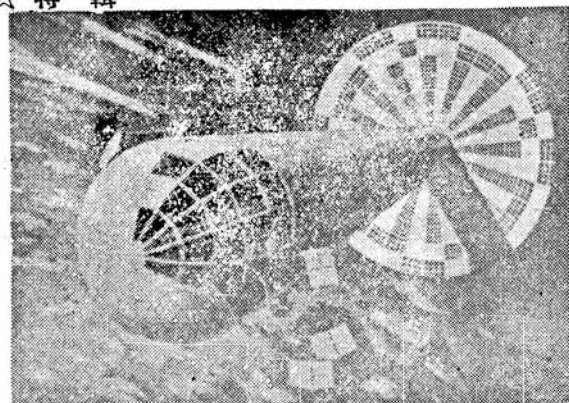
여기서 宇宙征服 또는 宇宙旅行을 主目的으로 하는 새로운 科學分野에 屬하는 宇宙科學(Space Science)의 正確히 말하자면 「空間科學」의 範疇와 그가 解決해야 할 여러가지 問題에 關하여 簡單히 說明하고, 宇宙世紀 第二년에 該當하는 一九五八年에 人類科學이 갈 수 있으리라고 豫想되는 限界를 考察해보고자 한다.

二、宇宙의 限界

우리가 「宇宙」라고 부를 때는 그 意味와 限界가 極

히 漠然하다。[宇宙(universe)]라는 概念은 古代 人類 文化 創生時부터 由來하고 있으나 그에 對한 觀念은 時代에 따라 地域에 따라 長久한 變遷과 差異를 가지 고 왔다。

科學이 極度로 發達하였다는 現代에 있어서도 아직 舊의 境地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사 람에 따라서도 그들 이 생각하는 宇宙의 限界가 가지 차색이 며, 어떤 사람은 우 리가 사는 地球를 包 含하는 太陽系를 宇 宙라고 보며, 또는 太陽系가 屬하고 있 는 銀河系 星雲을 宇 宙의 끝이라 생각하 는 사람도 있다。그 러나 物理學에서 말 하는 宇宙는, 우리 太陽系가 屬하고 있

1395

는 銀河系 星雲을 最小限 數百億 또는 數千億 包含하 고 있는 宇宙를 말한다。이 宇宙에 關하여서는 現在까 지 「아인슈타인」의 相對性原理에서 演繹해 낸 膨脹宇 宙論이 가장 믿을만한 것이 되어 있다。이 相對性 宇宙 論에 依하건대, 宇宙는 現在 靜止한 速度로 膨脹해 가 고 있으며 同時に 宇宙는 등글다는 것이다。宇宙의 크 기에 關해서는, 世界最大의 望遠鏡이라고 하는 美國 「윈슨」山 天文臺의 望遠鏡으로도 一〇億光年の 距離에 있는 星雲밖에 볼 수 없으므로 道理가 없으나, 먼 곳에 있는 星雲이 太陽系로부터 멀어지는 速度를 測定하는 데 利用되는 이른바 「Doppler」의 效果를 利用 하여 算出해낸 結果로서는 宇宙의 끝은 地球(또는 太陽系)로부터 約六十億光年の 距離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여기서 六十億光年이라고 한마디로 해치워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머마한 距離인지 잘 생각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地球가 屬하고 있는 太陽系의 크기를 생 각한다면 太陽系의 맨 가장자리에 있는 冥王星으로부터 太陽까지의 距離는, 光速度로 해서 五、五時間에 不 過하며, 우리 太陽系가 屬하고 있으며, 約一千億個의 별을 가지고 있다는 銀河系의 크기가 一〇萬光年에 不 過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宇宙가 얼마나 크다는 것

을 大概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엄청나게 큰 宇宙를 旅行한다는 것은 아직想像할 수조차 없는 問題이며 不過 六〇年乃至一〇〇年의 壽命밖에 가지지 못한 人間으로서는 于先 太陽系內部에서의 旅行이 將次 一〇年 또는 數十年 앞날의 目標라고 볼 수 있다. 人工衛星이 現在 時速約 三萬浬의 速度로 地球를 한바퀴 도는데 一時間半이 걸린다고 하면 이것이 굉장한 速度가 같이 들리지만 이 速度로 地球로부터 太陽系 끝인 冥王星까지 갈려면 實로 二十三年이라는 긴 時間이 걸린다. 太陽系밖의 銀河系로 말하면, 가장 가까운 별이라는 것이 地球로부터 約 二二〇光年 떨어져 있으며, 光速度로 간다해도 百二〇年이 걸린다는 計算이 된다. 勿論, 速度가 光速에 가까워지면, 四次 空間에 있어서의 速度와 時間의 相對法則에 依하여 實際 宇宙船을 타고 날고 있는 사람이 經驗하는 時間은 크게 短縮이 된다고 하지만 何如든 幾十年의 壽命밖에 가지지 못한 人間이 太陽系 밖의 空間世界를 旅行한다는 것은 아직껏 白日夢의 境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三、重力圈을 벗어나기 까지

「人間은 時間과 空間의 制約을 받으면서 사는 存在

다.」하는 哲學的命題가 있지만 宇宙科學의 見地에서,

人間이 받는 時間的制約에 關하여는, 以上에서 簡單히 說明한 바와 같다고 한다면 空間的制約은 어떠한가? 于先,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人間을 地球引力即 重力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끈으로 매어 놓고 있는 地球重力圈으로부터의 脫出이다. 'Newton'의 第二運動法則에 依하면 重力 또는 힘은 物체에 作用하는 加速度(또는 減速度)로서 測定할 수 있으며, 地球表面에 있어서는 質量 一瓦當 980 cm/sec²의 加速度를 힘으로 表示하자면 九八〇「다인」(Dyne)을 地球로부터

떨어진 物체는 減速을 받아서 다시 地上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며, 굉장한 初速으로 發射한 「로켓트」라도 上空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 速度가 漸漸 떨어져서 結局은 地上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發射速度가 어느 程度以上으로 커지면, 上昇할수록 그 速度는 점점 떨어져졌으나, 그 速度가 零이 되기 以前에 地球의 引力이 미치지 못하는 距離까지 脫出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萬有引力의 法則에 依하여, 重力은 地球中心으로부터의 距離의 自乘에 反比例하므로 地球로부터 아주 먼 空間에서는 地球引力의 크기가 거의 零 가까이 되며, 또 他天體로부터의 引力이 地球引力을

☆ 特 輯

相殺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떤 物體가 重力圈을 완전히 脫出하는데 必要한 初速度를 計算하여 보면 地球表面을 떠나는 瞬間의 初速度가 時速四萬杆 卽 秒速約 一·二杆 以上の 速度를 가져야 한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것을 「로켓트」의 推進力으로 換算한다면, 物體 一封度當約 一〇〇〇封度の Thrust(推進力)가 必要하다.

現在까지의 「로켓트」發展段階로 볼때, 이것은 그다지 큰問題가 못되며 昨年에 蘇聯이 第一 Sputnik(人工衛星) 發射에 使用한 「로켓트」로서, 直接 달을 向하여 쏘다면, 原子爆彈의 무게를 가진 物體程度는 充分히 달 世界까지 보낼 수 있다는 結論이 된다. 그러나 宇宙旅行의 見地에서 본다면 이것도 그다지 單純한 問題가 아니며, 人間과 그가 必要로하는 食糧 其他 여러 가지 機具 및 地球로 歸還하는데 必要한 餘分の 「로켓트」燃料까지 실케 된다면 相當한 重量이 될 것이며, 이렇게 무거운 物體를 重力圈外로 脫出시키려면 아직도 相當한 時日이 걸릴 것이다.

人間이 받는 空間的制約이라는 것이, 非單、重力에만 그치지 않는다. 重力 다음에 오는 것이, 地球를 둘러싸고 있는 大氣圈의 問題다. 이 大氣圈의 問題에 關하여는, 여기서 仔細히 言及할 餘裕를 갖지 못하며

興味를 가지시는 讀者는 筆者가 이미 他紙에 發表한 것 (東亞日報 昨年 一〇月一四日字 및 韓國日報 一〇月一九、二〇、二一日字 所載)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거나, 簡單히 말하자면 超高速으로 突進하는 運搬體와 大氣와의 摩擦로부터 發生하는 高熱、處理問題다. 特히 이것은 宇宙旅行으로 부터 地球로 다시 돌아올 적에 큰問題가 될 것이며 이에 對해서는 超耐熱金屬體의 研究發展 및 滑走歸還方式等 여러가지 方法이 考察되고 있다.

四、燃料問題

宇宙科學의 發展과 不可分の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켓트」의 燃料問題다. 一九五八年度の 宇宙科學에 있어서 그 成果가 크게 期待되는 分野가 이 燃料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使用되어온 「로켓트」燃料로서는 揮發油와 液體酸素가 있다. 그러나 이들 液體燃料는 그 부피가 크고, 또 그것들을 燃燒시키는 데는 많은 「광부」와 複雜한 閉閉辨裝置를 必要로 하며 이때문에 不意의 故障이 發生하기 쉽다. 昨年 一二月에 美國이 人工衛星 Vanguard 試驗發射에 無慘히도 失敗한 原因도 따지고 보면 液體酸素를 보내는 辨裝置의 故障이라는 些少한

事故에起因했던 것이다. 여기에着眼된 것이 固體燃料의 사용이며, 美蘇兩國이 血眼이 되어 秘密裡에推進하고 있는 것도 實用的 固體燃料의 實用化에 있다.

固體燃料의 長點은, 그 密度가 커서 부피가 적기 때문에 運搬體의 重量을 減少시킬 수 있으며, 液體燃料와 달라서 複雜한 여러가지 裝置를 必要로 하지 않기 때문에 故障이 發生할 可能性이 훨씬 적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困難한 短點도 가지고 있으며, 첫째로, 燃料에 따라 固形體에 龜裂이 생겨 燃燒部가 內部까지 侵入擴大되어 瞬間的으로 爆發을 惹起할 憂慮가 많으며, 둘째로, 外部表皮部부터 燃燒해가기 때문에 이에 接觸해 있는 圓筒 容器部가 高熱을 받아서 脆弱해지기 쉽기 때문에 圓筒 容器를 特別히 두껍게, 따라서 무겁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서는, 固體燃料에다 고무 化合物을 섞어줌으로써 彈性을 갖게하여 龜裂發生을 防止하고, 또 구멍을 뚫어서 固體物 中心深部로부터 燃燒을 시킴으로써 容器部를 高熱로부터 保護하는 方法 등이 續續 考察되고 있으며, 이미 어느程度 安定한 使用性을 가진 高性能 固體燃料가 實用化 되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固體燃料의 發達에 따라 「로켓트」의 推進力은 飛躍的으로 增加될 것이며, 特別히 在來式燃料에 比하여 「固有衝擊力」

(Specific Impulse)의 越等히 큰 새로운 化合物의 發見, 發明도 豫想할 수 있게끔 되었다. 原子力을 利用한 「로켓트」方式도 最近 眞摯하게 檢討되고 있음을 附言해 둔다.

五、空間停留場(Space platform)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人間이 宇宙征服에 떠나기가 解決해야 할 問題로서 무거운 짐을 싣고 重力圈을 벗어나는데 充分한 推進力을 가진 「로켓트」裝置 및 燃料問題를 解決해야 할 것이며, 다음에는 宇宙旅行을 마치고 다시 地球로 歸還하려고 할 때, 大氣와의 摩擦로 인한 高熱의 發生으로 流星의 末路가 되지 않도록 이 이른바 再入(Re-Entry)問題 또는 歸還問題를 解決하고자 하여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宇宙旅行에 가장 큰 障害가 되는 重力圈, 大氣圈의 問題를 解決하는 한가지 方法으로서, 五〇〇哩 以上の 上空에다 空間停留場을 두는 案이 論議되고 있다.

大氣圈은 大略 三〇哩 上空까지라고 볼 수 있으며, 그 以上으로 올라가게 되면 大氣의 密度와 壓力이 極히 稀薄해져서 眞空에 가까운 狀態가 된다. 그러나 三〇哩 上空까지는 이들 稀薄한 空氣의 存在라도 無視할 수 없으며 人工衛星이나 사람이 탄 空間停留場

☆ 特 輯

이相當한期間 飛行을 繼續하려면 그 軌道가 적어도 五〇〇哩 以上の 上空에 到達하여야 할 것이다. 人工 衛星發射前에 理論的으로 推測한 바로는 人工衛星的 軌道가 地上 三〇〇哩에 到達하면, 衛星的 壽命이 一年以上 長 길로 豫想되었는데, 平均 三五〇哩의 上空을 돌고 있다. spunik 第一號가 不過 三個月程度밖에 돌지 못하고 大氣圈으로 突入하여 痕跡조차 남기지 않고 타버린 結果로서 본다. 三〇〇哩程度의 上空에도 처음에 豫想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微粒子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動力에 關하여 말하자면, 地球의 半徑이 約四千哩程度가 되니까 地上으로부터 約四千六百哩 上空으로 올라간다면, 地球의 重力은 半으로 줄어든다. 重力이 減少뿐만 아니라 大氣圈에서 받던 空氣의 抵抗力을 받지 않기 때문에, 同一한 推進力을 가지고 훨씬 큰 推進力과 빠른 速度를 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人間이 살 수 있는 巨大한 人工衛星을 數千哩 上空에다 띄워주고, 食糧·機材·燃料 등을 比較的 큰 힘을 들지 않고 이 空間停留場까지 一이 올려가서 여기서 宇宙船을 組立하고 食糧·燃料을 싣고 宇宙旅行으로 떠난다면, 太陽系는 勿論, 太陽系 바깥 空間까지 探索한다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問題는 못될 것

이다.

超音速으로 地球周圍를 돌고 있는 人工衛星 또는 空間停留場內에서는 地球의 重力과 衛星的 圓運動에서 나오는 遠心力이 서로 平衡이 되어 모든 物體가 무게를 갖지 않게 되므로 機材를 分解해서 目的軌道近傍에 띄워 놓기만 하면 이를 蒐集·牽引·組立하는 데는 거의 힘이 들지 않으며 누워서 떡먹기라는 말이 그대로 適用되는 興味있는 事實이라 하겠다.

空間停留場은, 以上에서 말한 宇宙旅行의 발판으로서만 아니라, 地球의 周圍를 끊임없이 돌면서 地上의 모든 現象을 監視할 수 있으며, 이것을 TV로서 直接 地上으로 傳達할 수 있다는 戰略的價値도 있으며 同時에 地形의 觀測, 天體의 觀測 및 各種 放射線의 測量等, 宇宙物理學·地球物理學的 價値도 看過할 수 없다.

六、宇宙科學의 領域과 展望

宇宙科學은 現存하는 어떤 特定한 一科學分野에서 派生되는 專屬하는 것이 아니라, 實로 現代科學의 全分野를 集大成한 綜合科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모든 科學分野의 調和된 圓滿한 共同發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宇宙間 모든 物體사이의 作用하는 力學的原理 및 熱 (四十七面으로 이음)

一九五八年에 北韓傀儡가 企圖하는 것

朴 聖 煥

解放된지 十二年째 되며, 悲劇的인 休戰이 成立된지 四年째 되는 해였던 一九五七年도 우리의 念願인 南北 統一을 爲해서 아무런 進展도 이루지 못한채 無爲하게 지나가 버렸다. 百五十五哩에 亘한 休戰線은 雙方이 如前히 총부리를 겨논채 더욱더 堅固해지기만 하고, 南北韓의 分斷은 한층더 永續化한 것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北韓傀儡는 그동안 不法的인 南侵으로 因하여 散散히 깨어진 軍備를 再整理, 強化하는 同時에 傀儡軍은 「젯트」機를 비롯한 現代武器로서 裝備하기 爲하여 狂奔하여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또다시 南侵을 敢行할 수 있는 機會를 虎視眈眈노리고 있는 것이다.

休戰이 成立될 當時의 北韓傀儡의 兵力과 軍備는 그

야말로 微微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新武器와 新 裝備의 導入을 禁止하는 休戰協定條項을 無慘히도 짓밟고 새로운 武器와 裝備을 가지고 그의 軍隊를 增強하여 왔다. 그들은 北韓全體에 걸쳐 數十個의 飛行場을 建設하였고 MIG-17 과 MIG-19 等을 비롯한 數百台의 最新式 「젯트」機 및 爆轟機들을 導入해 들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傀儡軍에게 原子戰訓 練을 實施하고 있으며 또한 믿을만한 情報에 依하면 潛水艦까지 導入하여 北韓 數個所의 潛水艦基地를 設置하였다는 것이다.

最近에 中共軍 約四十萬이 北韓으로부터 撤收하였 다 한다. 이는 北韓이 保有하는 兵力이 減縮되었음을 意味함은 事實이라 하겠다. 그러나 反面 그것은 北韓

☆ 特 輯

傀儡가 그의軍隊를 우리의 國軍과 對抗해 싸울 수 있을 정도로 充分히 強化再編成完了하고 그의 火力을 大幅增強하였음을 立證해 주는 事實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要컨대 北韓傀儡는 休戰後 四年 동안이라는 期間을 利用해서 그의 軍隊를 擴充強化함으로써 또다시 南侵을 敢行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對하여 우리 國軍은 休戰協定에 一方的으로 억제인 나머지 그의 兵力이나 裝備에 있어서 完全한 踏歩狀態에 박혀있었던 것이다.

最近에 「유엔」軍當局이 이러한 不合理한 狀態를 匡正하기 爲하여 新武器導入을 禁止한 休戰協定 第十三條 D項을 廢棄하는 勇斷을 내리고 駐韓美軍師團을 原子戰에 適應할 수 있는 「펜토믹」師團으로 改編하는 등의 措置를 取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南北韓의 軍事的不均衡狀態를 메꾸기에는 遼遠한 感이 없지 않다.

특히 北韓傀儡는 多數의 爆擊機들을 保有하고 있다 하는바 이러한 事實에 想到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焦燥한 마음을 禁할 수 없다. 北韓傀儡가 또다시 南侵을 敢行한다면 六·二五當時와 같이 奇襲攻擊으로 나올 것은 必至의 事實인바 그때에 萬若 그들 爆擊機들을 動員하여 攻擊해 올것을 생각한다면 한 시도 마음을 놓

을 수 없기 때문이다.

要컨대 現在의 軍事情勢를 概觀할 때, 北韓傀儡共産軍은 또다시 強化되고 現代化되었으나 그에 對抗하는 우리側의 防備態勢를 完全히 完成되었다고 볼 수 없는 가운데 北韓共産軍은 언제라도 한번 南侵을 試圖할 수 있는 狀態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말하자면 一時的이나 軍事的 均衡狀態가 共産側에게 有利하게 기울어진 가운데 新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北韓傀儡는 이러한 軍事的 不均衡狀態의 틈을 타서 또다시 南侵을 敢行할 것인가? 이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異論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現在의 北韓傀儡는 東歐羅巴 衛星諸國을 비롯한다 른 衛星諸國과 같이 蘇聯의 앞잡이이며 傀儡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北韓傀儡는 傀儡의 地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完全한 奴隸이다. 北韓傀儡는 蘇聯의 命令이나 指示없이 行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傀儡가 南侵을 敢行할 것인가의 與否를 決定하는 것은 北韓傀儡自身이 아니라 蘇聯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顯한 事實이다.

그러나 現在의 全般的인 世界情勢를 살펴 볼때에 蘇聯이 自由世界와의 決戰을 試圖할만한 位置에 놓여 있

지 않다는 것은 確立된 見解이다.

勿論 蘇聯이 人類最初의 人工衛星으로서의 所謂「스프트니크」를 外氣圈으로 떠올려 보냄으로써 世界全體를 一大衝擊과 驚嘆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은 것만은 事實이었다. 그러나 蘇聯의 「스프트니크」가 科學的、或은 心理的으로 커다란 意義를 지닌 것임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라 하겠으나, 한편 冷靜한 軍事的 面에서 따져 볼 때에 그것은 그다지 큰 意義를 가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美國은 歐羅巴大陸全域에 또한 極東을 거쳐, 美洲大陸으로서는 「카나다」 및 「아라스카」 半島에 이르기까지 廣大한 對蘇包圍網을 가지고 있다. 美國은 이 廣大한 對蘇包圍網上에 이미 重爆擊基地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을 발판으로 하여 航續距離 千五百哩의 B-47「젯트」爆擊機들을 配置하고 있는 것이다. 軍事專問家들의 一致된 觀測에 依하면 이들 B-47「젯트」爆擊機들은 蘇聯內의 重要한 目標들의 九十五%에 到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反面 蘇聯으로서 는 비록 原子 및 水素爆擊을 保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美國本土까지 運搬할 수 있는 手段을 保有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蘇聯이 人工衛星 發射에 成功하였고 그에 따라 射程距離 五千哩內外의 大陸間 彈道誘導彈을 完成

하였다는 그의 豪言이 事實이었음이 證明되었다는 것은 軍事的 乃至는 戰略的인 觀點에서 볼 때에 蘇聯도 이제 原子 및 水素彈을 美國本土까지 運搬할 수 있는 手段을 保有하게 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에 不過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이 長距離誘導彈을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은 蘇聯도 이제 軍事的으로 겨우 美國과 겨누어 볼 수 있는 水準에 到達하고 있음을 意味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蘇聯은 軍事的으로 아직도 美國과 對決할 態勢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一致된 見解이다.

문만 아니라 蘇聯이 現在 政治的으로 深刻한 苦惱과 難關에 빠져있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蘇聯共產黨 第一書記「니키타 후루시초프」가 지난해에 그의 強力한 政敵이었던 「마렌코프」、「모로토프」、「카가노비치」 등을 除去함에 成功하였고 오랫동안 蘇聯의 實權所有者로 指目되어 오던 「유코프」까지도 肅清해 버림으로써 그의 地步를 더욱 튼튼히 함에 成功한 것만을 事實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가 「모로토프」 등의 「블레비키」의 元老들과 巨大한 蘇聯陸軍을 손아귀에 쥐고 있던 「유코프」를 그와 같이도 一舉에 肅清해 버렸다는 것은 그 自體로서 이미 여러가지로 爆發的인 事態를

☆ 特 輯

惹起시킬 수 있는 씨를 뿌려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후루시초프」는 비록 큰 소리를 치고는 있다 하지만 그의 政治的地位는 現在로서 決코 安定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후루시초프」는 對外的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들을 가지고 있다. 「스타린」死亡後의 여러 가지 理念의 乃至는 思想의 不調에 덧붙여 「항가리」革命 그밖의 蜂起事件으로 말미암아 共產世界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후루시초프」는 앞으로 動搖하는 共產圈을收拾하는 어려운 課題를 가지고 있는바 그가 이 困難한 課業을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을지는 큰 疑問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蘇聯은 아직도 自由世界에 對抗하여 싸울 만한 力量도 없을뿐더러 싸울 수 있는 位置에도 있지 않다. 그것이 蘇聯問題 專問家들의 一致된 見解인 것이다. 따라서 北韓傀儡가 蘇聯의 命令이나 指示에 依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蘇聯의 完全한 奴隸라는 것이 事實인진대 그들이 가까운 將來에 또다시 南韓侵略을 敢行할 수 없으리라는 結論도 있음직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마치 이를 立證해주듯이 지난해에 들어서면서부터 北韓傀儡는 한편에서 그의 軍備를 強化하면서 間諜 諜者等을 通해서 大的인 南韓侵略을 企圖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에서 또한 그들은 「平和統一」의 달콤한 口號를 내세워 一部 沒知覺한 知識層들의 마음을 물리려고 試圖하면서 巨額의 工作費를 써가며 官界, 學園, 甚至於 軍部에 이르기까지 南韓의 各界各層에 浸透해 들

어 오리고 試圖하고 있는 것이다. 昨年度에 警察 및 그 밖의 情報機關에 依해서 摘發된 無數한 間諜事件이 이를 立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北韓傀儡가 政治的 軍事的으로 微妙한 位置에 놓여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北韓傀儡의 首領 金日成은 過般 朴憲永, 李康國을 中心으로 하는 所謂 「南朝鮮 共產黨」派를 肅清해 버린 바 있거니와 最近에는 金科奉를 中心으로 한 「延安派」까지 完全히 除去하여 名實 共히 一人獨裁를 完成하였다 한다. 이는 政治的으로 蘇聯을 上典으로 모시고 있으나 軍事的으로는 中共의 完全한 支配下에 있는 金日成의 立場에 따져볼 때 좀 首肯하기 어려운 事實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생각해 볼 때 이것은 蘇聯과 中共이 理念的으로 或은 實際的인 利害關係上 相克을 일으키고 있다는 여러 가지 論議가 한낱 希望의 臆測에 지나지 않음을 立證해주는 事實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左右間 金日成을 頭目으로 하는 現在의 北韓傀儡가 政治的으로 軍事的으로 微妙한 立場에 놓여 있으며, 그가 南韓侵略의 機會를 恒常노리고 있다는 것이 事實일진대, 그들은 언제 어떠한 口實을 가지고 어떠한 冒險을 敢行하여 또다시 南韓을 試圖할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銘心할 것은 獨裁者들이 戰爭을 挑發하는 것은 恒常 客觀的인 情勢判斷에 依해서만 左右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北韓傀儡의 強化되어가는 南韓侵略工作를 嚴重警戒하는 同時에 어떠한 敵의 攻撃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態勢를 完備해야 될 것이다.

子丑寅卯의 由來



編 輯 室

무술(戊戌)의 한해는 그 전권(全權)이 「개」에게 속하는 해이다. 그러므로 개는 천하를 호령할 것이니 쥐, 소, 범, 토끼, 용 따위 열두분의 금수간부(禽獸幹部)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실없이 잘난 체 떠드는 버릇은 모두가 제 신분(身分)을 모르는 탓이므로 내가 이제 여러분의 신분과 직분(職分)을 밝혀서 잘못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의 선조(先祖) 때의 얘기를 하련다. 고양이는 간부가 아니니 자리에서 물러나라!

지금 우리들의 대단한 벼슬—— 곧, 자(子), 축(丑), 인(寅), 묘(卯)란 잡투는 대체 어떻게 하여 쓰게 되었었는가? 그 내력을 밝힘으로써 모든 문제는 간단히 풀려질, 이리라.

우리 전문축보(犬門戶譜)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아득한 그 옛날 우리의 수백대(數百代) 선조(先祖) 되시는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던 시

대이었다.

그 때 이미 인간(人間)은 그 뛰어난 지혜와 착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만물지중(萬物之中)에 유일(唯一)인 최귀(最貴)란 월등(越等)한 지위를 획득하였던 것이니, 하나님께서 조물주(造物主)에게 특명(特命)을 내리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영도할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가장 신실(信實)한 동물 열을 뽑아서 사람을 보호케 하라 하셨다.

조물주께서는 곧 천하(天下) 동물들에 이 취지(越旨)를 포고(布告)하라고 내일 아침 일찍 참궁(參宮)하라고 하셨다. 참으로 여기에 뽑히는 동물은 자손만대(子孫萬代)에 전하는 영예(榮譽)의 관(冠)을 얻는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 이튿날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가(貓)는 날이 채 새기도 전에 계가 제일

먼저 창조하여 제일위(第一位)의 벼슬을 얻고자 미처 닦도 씻지 않고 조물주(造物主)으로 향하였다.

한편 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할랑스럼고 염채없고 경솔한 동물이어서 그만 밤사이엔 조물주의 포고를 잊어버리고 새벽이 되어 우물가에서 낮을 씻고 있노라니까, 고양이가가 아주 바쁘게 걸어오기에 하도 이상하여 이른 아침에 어쩔가는가고 길을 막고 서물으니 조물주에 가노라고 하였다. 쥐는 그제서야 제가 그것을 잊었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든지 고양이를 손여 돌려 보내고 제가 일등을 하리라는 생각으로 시치미를 떼고

『자네, 오늘 아침엔 헛걸음 했네. 조물주께서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어제 밤에 하나님한테로 가셨는데, 내일 아침에 돌아 오신다고 하셨다네.』
고양이는 그만 맥을 잃고서

『정말이야?』 하니, 쥐는

『정말이지, 이게 어떤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겠어!』

이말에 약바른 고양이 밤눈이 어두워 그만 돌아가고 말았다.

고양이를 손여 보낸 쥐는 재미도 나고 또 자신도 얻고 해서 「어디여 가서 오는 동물을 모조리 손여 돌려 보내고 내 혼자만 가서 특별한 벼슬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소가 두벌두벌 걸어 오기에 쥐는 모른척 하고

『소영감, 어디가셔요』 하니

『조물주님한테 간다』

고 한마디 던지고 그냥 걸어 간다. 쥐는 뛰여 따라가며

『가야 헛일인데요』

하고 먼저엔 고양이에게 쓰던 수단을 써보았으나 소는 그때나 지금이나 꾸준하고 근실한 천성(天性)이어서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

見)이라, 내가 직접 가 봐야지』

하면서 속지를 앓는다. 쥐는 하는 수없이 소등에 올라탤다. 소는 몸이 워낙 커서 쥐 한마리쯤 붙어야 볼은 등만 등 조물주에 들어가니 만 동물은 아직 하나도 오지 않았었다.

조물주께서는 소보다도 날센 짐승이 허다한데도 소가 제일 먼저 온것은 오직 그의 부지런함이라 대단히 치하(致賀)하시고, 제일위의 벼슬을 주려고 하실 때에 쥐란놈이 어스사이에 소 앞다리 사이에 서

1405

『제가 먼저 왔읍니다. 워낙 조그마한 동물이기에 조물주님 눈에 띄지를 앓았는가 봐요』
하고 앞뒷게도 알람거렸다.

소는 당장에 고놈의 쥐를 밟아 없애버리고 싶었으나 감히 조물주 앞이라 하는 수 없이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조물주는 가장 작은 짐승이 제일 먼저 온 것을 치하하

고 쥐에 제일위를 주고 소에게는 제
이위를 주었으니 이때부터 동물의 가
장 높은 벼슬은—자(子), 축(丑)……
……의 순위로 결정이 되었던 것
이다.

쥐와 소가 이려고 있을 무렵에 범
(虎)의 선조(先祖)는 그때도 역시 날
새기로는 천하 제일이란 자신이 있
었기 때문에 좀 늦게 출발하여 바람
을 헤치고 달려 오는데, 도중에서 토
끼와 마주쳤다.

『범아저씨 저도 좀 데려다 주세
요』

하고 토끼가 애원(哀願)하므로 범은
곧 그놈의 귀를 냉큼 잡아쥐고 희대
속력을 발휘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토
끼의 귀가 길다랗게 늘어났을 뿐아
니라 뒷다리도 길어지고 말았다.

날새기로 천하 제일을 자랑한 범
은 부지런한 소에게는 당하지 못했
으나, 조물주께서는 범에 제삼위, 토
끼는 범의 덕분으로 제사위를 얻었

으니 子丑, 寅卯, 그러자 용(龍)이
범을 데리고 입궁(入宮)했다. 용이
나 범은 원래는 둥근 동물이었다. 제
주 많은 용이 구름을 타고 달려오자
범이 또한 저도 함께 데려다 달라는
애원을 하였다. 용이 가만히 보매 범
은 자기와 같은 둥근 동물인지라 크
게 동정하여 그와 같이 바람을 타고
하도 빨리 날았기 때문에, 둘 다 길
다랗게 늘어졌던 것이다.

조물주께서는 도착 순서대로 용에
제오위, 범에 제육위를 주었으니 子
丑, 寅卯 진(辰), 사(巳)……

지금도 범이 조금이라도 여가만 있
으면 둥근 모양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이리하여 子丑寅卯辰巳 여섯 동물
을 골라내니 해는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물주께서 점심식사 하러 들어가
신 뒤 말(馬)이 나타났다. 말은 점
심시간을 기다리기가 지루하여 제일

앞에 앉아서 즐기고 있노라니 석사를
마치신 조물주께서는 말의 태도를 보
시고 노기(怒氣)를 비우시며,
『네 이름! 감히 누구의 앞에서
낮잠을 잘고!』

하시니 잠짝 놀라서 일어선 말은 머
리를 숙이고 처분을 기다리었다.

『당장에 목을 맨 것이로되 오늘
의 경축일(慶祝日)을 기념하여 특
히 용서하니, 너는 한평생 늙거나
앉아서 잠을 자지는 못하였다.』

난 말은
『분부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공손히 대답하였다. 조물주께
서는 상은 상대로 말을 제칠위에 앉
혔던 것이다.

이때 같이 왔던 염소는 말이 꾸중
을 단단히 듣는 것을 보고서 제가 잔
난듯이 『예헛, 예헛!』 하고 수염을
쓰다듬으니 조물주께서는 그 앞미운
태도를 꾸중하신 뒤

1406

『너는 아래수염은 기르되 윗수염은 없애 버리고 평생(平生) 물을 입에 대서는 안된다.』

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에게도 여덟째의 자리를 주셨다.

때마침 나무가지에서 재롱을 부리며 놀고있던 원숭이가 조물주 앞으로 달려와서

『저도 넣어 주십시오』

하고 애걸지원(哀乞志願)하므로 그의 모양은 사람에게 근사하고 재주는 오히려 사람을 능가할 우렁가 저지 않아

『너는 사람을 보호하되 멀리 산에서 열매나 따 먹고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동물이 있으면 속히 연락이나 하도록 하여라』

하시고 아홉째 자리에 앉혀셨다.

이제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자리에 는 어떠한 동물이 올 것인가 하고 모두들 이리저리 살피고 있는데, 뒤들 간나무 가지에서 아름답게 몸차림을 하고있던 닭이 『꼭꼬오——』하고

노래를 부르더니 후르르 날아 어전(御前)에 선다.

본시 날짐승만은 넣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지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닭은 주로 날아다니지도 않으며, 그 마음과 화려한 모양을 볼때 사람을 보호할 수 있으리란 것을 추찰하시고 마지막 열번째의 자리에 앉혀셨다.

이리하여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의 직위 일명이 끝났다. 이 경사를 축하(祝賀)하기 위하여 간단한 술자리를 베풀었다.

『술상 가져 오너라』

◇ ◇

그런데 이때 우리 선조께서는 긴급 용무로 그만 늦게서야 조물주에 나갔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할 수 없이 그냥 가려는데 「술 가져오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이다. 그때 우리 조상께서는 곧 시녀(侍女)들이 대답할 사이도 없이

『예, 여기 술(戌)이 대령하였을니다.』

하였다. 조물주께서는 「하, 하」호걸 웃음을 하셨다. 우리 선조의 거동을 본시너들도 술상을 든채 『해, 해』 웃어댔다. 그러자,

『예, 여기 해(亥)도 대령하였을니다.』

하며 나팔같은 입을 가진 돼지가 다시 어전에 절을 하였다.

『오나 열하나, 열둘의 자리를 줄테니 끝에 가서라』

하시는 조물주의 말씀에 필듯이 빠져 끝자리에 섰다.

조물주께서는 열두 동물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순서대로 하루에 두

시간씩 교대하여 사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람을 해하려 할때는 천벌(天罰)로써 엄하게 벌을 주겠노라』 하셨다.

이러한 행사가 있는 후 오늘날까지

☆ 恐怖는 머리털을

빨리 자라게 한다

恐怖는 머리털을 더 빨리 자라게 한다는 一般人들의 信念은 西班牙 醫師들에 依하여 確證되었다. 그들은 鬮牛競技가 始作되기 前에 數時間 동안 鬮牛士들의 手葉이 普通 때 보다도 二倍半이나 더 빨리 자란다는 事實을 發見하였다.

▲ 五百名 거느리고 降伏

「버마」 共產頭目인 老僧侶

「버마」 最大의 共產暴徒指導者 조
그만 佛敎僧侶 「유·제인다」는 部
下 五百名을 거느리고 드디어 降

伏해 왔다.

그는 오래전부터 東部 「파키스탄」 國境線으로부터 「이라와디」 「三角洲」의 西端에 이르는 全 西海岸地區를 支配해 오던 가장 熱烈한 指導者로서, 身長은 겨우 五「파트」 「인치」에 不過하며, 當年 五十五歲, 三十五年間 僧侶生活를 하여 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 「제인다」씨의 가장 特異한 事實의 하나는, 그가 가장 熾烈한 叛逆運動을 通하여 數千名의 武裝暴徒를 指揮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自身만은 僧侶로서 決코 武器를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편단심(一片丹心) 충성을 다하여 온 소와 말이 있고, 토끼, 염소, 돼지와 같이 사람의 따뜻한 사람의 품에서 살아온 짐승도 있으며 어김없이

시간을 알려주는 닭도 있으며, 사람이 살고있는 집을 수비하는데 밤잠을 자지 않는 우리(개)도 있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원수와 같은 괴

물 지은 쥐는 무계없이 까불고 속임수만 일삼다가 사람에게도 신용을 얻지 못한 위에 응당,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면 서도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지어는 곡식을 훔쳐 먹으니, 이제 사람들이는 하는 수 없이 고양이를 사랑하여 그로하여금 쥐의 섬멸을 피하고 있는지라, 멀지않아 쥐의 자리에 고양이들이 설 날이 온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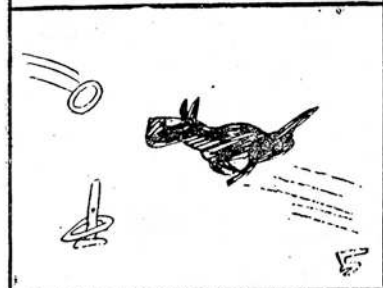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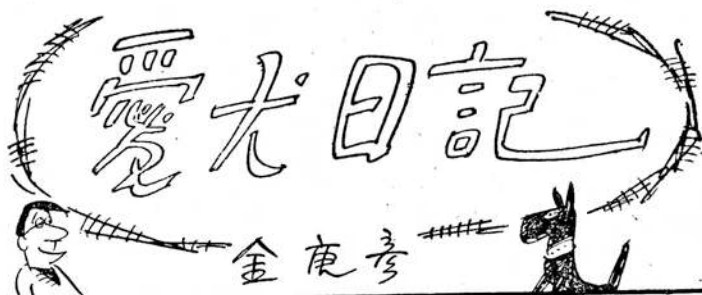
이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알았을 것이니 일거사투족(一擧四投足)에 본분(本分)을 잃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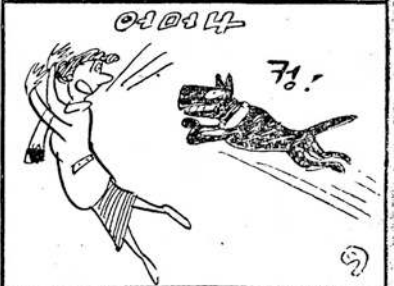
금년에는 내가 친하를 호명할 직책을 맡았으니, 나에게 주어진 권한에 의해서 전집승들을 지휘통솔한다. 모두들 자기의 말은바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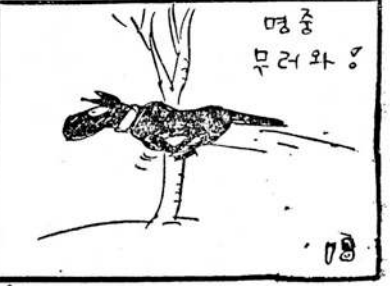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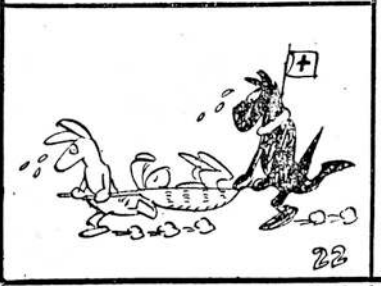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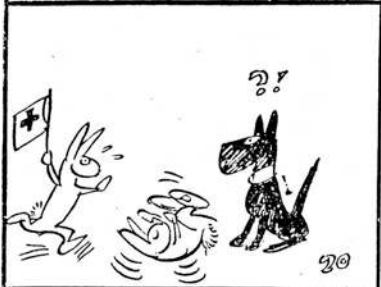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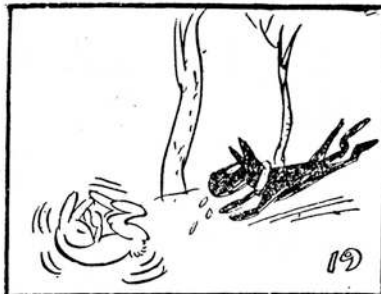
—(끝)—

愛犬日記

金庚勳







(詩)

金門島

— 柯遠芬 將軍에 감사를 드리며 —

趙炳華

그 옛날 이섬 金門島는

남지나해(南支那海) 일대에 출몰하는

해적들의 본거지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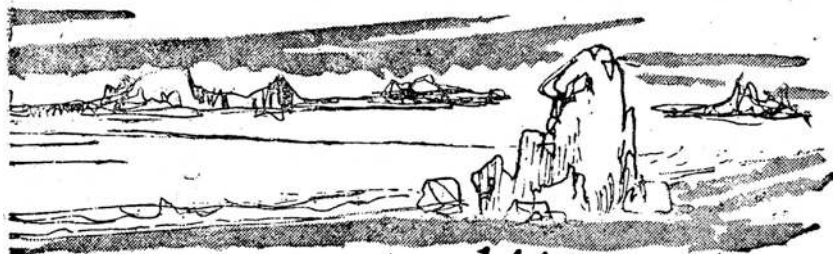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 이섬 金門島는

자유의 요새

아세아의 아성

극동의 창두보(槍頭堡)

은 자유 아세아 시민들을 지켜주는 불면(不眠)의 섬이다



金門島는 작은 섬

金門島는 나무가 없는 섬

金門島는 바람이 많은 섬

金門島는 암석만 남은 불모(不毛)의 섬

金門島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풍(砂風)의 섬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뜨거운 심장

그런데 지금 이 나무가 없는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믿음의 수림

그런데 지금 이 바람이 많은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사랑의 성벽

그런데 지금 이 암석만 남은 불모의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불멸의 의지

그런데 지금 별관에, 봉우리에

모래바람만이 억센 이 섬은

우리의 우방 자유중국의 피와 눈물과 담과

온 형제자매들의 뜨거운 사랑, 믿음, 의지, 약속

한결같이 맑은 혈액이 흐르는 땅



지금 金門島 二五三高地 太武山 봉우리 즐기 즐기는

지금 金門島 해안선 구석구석은

지금 金門島 한 발판 모래바람이 여섯

불모의 지하(地下) 지하(地下)는

우리의 우방 뜨거운 형제들의 피 그리고 신경 그리고 의지

그리고 생명

지금 金門島 太武山 山麓

전몰군인(戰沒軍人) 사당(祠堂)엔

피에 묻힌 형제들이 毋忘在莒 속 묘이

잠들어 있다

丹心千古 碧血千秋 正氣千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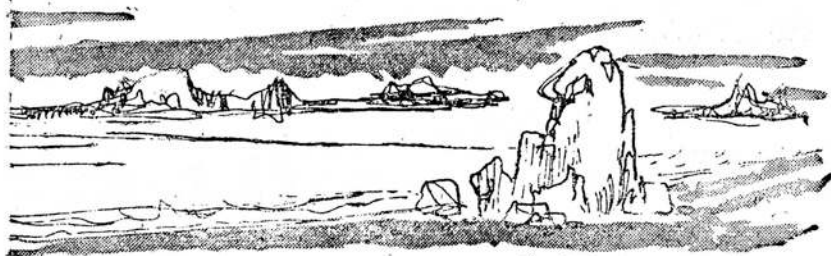
지금 이 영혼의 정원(靈魂의 庭園)엔

바람도 잔다

풍선(風船)을 올린다

풍선(風船)을 띄운다

바람에



그리운 육지(陸地)로 바람이 불면
섬에선 풍선을 날린다

△동포요! 선량한 동포요! 자유의 나라 이곳으로 오라!▽

△조직을 부수고 인간을 찾자 자유의 나라 인간의 나라

이곳으로 오라!▽

△방공항아 민족의 나라 동포의 나라 이곳으로 오라!▽

그 옛날 이섬 金門島는

남지나해(南支那海)일대에 출몰하는

해적들의 본거지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섬 金門島는

자유의 요새

아세아의 아성

극동의 창두보

온 자유 아세아 시민들을 지켜 밤낮을 새우는

자유중국

불면(不眠)의 섬이다.



(詩)

바위와 나비

朴

喜

璣

한 큰나큰 바위가 있다

쪽빛 하늘과……

눈부신 구름과……

나무 나무와……

흐르는 물과……

그리고 소리없이

번갈아 뜨고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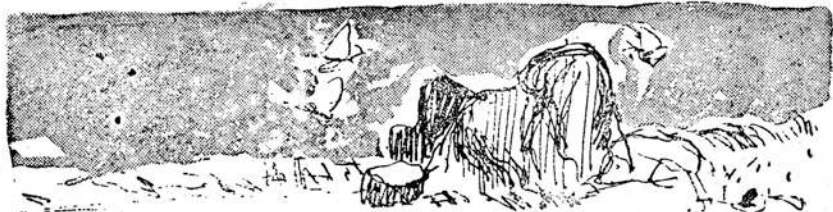
해와 달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어느날

그러나 그것은 왔다

먼 하늘에서 내려진 사연처럼

꽃무늬처럼



흰 나비가 바위에 안겼을 때

순간

나비는 움적도 안했고

바위는 살아 숨쉬는 듯……

즈문해의 잠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허나

이윽고 나비는 사라졌다

그리곤 다시

모오든 것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쪽빛 하늘과……

눈부신 구름과……

나무 나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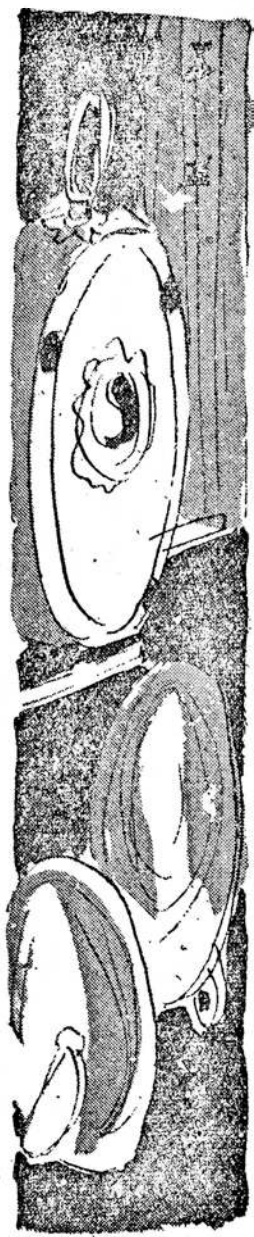
흐르는 물과……

마는 그때부터

바위엔 이끼가 끼기 시작했고

이내 영 잠들 수는 없었다





西
京
別
曲
評
說

—古 謠 今 釋 2—

梁 柱 東

小 序

編輯선생이 부탁한 글은 「美風·良俗을 노래한 우리 古典 民謠의 解說」이다. 因하여 생각전면, 우리 白衣 先民의 古謠가 모두 「善人」(東方朔「神異經」)의 노래로서 어질고 信義를 고서로 사 망하는 고운 담씨를 樂天·快活의 調로써 自然스럽게, 꾸밈없이 그대로 나타낸 「소미」였거니, 어느 代, 어느 調의 歌謠인들 스스

로 良風과 美俗의 感發의 材料가 되지 않으랴. 가까이 漢陽朝의 「아리랑」이나 「農歌月令」 등의 四·四調의 素朴한 가락이나, 울다가 麗代의 「井邑詞」·「動動」流의 三·三·三調의 哀絶한 리듬이나, 내지 「處容」·「風謠」 따위의 悠遠·深遠한 머나먼 羅代의 古調나가 모두 제각기 特色과 「멋」을 가진채로 一貫된 天真·구수 모이론바 「근기」의 순기찬 賑裕과 情調를 띠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歷代 歌謠中에도 俗謠로서의 絶唱은 아마 麗代의 노

때에 集中되었다 하더라. 위에 잠깐 말한 노래—— 집 떠나 行商나간 남편의 歸路를 걱정하면서 아내가 달밤에 山에 올라 노래한 「井邑詞」나, 正·二月·동지·설날의 달마다의 風物에託하여 「고운 詞」를 頌揚·戀慕·哀訴한 「動動」의 諸驕이나, 이른바 「忠臣戀主」의 悲曲인 「鄭瓜亭」과 간질·소박한 語句안에 그치지 않는 「어이」(親)사랑의 哀情을 道破한 「思母曲」내지 男女의 離別·戀慕의 章으로 古今의 歷卷인 「가시리」와 「滿殿春」—— 그 어느 것이 絶唱과 麗調아님이 없으나, 그 중에도 聲調의 美와 情思의 惝惘으로 가장 우리의 心琴을 울리는 것은 「靑山」과 「西京」의 두 「別曲」이다. 대개 前者는 그 流暢한 리듬으로써 古今에 冠絶하며, 後者는 그 內容의 애뜻하고 간절함이 類作중에 卓越함으로써 이다. 本稿는 그러므로, 우선 그 詩想의 優秀性과 現代性에 비취어, 「西京別曲」一篇의 鑑賞과 解說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시리」(「古歌今釋」)에 續한 舊稿를 약간 되손질하여 文責을 막는 所以이다.

「西京別曲」은 麗代의 俗謠로서 作者·年代 모두 未詳이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西京(平壤)의 한 女人이 그 愛人을 부득이 南쪽으로 보내면서 그 애끓는 別懷와 굳건한 信義, 하염없는 情痴를 아울러 간절히 노래한 絶唱인데, 全篇 三聯, 第一·二聯은 三·三·三調 各四句, 末聯은 同六句로 되어있다. 어느 聯이나 모두 絶調로 사람의 心琴을 몹시 울려주지만 특히 그 第二聯——

구스리 바회에 더신듯 긴칠틈고 그르릿이가
즈문해틀 의오름 내신듯 信잇논 그르릿이가

는 그 歌意로나 聲韻으로나 미상불 우리 歷代歌謠中の 最高의 逸品이라 이르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우리의 現在 處하여 있는 狀況에 비추어 볼 때, 國土 兩斷의 슬픈 情景에서 벗어나 別離에 서로의 애를 끊고 한갓 南天을 바라보면서 옛날 西京의 佳人보다 오히려 몇갈절인이 비슷한 悲曲을 부를이가 생각되면 과연 그럴마로. 그러나 作者는 이미 노래하였것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을, 실마 끈이야 끊어지랴. 몇몇해물 의마로 갈려서 산들, 하나로의 민을이야 기어코 이루어지지 않으리.」 우선 하필이 노래를 가면서 지나치리 만큼 자세한 文學的 批評을 거듭 시범하여 이 노래의 傑作인 所以를 解說하여 보는 微意의 一半이 아마 여기 있다 하라.

1

西京이 서울히 마르는

다끈디 쇼성경 고의마른

여히드론 절삼피 뒤러시고

피시란디 우러곰 좃니노이다

首聯은 賦이다. 장차 西京의 애끓는 別恨을 叙할새, 붓을 어디로부터 비롯하로. 대저 敘事와 叙情엔 매양 屈折이 있고 워나 次序가 있는 법이니, 別을 叙하되 곧 別을 直叙치 않고 집짓 그와 반대로 임과 따름을 먼저 叙함은 非但 여희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그러할 뿐만이

아니요 또한 文情이 불가불 그래야만 하는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고 이 恨 많은 西京의 別意를 대변에 쓴 南浦의 斷腸으로써 寫한다면, 文心은 그 情恨에 대한 아무런 漸層的 活動이 없이 너무나 唐突·龐率함에 그 品位를 잃어버릴 것이요, 讀者는 이 別離에 관한 何等的 豫備의 情緒를 가짐이 없이 애초부터 倉卒·着急함에 도리어 狼狽할 處가 있으리라.

「西京이 본디 서울이언만, 새도 담은 小京을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언만, 이렇게 고운 임을 여희므로 차라리 절 삼피를 버리고서 사랑하기만 하량이면 어디까지나 울면서 임을 따르겠노이다。」 대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떠나기 어려운 곳은 자가(자기)의 향토요, 더구나 女人에게 있어서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은 저들의 절삼이다.

그렇거늘 이 버리기 어려운 두가지를 한꺼번에 버리고서 라도 단연코 임을 따르려 함은 대개 戀慕의 至情을 먼저 叙함이니, 이는 장차 애끓는 別恨을 叙함에 있어서 그 前提의 要件이요, 또 豫備의 手段이다. 더구나 本聯은 詞意가 悽絶하되 叙事는 애초에 人情의 機微를 떠나지 않고, 情思가 悱惻하되 素材는 스스로 女工의 職事를 벗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한갓 竹枝의 絶調일 뿐이 아니요 또한 闋詩로도 正宗이라 이를 것이다.

別을 叙하려 하여 먼저 님을 따름을 叙할새 이 또한 兩

樣의 意思를 寓하였으니, 一은 애끓는 別恨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讖을 마지치지 않고자 한번더 은근히 임께 借行을 원한 것이니 이는 本聯의 正面的 意思요, 他는 이 別이 진실로 無奈임을 알세 짐짓 本懷를 述하여 現實과 對照함이니 이는 그 裏面的 境地이다. 그리하여 歌者는 이 首聯에서 이 無可奈何의 別離의 原因이 진실로 彼美에 있고 我에 있지 않음을 어느 틈에 夾寫하여 글자대로 如怨如慕의 情緒를 완전히 表現함에 成功하였거니와, 한편으로 우리는 뜻밖에 이 한낱 漢濱遊女의 歌辭에서 다른 것 아닌 春秋 作者의 筆法을 엿보게 되니, 또한 一奇라 할 것이다.

II

구스리 바회에 더신듯

진히듯 그 츠리잇가

즈믄 篋를 의오꿈 녀신듯

신잇둔 그 츠리잇가

次聯은 興이다.

前聯에서 우리는 此別이 無奈임을 알았다. 임을 좇음이 진실로 소원이언만 그를 얻지 못하며 오직 別이 있을 뿐이나, 別을 叙하기 전에 다시 無數 纏綿의 情과 許多

殷勤의 辭가 없지 못할 것이니, 이는 本歌의 用意가 원래 魏都로 直走커나 子午谷을 偷度코자 하는 奇兵의 術이 아 니요 어디까지나 孟津을 건너고 渭濱에 屯田코자하는 正 師의 法을 擇한 以上 不得已한 일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써 이 纏綿과 殷勤을 簡潔히 또한 印象的으로 表白하라. 가로되, 別이 無奈면 오직 後約이 있을 뿐이요 後約이 丁 寧하면 응당 山盟과 海誓가 있을 것이나, 後約은 매양 支離하기 쉽고 山海의 盟誓는 흔히 凡庸에 흐르기 쉬운 법이니, 이 경우에 適當한 辭는 무릇 支離·凡庸하지 않 은, 가장 清新可喜한 天籟의 筆致임을 要한다. 그러므로 歌者는 本聯에서 문득 人意밖에 나서 瓊珠와 纓絡을 起 興하여 써 信의 不渝를 맹세한 것이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어이 끊어지리이까. 千年을 의마로 가 신들 信이야 어이 끊어지리이까.」

무릇 興의 妙諦는 대개 두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起興 의 情調가 叙情의 內容과 緊密히 交涉되면서도 그 形式 은 어디까지나 일부러 譬喻的이 아닌, 극히 自然스러운 語勢라야 할 것이요, 또 하나는 起興의 素材가 生 生하여 사람의 意表에 나오면서도 實은 극히 恒茶飯의 目前의 事實에서 取材되어야 할 것이니, 約言하면 興이란 疎한듯 親하며, 遠한양 近하고, 奇하되 凡하며 拙한채 工한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이제 本聯을 보건넌, 信의

不渝를 叙하기 위하여 문득 바위 위에 떨어진 구슬로써 이를 起興한 것은 전혀 作爲의 흔적이 없고 조금도 故意 의 譬喻인 感이 없으며, 그 取材가 애초에 清新·純樸하 고 그 格調가 사뭇 宛轉·悽切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會 心의 微笑를 짓게하고 또한 눈물겨운 感動을 發하게 하 니, 此種의 興法은 저 毛詩 三百篇 중에도 그 類例를 찾 지 못할 것이다. 作者가 하필 바위에 떨어진 구슬을 取 材케 된 것은, 무론 장차 中絶되려는 자가의 애끓는 情 緣을 이에 擬하여 스스로 슬허함이나, 그 着想의 動機는 또한 當時 女人의 몸에 구슬과 끈을 흔히 장식하고 盛裝 한채로 登高·遊山하던 習俗이 있던 것을 想起할지니, 대개 이 起興은 그저 抽象的 譬喻나 劈空의 撰出이 아니 요 본디 日常生活의 慣有的 事件을 隨手로 拈出하여 尋 常히 이를 借來한 것이라, 어디까지나 斧鑿의 痕이 없는 극히 自然스러운 取材인 것이다.

本聯은 더구나 우리 先民의 信義를 如實히 보이는 絶 調로서 가장 사람의 肺腑에 깊이 浸潤되는 哀絶·凄絶한 情調와 聲韻을 가졌다. 거기 에 使用된 말이나 그 想이나 調가 하나도 在來 우리 文學 大部分의 通弊인 漠吳가 없 고 이야말로 本原의 生來의 純韓國의 情趣요 想念이 라 하리라. 우리는 이 兩句를 諷詠하여 볼 때에 그것이 한낱 西京 竹枝의 一聯임을 완전히 忘却하고 어느 틈에

古人之藝術의 心琴에 곧바로 接觸하는 동시에 그 崇高한 心思, 그 깨끗한 信義感에 渾然히 融會함을 느낀다.

「진릿돈」의 「진」과 「信잇돈」의 「信」이 韻韻의 效果를 十二分으로 發揮함은 煩說한 것도 없으리라. 此種의 韻韻法은 이른바 天衣無縫으로 오직 여러번의 朗詠만이 그 宛轉한 聲調美를 깨닫게 한다.

以上首聯과 次聯에서 歌者는 아직도 直接「別」에 관하여 一語도 漏洩함이 없다. 곧 初聯에서는 임과 함께 奚님을 叙라고, 二聯에서는 信이 不絶하기를 誓約하였을 뿐, 그러나 우리는 이 兩聯으로써 이미 「別」의 一步直前에 臨한것을 충분히 意識하게 되었으니, 換言하면 尙차 結聯에서 別을 哭할 情緒의 準備와 行文의 土台가 眞작 完成된 것이니, 本聯으로부터 次聯으로의 推移가 一見 百步의 飛躍이 있는 듯 하면서도 實은 一髮의 間을 용납치 못하리만큼 緊密히 連絡된 所以이다. 이는 전혀 漸層法에 의한 以賓襯主의 妙法이요, 또한 婉曲體를 쓴 指東擊西의 眞諦이다.

III

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뵈내여 노홀다 샴공아

네가시 넘난디 몰라셔

널비에 연즌다 샴공아
大同江 건너편 고를여
뵈라를면 짓고리이다

結聯은 興而賦요, 또한 賦而興이다. 대개 首聯의 賦와 次聯의 興을 結束하여 結聯에선 興·賦 交用的 體를 取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句法·章法의 連鎖的 手段이다.

이제 歌意는 序曲의 悠然한 情緒와 中段의 切切한 叙懷를 지나 점차 江頭 一別의 急迫한 情景과 안타까운 心思를 叙할새, 이 九曲의 斷腸과 萬斛의 離愁는 到底히 尋常한 手段과 恒例의 傢伙로써 그 表現이 可能한 者아님을 알 것이다. 무릇 悲를 다만 悲로써 그대로 直叙라고 怨을 오직 怨으로만 單純히 表白함은 그 悲를 오히려 平凡化하고 그 怨이 도리어 常套視될 虞가 있으니, 왜냐하면 激情은 노상 變則的 發露를 보이며 極恨은 흔히 自體的 表明을 拒否하므로 이 지극한 情恨을 寫하기 위하여는 右筆外에 다시 左筆을 換用하고 正墨아닌 또한 反墨으로 夾寫한다 하더라도, 文章엔 스스로 理路와 脈絡이 있고 情思는 본디 源由와 曲折이 있을 것이니, 대저 別을 恨할진댄 그는 응당 임을 怨望할 것이요 임을 怨하는 나마엔 도리켜 먼저 自身을 恨할지나, 이제 行文이 尋常히 別을 恨하거나 凡庸히 임과 自身을 怨하는 平叙的인 經路를 取

하지 않고 문득 無心한 一片의 自然과 無情한 一箇傍人을 拉來하여 이 萬種의 離恨과 一段의 哀怨을 그에게 하 소연한 것은 대개 別離와 直接 交涉되는 眼前·脚下의 情景를 借하여 이로써 自身이 스스로 몸부림하고, 다음 임계 향하여 굳이 매어달리고, 따라서 別 그것을 애초에 몹시 咀呪함이니, 성난 발길이 혼히 어리석게 無心한 들을 차고, 어지러운 心思가 대양 애구진 개를 꾸짖음은 激昂된 人情의 常事이다.

本聯은 歌意가 스스로 三段으로 나누인다. 「大同江 넓은지 물라서 배내어 놓았느냐, 사공아。」首聯은 임이 아직 배를 타기前 一刻의 情景. 「너는(넙은) 二字, 어찌 그리 無窮한 情과 形容할수 없는 妙味를 띠었느냐. 여기 서 넓다 함은 참으로 江물의 幅이 넓다 함이 아니다. 임이 한번 저 江을 건너 南으로 南으로 가시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아득하거나, 大同江이 본디 一衣帶水에 不過 하건만 나와 임 사이에 萬里두곤 더한지라, 大同江이야말로 내게는 참으로 좁은양 넓지아니하냐. 저 江물이 이렇듯이 넙은 줄은 오직 有心한 이라야 알수 있고, 다만 目前에 別離를 둔 사람이랴야 알수 있나니, 無心한 저 사공이 어찌 이를 알리오마는, 無心한 줄을 뻔히 알면서도 애구진 그를 또한 怨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진실로 別恨의 別恨되는 所以이다. 毛詩 衛風엔「孰謂河廣, 一葦航

之」라 佳句가 있거니와, 本句는 그와는 正反對인 意味로서 그보다 오히려 數倍의 含蓄과 別樣의 滋味를 띠었으니, 「大同江 너본디 물라서」의 三語 一句가 저「西廂」琴心の「中間 一層紅紙, 幾眼疎擲, 不是雲山幾萬重」으로 하여금 스스로「不及卿三十里」의 嘆을 發하게 하리라. 시험하여 이 一句를 朗詠하여 보라. 「大同江」三字의 聲調가 어찌 그리 悲涼하며, 「너본디」一語의 寓意가 어찌 그리 幽遠하뇨.

다음 第三段, 「네 가시 넘넉디 물라서 넉비에 연은다, 사공아.」이 三·四句는 前二句의 敷衍이나, 前節이 임이 배를 타기 直前의 情景임에 反하여 本節은 임이 벌써 배에 오른 直後의 情景이니, 가는 이는 船首에, 보내는 이는 江頭에 脈脈히 서로 바라보는 기막힌 순간이나, 보내는 이는 입을술을 깨물고 아직 一語도 가는 이를 直接으로 怨하는 말이 없이 다만「사공아, 너는 네 아내가 음난한지를 물라서 갈배에 실었느냐」를 거듭 사공에게 되풀이할 뿐이니, 哀怨이 이렇듯이 間接의 이므로 사 그至情이 오히려 뼈에 사무치고 그 통곡하는 소리를 바도 종이 위에 들는 듯하다. 作者가 이렇듯이 임께 대한 怨辭를 아끼고 아껴온은 대개 怨이 極하고 恨이 至함을 襯코자 함이나, 文心이 또한 그 지극한 境界에 到達하얀 筆與墨이 一時에 모두 잠시 停止됨이니, 무릇 多情한 別을 叙

할일수록 怨을 寫하되 붓을 단추함이 處女와 같고 恨을 叙할엔 먹을 아찌이 兼金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怨을 아껴옴은 본디 무엇보다도 次句의 結辭에서 비로소 그것을 結晶的·集中的으로 正寫코자 함이니, 그러므로 前一·二句는 外形上 전혀 事功을 圓滿하는 양하였고, 本三·四句는 比대두고 난데없는 「사공의 妻」를 빌어 心を 夾寫하여 自身의 憂愁를 비로소 正叙하는 동시에 下文 結辭의 土台를 만들었으니, 요컨대 一·二·三·四句는 장차 會 結辭 五·六句의 正文을 향하여 밀리 順次的으로 夾心的 體勢를 取하여 온 것이다.

「네가시 님난다」의 「네」二字, 가장 深恨을 寓하였다. 老杜詩의 「春宅棄汝去」의 「汝」字가 이와 芳불한 筆法이다.

第三段은 바로 배가 떠나려하는 마지막 告別의 辭이니 本歌의 結辭이다.

이 恨 많은 別離의 最終의 辭를 무엇으로 끝막을까. 尋常한 付囑은 이미 前聯의 盟約이 있음에 再提가 이상을 贅辭일지요, 지극한 哀怨이 워나 本聯의 主旨이나 正叙는 또한 禁物이니, 여기엔 아무래도 非常히 深刻한 情痴의 表現이 필요하고, 여기엔 그러해도 全然 意表인 着想의 手法을 必須로 한다. 다시 말하면 結辭가 다만 結辭로서 平淡하게 그대로 平凡히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크게 反撥의 彈力을 發揮하고 문득 잠작 놀렘만한 炸裂의 閃光을 번쩍여야 할 것이니, 그러야만 結句가 強勢가 千鈞보다 무겁고 그 餘響이 三日이나 끊이지 않으리라.

「大同江 건너편 고을여 比타들면 것고 리이다。」歌者는 忽然히 着想을 一轉하여 「大同江 건너편 꽃」을 想起하였다. 「꽃」이란 무론 「彼美」의 義요, 端的으로 말하면 여기선 「만 心」의 뜻이다. 「大同江 건너편의 다른 꽃을, 心은 배를 타기 못하면 겪으리이다.」 心은 한면 배를 타고 江을 건너면, 거기는 응당 많은 꽃이 다투어 피어 있어 心의 겪기를 기다리려니, 半이나 시들은 江北의 이 꽃을 어이 다시 생각하로. 心에서 겪는 꽃을 말한 줄이야 있으리만, 고운 내 心을 江 건너 편 만 꽃에 말 질 수 밖 여 없 는, 보내는 이의 애는 열 마나 寸 寸히 끊 어 지 는 노. 그 지 없 는 痴情이 이요 가 없 은 心 思 인 줄은 스스로 모 르 는 배 아 니 언 만, 이제 마지막 으로 心을 보내는 순간, 胸中에 굳 게 맺 힌 情 恨은 드 디 어 막 을 길 이 없 고, 心 頭 에 불 려 듯 떠 오 르 는 哀 想은 어 저 버 감 출 길 이 없 다. 그러 나 이 말 인 들 어 저 心 間 에 향 하여 直 接 으 로 마 다 거 나 원 망 할 수 있 으 란. 「것고 리이다」는 그럼 에 도 半 이 나 혼 자 서 의 탄 식 이 요 말 하 지 면 間 接 的 인 哀 訴 이 니, 지 극 한 怨 情을 이 렇 듯 自 嘆·呼 訴 의 辭 로 써 끝 내 이 도 리 어 形 言 할 수 없 는 切 切 한 感 動과 名 狀 키 어 려 운 惻 惻 한 餘 韻을 남 기 거 니 와, 또

한 이른바 詩人의 忠厚의 義아님이 아니다.

本節의 妙處는 무릇 두 곳이 있다. 하나는 무론저 「大江 건너편 꽃」이란 天來의 着想과 意表의 奇語. 우리 는 本聯 前四句를 諷詠할 때에, 더구나 第三句 「넙넙디」一語를 翫味할 때에, 結句가 대개 怨辭인 줄을 豫測하였 으나, 이렇듯 全然 異樣의 手法으로 驚人的의 神句가 뒤에 기다릴 줄은 몰랐다. 「平蕪盡處是靑山, 行人更在靑山外」란 宋人의 句가 바로 이 境地를 말한 것이리라. 古人之 이른바 「何處得來」란 評語는 오직 此種의 文字에만 쓰여 질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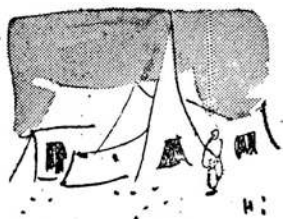
「고졸여」의 「여」는 詠嘆의 辭로서 우선 三音充足의 必要上 添加된 字로도 볼수 있으나, 그 中間의 一旦休止. 一番頓挫가 또 일어나 回想의 인 悽絶한 情緒를 倍加하며 일마나 咏嘆의 인 가없는 哀想을 表象하노 대개 기막힌 所懷는 본디 一口로 直說키 어렵고 每當 一時의 休止, 拍자의 按頓으로써 다시 숨을 들러 叙述함을 要하는 것이다.

第二의 妙處는 「배타들면」一語가 그것이다. 배를 타

들면 설마 고대 꽃을 꺾으리오마는, 배를 타 한 번 타랐으면 別處 내일이 아닐새, 배를 타는 그 순간이 보 내는 者에게는 性急하게도 진작 꽃을 꺾는 시초도 생각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배타들면」以下の 句는 속살론 은근히 임에게 부치는 辭이언만, 文勢는 어디까지나 前四句 사공에 대한 怨辭의 延長인양 보이기도 하니, 이렇듯이 詞意에 表裏와 陽陰이 相反됨은 本聯 自初至終 六句가 모두 「되」一字를 契機로 하고 中心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배」는 이 경우에 別恨을 叙하기 위한 單純한 應用 儗仗에 不過하거나와, 通聯의 結構는 全盤이 一語를 貫통하여 이른바 「獅子 滾球」의 妙義를 如實히 具現하였다.

本歌의 妙味는 그 文이 情을 如實히 表現한 靈妙한 手法에 있다. 그러나 이 결국 情이 文을 生한 者요 文이 情을 生한 것이 아님을 作者와 함께 끝으로 自白하리라.

△筆者 詩人·國文學者·文壇V



立
候
補
制
度
論

申
鉉
經

民主主義理論에 따르면 모든 成年市民은 選舉資格과 被選資格이 있다. 따라서 特定市民을 議員候補로 選出한다는 것은 議員選出에 있어서 市民의 自由를 侵害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議員選舉는 『國民全體의 利益』을 爲하여 行使되는 適任者 選出이라는 公務를 말한다. 그러므로 選舉는 議員이라고 하는, 國家機關으로서 가장 適當한 者만을 選出하는 것이 그 理想이라고 본다. 그런데, 누가 가장 議員으로서 適任者인가를 判斷함에 있어서 그 適格如何는 그를 支持하는 若干名의 選舉人에 依하여 證明되어야 한다. 이에 反하여 萬若各 選舉人이 各自의 職務를 遂行하여야 할 議員으로서 가장 適任者

라고 생각되는 候補者에게 投票하여 一定得票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면 이것이 理論上 不可能한 것은 아니나 그 結果는 國民의 投票對象은 廣範圍하여지고 따라서 計票의 複雜, 投票의 分散等 選舉의 意義를 喪失케 될 것이다. 여기에 自己 스스로 公職의 候補者가 된다는지 他人을 公職의 候補者로 推薦하는 立候補制度가 생기게 된 것이다.

立候補制度를 大別하면 美國의 候補者 指名制度和 蘇聯의 候補者 推薦制, 日本의 届出制度, 우리나라와 같이 候補者 되고자 하는 者가 他人의 推薦狀을 添付하여 登錄하는 制度로 되는 바, 이를 概述하면 다음과 같다.

一、美國의 候補者 指名制度

美國의 選舉制度의 特徵은 候補者指名(nomination)과 本選舉(election)의 二重手續으로 이루어지는 複式選舉(Double election)라는 點에 있다. 候補者 指名手續은多數의 公職志願者中에서 數人의 候補者를 決定하기爲한 것인데 對하여 本選舉의 手續은 指名된 候補者中에서 最終的으로 適任者를 選出하는 것이다. 이것을 政黨과 關聯시킨다면, 候補者 指名은 어느 政黨에서 出馬하는 候補者를 決定하기爲한 黨內部的 手續인데 對하여 本選舉는 政黨과 政黨사이에 이루어지는 手續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複式選舉制度下에서는 一般選舉人은 候補者指名으로 決定된 候補者에 對해서만 本選舉에서 投票하는 것이다. 이 制度는 國會議員選舉, 大統領選舉, 州知事, 州議員, 市長 其他 地方選舉를 通하여 適用된다.

美國의 候補者決定制度는 他國에서는 볼 수 없는 美國特有的 選舉制度라고 할 수 있는 바, 現在 公職候補者의 指名方法으로서 大略 다음과 같은 方法을 發見할 수 있다. 卽, (1)코카스(Caucus), (2)代表者大會(Delégate convention), (3)直接豫選(Direct primary election), (4)請願에 의한 指名(Nomination by petition)이 그것이다.

(1) 코카스

「코카스」라 함은 政黨의 領袖, 幹部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公職候補者를 指名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가장 오랫동안 내려오던 制度인바 現在도 邑, 面에 選舉에 實施되고 있는 곳이 있다(이리노이州, 뉴욕州).

그런데, 「코카스」가 언제부터 始作되었는가?에 關하여서는 一七六三年 「존·애담스」(John Adams)가 叙述한 日記속에서 發見할 수 있는바, 이에 依하면 近代의 政黨組織이 充分히 育成되기 前부터 「보스턴」(Boston) 地方에서 始作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卽, 그의 日記의 「코카스」에 關한 部分을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1427

「오늘 「코카스·클럽」의 各員이 「롬·도이즈」(Tom Dawes)의 지방 및 房에 모였다. 「롬」의 집은 크다. 「클럽」全員이 한 房에 모였다. 그 房은 담배 煙氣로 이쪽에서 저쪽이 보이지 않을 程度였다. 이 房에서 「후밀」(비어 또는 火酒에 鷄卵, 香料, 砂糖 등을 混合酒)이나 마시며 座長을 選出하여 놓고 여러가지 問題를 投票에 부친다. 이와 같이하여 行政委員, 財産評價員, 徵稅吏, 代議員 등이 차례로 選出되며 有權者를 選出하기 前에 決定되어 버린다.」

그런데, 最初에 州의 兩院議員을 選出한 方法은 이 「코스」이었으나 後 州知事의 候補者選出은 州議會議員에게 一任하는 것이 便利하다 하여 『州會코—카스』(Legislative Caucus)가 考案되었다. 이 方法은 各派의 議員이 集合하여 候補者를 推薦하기 爲한 것이었다. 이 『州會코—카스』는 一七九〇年 「로—드·아이먼」州를 比吳하여 一七九六年까지 사이에 全國에 普及되었다.

그러나, 後 『國會코—카스』(Congressional caucus)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 制度는 大統領候補者를 聯邦國會의 黨派會에서 選出하는 制度인바 第三代, 第五代 大統領을 選舉할 때 聯邦議會議員의 議決로 大統領候補者를 選定한 것이 先例가 되어, 後 大統領候補者는 聯邦議會의 黨派가 選定하는 慣例가 되었다.

要컨대, 「코스」는 候補者를 選定함에 있어서 簡便하고 經費가 不必要하다는 長點을 가질 뿐만 아니라, 候補者를 選定하는 사람들이 政治에 經驗이 있고, 能力이 있는 사람들이므로 適任者를 選定한다는 點에 있어서 長點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簡便이 方法은 非民主的 選出 方法일 뿐만 아니라, 黨派間에 齟齬가 생기고 情實과 不正이 介在하게 되며, 또한 行政府가 『議會코—카스』에 隸屬된다는 結果를 招來하여, 三權分立에 破綻을 가져오게 한다는 非難이 높아졌으므로 一八二三、四年 頃부터

『混合코—카스』(Mixed or mongrel caucus)라고 하는 方法이 試圖되었다.

이 『混合코—카스』制度는 그 一部는 議會의 議員으로 그 一部는 黨員의 代表로서 構成되었으며 「코스」와 「콘벤션(代表者大會)」의 混合이며 이로부터 「콘벤션」이라는 方法으로서 候補者를 指名하게 되었다.

(II) 콘 벤 션(Convention)

「콘벤션」이라 함은 政黨其의 團體의 代表者가 集合하여 그 大會席上에서 公職候補者를 推薦하는 方法을 말한다.

1428 前述한 바와 같이 「코스」에 對한 非難이 높아져 聯邦議會議員의 「코스」는 一八二四年 그 消滅을 보고, 이어 「콘벤션」이 나타나게 되었다. 即 人口의 增加에 隨伴하여 選舉에 依한 公職의 數의 增加 또한 選舉權의 擴張과 政黨組織의 發達에 따라 各地區로부터 選出된 代表者들로 權成된 「콘벤션」이 생기게 되었다. 即

一八三二年 「反메—손黨」(Anti-masonic party)이 大統領 副統領 候補者指名을 爲하여 「콘벤션」方式을 採用한 것인데, 民主黨도 翌一三二三年 이 方法에 따르자 全政黨이 모두 이 方法을 採用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各政黨은 各自黨의 「콘벤션」을 開催하여 候補者를 指名하고 이것을 一般選舉에 부침으로써 事實

上選舉를 左右하였다.

「콘벤션」은 地域的 制據主義를 緩和하고、意見의 對立을 調整하고、또한 候補者가 「코—카스」의 境遇보다 널리 알려진다는 長點이 있으나、그 組織 構成 및 手續이 非民主的이었다。特히 「콘벤션」에 參加할 代表者의 割當이라든지 그 任命方法이 黨의 委員會에 委任되었기 때문에 흔히 不正手段이 取해진다는 弊害가 생기게 되었다。

여기에 이 制度를 廢止하고、民衆의 支配를 保障하기爲한、보다 直接的인 方法이 考案되었으니、이것이 곧 「直接豫選制度」이다。

「콘벤션」制度는 上述한 바와 같은 短點도 있으나、現在도 若干의 州에서는 重要的 公職候補者指名에 使用되고 있다。即 「뉴—올」州에서는 直接豫選制와 「콘벤션」制度가 併用되고 있으나、重要的 候補者指名에 對해서는 거의 「콘벤션」制度가 採用된다。

(三) 푸라이마리 Direct primary election

直接豫選(푸라이마리)制度라 함은 政黨所屬의 選舉人名簿에 登錄된 投票人이 本選舉에 앞서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舉의 公式投票用紙에 記載되어야 할 公認候補者를 指名하기爲하여 미리 實施하는 選舉를 말한다。

이 「푸라이마리」制度에 依한 候補者決定은 適任者 選出을爲한 國民의 選舉가 어느 程度 民衆의 支持를 받는다.

1429

者에 對하여서만 投票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思想에 立脚한다。그러므로 現在 가장 理想的인 候補者決定方法으로서 「푸라이마리」制度는 「코네티컷」州를 除外한 모든 州가 이를 採用하고 있다。

「푸라이마리」制度의 起源으로서는 一八四二年 「펜실바니아」州의 「크로우포드」郡 (Crawford county)에서 民主黨의 地方組織으로 말미암아 採用된 것이 그 始初라고 한다。一八六八年에 이르러 共和黨도 郡의 公務員을 指名함에 있어 이 制度를 採用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이 指名制度는 「크로우포드」郡方式 (Crawford county system)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이리하여 이 運動은 二十世紀에 들어서자 急速도로 發展하여 거의 全部가 이 制度를 採用하게 되었다。

「푸라이마리」制度는 各州에 따라 多少 差異가 있으나 大別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1. 公開豫選 (open primary) 이 制度는 豫選에 參加할 資格이 있는 者가 宣誓할 必要없이 自由로 어떠한 政黨의 豫選에도 參加할 수 있는 制度이다。

例컨대、共和黨員이 民主黨豫選에、民主黨員이 共和黨豫選에 參加할 수 있는 制度이다。

公開豫選에서는 一枚의 投票用紙에 各政黨의 候補者名이 따로 따로 印刷되어 있고 投票者는 自己가 希望하

는政黨에屬하는候補者에記號한뿐이다.

이制度는投票者로하여금廣汎한候補者選擇의自由를주며,秘密投票,政黨變更等이모두自由라는點에그長點이있다. 이와反對로이制度는反對黨이나第三者가「푸라이마리」를妨害하여,有力하지못한候補者를當選시킴으로써本選舉에서는結局敗하게하는結果를招來할策謀의餘地가있다는가,보다一般적으로말하는勞動組合其他私的團體가自己들에反對되는候補者가豫選에서敗하도록投票할수있다는短點이있다.

2. 非公開豫選(closed primary) 이制度는豫選에參加할수있는投票者로하여금반드시自己所屬政黨에忠誠을다할것을宣誓케하고이리하여該政黨이推薦하는豫選候補者以外에他政黨에屬하는者에게投票하지못하게하는選舉를말한다.

이制度는政黨의利益을擁護하는點에있어서理想的方式이다.

그런데,投票者의支持政黨을明白히하기爲하여,다음의三種方法이實施되고있다.

가, 登錄制(enrollment system) 이制度는黨員名簿에登錄되어있는者만이豫選에있어서그黨의候補者에投票하는制度이다.

나, 宣誓制(personal declaration) 이制度는投票人이豫選投票時에自己가投票하고자하는政黨이어느黨인가를選舉管理人에게宣誓하는制度를말한다.

이때에政黨의主義나政綱의支持與否를質問當하는일이있다. 對答如何에따라서는投票를拒絶當한다. 다, 審査制(party test) 이制度는政黨의所屬 또는支持關係를政黨의役員이審査하는制度를말한다.

非公開豫選制度는다른政黨의黨員이侵入하여豫選을混亂케할수없을뿐만아니라黨籍의變更이困難하므로公開豫選보다는훨씬政黨政治와政黨의責任性を強化한다는長點이있다.

그러나,누구에게自己政黨의投票用紙를交付하여投票케하는가를決定하는,政黨의所屬이라든가支持關係를判斷하기에效果的인標準을案出한다는것은至難한일이다. 특히有權者가政黨에屬하지않을境遇에는支持政黨의變更規定을設定하여야한다는長點이있다. 이와같은豫選은政黨에依하는것이므로政黨的豫選이라고할수있다.

이에反하여政黨을標榜하지않는「非政黨的豫選」(Non-partisan primary)이있다.

이制度는投票者가投票用紙에政黨名없이「엘과벨」順 또는抽籤順으로列記된候補者中에서制限없이自己

가希望하는 者를 選擇하여 記號하는 制度를 말한다. 그
리하여 投票結果 最高得票者 二名 또는 三名이 選出되어
本選舉의 候補者로 된다.

非政黨의 豫選은 主로 市, 郡, 學區內의 公職, 司法
官의 候補者를 指名하는데 適用된다.

州議會의 議員選舉에 이 制度를 適用한 例로서는 一九
一三年의 「미네소타」州 및 最近의 「네부라스카」州를 들
수 있다. 一九三八年의 「워싱턴」州는 이 制度를 學校
教育에 採用하였다.

(四) 請願에 의한 候補者 指名制度

이 制度는 公職選舉의 投票用紙에 自己의 姓名이 印刷
되기 爲하여 一定數의 投票者의 署名을 添付한 申請書를
選舉管理者에게 提出하는 制度를 말한다. 따라서 所定의
署名이 있는 申請書는 候補者指名과 같은 價値가 있는 것
이다.

二, 公聯邦의 立候補制度

一九三七年的 選舉法의 基本原則으로서 普通, 平等,
直接, 秘密의 四大原則을 採用하고 있으나, 이와 同時에
公聯邦은 勞働階級獨裁라고 하는 獨自의 政治形態를 採用
하며 資本主義 諸國과는 달리 그 獨特한 「候補者 推薦制
度」를 採用하고 있다 (公聯憲法 第四百一十一條, 選舉法五

十六條)。

公聯邦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推薦하는 權利를 專히
公共團體 및 勤勞者團體 卽 法定手續에 依하여 登錄된 共
產黨機關, 勞働組合, 協同組合, 青年團體 및 其他 機關에
만 保障되고 있다.

따라서, 公聯邦에서는, 個人은 法上 被選舉權이 있지
만, 上記 諸團體의 推薦이 없는 限 個人의 資格으로서는 自
由로 立候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形式上으로만 民主化
된 公聯邦 選舉法은, 事實上 有名無實한 것이 되고 있다.

그런데, 候補者推薦權行使를 보진대, 推薦團體는 먼저
從業員總會를 열고 그 席上에서 同團體의 指導分子로부
터 미리 「黨員 및 非黨員別로」 候補者로서 누구를 推薦
한다는 指名이 있는 後, 參集者一同에 對하여 舉手나
또는 起立等의 公開投票方法에 依하여 이미 決定된 候
補者에 對한 贊否의 表明이 要求될 뿐이다. 例로서 一九
四六年의 「스탈린」首相의 두번째의 選舉를 들어 「모스
코바」電氣工場으로부터 推薦當하던 當時의 光景을 본다
면 다음과 같다.

即, 從業員總會席上에서 幹部勞働者 一名이 일어서서
從業員 七千名을 앞에 두고 「스탈린」首相의 公聯邦에 있
어서의 功績을 讚揚하고 全員一致로서 候補者로 推薦하
고 싶다는 趣旨의 提唱을 하자, 參集者一同은 滿場一致

로서 이를 支持하고 同首相의 立候補를 求하는 決議를 採擇하였다. 이 決議에 따라 同首相에 對하여 立候補의 同意를 求하는 手續이 取해졌다고 한다. 다른 人物을 候補者로 推薦할 境遇에도 大略 같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黨員 非黨員블럭』 候補者에 關하여 贊及한다던 元來 被選舉權은 法上, 非黨員에 對해서도 認定되고 있으므로 이에 對하여도 立候補를 認定하여야 함은 理論上 勿論이요, 民主主義를 標榜하고 있는 以上, 對外的, 對內的 考慮에서 當然한 일이다. 그러므로 卍聯邦은 國內 社會主義化가 完了하고, 非黨員도 黨員과 協力하여, 卍聯邦 社會主義的 建設에 積極的으로 參加하게 되었다고 본 時期에, 現行 「스탈린」 憲法 및 이것을 基本法으로 한 選舉法이 制定되고, 一九三七年 第一回 聯邦最高會議 選舉가 施行되었다.

이때에는 非黨員이라 할지라도 卍聯邦 社會主義建設에 貢獻하였다고 認定된 人士, 卍新技術에 依하여 生産增進에 寄與한 者, 生産課題의 優秀遂行者(스타하노프 式勞働者, 技術者, 農民)가 黨員과 隊列을 같이하여 候補者로 推薦되었다. 이것을 『黨員 非黨員블럭』 候補者라고 한다.

選舉運動時에도 『黨員 非黨員블럭』 候補者에 投票하라 라는 「슬로간」을 내걸고 黨員과 非黨員間의 融和를 強調

하였다. 그리하여 一九四六年의 第二回 選舉時에도 같았으나 이때에는 二次大戰에 勝利한 軍人도 多數上 記루릭 候補者로서 推薦當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以上과 같은 方法에 依하여 推薦團體가 候補者를 推薦하였을 境遇에는 選舉日 三十日 以前에 候補者를 當該 選舉區委員會에 登錄한다. 選舉區委員會는 候補者를 記載한 投票用紙를 選舉區住民의 言語로서 印刷하여 이를 選舉日 十五日 以前에 關係選舉小區 委員會에 配布하게 되어 있다.

推薦團體는 그 所在 選舉區內에 居住하는 者이긴 아니지만 推薦될 수 있으나, 立候補者는 어느 一個 選舉區에서 立候補한다. 卍假令 各地의 多數團體에 依하여 同時에 推薦되는 境遇에도 實際로는 選舉法 第六十二條의 規定에 따라 立候補는 全혀 個의 選舉區에 限하게 된다(谷川 良一著 『卍聯邦 國家機構와 現行憲法』 參照).

三、日本の立候補制度

日本公職選舉法은 本人 届出主義와 推薦届出主義를 立候補에 있어서 認定하고 있다. 卍公職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當該 選舉期日의 公示 또는 告示가 있는 日字로부터 一定期間內에 文書로서 그 뜻을 當該 選舉長에게 届出하여야 한다(第八十六條).

公職候補者の 届出 또는 推薦届出을 하고자 하는 者는 届出할 때에 供託金을 納付할 必要가 있다(第九十二條)。

이것이 所謂 供託金制度인 바, 立候補者의 亂立을 防止함은 勿論이요, 泡沫候補者라고 불리워지는 暫時 選舉場에 얼굴을 내놓고 어떠한 目的만 達하면 손을 떼는 種類의 者를 排斥하여 選舉運動의 混亂을 防止하고자 하는 趣旨에서 나온 것이며, 英國의 制度를 模倣한 것이나, 多數學者들은 이러한 制度를 排擊하고 있다.

立候補의 届出을 할 수 있는 者는, 各種 選舉를 通하여 ①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本人, ② 候補者를 推薦하고자 하는 者면 된다. 但 候補者를 推薦하고자 하는 者는 選舉人名簿에 登錄되어 있어야 하고, 推薦届出은 本人의 承諾을 要하며 承諾없는 届出은 無効로 된다(六十八條, 七十五條)。

四、우리나라의 立候補制度

議員候補者가 되리키는 選舉區 選舉委員會에 登錄하는 制度를 採擇하고 있는 바, 本人이 直接 登錄을 申請하는 境遇와 名望家로서 自意로 志願하지 않는 者라 할지라도 他人이 推薦登錄하는 制度를 採用하고 있다. 한편 全然 選舉人의 支持없는 者의 出馬를 制限하기 爲하여 그 選舉區內에서 選舉人名簿에 登錄된 選舉人 百人以上, 二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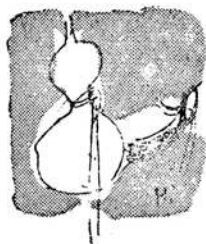
人 以下의 記名捺印(母印不許)한 推薦書를 添付하도록 되어 있다. 本人이나 他人의 推薦登錄을 不問하고 選舉日이 公告된 날로부터 選舉日前二十五日 以內에 登錄申請이 完了되어야 한다.

推薦登錄에 있어서도 같은 推薦狀(連記) 또는 單記)에 本人의 承認書를 添付하여야 한다. 一 選舉區에서 議員 候補者가 된 者는 他 選舉區에서는 되지 못한다.

筆者(國會圖書館長)
政治學者

參考文獻

1. 內田力藏著, 美國의 選舉制度(上)
2. 美濃部達吉著, 美國憲法概論
3. 谷川良一著, 聯邦國家機構과 現行憲法
4. 三浦義男著, 公職選舉法
5. 伊藤勳著, 選舉制度
6. 劉濟民著, 國會議員選舉法精解
7. 拙者, 選舉制度論
8. Hugh A. Bone American politic and the party system
9. William Bennett munnro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우 리 글 을 사 랑 하 자

김 의 섭

1434

한문(漢文)의 나라 중국에서도, 그 한문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국가문명을 진설할 길이 없다 하여, 마침내 모든 불권과 혼란이
 있을 것을 작오하고, 단연코 「라틴·알파벳」 A·B·C 二十六
 자를 택하였다는 것은, 한문에 대한 비면을 끊지 못하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가진바 모든 힘과 정성을 기울여, 서서 각각으
 로 발전하는 최신 과학문명을 추구하여야 하는 이때에, 그 수효
 가 四, 五만이 넘는 엄청난게 많은 글자를 가지고서도 오히려 부
 족을 느끼는 불완전한 한문 글자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의 귀중
 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消耗)할 수는 없나니, 우리가 『한글 전
 용』을 부르짖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한글은 「알파벳」보다도 간단하되 이로써 적지 못할 말소리가
 없고 우주의 진리와 음양 오행에 분발은 이 글자는 그 모양이 간
 절하고, 쓰임이 과학스러워 이는 고금(古今)을 통한 문자사상가

장아름답고 완전한 보배(寶貝)이기는 하나, 한문식 문명에 젖은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까닭에 도리어
 이를 무시하였던 것이다.

옛날 일은 잠깐 두고, 또 왜정때에는 피할 수 없는 까닭도 있
 었겠지만, 그때 우리 다생들에게 가르칠 우리말 교과서를 엮은
 사람은 왜인 그들이었고, 또한 전적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는 없
 었다 하더라도, 주옥(珠玉) 같은 우리 고전(古典)에 손을 대어서
 그 뛰어난 장엄치를 맨 먼저 세상(世上)에 드러낸 사람도 섭섭하
 나마 우리 한국사람은 아니었었다.

그러나 한글에 대한 학대(虐待)는 우리 주권(主權)을 도모하는
 지 이미 十여년이 넘은 오늘날도 다름이 없나니, 우리가 한문자
 는 한 획만을 더하더라도 모두를 이를 무시과 수치로써 문계시 하
 지만, 한글에 있어서는 한자(字)는 커녕, 한장 거의 전부를 들
 리게 썼을지라도 오히려 모두 이에 무관심하며, 또는 그것이 마

당리 당연한 일인 것처럼 뻔치고 나선다.

우리가 한글을 바로 쓴다는 것은, 그것이 다만 『한글 전용』의 필발침이 필뿐만 아니라, 앞날의 우리 새 문화 창조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더구나 과학상으로, 또는 작전상으로 볼 때, 오자(誤字) 하나가 중대한 과오(過誤)와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은 숨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너무나도 많이 틀리는 글자를 쓰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본다면, 그 틀림은 다만 몇 가지의 원칙에서 벗어났고, 대개는 똑 같은 틀림을 되풀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몇 가지를 추려보았으니, 이 몇 가지만 완전히 깨치더라도 우리의 글씨는 좀더 깨끗해질 것이라 믿으며, 또 이것이 어떠한 의미에서라도 지금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한글전용』 운동에 한 가닥 보탬이 된다면 필자로서 그보다도 더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1. 가지다, 갖이다.

음직씨 「가지다(持)를 「갖이다」로 쓰는 사람이 많다. 「갖」이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뜻이 있으니 그 첫째는 「가지다」의 줄기 「가지」가 줄어서 「갖」으로 된다고 보는 경우인 것이다.

가지다의 준말 → 갖다.
가지고의 준말 → 갖고,
가지지의 준말 → 갖지.

가지게의 준말 → 갖게.

돈을 갖고, 장보러 잔다.

그것을 누가 갖게 되었나? 따위.

다음으로 「갖」은 갖다(備), 곧 구비(具備)하다는 뜻을 가진 말의 줄기(원괄대문)인 것이니,

갖추다. 갖아 잔다. 갖은 고생. 온갖 양념. 따위.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지(所持)하다」를 「갖다」로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이다」로도 할 수가 있는나? 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가지」를 「갖이」로 고쳐야만 할 아무런 까닭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갖이다」는 전연 버리고, 「가지다」를 표준말로 취하였고, 「갖다」 혹은 「갖고」 「갖게」 따위는 「가지다」의 줄인 팔로는 보면서도 결코 표준말은 아니고 다만 한 지방의 사투리(方言)로서 인정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갖다」가 「가지다」의 줄인 말로서 쓰이기는 하면서도, 오히려 한낱 「사투리」로 밖에 보지 않을 수는 다면, 표준말에 있어서의 「가지다」는 대체 어떻게 줄여질 것인가?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가지」를 「갖」 따위로 주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어서」 따위가 「가져서」 곧 「지어||져」로 되는 경우 뿐인 것이다.

가지어 오다 → 가제 오다.

가지어 가다 → 가제 가다.

퍼져서 간다 → 퍼져 간다.

되어져 있다 → 되어져 있다.

이빠져서 간다 → 이빠져 간다, 따위.

만일 그렇다면, 「가진」을 「갖인」, 「가지고」를 「갖이고」,

「가지다」를 「갖이다」 따위로 썼을 때 어떤 모순이 생길

것인가? 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갖」을 「가지」와 같은 말로 보는 까닭에,

갖이고 || 가지 + 이고 || 가지이고,

갖이다 || 가지 + 이다 || 가지이다,

갖인 || 가지 + 인 || 가지인,

따위로 될 것이며, 「가지이다」란 말은 후 「가지(枝, 茄子)이다」 따위로는 들릴지 모르나 어찌 소유(所有)한다는 말이 될 수가 있으랴?

둘째로, 이것은 「가진」이 「갖인」 따위로 글자꼴만이 바뀌었을 뿐이어서 일부러 힘들여, 출신 말 「갖」자를 가져다 쓴 데 대한 아무런 까닭도 보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

대체, 우리가 출신 말을 쓰는 까닭은 그 말소리의 음(數量)을 중심으로 말하는 시간과 노력을 덜어 주고, 또 그 말을 간단 명확히 알아듣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닐가령,

알짜가 → 일찌 (3 마디가 2 마디로),

저절로 → 절로 (") ,

하건마는 → 하건만 (4 마디가 3 마디로),

어머하게 → 어떻게 (") ,

잡히었다 → 잡혔다 (") ,

치어다 보아라 → 쳐다봐라 (6 마디가 4 마디),

오라고 하더냐 → 오라더냐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찮다 (8 마디가 4 마디),

공부를 하라고 하였다 → 공부하렸다 (9 마디가 5

마디),

따위는, 모두 소리 마디수(數)가 상당히 줄여져 있는

데 반(反)하여, 「가진」이 「갖인」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더라도 이따위가 「출인 말」로서 우리들에 대하여 대체 어떠한 혜택(惠澤)을 줄 것인가? 혜택은 커녕 「가」를 「갖」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손해를 끼칠 뿐이라 하겠다.

「갖이다」에서 또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갖이다」의 「이」 소리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무릇, 「출기」에 「이」가 붙는 것은, 그 말이 뜻바꿈(語意變換)을 하든지 또는 몸바꿈(品詞轉成)을 하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런 뜻 없이 「이」만이 붙는 일은 없는 것이다.

가령, 죽다 (세, 움직씨) → 죽이다 (남, 움직씨)

먹다 (남, 음) → 먹이다 (하임, 음)

쓰다 (남, 음) → 쓰이다 (입음, 음)

맞다 (남, 음) → 맞이 (이름씨)

많다 (그림씨) → 많이 (어찌씨), 따위.

그러므로 「가지고」 「가져」 「가진」을 취하고, 「갖이코」 「갖어」 「갖인」 따위는 쓰지말라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에, 미치다(及) → 밋다, 비기다(無勝負) → 빅다, 디디다(踏) → 딛다 따위도 있으나, 이것도 그와 같은 까닭으로 「밋이다」 「빅이다」 「딛이다」 「로」는 쓸 수 없는 것이다.

二. 「던」 「던지」, 「돈」 「돈지」

「던」은 설명하는 어떤 말에 붙어서 이미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할 때, 특히 그 매김 꼴(冠形詞, 連體形)에 딸리는 말끝(語尾)이다.

하던 일, 먹던 밥,

가던 길, 자던 잠,

놀던 벗, 팔던 물건, 따위.

「던지」는 「던」 밑에 끝가지 「지」(혹은 가)가 붙은 꼴이며, 이역시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할 때에 쓰이는 것이니, 그 보기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내가 왜 그랬던지 (||던가) 몰라.

그게 똥이던지 (||던가) 요?

참말 있었던지 (||던가) 알 수 없다.

사람이 어찌 많이 모여들던지 모두 놀랄 뿐이었다.

어찌나 곤히 자던지 깨울 수가 없었다.

어떻게나 고생을 했던지 잊혀지지를 않는다.

「돈」은 설명하는 어떤 말에 붙어서 1. 가려잡(選擇) 거나, 2. 가부(可否)의 뜻을 밝히거나, 3. 그 일이 아무렇게 되더라도 상관(相關)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어찌」처럼 쓰이는 말끝(어미)인 동시에, 「돈지」의 줄인 꼴이기도 한 것이다.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나.

먹든 말든 맘대로 해라.

올든 볼든 알게 뭐냐.

죽든 살든 끝이 나야지.

오든 가든 태도를 밝혀라.

밥이든 국이든 좀더 먹어라.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확실히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던」과 「돈」, 「던지」와 「돈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혼동하는 수가 많다. 가령,

이것은 내가 먹던 밥이다.

하면, 그 밥은 내가 이미 앞서 먹다 남겼거나, 또는 먹어본 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그것을 돌이켜 생각하고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다.

내가 그 밥을 먹었다는 것은 지금 금방이라도 좋고, 호
늘 아침이나 어제나 혹은 몇날, 몇달 전이라 할지라도 이
미 지나간(過去)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던」이란
말끝으로써 표시하는 것이다.

내가 먹던 밥임을 꼭 밝혀야 할 경우는 허다할 것이
다. 가령,

이 밥은 내가 먹던 밥이니, 역시 이제 내가 먹어야 하
겠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이 밥은 내가 먹던 밥이니, 안심하고 내가 먹어도 좋다
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먹던 밥에 그만 던지가 날아들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이 되었으니, 나에게 새로 만졌을 달
라는 경우에도 쓰일 것이며, 이 「-던」이란 「-토」는 내게
대하여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는 동시에 어떤 「권리」를
내포하여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무시할 수 없는 「-던」을 무시하고 「-든」으
로 바꾸어 보자.

이것은 내가 먹든 밥이다.

「-든」이란 토는 지난적(過去)을 나타내(表示)하 지 아
니하므로 그 밥은 내가 먹던(혹은 먹은 적이 있는) 밥이
아니어서 내게 대해서 그 밥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따

라서 나로서 아물런 권리를 주장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만일에 여기에서 「-든」자의 쓰인(職能)대로 가라는
(選擇의) 뜻을 붙여서 억지로 이 말을 풀어 본다면,

이것은 내가 먹든, 내가 먹던 밥이다.
로나 보든지, 또는,

이것은 내가 먹든, 안먹든 밥이다.

따위로 밖에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먹든
내가 먹든 상관 없다」든지, 「내가 먹든 안먹든 결정은
짓겠다」든지 한다면 모르되, 「내가 먹든 내가 먹든 밥」
이라든지 「내가 먹든 안먹든 밥」이란 따위로서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밥이 든지 물이 든지 좀 먹고 보자. (아무거나 상관
없다는 뜻)

소든지 말이 든지 좀 타고 가자. (아무거나 상관
없다는 뜻)

죽든지 살든지 맘대로 하여라. (내가 가려잡(選擇)
으라는 뜻)

가든지 못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결정을 지으라
는 뜻)

이와 같이 「-든」으로 하여야 할 경우에 「-던」을 바
꾸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모순되는 바는 마찬가지인 것
이니, 일체(一切) 지난적(過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

던」, 「던지」를 쓸 것이며, 가리어참(選擇)은 다든가, 아무렇게 되든 상관없이 없음을 나타낼 경우에는 반드시 「든」, 「든지」를 가리어 쓰도록 하여야 한다.

III. 안(不), 非(非)다의 출기인 「아니」가 출어서 된 말의요,

「안」은 「아니(不, 非)다」의 출기인 「아니」가 출어서 된 말의요,

「안」은 「아니하(不爲)다」의 출기 「아니하」의 출인 꼴인 것이다. 그리고 이 「안」과 「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이는 것이다.

첫째, 「풀이씨」로 쓰이는 경우

풀이씨로서는 「안」은 쓰이지 않고, 그 원꼴 「아니다」가 쓰일 뿐이니, 가령,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안다. 가 아님)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안며, 가 아님)

작아도 나쁜 것은 아니다。(안다. 가 아님) 따위.

「안」은 「아니하」의 출인 꼴이며, 풀이씨로서는 그 원형대로 쓰임은 물론이며, 특히 다음과 같이 출인 꼴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나쁘지 않다(=아니하다).

나는 먹지 않았다(=아니하였다).

그는 가지 않는다(=아니한다).

그리고 그 출이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아니하다」의 「아니」만을 「안」으로도 할 것이며, 「아니하」까지를 한데 합쳐서 「안」으로도 되는 것이니 그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아니하다 → 안하다 → 않다.

아니하고 → 안하고 → 않고,

아니하는 → 안하는 → 않는, 따위.

둘째, 「어찌씨」로 쓰이는 경우

「아니다」는 그 원형 「아니」와 함께 출인꼴인 「안」이다. 같이 독립적으로 어찌씨로 쓰인다.

밥을 아니(안) 먹어도,

배가 아니(안) 고프다.

네가 안(아니) 온다면,

나도 안(아니) 가겠다, 따위.

「안」은 「아니하다」의 출인꼴인 「안다」의 출기 「안」에 「이」가 붙은 꼴, 곧 「안」+「이」=「안」이로 하여금 어찌씨로 쓰는 것이다.

적지 안이(아니하게) 먹었다.

종지 안이(아니하게) 여진다.

출지 안이(아니하게) 지낸다, 따위.

그리고, 이 「안」이 「어찌씨」는 언제나 그 쓰이는 경우

가 아주 국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만 저음(否定)을 나타내는 「세째 어찌지」第三副詞 「—지」(적지, 종지, 출지 따위) 소리 밑에에만 한하여 쓰인다. 따라서 「않이」 위에 「—지」가 오지 않으면 말이 안된다.

그리고 흔히 「않이」를 「아니」와 혼동하는 수가 많으나 앞에서 보인 것처럼 「않이」는 「아니하게」를 뜻하며, 일반적으로는 「아니하게」를 줄인 「않게」로 하여금 「않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곧

적지 않이 먹었다 (아니하게) 먹었다.

종지 않게 (아니하게) 여긴다, 따위.

그러므로 「않이」란 말은 「않게」의 뜻을 가지는, 어법상 빼졌한 어찌씨로서 그 구별이 스스로 명확(明確)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니」와 혼동하여가지고, 무리도 그 밑에 「맺는 말토」 「다」를 붙여서 「풀이말」로 쓰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만일에 「않이」+「다」=「않이다」를 쓴다면, 적지 않이 먹었다, 란 말은

적게 먹은게 않이다 (아니다의 뜻).

먹은게 적지 않이다 (않다의 뜻). 또는,

종지 않이 여긴다, 란 말은

종게 여기는게 않이다 (아니다의 뜻).

종게 여기지 않이다 (않는다는 뜻).

따위로 혼동될 것이니, 「않이다」란 말은 대체 그 어느

편을 뜻할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아볼 길이 없다.

물론 이것은 어찌씨가 끝바꿈을 하는 일이 없는 까닭이니, 『머리를 꼬이 빚는다』의 『꼬이』도 어찌씨이므로 『빚은 머리가 꼬이다』로는 되지 않으며, 『집을 새로이 지었다』가 『이 집은 새로이다』로도 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않이다」라는 말은 어데서나 쓰일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꼭히 알아야 한다.

더구나 이런 말들은 그 말 그대로 직접 따져 볼 수도 있다.

「안먹는다」는 「아니+먹는다」가 되지만,

「안먹는다」는 「아니하+먹는다」로 될 것이니 대체 우리에게 「아니하」 먹는다 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안출다 → 아니하 출다.

안끓다 → 아니하 끓다.

안하고 → 아니하 하고,

안가고 → 아니하 가고,

안된다 → 아니하 된다.

따위의 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그 소리를 한번 살펴 보자.

안된다 → 안+→+된다 → 안된다 (응+ㄷㄷ||트).

「안된다」를 「안된다」로 소리를 낸다면 그 말 뜻은 더 한

총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아래와 같이

오지 않(아니하)으면 안(아니)된다, 를

오지 안(아니)하면 안(아니)된다. 따위로

「안」과 「않」의 쓰일 곳을 혼동한다면 그것은 한낱 웃음

꺼리로 밖에 아니 될 것이다.

四、—었다, —었다,

(一) 았다, 았다를 쓰는 경우

「—았」은 「—었」과 더불어 지난적을 표시하는 도음출

기로서, 밝은 홀소리(陽母音) ㅏ, ㅑ, ㅓ, ㅕ 로 끝난 줄

기 밑에 온다. 이것은 「밝은」 소리 다음엔 「밝은」 소리!」

라는 우리말의 특색은 「홀소리 어음림」 법에 따르는 것

이니,

날이 맑았다, (맑의 홀소리) ㅏ

손을 잡았다, (잡의) ㅏ

숨이 샅았다, (샅) ㅓ

매우 좋았다, (좋) ㅓ 따위,

「—었」은 「어두운」 소리 다음엔 어두운 소리!」라는 원

칙에 따라, 어두운 홀소리(陰性母音)로 끝난 줄기 밑에

오나니,

밥을 먹었다, (먹의 홀소리) ㅓ

문을 열었다, (열) ㅓ

개가 죽었다, (죽) ㅓ

늘었다(一), 개었다(ㅑ), 회었다(ㅓ), 맺었다(ㅕ).

그런데 흔히 「—았」을 써야 할 밝은 소리(ㅏ, ㅑ)

밑에 「—었」을 쓰는 일이 많다.

받았다(받어), 닦았다(닦어), 앉았다(앉어),

않았다(않어), 잡았다(잡어), 찾았다(찾어).

그러나 이따위 원칙적인 경우에는 별로 문제될 바가

없고, 그보다도 틀리기 쉬운 것은 「—았」 「—었」의 벗어

난꼴(變則), 「—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것이다.

(二) —었다를 쓰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 「—었다」가 쓰일 수 있는 것은, 「—

어」 「—었다」 앞에 「이」 소리가 와야만 하고, 더구나

「이」가 서로 어울려서 「—어」 「—었다」로 줄어질 수가 있

는 경우 뿐이다.

7, 「이」로 끝난 「풀이씨」 줄기에 「어」 「었」이 붙는 것,

모이다 ↓ 모이 + 어 (었) || 모어 (모였다)

보이다 ↓ 보이 + 어 (었) || 보어 (보였다)

쌍이다 ↓ 쌍이 + 어 (었) || 쌍어 (쌍였다)

먹이다 ↓ 먹이 + 어 (었) || 먹어 (먹였다)

ㄴ, 이듬씨 밑에 붙는 「이다」(잡음씨) 사이에 다시

「였」이 붙는 것.

새(鳥) + 이 + (+)였)다 → 새이였다 || 새였다.

소(牛) + 이 + (+)였)다 → 소이였다 || 소였다.

그런데, 「새이다」 「소이다」 보다는 우리는 「새다」 「소다」로 말하는 것이 도리어 순순하게 들린다. 그러나 「소였다」 「새였다」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소였다 → 소이였다 ↓ 소이()였)다, || 소이다.

새였다 → 새이였다 ↓ 새이()였)다, || 새이다.

「소이다」 「새이다」가 원칙임을 알 것이며, 따라서 「소다」 「새다」 따위는 잠음씨 「이다」의 「이」가 발음의 간편을 위

하여 홀소리 밑에서 줄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이였다」를 「였다」로 할 수는 있으나, 이것을 「였다」로 줄일 필요가 없는 것도 있다.

학생였다 → 보다도 ↓ 학생이였다.

사람였다 → 보다도 ↓ 사람이였다.

거울였다 → 보다도 ↓ 거울이였다. 따위,

그리하여 우리가 가장 틀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필요없는 것을 무리로 써보려고 애쓸 경우인 것이다.

사람이였다 ↓ 를 ↓ 사람이였다.

거울이였다 ↓ 를 ↓ 거울이였다.

따위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그 말을 거꾸로 풀

어 봄으로써 알 수 있나니,

학생이였다 → 는 ↓ 학생이이였다 (였 || 이였)。

곧 「학생이이였다」로서는, 우리는 그 뜻을 알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 틀리기 쉬운 것은, 줄기의 한 부분인 「이」 밑

에 「였」이 따를 경우이니,

되다 → 되+였다 ↓ 되였다.

기다 → 기+였다 ↓ 기였다.

매다 → 매+였다 ↓ 매였다.

에 있어서 「되」 「기」 「매」의 한 부분인 「이」가 「였다」와 어울려서,

「이」+「였다」로 되었다, 곧 「였다」로 소리는 나나, 이것을 「되였다」 「매였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여기에서 끝끝내 「였다」를 쓰려고 고집한다면 마침내 다음과 같은 괴상한 모순이 생길 것이다.

되였다 → 도+ + 되었다 || 도였다.

기였다 → 기+ + 되었다 || 기였다 (혹그였다)。

매였다 → 매+ + 되었다 || 매였다.

뿐만 아니라, 「되였다」가 쓰일 수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되였다 || 되 + 이였다 || 되이였다.

「되이였다」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니, 이런 경우에도 「이」나 「이였」은 쓰일 수가 없는 것이다.

드, 원칙을 벗어나서 「이었다」가 쓰이는 특수한 경우에는 「하다」가 붙는 것 뿐이다.

공부하다 → 공부하여 → 공부하였다.

튼튼하다 → 튼튼하여 → 튼튼하였다, 따위.

「하다」는 문법상 「하아」로 될 것인데, 옛날에는 「하야」 「하얏다」로 바꾸어졌고, 오늘날의 표준말 어음은 「어」이기 때문에 「야」를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어」 「이었다」가 쓰이는 것은 「이+었다」와 「하다」가 오는 경우 뿐이요, 그 밖에서는 모두 「어」 「이었다」로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五、주검, 죽임, 죽음, 죽임

맞춤법 통일안 제 13항을 보면,

一、출기 밑에 「음」「이」 이외의 홀소리가 붙어서

二、다른 씨로 바뀌거나, 뜻만이 바뀐 것들은

三、그 출기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기로 되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죽(다) 死」 + 「음」 死音의 경우는 어

떻게 될 것인가?

一、출기 밑의 「음」은 「음」이나 「이」가 아니고,

二、「죽는다」는 「풀이씨」는 이미 죽어버린 시체(屍體)를 뜻하는 「이름씨」로 바뀌었으니, 13항의 두 조건이 다

들어맞는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음당 세째 조건을 따

르지 않을 수가 없다.

죽(출기) + 음 ① 음, 이, 가아님, (↓) 죽임 ② 이름씨로

바뀜 ③ 주검 ④ 원형을 밝혀지 않음)

끝 「죽음」으로 되는 말은, 원래 「죽는다」란 풀이씨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시체를 뜻하는 이름씨로 바뀌어진 이상 그 본말의 출기 「죽」이란 원형을 밝혀지 않고, 「주검」으로 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의 보기를 들면,

막(다) 防 + 암 → 막암………마감 (決算)

물(다) 埋 + 음 → 물음………무덤 (墳)

맞(다) 迎適 + 응 → 맞응………마중 (出迎)

코풀(다) 穿 + 예 → 코풀예………코뚜레 (鼻木)

잡(다) 黑 + 아귀 → 잡아귀………까마귀 (烏)

막(다) 防 + 애 → 막애………마개 (栓)

쓸(다) 掃 + 애기 → 쓸애기………쓰레기 (塵芥)

빌(다) 乞 + 성병이 → 빌성병이………비렁병이(乞者)

이와는 반대로 출기에 「음」이나 「이」가 붙을 때에는 그 뜻이나 씨가 바뀌더라도 원형을 무시 못할 것임이 짐작 되거니와, 통일안 제 12항에는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명시되어 있나니, 그러므로 다시 보기를 들어

죽(출기) + 음 死音 死音

의 경우를 생각하건대, 이것은 十二항에 맞을 뿐 아니라 전기 十三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응당 원형을 밝혀서 「죽음」으로 써야 하며, 그 뜻도, 서로 같이 「죽다」란 풀이에서 나오기는 하였지만, 「죽점」은 이미 죽은 「시체」를 나타내고, 「죽음」은 「죽는 그 자체, 죽는 것」을 나타내나니, 말이 이와 같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히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국군의 맹세 첫머리는

『우리는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로 써야 할 것을 『우리는 죽임으로써 ……………』라고 쓴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대체, 「죽점」을 「죽임」으로 쓴다는 것도 마땅치 않지만 그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어찌하여 「죽음」을 안 쓰고 「죽점」을 쓰느냐?는 문제인 것이다.

이 맹세야말로 「죽음」 즉 「죽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한사(限死)코 써줘 이기겠노라는 국군 임전(臨戰)의 각오를 표시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무리 군비와 전술이 뛰어난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이 싸움보다도 제 목숨 살리기만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최후의 승리를 바랄 수가 있으랴?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제 모든 힘과 재주와 또 물자를 다하여 모진 적을 무찌르고 싸우고 또 싸울 것이며

만일에 강렬한 적의 공격에 밀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제 한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도망쳐 버릴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겨레로 하여금 적에게 한 발자국도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마침내 생명이 끊어져 「죽음」을 당하더라도 끝끝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진실로, 이와 같은 강렬한 각오와 전의(戰意)를 표시하는 「죽음」이야말로 능히 국가의 영예와 겨레의 영원한 행복을 보존할 수가 있을지언정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시체인 「죽점」이 어찌 나서서 적을 무찌를 것이며, 또는 이 미식어버린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가? 이런 것이 「한글」을 경솔히 하는 데서 오는 과오라 할 것이다.

이제 이와 비슷한 몇 가지 보기를 들고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다」라는 음직씨는 다음과 같이, 참다, 참고, 참아서……로 끝바꿈하므로 그 어찌끝인 「참아」가 그대로 어찌끝로만 쓰일 때에는 아무런 문제도 생길 것이 없다.



그라나 이 어찌팔인 「참아」가, 손수한 「어찌씨」로 바뀌어질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대로 통일안 제十三항의 규칙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러므로 「참」이란 그 어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차마」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참(다||忍)十아(음, 이 가 아님)↓차마(어찌씨)

그런데, 이와 같이 분명한 「어찌팔」과 「어찌씨」와의 쓰임 곳을 혼동하거나, 또는 「참아」로서 「차마」에 통용하는 이들도 없지 않으나, 통일안의 규칙상 우리는 도저히 혼동할 수는 없다.

나로서는 차마 말이 안나간다(참아가 아님).

그 정경은 차마 볼 수가 없다(〃)。
조금만 더 참아보아라(차마가 아님)。
아파도 좀 참아주세요(〃)。

다음 것들도 모두 이와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 불(다||附) 十어 → 불어 → 부터.
- 넘(다||過) 十우 → 넘어 → 너무.
- 찾(다||頻) 十우 → 잦우 → 자주.
- 발(다||迫) 十우 → 발우 → 바투.
- 비롯(다||始) 十오 → 비롯오 → 비로소.

— (끝) —

선지암의 食品

英國陸軍에서 만드 「레이손」

英國「켄트」의 住民인 七十七歲 되는 「허네·베이」라는 사람이, 어느날 移舍할 準備을 하느라고 그의 所有物들을 꾸리고 있을 때, 意外에도 一八九九年 南阿弗利加에서 英國陸軍으로부터 받았었던 非常用食糧 「레이손」을 發見하게 되었다. 그는 많은 자리에서 그 「레이

손」의 소금에 저린 소고기와 「비스켓」들을 먹어 보았다.

그런데, 그는, 이 「레이손」이 配給된지 半世紀나 지난 後에 먹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은 매우 맛이 있었다고 主張하였다.

女秘書에 반한 도적

竊盜대신에 꽃다발 贈呈

西獨 「푸랑크푸르트」에 사는 한 젊은 女秘書는 數日동안의 旅行을 끝

마치고 그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그의 「데이블」위에 한 아름다운 薔薇꽃다발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써어 있는 종이쪽지를 發見하였다. 「나는 당신의 「아파트」에 도적질을 하려고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사진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나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으며, 이 꽃다발을 당신에게 가져다 드리기 위하여 다시 이 「아파트」에 왔었다.」

하나의 音樂人의 意見



一、音樂家

王城이나 特殊階級에게 娛樂과 慰安을 提供하고, 그들에게 奉仕함으로써 生活하였던 十八世紀 音樂家들과 今日の 音樂家의 社會的位置와 條件은 너무나 다른 것이다. 出版되지 않은 文學作品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一般은 알 길이 없으며, 아무리 文化的 惠澤을 民衆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國家의 首都인 이곳에 音樂演奏家는 있는데 音樂을 演奏할 會場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모르겠다. 아무도 여기에 注意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다. 아무리 훌륭한 愛國者가 熱辯을 吐한다 하더라도 요란스러운 工場內에서는 무슨 意味의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든 것이며, 마찬가지로 音樂演奏란 音樂을 들을 수 있는 環境에서야만 效果를 낼 수 있을 것이며 市內에 몇個所의 映畫館과 劇場은 너무나 適

林 元 植

當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營利을 爲主로 經營하는 이러한 劇場은 우리를 音樂家로서는 到底히 바랄 수도 없다. 그러면 韓國의 音樂家는 어디로 가야 하나? 장사꾼으로 轉向하거나 自己自身에게 精神의 糧食을 주고 自身の 教養을 높여 주는 곳으로 생각하고 音樂會場을 마련하여 지켜줄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수밖에는 別道理가 없는 것일까?

二、結婚

우리 한국에서는, 女子가 藝術家를 志願한다면 一生結婚을 안해야 됩니까? 하는 質問을 많은 學生들에게서 받는다. 또 흔히 藝術과 結婚生活은 兩立할 수 없다. 그러므로 藝術에 살려는 사람은 結婚을 犧牲하여야 한다는지, 或은 結婚生活을 完全히 幸福하게 하려면 藝術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마치 常識인거나 같이 말한다. 問題는

藝術을 버리지 않고 結婚生活에 들어간 사람과 藝術을 버릴 수 없어 結婚을 拒否한 사람들이고 이 어느 편에 藝術은 「프라스」가 됐을까? 하는 것이다.

藝術이 人間生活에서 遊離해서 存在한다고는 生覺할 수 없으며, 人間이 살아가는 正當한 姿態라는 것과 結婚이란 것을 아름답게 그리고 自然스러운 過程에서—— 더욱 그로 인하여 人生의 깊이라는 것을 몸소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人間的인 매력」 이것은 女性에 있어서의 역시 女子로서의 매력을 意味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매력이라는 것은 絕對로 그 藝術에 反映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結婚生活과 藝術이 兩立되지 않는 原因이 있다면 그것은 本質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才能이라는가 意慾 自信 等に 問題가 있을 것이다. 結婚生活 때문에 時間的인 或은 世俗的인 勞苦가 더욱 加해진 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고, 이러한 結果는 結婚하지 않고 인은 藝術보다 훨씬 높고 넓고 깊은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三、民衆과 音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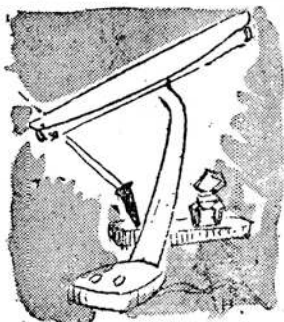
近代人類에 對해서 音樂이 어떠한 價値를 가지는가를 「루도유티·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音樂은 漸漸 우리들 生活의 하나의 힘이 되었다. 이전은 누구나 떼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敎會에서나 音樂會에서나 劇場과 家庭에 있어서도 그것에 眞摯하게 熱心히 傾倒한 사람들에게 참 生活의 糧食을 주었다」

이 말은 極樂觀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테코노드와 레디오 映畫 등의 普及으로 인해서 확실히 漸

次的인 기는 하나 大衆生活 속에 浸透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藝術의 香氣 높은 音樂에 비해 刺戟이 強한 「레즈」와 流行歌가 民衆에게 愛好되는 原因은 決코 한 가지만이 아니겠지만 그 大部分은 精神的經濟的苦惱가 차지할 것이다. 民衆은 나날이 生活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어떤 一定한 生活의 安定을 保有한 者라도 實은 眞正한 安定이라고는 生覺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一時的苦痛을 糊塗하여 그날 그날을 살아가려나 마 음은 感傷的인 것이 차게되며 藝術의 價値 없는 「레즈」나 流行歌에 의지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音樂이 政治的으로 일어나 直接關係가 있는 지 알 수 없으나, 非 藝術的인 音樂에 依하여 國民의 趣味가 低下되는 것은 事實이다. 그렇다고 해서 古典的인 것만을 藝術의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近代的인 感覺에 根底를 둔 音樂도 藝術的 價値가 있다는 것이다. 近的이면서도 藝術的 香氣 높은 音樂이 只今 民衆에게 주어야 할 音樂일 것이다. 民衆을 低級한 音樂으로부터 救하는 것은 音樂家의 또 하나의 課題이기도 하나, 그렇다고 너무 高級한 音樂을 주는 것도 結局에는 何等의 意義가 없으니 漸次的으로 그 音樂的 敎養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音樂文化의 將來가 어떠한 過程을 밟을는지 斷言할 수는 없으나, 一般民衆이 漸漸 더 音樂에 興味를 가지게 된 것은 事實이다. 페코노드, 레디오, 映畫 등에 依해 音樂이 民衆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確實한 일이다. 그러나 民衆이 要求하는 音樂만을 준다면 質의 低下를 막을 수 없을 것인즉 音樂家의 道義的 責任이 또 여기에 도 놓여져 있을 것이다.



外

交

의

演

說

宋

光

楨

海外勤務經驗이 不過 三年이고 더우거나 그것이 美國 華府의 一個地에 그치는 지로서 果然 外交逸話를 들 資格 이 있으나 저自身 疑問되는 바이지만 空軍本部政訓監室의 請에 依하여 敢히 一筆 들기로 하였다.

大部分의 外國에 있어서도 同一하지만 大學을 卒業하고 外交官試驗을 치르고 外務本部에 열마 勤務하다가 在外公 館에 補職發令되면 依例히 三等書記官 또는 境遇에 따라 서는 外交官補이다 그리하여 저도 駐美大使館 三等書記官 으로 任命되어 華府에 赴任한 것이 一九五四年末이었다.

赴任하여서 約 五個月이 되었을 무렵 하루는 內冊 床의 電話가 울리기에 받았더니 中年美國婦人으로 推測 되는 音聲으로서 自己는 華府近郊의 某高等學校先生이라

하면서 한번 自己學校에 와서 韓國의 政治、歷史、文化、 社會를 網羅하여 講演을 해 달라는 것이 었다. 그리고 附 言해서 말하기를 듣는 사람은 卒業班의 學生들로서 約五 十名이 될 것이라 하였다. 率直히 말해서 그때까지는 年 令의 多少를 不問하고 美國人들을 앞에 놓고 講演해 본 經 驗이 없었던 나였지만 外交官의 任務의 하나가 自己駐在 國의 國民들에게 正確하게 自己本國을 紹介認識시키는 것 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다른 한 面으로는 모처럼 附 記하는 것이 고 들는 사람이 라했었자 高等學校學生이라 別로 크게 重要視할 必要도 없다는 어리석은 生覺에서 承 諾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와 同時에 韓國에 關한 것이니 別로 工夫하고 가지

않아도 또 原稿準備을 해가지 않아도 當場에서 適當히 입
에서 나오는대로 이야기 하면 될 것이라고 勇斷(?)을
내려버리고 約束日까지 一週日間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하
등의 準備도 하지않고 또 마음도 꺼리낌이 없이 泰平하
게 그날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날 豫定時間에 同 高等學校에 가서 기다리고 있던 한
女學生의 案内로 教室에 가서 前日 나에게 電話걸었던 擔
任先生하고 人事한 後 登壇하였다. 學生의 數는 約四十
名으로 推測되었고 男女各約半으로 構成된 아담한
學級이었다.

그쪽에서 定해준 時間이 四十分 後에 있을 質疑應答
時間 約五分이라는 諒解 밑에서 韓國에 關한 이야기를 始
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 해가면서 나 自信 느끼는 것은 都大體가
이야기에 順序가 없고 條理가 없다는 것이었다. 平常時
의 會話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特히 演說이나 講演에는
그이야기의 構造와 展開가 整然해야 하고 一貫性이 있어
야 하는 것인데 저 自身이야기하면서 도 전혀 마음에 들
지 않을 뿐 아니라 四十分이라는 時間이 辟이나 긴 것 같
이 느껴졌다. 이것만 보더라도 나의 講演이 얼마나 不充
分한 證據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와함께 學生들도 別로
神通히 생각지 않는 것 같았고 興味를 느끼는 것 같지도 않

았다. 如何問에 내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에 籠單과 質疑
應答을 마치고 나니 多幸이라는 아나디 率直히 말하면 인
제는 살았고 나 하는 感情과 또 무엇 때문에 애당초에 말았
을까 하는 後悔感도 섞인 感情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擔任先生이 握手하면서 「當身의 講演은 꽤 좋았읍니다.
德分으로 韓國에 對해서 새로운 것 많이 배웠읍니다」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單只
外交的言辭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고 社交的인 美國人들
의 性格으로부터 오는 속없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리하여 내가 希望과 抱負를 갖고 나선 外交官生活의
第一步에 있어서의 첫 演說은 完全히 失敗하였던 것이다.

外交官이라 하면 누구든지 華麗한 生活을 聯想하고 또
「파티」를 생각하는 것이 例事이지만 實際로 外交舞臺
에 나서고 보면 누구든지 그것이 外交官生活의 一部分이
는 하지만 絕對로 根本的으로 重要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
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特히 外交가 宮殿外交에
와는 달리 事務化되고 專門化되어가는 今일에 있어서 以
前과 같이 「파티」나 「삼편」에 依하여 外交한다고 생각
하머는 絕對로 잘못된 것이다. 特히 우리가 直接 外國에
書記官으로 나가보면 그사람의 社交性이라는 것에 앞서
서 그 外交官의 眞實性、識見、人格이 絕對的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特히 民主主義政治體制의 發達에

依하여 國民一般의 輿論이나 希求가 그나라의 政治에 反映되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外交面에 있어서도 自然히 自己駐在國의 政府에 對해서만 外交한다는 것은 絶對로 不充分的 것이며 駐在國의 國民들에게 自己本國의 政策을 理解시키는 것이 絶對로 重要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外交官이 될 때에는 駐在國國民에게 自國의 真相을 傳達하고 自己政府의 政策을 說明할 수 있을만한 意思疏通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講演이나 演說이란 것이 自己母語로 하더라도 完全히 하려면 費 힘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부라헨 린킨」을 有名한 雄辯家라고 한다. 勿論 「린킨」이 偉大한 演說家였고 또 名文家였던 것은 事實이며 그가 그런 면에 先天的으로 才能이 있었던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린킨」같은 名雄辯家도 한 演說을 앞두고는 미리 原稿을 作成하고 慎重한 檢討를 加하였다고 한다. 예를 들면 後人이 絶世의 名演說이라고 규정짓고, 世界의 모—든 人間들이 한결같이 讚揚하는 저 「게티스버그-어드레스」도 絶對로 演說現場에서 卽刻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이다. 내가 와싱턴에 있을 때, 美國會圖書館의 廊下에 있는 歷史的書類를 保存하고 있는 陳列藏에 保存되어 있는 同演說의 草案을 보았는데 演說하기 二三日前에 이미 作成되었던 것을 알았고 또 그 後

에 演說하기 前에 慎重한 修正까지 加해졌던 것을 보았다. 린킨 과 같은 偉大한 雄辯家도 自己母語로 演說함에 미 리 原稿을 準備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勿論 講演의 內容은 「린킨」의 그 演說과 같이 意義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서투른 英語實力밖에 갖고 있지 못한 내가 何等의 準備없이 그러한 講演을 아무런 주저도 없이 떠맡았다고 할 은 實로 蠻勇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現在 우리나라의 外交官들 中에서 外國語로 훌륭히 演說할 수 있는 분은 누구보다도 駐美大使館의 梁祐燦大使와 韓約瑣公使라고 할 것이다. 梁大使로 말할 것 같으면 일찌기 少年時에 父母를 따라서 渡美하였던 분이요, 그 後 美國의 醫科大學을 卒業하였고 多年間 醫業에 從事한 後 現在 五年째 大使職을 맡아보면서 流暢한 英語로 美國人을 앞에 두고 演說하는 분이다. 내가 駐美大使館勤務中에 여러번 演說에 따라가 본 일이 있는데 인제든지 유창하게 演說하는 것을 보고 제自身 感歎하였고 또 美國人들도 놀라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면, 「메리랜드」洲의 「후레데릭」市的 「포—라리」俱樂部에서 演說하실 때에 내가 한번 同伴하였는데 들었던 聽衆들이 演說途中에 하도 감탄한 나머지 내 옆에 앉 아 있던 美國人들은 나보고 적은 목소리로 「當身들의 大使는 정말로 한국분입니까?」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곳에 參席했던 美國인들이 演說이 끝난後 各已 梁大使에게 가서 握手를 請하면서 그의 演說을 讚하는 것이었다. 실지어 一部는 나에게까지 와서 「當身의 大使는 정말로 演說을 잘하십니다」 하면서 握手를 請하는 것이었다.

韓豹瑣公使를 따라서 演說하는데 가 보아도 같은 場面에 부닥치는 것이 普通이었다.

그런데 勿論 梁大使나 韓公使가 原稿를 準備하지 않고 卽刻으로 演說하는 境遇가 全無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大體로는 미리 原稿를 準備하고 慎重을 期하는 것이 普通인 것이다. 또 原稿를 準備치 않는 境遇에 있어서라도 그들은 미리 마음속에 演說의 줄거리나, 內容을 그려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뿐만 아니다. 한번은 華府에서도 가장 高級인 「메이 후라하」호텔에서 全美國 共和政關係指導者 會議가 열렸을 때에 華府에 駐在하고 있는 外交官의 一部는 招請되어 參席했는데 그 자리에는 「貴賓으로서」 「닉슨」美副統領이 오셔서 演說을 하였는데 妙巧를 띤 演說이었지만 語句語句까지 檢討를 加한 훌륭한 內容의 것이었다.

아까도 若干言及했던 일이 있지만, 演說이란 것은 이 같이 近代外交에 있어서 거의 不可缺한 것이라 해도 過言이 아닌 것이다. 古來의 傳統的인 外交에서 漸次로 國

際機構 또는 國際會議을 通하여 볼 수 있는 會議外交의 發展으로 展開되어 간다는 것을 是認한다면 또한 UN그 他 國際會議에서 弱小國家의 代表라 할지라도 그의 演說이 理論整然하고 權威있는 것일때에 얼마큼 그 會議의 決議에 큰 影響을 주는가를 보고왔던 우리로서는 近代外交에 있어서 大小를 莫論한 演說이 얼마큼 重要한가를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秘密外交에서 公開外交로, 貴族外交에서 民主外交로 變遷하는 오늘날, 國際正義에 呼訴하고 世界人類의 良識에 絶叫하여 駐在國國民의 健全한 理性的 判斷에 期待하며는 亦是 演說이란 外交官에 있어서의 重要な 武器인 同時에 必須要件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國際情勢를 「과워」에 依해서 解釋하고 判斷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과워」만 가지고 國際情勢를 論하려는 것은 多分히 危險性이 內包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一部政治家들이나 國際政治學者들은 國際政治의 要素로서의 輿論 또는 「모란」問題를 重要視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自己本國이 貧困한 弱少國家의 外交官에 있어서 是 恒常 自己政府의 政策이 獨바로 自己의 駐在國에 反映되게끔 하기에는 演說에 依한 方法에 呼訴하는 境遇가 많은 것이다. 富裕하고 國力이 강한 나라의 外交官은 自

國의富力이나國威에 依하여 外國政府와 有効하게 交涉할 수 있는 것이 普通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弱少國에 있어서의 財力이나 國力에 依하여 外國과 關係를 維持할 수 없는 것이 考 모름지기 世界輿論이나 駐在國의 公論에 呼訴하는 道理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點을 考慮할 때에 우리나라의 一部 外交官들은 왜 奔走히 演說하고 다니는 大使、 또는 公使라는 것을 理解 肯定하게 되리라 믿는 것이다. 남나라는 「파티」에 依해서 또는 自國의 國力으로부터 오는 權威에 依해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도록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道理에 呼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以上은 演說의 境遇를 들어서 어느 程度 極端의 理由로 이야기 한 것이라 할지라도, 外交官이 外國에 赴任하면 依例의 自己나라에 對해서 紹介해야 할 境遇에 부닥치는 것이다. 이러한 點은 單只 外交官에 限하는 것이 아니고 留學生들도 똑 같이 當하는 問題인 것이다. 美國이나 그 他 國家에 留學이나 그 他 目的으로 若干 동안 滯留하였던 人은 特權없이 이러한 母國紹介의 請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때에 홀홀히 自己母國을 說明할 수 있고 이야기 할 수 있다면 請을 한 外國人에 對해서 本國을 正確히 理解시키는 것이 될뿐만 아니라 그들이 自己 집에 돌아가서 自己父母兄弟姊妹들에게 이야기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外國에 나가는 人은 可能하면 自國을 그 外國에 紹介할 만

한 能力이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

하물며 外交官은 自己本國을 代表하고 自己民族을 代表하고 自己政府를 代表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單只 駐在國에 自國을 紹介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自己政府의 政策을 說明하여 그들의 理解와 支持를 確約하는 方向으로 努力해야 하는 것이다.

하여간 그 動機는 어떻든 間에 外交官이 充分한 演說 能力을 培養해야 하겠다는 것은 前記事件을 契機로 하여 새로이 느끼고 覺醒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後부터는 어떠한 조그마한 場所에서 이야기하는 境遇에 있어서라도 特權없이 미리 이야기할 것을 생각해 두고 또 原稿를 大略作成하여 그대로 읽지 않더라도 이야기하는 途中에 들어서다 보면 서 해가니 훨씬 말하기도 쉽고 또 들는 사람들도 容易하게 알아듣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 後에 「매리랜드」대의 어떤 高等學校에서 韓國政治에 關해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充分한 것은 勿論 아니었지만 其의 英語實力으로서 어느 程度 滿足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고 또 聽衆들도 興味있게 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外交官이 될 條件으로서 는 말할 必要도 없이 이 以外에도 여러 가지 많은 要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느 程度 強調하고 싶은 것은 演說할 수 있는 素養이 絕對로 必要하다는 것이며, 또 그 必要性은 近代外交性格

의發展에 隨伴하여 漸次로 더 重要해 간다는 것이다.

始初에도 이야기 했지만 海外勤務經驗이 三年에 不過하

고 또 外交官中에서도 最低階級인 三等書記官生活 밖에

못한 나로서 이러한 斷定을 내린다면 獨斷이라는非

難도 不免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外交官의 階級이 높아

지면 높아질수록 自國을 代表하는 役割은 더 커지는 것이

며 外交官生活을 오래하면 할수록 演說을 해야하고 國際

會議에 代表 또는 交替代表로 參席해야 할 境遇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다.

『外交官과 演說』 그것은 分離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確信은 最近에 海外勤務를 끝마치고 本部勤務에

있는, 다시 말하면 나의 第一次海外勤務에 對해서 反省과

檢討時機에 있는 나로서 점점 깊게 믿게 되는 것이다.

(筆者 外務部 儀典課長)

音響으로 目標物探索

「마이크」 32는 水中誘導彈

美海軍은 『對潛水艦 武器中 새

롭고 가장 最新의 것』이라고 不過

일마전에 規定되었던 二個의 水雷

中 一個에 對한 보다 致命的인 다

른 代替武器를 推進中이라고 말하

였다. 漸增的인 蘇聯의 水中軍事

力에 關한 여러報告에 接하여 海

軍은 보다 優秀한 誘導速度 및 射

程을 갖게 되는 새로운 一連의 對

潛水艦 裝置의 發展에 拍車를 加

하여왔던 것이다. 海軍官吏들은

이 새로운 水雷研究에 關하여

그 仔細한 內容은 모두 秘密에 부

치고 音響을 따라 目標物에 命中하

는 水雷 「마이크」 32는 海軍의 訓

練用 및 戰鬪用으로 充分하게 生産

된 後인 一九五五年에 이의 生産이

終了되었다고 發表하였지만 이 武器

가 있다는 것은 不過 지난 十五日에

야 正式으로 發表되었었다.

「마이크」 32에 關한 內容은 『敵의

目標物을 찾아 水中 깊이까지 探索

할 수 있는 潛水用 誘導彈』으로 밝

혀졌다.

航空機가 水上 艦船에서도 發射될

수 있는 「마이크」 43號 水雷는 아

직도 生産中에 있으나 이들은 모두

艦隊裝備에 이미 包含되어 있다.

여러가지 誘導水雷以外에도 海軍

「空宇宙省」으로

美, 三軍統合後의 名稱

중原子彈을 生産하고 있다. 그리고

海上 艦船에서 發射될 수 있는 水中

用 核彈이 發展되고 있다.

오랫동안 空軍力擴張의 提唱者로

알려진 「알렉산더」 P. D. 세버스

키 氏는 美國의 陸海空 三軍을 單

一軍으로 統合하고 이를 「空宇宙

省」으로 呼稱할 것을 提議하였다.

氏는 上院 防衛分科委員會에 對

하여 이 統合軍은 單一制限과 單一

參謀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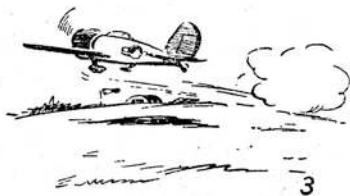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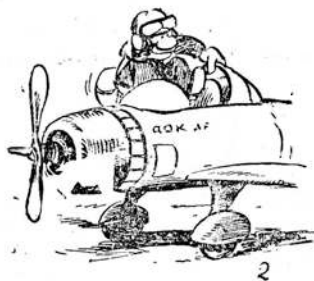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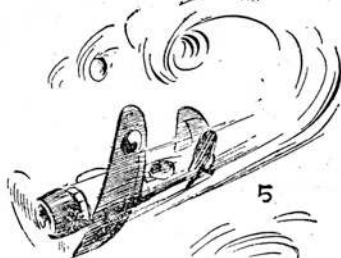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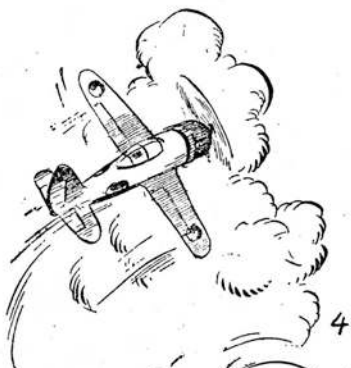
는데 그 案에 依하면 海軍은 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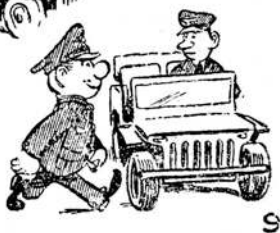
舶局으로 그리고 陸軍은 地上軍局

으로 各各 縮少되기로 되어 있다.

PILOT

空
軍
電
機
金
機
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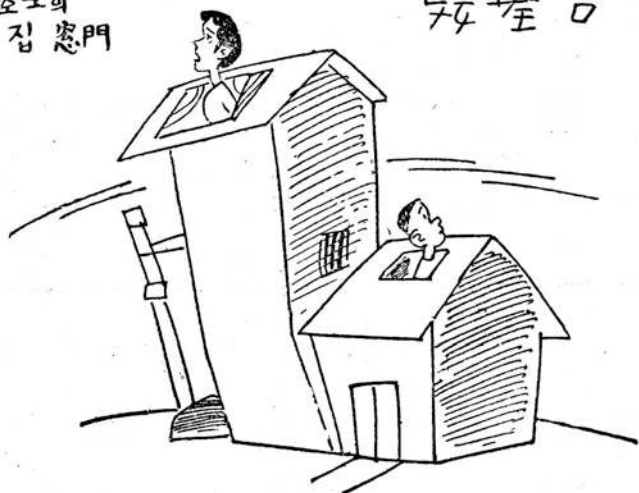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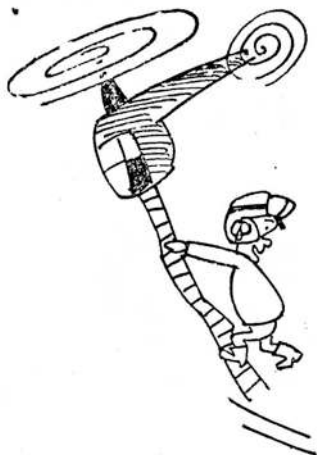
明日四題

航空士の
집窓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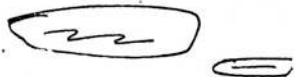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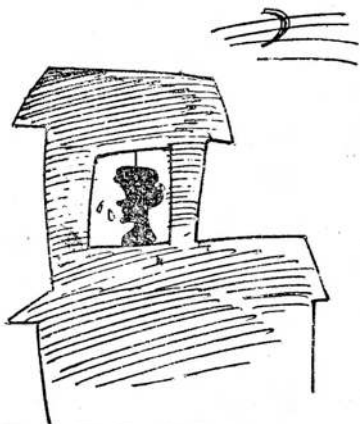
培聖坑
白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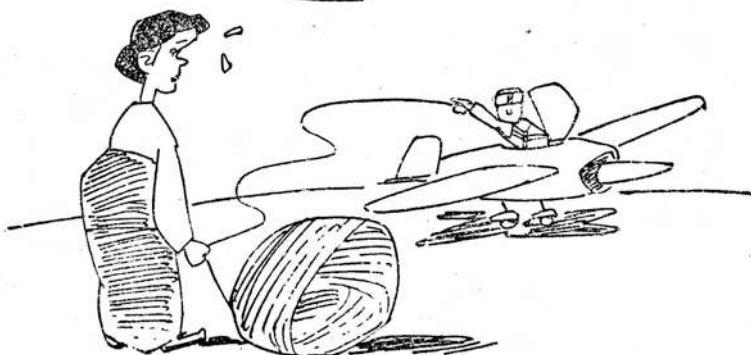
아차! 너무 급한 김에



新版 로미오와
줄리엣



離別의 레—푸



어느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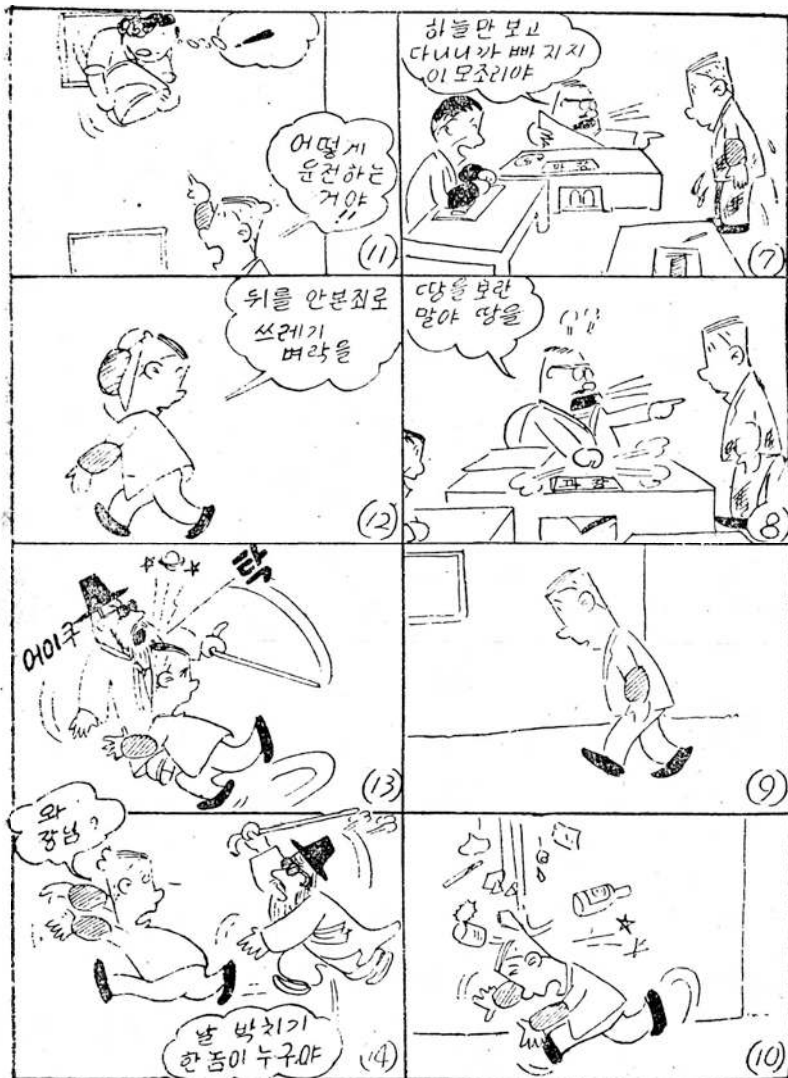
각 자 생

김만선



장검을 빠져 들고 백두산에 올라보니
 일엽 제잠이 호월에 잡겨세라
 언제나 남북 풍진을 헤쳐 불고 하노라

時
調



時
調

그런싸 그러한지 솔빛 벌써 더 푸르다
산골에 남은 눈이 다산듯이 보이고너
토담집 고치는 소리 별밭아래 들러라



軍人과 民族史觀

李 丙 燾

一、民族과 戰爭

民族이란 同一한 地域에서 오랜 期間의 歷史를 통하여 言語、習俗 其他의 傳統을 같이 해온 歷史共同體인 것이요, 民族史는 곧 이러한 歷史共同體가 어떠한 經路를 밟아 오늘날의 現狀에 이르렀는가를 調査研究하는 學問을 말하는 것이다. 흐르는 물에 波瀾屈曲이 있는 것처럼 民族의 歷史에도 그러한 變化가 거듭하여 있다. 더욱기 歷史的인 民族은 自己保全·自己發展·自己向上을 위해서 自己自體內的 協助와 相剋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民族과의 接觸과 鬭爭을 통하여서 새로운 方向으로 指向發展하게 되는 것이다.

悠久한 傳統을 가진 우리 民族의 根本要素는 언젠가 뚜렷한 것이어서, 우리 民族이 發達하여 오는 동안에는 滿洲·蒙古·漢人·倭人 등의 外來要素도 多少 混合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을 곧 吸收하고 同化하여 渾然한 一體를 이루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대체로 言語와 風俗 등이 같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흔히 우리 民族을 單一民族이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民族社會에는 항상, 個人은 全體를 위하여 살고, 全體는 個人을 包容하는 共通된 最高의 精神과 理念이 支配하여 오는 것이다. 따라서 全體의 利益은 곧 個人의 利益이요, 全體에 대한 威脅은 곧 自己個人에 대한 威脅으로 認識하고 全體가 威脅을 당하는 경우에는 自己 個人의 生命을 草芥같이 버려서라도 이것을 기어이 克服하고 全體의 利益을 保障하는 데에 躡躅

하지 않고 나서기를 즐겨 하여 온 것이다.

우리 민족의 社會가 滿洲 또는 半島를 中心으로 發展하여 오는 동안에는 漢族·蒙古族等 많은 外族과의 鬭爭이 不絶히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鬭爭은 대개 이들 周圍의 強大한 民族의 侵略을 避해서 發生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戰爭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先人들은 民族全體의 共同的인 利益을 守護하기 위하여 勇敢하게 싸워서 外來의 侵略者들을 擊退하였다. 또 때로는 大勢의 不利로 해서 一時的인 屈辱을 當하는 경우에도 不義의 侵略者들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正義의 抗爭으로 民族의 氣概와 精神을 內外에 示顯하였다. 이러한, 全體를 爲하여서는 個體의 犧牲을 주저하지 않는 民族共通의 最高精神은 우리의 民族社會·民族國家를 오늘에까지 維持發展하여 온 原動力이 된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우리 민족의 鬭爭史, 그중에도 軍人武士들의 外敵을 擊退하고 國家의 危難을 救出하는 愛國愛族의인 活動을 中心으로 한 歷史的 事實들을 若干차례 叙述하여 오늘의 軍務를 擔當한 將兵들의 民族史觀의 確立과 民族精神의 振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바이다.

二、高句麗의 對漢族鬭爭

우리 민족은 그 地理的·位置關係로 해서 周圍 諸民族과의 交涉과 衝突은 年代上 매우 久遠하였다. 더구나 우리의 祖上들이 大陸의 北方에서 차츰 東進하여 滿洲로, 半島로 轉出하였던 만큼 大陸의 漢民族과의 接觸은 特別히 오래고, 잦았으며 그 影響도 컸던 것이다. 그중에도 西紀前一〇八년에 있었던 衛氏朝鮮과 大陸의 漢帝國과의 衝突은 最初의 큰 事件이었는데 이 戰爭에서 衛氏朝鮮이 약 一年동안이나 抗爭하다가 敗北를 보고 그로 인하여 우리 領域內이었던 一部地方에는 樂浪·玄菟·眞番·臨屯의 四個의 漢郡縣이 設置되었던 것이니, 이것이 우리 民族社會에서 外民族의 侵略을 받았던 最初의 쓰라린 經驗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이러한 郡縣을 통하여 侵入하여 오는 漢人の 勢力에 對한 反抗運動은 甚작부터 熾烈하였기 때문에 未久에 四郡은 廢合되어 樂浪·玄菟의 二郡만이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漢人の 侵略勢力을 除去하여 가면서 滿洲와 半島의 北部一帶에서는 高句麗와 沃沮 東濊 등이 일어나고, 한편 半島의 南半部에서는 辰韓·馬韓·弁韓의 聯盟社會가 일어났으며, 또 그 뒤를 이어서 百濟와 新羅

의 興起를 보게 되었다.

이 中에서도 高句麗는 玄菟郡內이었던 지금 鴨綠江 中流地方에서 崛起하여 일찍부터 玄菟는 勿論、周圍의 많은 強敵들과 싸워 이를 물리쳐가면서 健全한 發展을 이루어 나갔는데 美川王時(四世紀初)에는 最後까지 半島의 一部地方에 남아 있던 漢의 郡縣인 樂浪과 帶方을 完全히 물아 내고 南으로는 半島의 中部地方을 차지하였던 百濟와 接壤하게 되었다. 그리고 廣開土王이란 不世出의 英主가 나타나서부터는 西으로는 遼河以西의 地方을 完全히 所有하고 東으로는 東濊를 平定하며 그 다음 長壽王時부터는 首都를 鴨綠江 中流地方에서 大同江의 流域인 平壤으로 옮기고 南進政策을 取하여 百濟와 新羅를 制壓하는 등 그 勢力을 四方으로 떨쳤다.

그런데 高句麗가 이러한 發展을 가져오기 까지는 高句麗國民들의, 不絶히 侵入하여 오는 外敵에 對한 英勇한 鬪爭의 記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卽 高句麗는 그 地理的條件이 中國의 大陸과 連接하여 있었으며 또一時 侵入하여 왔던 中國의 勢力을 排除하여 가면서 國勢를 擴張하였기 때문에 初期부터 가장 많이 中國과의 衝突이 잦았다. 그 中에도 第十一代 東川王때의 魏의 侵入이나, 第十六代 故國原王때의 前燕의 入寇같은 것은 都城의 陷落·國王의 避亂 등으로一時 國內을 混亂의 渦中에 빠지게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大患難中에서도 高句麗의 將兵들은 果敢하게 敵軍을 襲擊하여 그 銳鋒을 挫折하기도 하며, 한편 強靱不拔의 愛國心으로 疲弊한 國力을 回復하는데 注力하여 끝내 東方의 「莫強之國」으로 알려졌던 高句麗 大帝國은 더욱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發展한 高句麗는 다시 隋와 唐의 二個의 強大勢力이 壓리를 물고 대들어 오는 侵略의 暴威에 부닥치게 되었다.

卽 三國·魏晉 以來 五胡 十六國의 混亂과 南北朝의 對立 등으로 한동안 分裂과 混亂을 極하던 中國에서 세로이 大陸統一의 事業을 成就한 隋의 煬帝는 그 南征北伐에 勝利하지 못한 적이 없는 自信과 威力으로 東方의 強大國 高句麗마저 征服하려고 대들었다. 그런데 隋에서도 高句麗의 實力을 짐작하였더니만큼 몇몇 동안에 걸쳐 「物衆地大」한 中國의 온갖 힘을 동원하여 戰備의 萬全을 期하고 一百餘萬이라는 中國에서도 有史以來의 最大兵力을 出動하여 水陸 兩面으로 쳐들어오니, 때는 高句麗의 嬰陽王 二十三年(西紀六一二)이었다.

그러나 高句麗將兵들의 勇戰善鬪앞에서는 隋의 大兵力도 보람이 없었다. 바다를 건너 大同江으로 들어와

서 平壤城을 肉迫하는 隋의 水軍은 우리 군사들의 伏兵戰에 慘敗를 입었고 煬帝가 친히 指揮하던 陸軍 主力部隊의 遼東城 包圍戰도 많은 損失을 입고 아무런 所得이 없었다. 그리고 隋의 大將 于仲文, 宇文述의 거느린 別動部隊 三十萬은 高句麗의 名將 乙支文德將軍의 誘導戰術에 빠져, 鴨綠江을 건너 平壤附近까지 쳐들어왔다가 물러가는 途中 薩水(지금 淸川江) 作戰에서 그만 거의 全軍陷沒의 大敗를 당하였다.

隋는 그 後에도 계속해서 兩次に 걸친 侵略을 하여왔지만 모두 失敗로 돌아갔으며, 마침내는 國力の 消耗, 內亂의 發生으로 自體의 滅亡을 招來하고 말았다.

그리고 隋를 대신하여 大陸을 統一한 唐에서도, 英主 太宗이 世界帝國을 建設하려는 勃勃한 野心으로 隋代 戰爭에 敗敗한 子弟들의 怨수를 갚는다고 聲言하면서 高句麗遠征軍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唐太宗이 친히 指揮 督戰하는 水·陸軍은 卑沙城(지금 大連)·遼東城(지금 遼陽) 等地로 쳐들어왔다. 그러나 安市城(지금 海城 東南 英城子) 싸움에서, 百戰鍊磨의 高句麗將兵들의 超人的인 防禦戰에 依하여 乘勝長驅하여 들어오는 數十萬의 唐의 大軍을 六十餘日間이나 막아 싸워 결국은 唐의 太宗으로도 出師를 後悔하며 물러가고 말지 않을 수 없게 하였던 것이다. 太宗은 그 後로도 계속해서 水陸兩面으로의 侵略戰을 하여왔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의 邊境騷亂을 일으켰을 뿐 高句麗의 勇敢스러운 將兵들에게 屢번이 損失만 입고 돌아가고 말았다.

三、高麗軍民의 抗敵精神

그다음 新羅의 半島統一後 二百餘年에는, 王室·貴族의 享樂·腐敗와 土地制度의 紊亂 등으로해서, 그 末期에 가서는 國內가 混亂狀態에 陷入하고 결국은 後百濟·泰封(後高句麗)의 分裂로 「後三國」의 成立을 보게까지 되었다. 그런데 이 「後三國」을 統一한 高麗는 그 建國의 出發부터 民族發展의 意慾이 旺盛한 泰封의 將領들이 度量과 智略이 出衆하고 國土統一을 항상 經論하던 王建을 推戴하였더니 마치, 그 理想은 後三國의 統一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高句麗의 舊疆을 收復하는데 있었다. 때문에 高麗朝에서는 新羅·後百濟의 統一과 함께 高句麗의 古都인 平壤을 西京이라 稱하고 거기를 中心으로해서 臣僚부터 北方開拓에 注力하였던 것이다. 高麗의 이러한 民族의 理想에 의하여 實施되는 北進政策은 그 版圖를 新羅時代보다 北方으로 나아가서 지금의 淸

川江以北으로 넓혔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高麗의 北進政策을 가로막는 勢力이 北方에서 나타났으니 그것은 東部蒙古의 契丹(말안)故의 滿洲進出인 것이었다. 契丹은 遼河上流地方을 根據地로 해서 各部族을 統一하여 強大한 國家를 形成하고, 다시 高句麗의 遺民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던 渤海國까지 併合하였기 때문에, 진작부터 高麗朝와의 感情이 좋지 못하였는데 그後 契丹은 그 強大한 武力으로 다시 鴨綠江을 건너 半島內에까지 侵入을 敢行하였다.

卽 契丹은 高麗의 成宗十二年(西紀九九三)과, 顯宗元年부터 同九年에 걸쳐 三次의 大侵寇를 하여왔는데, 이때의 契丹은 國號를 「遼」라 하고 皇帝를 稱하였을 뿐만 아니라 蒙古·滿洲의 一帶는 勿論 中國의 北部까지 차지하여 그 勢力이 대단하였다. 顯宗 元年에는 遼王 聖宗이 親히 四十萬大軍으로 侵入하여 왔으며 第一次와 第三次에는 契丹의 有名한 將軍 蕭遜寧과 蕭排押 등이 大兵을 揮動하여 쳐들어 왔다. 그러나 高麗의 將兵들은 敵의 大軍에도 慫내지 않고 그들을 몰아내고 北으로 領土를 開拓하였다. 卽 第一次 寇時에는 中軍使 徐熙가 용감하게도 敵陣中으로 나가서, 敵將 蕭遜寧과 직접 談判하여, 高句麗의 故地는 高麗가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認定하게 하고 敵兵을 引退시킨 다음, 다시 北으로 女眞을 討伐하여 北界를 鴨綠江 下流에까지 넓혔으며 第二次 侵入時에는 行營都統使 康兆 등의 失策으로 해서 一時 開城까지 敵兵이 侵入하였지만 楊規를 爲始한 西北諸鎮의 將領들은 조금도 動搖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契丹軍을 襲擊하여 많은 損害를 주었다. 또한 이 第二次戰에 있어서의 敵에게 捕虜된 將軍 康兆와 回軍時 敵國에까지 끌려 들어갔던 大臣 河拱辰이 契丹主의 降服勸誘를 罵倒하면서 正義의 죽음을 당한 것은 우리의 民族正氣를 널리 内外에 宣揚하였던 것으로서 有名한 일이다. 그리고 第三次 侵入時에는 다시 高麗의 名將 姜邯贊 등의 強打粉粹로 해서 契丹의 十萬大軍은 겨우 數千名이 生還하는 慘敗를 당하고 말았던 것으로서, 無敵強軍을 자랑하던 契丹의 大兵도, 民族精神으로 武裝한 高麗의 將兵들 앞에서는 措手足을 못하였던 것이다.

그다음 高麗朝에서의 큰 戰亂은 第二十三代 高宗朝의 蒙古戰亂이었다. 蒙古는 黑龍江上流地方에 있던 遊牧民族으로서 오랜동안 遼와 金에 隸屬되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約七百五十年前에 有名한 英雄 鐵木眞(成吉思汗)이 나서 近傍과 蒙古의 諸部落을 統合한 후 金과 遼를 征討하고 大陸의 黃河以北까지도 掌握하게 되었다.

그리고 高宗十八년에는 蒙古使臣의 被殺事件을 口實로 삼아가지고 鴨綠江을 건너 高麗로 侵入하여 왔다. 여기 서도 西北面兵馬使 朴犀等 諸將이 邑州 및 여러 곳에서 激烈한 防禦戰을 하여 敵의 氣勢를 꺾기도 하였지만 敵은 強行軍으로 깊이 쳐들어와서 開城을 包圍하는 事態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高麗朝廷에서는 國都를 江華로 임시 옮기는 一方 長期抗戰의 態勢를 取하였는데, 伊後 三十餘年間 高麗朝에서는 軍·官·民이 그야말로 三位一體의 끈기 있는 抗敵精神으로 一面戰爭·一面生産의 方針을 默黙히 實踐하였던 것이다. 그중에도 江華避亂의 戰亂渦中에서도 佛力의 加護로 敵의 擊退를 念願하는 誠念에서 官民의 一致全力으로 우리의 有名한 文化財인 「八萬大藏經」을 十五六年間의 工役으로 完成하였다는 것은 지금와서 생 각하여도 눈물겨운 感激의 일인 것이다.

四、倭·胡兩亂과 民族正氣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은 近朝鮮 五百年史上 가장 큰 戰亂이었으며, 또한 民族의 큰 受難의 記錄이었다. 그중에도 倭亂은 近朝鮮의 第十四代 宣祖大王 二十五年 壬辰에서 시작하여 前後 七年間에 걸친 長期戰亂이 었으며 橫暴한 敵의 발진은 國內에 거의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즉 開戰後 一個月도 못되어 首都 서울이 陷落되고 國王을 爲始한 政府一行은 國土의 最北端인 義州로까지 피란하는 등, 國家의 形勢, 民族의 運命은 그 야말로 危機一髮이었다. 여기서 「救國濟民」을 民族의 至上命令으로 삼는 忠義의 勇士들이 各地에서 武器를 들고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趙憲·郭再祐·鄭文學 등의 奮戰은 가장 有名하였던 것으로서 가는 곳마다 敵兵을 邀擊 殲滅하였다. 또한 地方을 따라서는 金時敏이나 李廷範 같은 이들이 晉州와 延安에서, 적고 의로운 軍勢로도 물밀듯 쳐들어오는 倭의 大軍을 잔막아 싸워서 軍人으로서의 責任을 다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倭亂 七年間을 통하여 民族과 國家를 危亡의 境에서 救出한 가장 큰 功勞者로는 忠武公 李舜臣將 軍의 海上守護戰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忠武公은 倭亂이 일어나자 南海上을 往來하면서 玉浦·唐項浦·閑山島·釜山前洋等 가는 곳마다 敵의 水軍을 擊破하고 그 水陸並進의 計劃을 粉碎하였던 것이니, 陸上官軍의 많은 敗北에 비하여 海上에서의 이러한 勝

利는 오로지 公의 雄材大略과 愛國愛族의 衷心에서 이루어진 見敵必滅의 作戰에 의해서였던 것이다.

忠武公은 과연 聖者에 가까운 民族正氣의 化身이었다. 一時 謀略을 써서 公을 대신하여 水軍統制使가 된 元均이, 公의 四、五年間의 努力으로 이루어진 우리海軍의 陣容을 一朝에 陷沒시킨 다음, 겨우 難破船 十餘隻을 모아가지고 海上을 덮어오는 敵의 大船團과 對戰準備을 할 때에, 政府에서 그 孤單한 形勢를 염려하여 水戰을 그만두고 陸戰에 注力하자고 慫慂하는데 대하여,

『戰船이 아직 도열 두隻이 있습니다. 微臣이 죽지 않는 이상 敵이 감히 우리를 輕視하지 못합니다.』
고, 海上守護의 悲壯한 決意를 보인 것이나, 敵이 물러갈 臨時에 最後로 露梁大海戰을 目標하고 나가면서 忠勇히 뱃머리에 나아와,

『이 원수만 없이 한다면 죽어도 恨이 없겠다.』

고, 하늘에 맹세한 일같은 것은 과연 民族正氣의 象徴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公의 이러한 愛國至誠은, 奇蹟적인 「鳴梁大捷」과 最後의 露梁의 勝利도 가져 왔던 것이다. 아니, 國家와 民族의 運命을 既倒의 逆境에서 挽回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丙子胡亂」은 倭亂終熄後 四十年未滿인 仁祖十四年 丙子에 있던 大戰亂이었다. 倭亂이 七年의 長期間이었음에 비하여 이 胡亂은 겨우 四、五個月이라는 짧은 期間이었지만 그 結果와 民族에게 미친 바精神의 影響은 매우 컸던 것이었다.

즉 淸(後金)의 太宗이 親率한 十萬精兵이 卒地에 쳐들어 오는 通에 朝野는 당황하여 王子와 妃嬪一行은 江華島로 避亂하고 王과 朝廷百官은 南漢山城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淸陣에서 兵力을 集中하여 城下에 肉迫, 包圍急攻하니 城中에서는 防禦對策이 서지 못하고 君臣玉碎를 主張하는 「斥和派」와 一時 請和로 後日을 도모하는 「主和派」가 御前에서 深刻한 討論을 反覆하였다.

그러나, 江華島의 陷落으로 王子 妃嬪 一行조차 賊에게 捕虜가 되고 마니, 結局 主和派의 意見을 좋아 城下의 盟을 맺고 淸兵을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으로서, 우리 民族史上의 一大 恥辱의 事實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대까지나 大勢에 의한 一時的인 方便이었던 것이요 우리 거리의 淸에 대한 敵愾心은 亂前보다 더욱 高調되었다. 따라서 斥和를 끝끝내 주장하던 洪翼漢·尹集·吳達濟같은 文臣 武將들은 불들려서 淸主의 앞에까지 가서 그 不義의 侵寇를 罵倒하다가 죽음으로써 民族의 氣魄을 代辯하였으며, 義州府尹으로 있던 林慶業將軍은 最後까지 對敵抗戰을 하는 등 그 기세는 대단하였다. 그리고 仁祖의 뒤를 이은 孝宗은 宋時烈·李浣等 文武大臣들과 함께 「北伐」의 計劃을 進行하기도 하였던 것이며, 淸人の 祖上뿐만 아니라 近世까지도 그들에 對해서 「胡人」 또는 「되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對淸敵愾의 連續인 것이다.

또한 이렇게悠久한 歷史를 통하여 連綿持續하여 오는 民族의 正氣는 近朝鮮 末期에 日帝의 侵略時에 있어서도 여러가지의 鬭爭方法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는 직접 銃劍을 들고 「義兵」 또는 「獨立軍」으로 抗戰한 것이 다름가, 單身으로 爆彈 또는 拳銃을 가지고 日帝의 巨物들을 狙擊한 것같은 것은 民族의 忠勇 義俠의 氣魄을 如實히 表現한 것이며, 「三一運動」의 「獨立宣言」은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平和鬭爭의 民族精神을 內外에 宣揚한 것으로서 아직도 우리들의 記憶에 生생한 바 있다.

五、軍人과 民族精神

이상과 같이 우리 民族은 過去 數 많은 外敵의 侵寇를 당하였으며, 거기에 의한 精神的 物質的으로의 深刻한 影響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先人들은 그 強毅不屈의 民族精神을 持續發揮하여 侵略의 敵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民族社會를 維持發展하여 왔다. 그중에도 歷代의 忠勇한 軍人들의 護國愛族의 鬭爭은 우리 民族史의 礎石이 되고 支柱가 되었던 것이다.

第一次大戰以後 戰爭의 樣相은 많은 變遷을 가져왔다. 戰爭의 勝敗를 左右하는 것은 但히 一線將兵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全國民의 總力集結에 負하는 바 많다는 것이, 여러차례의 近代戰을 치루고난 오늘날의 一般的인 戰爭에 對한 認識인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銃·劍을 들고 砲彈을 안고 몸을 砲彈彈雨中에 던져서 敵과의 直接對決을 하는 것은 오늘날도 역시 一線의 軍人이다. 後方에서의 國民의 總力이 集結되고 敵을 壓倒할만한 武器가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價値있게 効果있게 發揮·利用할 만한 軍人이 없다면, 그 支援과 裝備는 無用의 長物이 되고 마는 것이며, 또한 國土는 敵의 橫暴한 발길 아래 유린되고 國民은 戰亂의 慘禍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國防國家의 總力을 集結하여야 하는 現代戰에 있어서도 그 戰爭의 推進力은 역시 軍人에게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軍人은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로 國家의 干城이오 民族의 防波堤인 것이다.

오늘 우리의 軍人들에게는 一朝有事時에라도 差躓이 없을만한 준비로서 近代戰에 필요한 知識과 技術의 修得 鍊磨가 眞摯히 요청된다. 그러나 이보다도 먼저 우리의 軍人들은 우리 民族史觀에 立脚한 民族精神의 樹立이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民族의 지난 날의 걸어온 길과 過去의 勇敢한 軍人들의 國土守護 民族保衛를 위한 鬭爭의 歷史를 體得하는 데서만 오늘날의 우리의 軍人들도 그 自身이 處한 바 民族史上的 位置와 自身에 賦課된 바 民族의 使命을 確乎히 認識하는 同時에 名實共히 民族을 위하여 싸우는 民族의 軍人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民族史觀에 立脚한 民族精神의 確立—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軍人들에게 新武器의 裝備以上으로 緊急한 일이다.



隨 想

崔 用 德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나, 이 일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까닭에 다시 한번 회고하려고 한다.

나는 일찌기, 강도적인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나라 주권과 강토(국민 — 국민은 언제나 조국을 생각하고 사랑하므로)를 찾으려고, 내 나이 십七세 때(一九一五)에, 그들의 눈을 피하여 중국으로 들어갔으며, 실력으로 싸워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결심으로 군문을 지원하여 육군으로 들어갔고, 좀더 힘있고 효과적 인 전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다시 공

군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 때 나는 마음깊이 뜻한 바가 있었으니,

(一)、우리 나라의 공군 군복을

입고, 우리 국기에 경례를 하자!

(二)、우리 기술자가, 우리의 기

재로서 만든 항공기로 날아보자!

(三)、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를

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날려보자!

(四)、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항공생활을 즐기게 하자!

그리하여 나는 항상 모든 고민과, 기쁨과 환상……을 버리지 못한 채,

중국의 통일혁명을 위하여 항일과 공산 토벌전에 나의 마음과 젊음의 피를 가치지 않게 소비하려고 힘써왔다.

나의 광복을 위하여 국 내외에서 노력 분투하는 혁명투사 여러분 의 정신적인 결합과, 무력에 의한 투쟁과 및 U·N 여러 나라의 연합작전의 결과로 마침내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됨을 따라 우리 민족이 다시 천일을 보게 되어 우리 나라가 다시 우리의 땅에 이루어졌으므로 나는 곧, 광복을 떠나 돌아와 기쁘게 우리나라의 군복을 입었다.

그러나 그것은 육군의 군복이요, 내가 뜻하였던 초초육인 공군 군복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때 육군 소속으로 설립된 「육군항공대」 동지들과 같이, 공군 독립을 위하여 각 방면으로 활동하였고, 마침내, 공군도 육군, 해군과 같이 독립하여, 삼위 일체의 완전한 조직으로서 조국의 운명과 흥·망·성·쇠의 중요한 사명을

말게 되었다.

어떤 일이나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르는 법이다. 독립의 권리를 얻은 우리는 공군으로서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것이 의무임을 작오하고, 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이에 바칠 결심으로 꾸준한 결음을 걸어왔다. 더구나 지금은 공중의 세계이며 모든 것이 공중에서 이루어지고 해결하려는 이때이므로, 공중을 활동 무대로 하는 항공인의 의무는 점점 가중하여 간다는 것이 누구나가 공인하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영구히 보존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이 항공문제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항공문제는 곧 항공기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내가 뜻한 바, 우리 기술자가 만든 항공기를 우리의 기술로 날리는 방향으로 속속히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는 먼저 우리의 공업수준이 항공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북돋아 주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이를 장려하여야 그 자라는 속도가 빠른 것인데 뜻하지 않은 공산도배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도리어 파괴만 당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막 고사는데 눈코 뜰 사이가 없게끔 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의만 있다면, 또 냉정하게 우리민족의 세계적인 입장과 사명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좀더 중요시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힘을 다하여 밀어 주어야 할 일이다.

우리가 국토 반쪽만을 회복한 것도 다행한 일인가는 하나, 국토통일의 의무는 아직도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 중차대한 앞일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발붙이고 있는 땅을 굳게 지키고, 한편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따라서 항공의 중요성,

곧 항공기 제작문제를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바이다.

우리는 지금 곧 시기를 잃지 말고 적고 큰 것을 가리지 않고 돈의 힘을 모으고 지혜의 힘을 모아, 각부문의 전문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이 일을 착수하여야 한다.

사람은 지나간 일을 기억도 잘하지만 그만큼 잊어버리기도 잘한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슬픔을 생각하면 지금 독립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누구나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나, 그 눈물은 때가 흐름을 따라 식어지고, 공산도배의 남침으로 또 다시 부모 처자가 서로 이산되어 남으로 남으로 피난가던 때를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땅을 지킨다는 것과, 땅을 지켜야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다같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이 조금만 안심이 되면, 잊어서는 아니 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버릇

인 동시에 크나큰 우리의 단점이라 하겠다.

무릇 누구를 막론하고 비상한 시기에 처한 사람은 비상한 생각과, 비상한 결심과 또 비상한 행동을 하여야만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러한 비상시기에 어찌 주저(躊躇) 준순(逡巡)만을 일삼고 있을 수가 있으랴!

우리 겨레가 일제의 무리한 통제를 받았을 때에도 우리 민족성을 이해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고, 아직 국토의 반쪽밖에 찾지 못한 이 형편이라도, 우리민족은 장차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공헌할 것임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하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거짓성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바이기는 하나,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모양으로 지

지 부진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세제는 각 민족이 각자 각자로 발전하여 서로 도우며 서살아가야 한다는 원칙 밑에 진행되고 있는만큼 우리는 이 원대한 목표를 향하여, 당면한 민족과업인 「국토통일」을 생각하여야 하며 착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자유와 방과 결합하여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최단시간 안에 반드시 이 과업을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의 힘의 중심은 공군이며 공군의 생명이 바로 항공기인만큼 우리의 민족과업을 달성하는 첫 단계는 바로 항공기의 제작 생산이라야 할 수 없다.

항공기의 제작——이 문제는 결코 말로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용감한 실천에 있는 것이며, 민족 공업수준이 이에 따라야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되 우리의 모든 문제, 난관을 물리치고, 첫걸음으로 우선 부

분품 제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도 나아가가 차츰 중요한 기재를 제작하여 가노라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머지않아, 또 어려울 것이 없이 그발동기의 제작 단계에까지는 쉽사리 도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筆者·前空軍參謀總長)

金言·名言·格言

☆ 眞理는 人間이 保有한 가장 高尚한 것이다.

(英國 文學家 초1사1)

☆ 普通的 眞理는 모든 眞理中에서 가장 貴重한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人間은 盲目인 것이며 이는 理性的인 것이다.

(佛蘭西 文學家 루소1)

☆ 眞理와 道理는 智力的 黃金을 形成한다. 이 黃金은 臆수 없는 것이다.

(英國 詩人·評論家 존손)



空軍을 退役하고

徐 壬 壽

空軍을 退役한지 벌써 三年이 넘는다. 요지음은 만나는 親知中에 내가 前에 空軍에 있었다는 일을 全然 잊어 버리고, 내앞에서 기탄없는 空軍評을 시작하여 나를 當惑케 하는 이도 如前히 없지 않지만 前과 같이 「어떻게 오늘은 私服을 하고……」라고 내가 아직도 現役으로 있는 줄만 알고 人事를 하여 對答을 困難케 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나 自身에게도 이제는 지난 날의 空軍生活이 먼 나라, 棼世上 일같이 생각되게 되었고, 制服을 입고 그

속에서 服務하고 있는 것 같은 錯覺은 나지 않는다. 그러나 空軍에 關한 무슨 일이 생기면 事情이 달라진다. 前에 韓國의 輕飛行機 一臺가 日本에 不時着하여 不美한 事故를 일으킨 일이 있었다.

어떤 좌석에서 그 이야기가 났을 때 나는 反射的으로 그것이 空軍所屬機가 아니고 陸軍機라는 辯明을 한참 늘어 놓아 (勿論 사실대로이다) 滿座의 웃음을 사고나 自身도 한참 苦笑을 하였던 것이다. 우리 善良한 市民들에게 空軍機면 어떻고 陸

軍機면 어떻단 말인가! 말 버릇으로 「우리 空軍」 「우리 空軍」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國會에 軍人出身이 많다는 評이 있는데에 用語가 穩當치 않다」는 忠告를 들은 일도 最近의 일이다. 나는 곧 「우리 空軍이지 남의 空軍이냐」고 대꾸를 해보았지만 물론 充分한 辯明은 되지 않는다. 新聞紙上에도 空軍記事가 나면 自然 注意를 하게 된다. 나쁜 記事인 경우에는 막을 수 없었을까 좋은 記事인 경우엔 더 크게 낼 수 없을까 술가 하고 마음이 가는 것도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다. 空軍關係의 行事가 있으면 大體로 招待가 오고나 自身도 可能하면 出席을 한다. 「코메트」 「위클리」가 나오면 먼저 들고 와서 보여준다. 내가 있을 때 始作한 일이라고 해서 하는 好意인지 모르겠으나 나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고맙다는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얼굴을 아는 將校나 士兵들로부터 권

에서 正規의인 敬禮를 받는 일도 고
마운 일이다. 더우기 내가 있을 때
士兵이던 君이 將校가 되어 있는 것
을 보는 것은 반가롭다. 그런데 요
지음 漸漸 낯선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어가니 서운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일이 있어 汝矣島飛行場엘 가
면 大體로 한번씩 空軍本部에 들리
기로 하고 있지만 내 事務室에도 空
軍將校들이 많이 찾아 온다. 前보다
몸이 낫다는 人事에는 空軍에 있을
때만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對答을 하고 웃기로 하고 있다. 豫
備役이 된 사람인 경우에는 就職相
議가 많다. 그동안 附託받은 몇몇 사
람은 내 職場에 말았고 또 다른 곳
에도 可能한 限 熱心히 찾아다녀 이
點나로서의 最善을 다하고 있다.
空軍在 鄉軍人會에도 副會長이라는 職
位를 한 期 지냈고 「模型航空機大會
準備委員會」라는 아이들을 위한 行
事의 名單에도 인제나 承諾 도장을

적기로 하고 있다. 나의 空軍과의 關
係는 今後에 어떠한 形式으로 인제
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으나 나는 平
生 끊어질 것 같지도 않은 이 關係
를 기쁘게 생각하고 또 榮光으로 여
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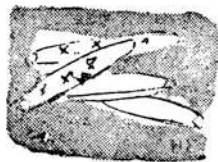
그러나 이에 또 苦痛이 없지 않다.

그것은 짐은 縱士의 訃報를 新聞
紙上에서 發見하는 일이다. 그것이
가까이 지났고 또 그 將來가 嚮望의
던 縱士인 境遇에는 哀痛한 마음
이 空軍에 간 것을 後悔할 程度이다.
再 昨年の 金達輝大尉의 死亡記事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深刻한 苦痛을
주었다. 그는 特殊飛行 訓練中 酸素
마스크의 故障으로 意識을 喪失한 채
一萬數千「미터」의 高空에서 落下하
여 文字 그대로 散華하고 만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그가 空軍
士官學校의 一期生으로 그때 訓練生
이던 우리들 班의 助教로 왔을 때였
다. 그는 남에 뛰어난 優秀한 才質

과 함께 사람을 끄는 人間的인 무엇
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將來
의 大成을 의심치 않았고 또 大學에
서 成績이 優秀한 學生에 對한 그것
과는 다른 愛着을 그에게 느끼고 있
었다. 飛行機가 얼마 없을 때라 저
녁이 되면 인제나 飛行機를 마음껏
타고 싶다는 所望을 熱熱히 나에게
吐露하였다. 그때 그에게 世界에서
第一가는 飛行機를 타게 해주고 싶
다고 생각한 내 所願은 곧 나 自身
의 空軍에 對한 愛着에 直結되어 있
기도 하다. 그 後 空軍도 發展하게
되고, 그도 所願대로 充分한 訓練을
받은 然後에 敵陣에 連日出擊을 敢
行하여 많은 功을 세웠다.

區隊長 勤務를 잘 못했다는 理由로
나를 모슬포 國民學校 運動場을 열
바퀴나 허허거리며 돌게 한 그는 그
의 죽음으로써 나의 가슴 한 모퉁이에
永永에울 수 없는 空虛를 남겨 준 세
음이다. (筆者 前政訓監 現國會事務

處總務局長)



△生活隨想錄▽

아름다운 秩序의天國

金奎東

讀書·文學修業

젊은時節은 그成長의 全過程을
通하여 가장 感受性이 강한 시기라
고한다. 다시 말하면 知的인 成長
과 더불어 情意的 면에 있어서의 飛
躍的인 成長은 넓고도 큰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一〇전후에 詩人아닌 사
람이 없다는 斷言도 쉽사리 내리지
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이 情的인 感性的의 開化期
나 난숙기에 있어서는 理性的의 支配

나 통솔에 依한 制約을 받을 수 없
음으로 인하여 무절제한 「로맨티시
즘」의 到來을 환영하여 마지 않게 되
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우리들은 많은 시간
과 정력의 대부분을 「무소」나 「유
고」의 소설을 탐독하는 일에 바쳐왔
으며 학교에서 교사가 맡겨준 宿題
를 저쪽에 밀어 놓고 저지않은 文學
概論과 先人들의 손에 의하여 지어
진 哲學的 思索의 안내들을 주무르
기에 골몰하였던 것이 사실이였다.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만 생각되

는 數學公式이나 化學實驗은 눈물없
이 읽을 수 없는 한편의 戀愛小說에
비한다면 참으로 흥미 없는 속제들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기가기한 小說作品이
라든가 여릿 여릿한 향수를 들우는
人情悲話의 詩篇들만이 우리의 口味
를 자극하는 유일한 일과였던 것이
다.

한편의 詩를 읽고 또 또는 평범치 않
은 悲劇을 결말로써 끝나는 소설을
탐독하고 냇을 때 우리는 자연 그러
한 詩나 小說을 모방해 보고 싶은
本能的인 衝動을 어찌지 못하여 무
수한 습작을 시험한다는 것으로 또
한 時間과 정력을 소모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작정한 또는 무
계도한 讀書나 습작이라는 過程을 통
하여 도대체 얼마만한 사람이 作家
로 나서고, 높은 詩人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일까?

실로 적은 수효의 사람들만이 文

學을 實踐해 나가는 榮光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文學에서 무엇을 「푸터스」해 받았던 것인가?

이것은 알만해도 우리들이 다시 냉정히 검토해 봐야 할 重要な 과정이 아닌가 한다.

별로히 도움이 되지 않는 文學作品이나 二류이하의 入學概論이나 文學入門書를 암송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꾸준히 닦아 두어야 할 「아인슈타인」의 量子論과 「베타고라스」의 定理은 종내 버림을 받은채 흘러가고 말았으며, 오늘날의 움직임은 世界自體에 대한 常識을 결한, 말하자면 時代와 歷史에 한걸음씩 뒤져진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젊은 시절의 讀書은 이와 같이 아마도 그 사람의 一生을 左右할 수 있는 影響力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젊은 時節에 있어서의 文學修業이

란 그러므로 극히 重要的 것이며 따라서 조금만 발을 잘못 내어 디디면 위험한 方向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나는 권하고 싶다.

젊은 시절엔 차라리 무작정인 讀書와 習作으로 아까운 時間과 精力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한편의 「아인슈타인」이나 한편의 「바이블」을 읽어감이 도움이 될 것이라요——

소설책만을 찾아다니거나 二류이하의 「내츄라리즘」의 詩論을 쫓아다니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이것은 더욱 해롭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은 아무런 체계와 과학적인 비판의 照明이 없는 冥形而上學的 文學論을이라 할 것이다.

흔히 젊은 시절은 실지 좋은 作品의 음미나 해석을 구하기전에 市場에서 아무렇게나 팔리고 있는 文學概論이나 詩鑑賞法이나 小說作法이나 文學入門 等등의 無責任한 內容

의 책들을 사서 암송하는 것을 진정한 文學修業인줄 알고 있는 것이며 덮어 놓고 세상은 슬픈 것이라는가 인생이란 애달픈 것이라는 등등의 流行歌 보다도 內容이 없고 不健康한 詩를 외어서 읊는 것을 본다.

이럴 때 마다 우리들은 옳은 지도자와 지도서의 結論을 통탄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實現·生活·美

人間은 나면서부터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社會와 現實——그 모든 週邊은 흔히 추하고 불유쾌한 要素를 서꾸며지기 쉬운 것인데 이러한 환경속에 사는 人間은 항상 보다 아름다운 세계, 보다 명랑하고 행복스러운 第二의 世界와도 같은 자신의 건설을 꿈꾸고, 이를 동경하는 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平凡한 人生的 意義에 대한 解說 같은 이야기여서 우스워지지는 이와같이 人間이 希求하여 마지않는 美的 世界가 다름아닌 文化的, 또는 藝術의 世界라고 한다면 너무나 獨斷的인 見解가 될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風景, 아름다운 生活, 아름다운 말씨, 아름다운 思考, 아름다운 行動을 찾아 헤매는 마음이 곧 文化的 精神과 그 意義에 통할수 있는 것이라고 할진대, 文化가 우리들 人間의 社會와 理想에 미치는 價値라는 것은 絶對的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오랜 過去에 있어서 너무나 그릇되게도 文化的 成長과 그 유산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文弱의 이름에 의하여 학대와 경멸을 당하던 때와는 달리 오늘의 歷史를 創造하고 이 歷史의 거센 물구비라 볼 수 있는 現實의 한복판에서 새 世代的 氣流를

흐뭇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하고, 또 동경하여야 할 우리들 自身の 文化가 어떤 것인가를 냉철하게 파악하여야 할 줄 안다.

文化는 人間의 生活을 위해서 어떤 作用을 하며 그것은 또한 戰爭에 있어서의 武力戰이나 思想戰에 어떠한 영향을 스스로 장만하여 주는가? 이러한 것에 우리들의 생각이 만일 미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 무엇 보다도 이것의 옹호와 推進에 加一層의 努力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이 될 것이다.

武力戰에 있어서도 火器나 戰鬪機를 조종하여 가는 것은 역시 人間임에 틀림 없고, 그 인간을 조종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사람의 精神力 혹은 그 機能임에 틀림 없다.

사람의 精神力——생활과 삶에 대한 굳센 意志와 아름다운 理想을 향한 꿈을 수 없는 意欲의 배양이 文化가 지닌바 고귀한 「에네르지」속에

서 形成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文化的 價値를 결코 소홀히 여기고 말수는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영국의 시인 「T. S. 엘리엇」의 말은 뜻있는 것이라아니할 수 없다. 그는

「文化的인 모든 유산을 모르는 민족은 자연 미개해지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文化를 애끼고 이를 키우며 한결름 나아가서 그 文化的 方向을 어떠한 곳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問題는 대단히 어려운 問題로서 하루 아침에 결정해 버릴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世界文化 가운데서 아름답고 건실하고 유익한 文化를 수입하여 消化하며 그것을 우리의 정신속에 잔적되, 우리 民族 固有의 文化的 傳統에 비추어서 그것을 채택함이 안전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하여 質的으로 낮은 文化로 부
터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 文化에로
우리 文化를 이끌어 가는 보람있는
作業에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을 기울
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때 우리 文化의 나아갈 바
方向과 目標은 자연 우리들의 思想
속에서 또는 生의 忠實한 理念속에
서 차차로 그 테두리가 잡혀 갈 것
으로 믿는다.

東洋人·消極性

무릇 生活의 具體的 實踐으로 향
하는 우리들의 精神의 姿勢가 無氣
力해 보인다든가 疲困에 싸여 보인
다든가 하는 批判이 極히 外形的인
印象의 把握에 그치는 觀察이기를 우
리들은 사실 얼마나 바라고 있는 것
인지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좀더 높은 椅
자와 두터운 月給봉투를 찾아 떠나

간이 황당한 자리에 最後까지 남아
있을 열여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막
힌 社會的 冷待와 멸시 속에 있으면
서 주로 보람 없는 일을 위하여 피
나는 試練의 歷程을 더듬는 우리들
의 처참한 모습을 그 누가 無氣力하
고 疲困해 보인다는 말로서 指摘해
줄을 붙적마다 우리는 무한한 울분
을 느껴 마지 않았었다.

사실 우리들의 생활이 말할 수 없
는 低調에 떨어지고, 그리해서 일을
위한 높은 意慾의 결핍이 아주 없었
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저 처절한 戰
爭의 試練이 지나갔고, 休戰以後는
날로 激甚해가는 經濟生活의 구속이
우리들의 意慾과 野心과 情熱을 前
進에로 이끌지 못하고 차라리 退步
에로 이끌면서 있는 것이 事實이라
면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文化의 方向이란 선거나 움직이는

歷史의 물구비를 타고 發展하여 나
가는 것이며, 이에 從事하는 役軍들
의 理念이란 그러므로 靜的인 것이
아니라 動的인 前進만을 內容으로 가
져야 하리라 함은 너무나 常識的인
부르짖음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들의 生活이 흔히 指
摘받는 바와 같이 主題를 잃고 있으
며, 또한 強한 進取性을 恢復못하면
서 있음은 무엇 때문인가?

흔히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希
望과 未來에의 뚜렷한 약속이 없으
므로해서 우리가 意慾하는 모든 設
計가 破壞 當하는 것이라는 意味의
말을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世界의 모
든 나라 나라의 하늘과 都市마다 不
安과 恐怖가 가리워졌고 現代는 衰
現하기에 너무나 비통한 眞相을 안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世界의 苦惱과 人類 全體
의 不安意識과 絕望과의 사이에 우

리들의 精神이 어떤 關聯性을 가짐
으로서 宿命的인 질망속에 우리의 정
신이 沈澱된 것이 라면 우리는 차리
리 慶賀하여 마지않을 餘地를 발견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의 苦惱는 一時的이며
瞬間的인 觀察에서 救해되는 것이 아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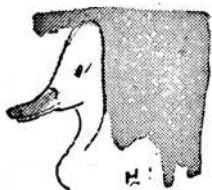
우리들의 生活과 生의 態度의 實
踐이 低調와 無秩序에로 이끌렸고
우리의 理念이 積極的인 方向에로 誘
導되어 가지 못한 그 眞原因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血管속
에 잠복하고 있는 『너무나 東洋的인
피』다시 말하면 東洋的 消極性을
들어야 할 것이나 아닐까?

움직이는 世界의 아침과의 門戶를
굳게 닫고 고요한 靜謐의 黃昏을 사
랑하고 싶어하는 情的인 마음을 들
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壁과 暗黒을 肅고 前進하려는 마
음 대신에 뒤로만 뒤로만 물러나서

모든 雜音과 혼란과 刺戟을 피한 곳
에 아늑한 정신의 휴식처를 마련하
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오늘날의 生
活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安逸과
衰退의 구명령이 가운데 몰아 넣고
야 만듯한 것을 느낀다.

움은 人生態度의 確立을 위하여 무
엇을 찾아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어
떻게 行爲에로 引導해 나가야 할 것



沐浴과 理髮과 便紙

신 태 민

(筆者·詩人)

인가?

到處에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消極性에 대해 倦怠를 느껴야 하리
라! 동시에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
속에 피호르고 있는 낡은 傳統과 東
洋人의 鄉愁를 빛나는 知性的 光線
으로 하여금 秩序의 天國에로 이끌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 기 보다는 시간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일는지 모
른다.

「시간이 없어서」라는 간단한 이유

로 편지 회답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
어 버렸고, 목욕과 이발에 태만한 사
람이 되어 버렸다.

『아무리 나처럼 바쁠가?』하는 심

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정다운 이야기를
걸어온 편지에 대답을 못해주고, 또
한달이 지나도록 머리를 짜질 않아
「웁번·스타일」이 되고 등덜미가 미
끄덕거리게 된다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핑계인 줄은 아는데 영 손, 발이
신뜻 움직여 지지 않는다.

아닌게 아니라 마감시간이 끝난다
음 담배 연기의 색채를 분석할 만한
시간이 있다.

그런데도 머리 속은 까닭없는 「초
조」와 「번잡」으로 바쁜 것만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아침 수업을 짊어다가지도 오늘은
틀을 내서 이발을 해야지——하고는
까칠까칠해진 턱수염을 그냥 출근
시킨다.

출근해 놓고는 이발할 틀을 버르
기만 하다 그만 집으로 돌아간다.
그 이튿날도 또 아침에 세수할 때

가벼운 결심을 하고 어제보다 더 성
장한 수염을 방치 해둔다.

『아이 보기 싫어요, 오늘은 꼭 좀
짜고 오세요』

대엿새 쯤 이렇게 지나면 아내가
지 보챌다.

『남의 속도 모르고 누가 짜기 싫
어 안짜는데……』 혼잣소리처럼 중
얼거리도 본다.

이러는 동안 두어주일만 콧색 이발
해야 될 이발이 한달이란 동안이 생
기기가 일수다.

목욕도 한달에 한번하기가 힘들다.
『집에 목욕물을 데워 놓을테니 오
늘은 일찍 좀 들어오세요』

아내는 심지어 반강제적인 명령조
다. 번번이 속기만 한아내는 『꼭 데
워 놓테요』하고도 데워놓지 않게 쯤
되었다.

일찍 들어온 다음이면 그때부터 불
을 지퍼도 여유가 있다는 심산이 리
라.

편지는 일체 쓰지 않기로 했다.

결심할 때까지가 문제였다.

『이친구 한테는 꼭 편지를 해야겠
는데』

하고 생각이 미치게 되면 인사를 차
려야 할 무수한 일군이 꼬리를 물고
덤벼든다. 온몸에 맘이 뜰게 될 정도
로 생활전체가 초초해 진다.

『얼마나 오해할까?』 하면서도
쓰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태만일 수
밖에 없다.

나는 나혼자만이 애교(?) 있는 고
민을 당분간 씩고 살아야 하나보다.

이젠 세계 편지를 안하기로 결심
한 것이다. 한결 마음이 가라앉긴
하는데 그대로 「초조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편지를 통한 사교(社交)를 하는 사
람도 있다는데 그러고 보면 나는 사
교술의 한 방법을 포기한 셈이다.

X X X

잡을 자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
 는 신문기자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그
 령다고 「목욕」과 「이발」과 「편지회
 답」까지 있을 정도로 신문기자의 긴
 장된 생활세태에 지배되고 있는 것
 일가?

온 몸이 피곤의 뭉치처럼 되었을
 때라도 대 응담(?)을 내서 한번 이
 발사 앞에 내 온 생명을 위탁해 놓
 고 나면 이같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
 을 수 있을가 싶어진다.

목욕도 마찬가지로. 그 구차스러
 운 목욕일지라도 일단 더운 목간통
 속에 알몸을 파묻고 있노라면 아무
 리 천태가 수면에 동동 떠입자로
 물러와도 천하는 태평이다.

편지의 사연만 해도 그렇다. 글만
 써서 벌어먹는 신문기자가 편지쓰기
 를 금계랍 먹기보다 싫어하는 것도
 이상한 노릇이지만 — 한번 단단히
 맘먹고 편지를 쓰기 시작만 한다면
 길어지기가 일수다. 말하자면 펜대

를 들고 편지지에 써야겠다고 생각
 하는 결심과정이 길고 힘들 뿐이다.
 요컨대 한번 다 치러놓고 나면 얌던
 이 빠진 때처럼 시원한 것이다.
 『글세, 난 그렇게 좋은 줄 알면서



語
錄

도 실천을 못한다니깐?』
 신문일에만 충실해서 못한다면 또
 몰라도 — 새해에는 좀 이 세가지 데
 만점에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까 보
 다. (筆者 京郷新聞 社會部長)

趙 豐 衍

僞善에는 惡이 있고, 僞惡에는 毒
 이 있다.

젊은 世代를 편들어 말하는 사람
 이 있다. 젊은 世代에게 支持를 받
 으려는 公算에서.

靑春의 시드름, 그것은 女性에 有

어서는 乳房의 시드름과 正比例하고
 男性에 있어서는 女性의 乳房을 바
 라보는 自信에 正比例한다.

小說家들이란 제 비위에 안 맞는
 것을 모조리 作品化한다. 그러나 제
 가 비위에 안 맞는다고 하는 사람 앞
 에선 발끈한다.

萬年筆 수고한다. 原稿紙 수고한다. 活字들 수고한다. 讀者가 또한 수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이 어수룩하게 보일 때 는 바로 自身이 어수룩할 때다.

冊을 많이 가지면 종이 많이 덤빈 다. 그러나 마음의 종이 덜 생긴다.

해장의 해장은 그날 저녁에 계속 된다. 그러므로 술 먹지는 사람에게 時間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立候補者의 立候補는 當選된 날부터 계속된다. 그러므로 國會議員에게 時日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가장 오래된 時計가 가장 正確한 時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사람을 가장 正確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趣味가 자라서 職業이 되면, 반드

시 그趣味를 咀呪한다.

停電이 되어 映畫가 中斷되었을 때 멍하니 앉아있는 觀客들의 꼴이란 지리 공상이다.

스포츠는 人間의 暴惡本能을 어느 規律下에서 發揮케 하기 爲하여 存在한다. 規律를 벗어난 스포츠는 軍服 입은 強盜와 같이 醜하다.

西洋人은 住宅을 設計할 때에 便所의 位置를 重要視한다. 圓수를 사랑하는 原理인 것이다.

月給制度를 雇傭主側에서 보면 아주 便利한 月賦이다.

政治家들은 글을 쓰기 싫어한다.

記錄이 市民의 손에 남는 것은, 어쨌든 그들에게 그다지 愉快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出版의 自由에는 紙幣의 發行이

包涵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發言을 해도 그것은 言論의 自由에 屬한다.

돈은 萬病通治藥이다. 어느 萬病通治藥이라도 이놈이 없어서는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돈은 萬病의 根源이다. 萬病通治藥으로도 고칠 수 없는 疾患이 이놈 때문에 생긴다.

사람은 誕生할 때엔 웃을 입지 않았으나 죽을 때엔 웃을 입는다. 조금이라도 더럽힌 것을 감추기 위해서.

原始人은 사과를 따 먹기 위해 손가락이 필요 했다. 現代人 가운데는 도장을 찍기 위해 손가락이 필요한 사람이 적지 않다.

卒業을 앞둔

士官生의 抱負

李 載 奎

卒業을 하면 青年士官으로서 하여야 할 일은 많으리라. 누구나 卒業하는 生徒는 이런 좋은 自己의 設計를 構想하고 있으리라. 그러나 卒業을 앞둔 士官生徒의 抱負를 적어 보라 하면는 一目了然하게 記錄하기에 는 막연한 감이 떠오른다. 그러나 四個星期의 긴 教育過程을 通하여 士官學校에서 우리들 生徒에게 무엇을 教育하였고 어떠한 人間을 要求하여 왔던가를 생각하여 보려는 십사리 그 方向이 整理되리라 믿는다. 실로 우리의 抱負는 士官學校의 教育理念

과 至大한 因果關係를 가지기 때문에 그 教育理念을 벗어나서는 비록 훌륭한 抱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健全한 青年士官으로서는 缺乏된바 없지 않으리라 확신했다.

卒業을 하면는 어떠한 抱負를 가지고 青年士官으로서 國家에 奉仕獻身하겠다고 말하기 前에 士官學校에서 우리들 生徒에게 무엇을 教育하였고 生徒 우리들에게 무엇을 회구하여 왔던가를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組織的인 士官學校의 學術訓練을

通하여 一般大學을 능가할 만큼 各科目을 全般的으로 習得하였다. 經濟學 政治學 電子工學 物理化學 航空力學 等等이 밖에, 많은 科目을 體得케 하여 專門的 또는 敎養的인 知識을 넓혀 주려는 것이 곧 士官學校의 教育理念이었고, 徒手體操 機械體操를 正式科目으로 또는 하루 두 時間式 自由體練의 球器運動을 通하여 肉體的面에서 우리의 體力을 向上시키는 동시에, 士官學校의 모든 過程을 通하여 實로 現社會 國家가 要求하는 人間을 만들고 軍人을 育成하려는 것이 士官學校의 教育理念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生徒 우리들은 嚴格한 諸般規程을 어김없이 이행하여야만 하였고, 여러 學術的訓練을 部分的이 아니라 全般的으로 體得하여야만 하였고, 體力을 向上시켜야만 하였다. 空士의 教育理念은 實로 文武를 兼備한 青年軍人을 育成하려는 데 있는 것

이다.

美空士創設記念日에 行한 美空士 校長의 演說가운데 美空士는 少尉를 養成하는 學校가 아니라 將次 美空 軍을 결머지고 나갈 훌륭한 將軍을 養成하는 곳이라고 한 말이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오른다.

空軍은 他軍과 달라서 個人的으로 부과된 責任을 完遂하여야 할 境遇가 許多하다. 우리들은 個人的 責任을 完遂함으로써 全體目的의 達成에 얼마나 잘 協助되는가를 알고 있다. 航空機를 單機操縱함에 있어서 賦與된 個人的 責任을 完遂함으로써 編隊全滿히 達成할 수 있는 것이다.

練磨한 人格을

하는 青年士官

으로서의 才質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며 또 強力하다. 그러나 지난 過程이 試練의 時代였다면 앞길은 育成의 時期요 建設의 時期인 것이니

先輩가 이루어 놓은 空軍의 基盤을 더욱 공고히 淸란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使命이기도 하다.

知識이 많고 技術이 能하고 健全한 體力의 힘을 가지는 것도 必要하겠지만, 空士의 教育理念은 于先眞正한 人間이 되고, 軍人이 되어지는 것 즉 文武를 갖춘 青年士官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만이 空軍의 基盤을 더욱 공고히 더욱 淸란히 빛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말할 것도 없이 올바른 精神을 所有하지 못한 人間에게 지나친 技術과 教育은 도리어 社會를 망치고 파괴할 憂慮가 없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둑놈에게 좋은 技術이 부여되며는 더 큰 도둑이 되는 것이 社會의 通則이기 때문이다.

王亂當時 倭敵으로 因하여 정는故 鄉을 버리고 줄주림에 떨고 彷徨하는 亂民의 무리를 때마침 그곳을 지나다 보게된 李舜臣將軍은 친히 下

馬하여 그들 亂民에 對하여 공손히 질하고 위로 격려 하였다는 傳記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李將軍의 崇高한 人格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將軍은 높은 職位에 있으면서 한낱 보잘것 없는 亂民에 對하여 그와 같이 下馬까지 하고 또 공손이 慰問하였다는 사실은, 當時의 禮儀로 보아 下馬는 自己보다 훨씬 上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임군의 앞에 서만 한하였던 일이 아니었던가! 軍人이 되 기전에 于先 各分野의 學術을 通하여 精神의 으로나 知的으로나 肉體의 으로나 결함없는 人格을 갖춘 人間이 되고, 軍人이 되기 위하여 卒業하는 各生徒는 여기에 呼應하여 四個 星霜의 長久期間中 心身の 練磨에 全力을 다하여 왔다. 이것이 決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어떠한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이를 打開하여 나갈 수 있는 原動力이 되어야 할 것

이다.

新任將校가, 軍 行政을 改善하여 보
겠다는 勇猛한 思考方式을 가지느니
보다 軍의 一員으로서 기성의 秩序

「空中 諜報機」出現

美陸軍의 敵陣攝影用

美軍當局에서는, 앞으로 野戰指揮
官들이 對陣하는 敵의 狀況을 正確하
게 알아내는데 使用하게 될 「空中
諜報機」라고 불리워 질 새로운 偵察
用 裝置를 製作하는데 成功하였다
고 發表하였다.

同 發表에 의하면, 이 新 偵察用 武
器는 無電으로 操縱되는 無人飛行機
로서 夜間에 空中에서 敵陣의 狀況을
正確하게 撮影할 수 있도록 「로켓트」
가 달린 「카메라」가 裝置되어 있다고
한다. 陸軍 通信部隊에 依해서 考案
되고 發展된 이 新 武器는 새로운 「펜
토믹」 原子師團의 作戰에서 매우 커
다란 役割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에 呼應하여 이것을 더욱 維持發展
시키는데 自己의 能力을 傾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消
極的이라 云云하는지 모르나, 實質

그런데 그 無人機의 「카메라」는 不
過 數秒 동안에 敵陣의 狀況을 正確
하게 撮影하며, 敵의 邀擊機에게 追
擊이나 射擊을 不許할만큼 迅速히 任
務를 遂行하고 高速度로 飛行하는 것
이라고 한다.

三萬年前的의 繪畫

佛國, 南西部 「돌·도오뉴」 縣 「페리
그」 附近에 있는 「피탈」 이라는 觀光名
所인 色水晶洞窟에서, 지금으로 부
터 적어도 三萬年前的의 것으로 推測되
는 繪畫, 彫刻들이 發見되었다 한다.
더구나, 이번 것은 馬, 곰, mam
스, 그리고, 「파이손」 (野牛) 을 부리
는 魔術師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
은, 이 地方에서 흔히 發見되는 先
史時代의 遺跡들 가운데서도 가장 珍
奇한 것이라고 한다.

的이고 具體的인 思考方式이기 때문
에 오히려 積極性이 內包되어 있으
리라고 確信한다.

倭政軍隊思想과 같이 盲目性이 多
分히 內包된 思考方式은 이미 時代
的 遺物인 것이다. 오늘날의 世代는
決코 一人의 英雄을 許容하는 時代
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士官學校에서 매우 바를 官
實踐하려는 것이다. 上敬下愛 라는
文句를 외어 본다. 上官은 스스로
尊敬케 되고, 部下를 사랑하게끔 人
格的 信義로서 融合할 수 있는 志操,
를 잊어서는 아니된다.

士官學校는 軍組織의 縮少版이며
軍을 士官學校의 擴大版으로 본다.
勿論 實地로 兩者 사이에 는 生々하
기 보다는 複雜性이 內包되어 同一
視하기는 어려운 事實이나, 그러나
自身 思考하고 있는 所信이나 抱負
만은 더욱 確實하다고 믿는 바이다.

(九一, 元旦 休暇中 서울에서)



소련空軍을 解剖한다

空軍少領 李 發 潤 譯

소련은 우리에게 있어서 不俱戰天의 怨
 讐인 동시에 또한 全世界 人類를 不幸의
 도가니속에 몰아넣는 源泉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그는 世界侵略의 道具로서
 巨大한 空軍力을 保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恒時 큰 관심과 警
 戒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筆者는 여기 소련空軍의 全貌를 解剖하
 여 讀者諸位의 參考에 供하고자 한다.

소련空軍史

소련空軍의 歷史는 一九二二年부터 시
 작된다. 소련은 이때 처음으로 外國에서
 數種의 飛行機를 購入하여 그것을 模倣제
 작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소련이 飛行
 機를 生産한 最初記錄이었던 것이다. 당

시 소련은 또한 三百萬 루블의 巨額을 投
 入하여 「모스크」에 中央氣流動力研究所를
 設置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一九三五年에
 이르러 歐洲에서도 屈指의 空軍力을 保有
 하게 되었으며 同年 MAY-DAY에는
 三十餘臺의 軍用機가 動員되어 全國各都
 市의 慶祝式典에 參加하였던 것이다. 그
 러나 이와 같은 空軍力이란 여전히 短距
 離 戰術空軍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한 것
 이었으며 一九四四年에 이르러 비로소
 長距離戰略空軍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卽 一九四四年 여름 美戰略空軍
 B-29 爆擊機 一臺가 東北(滿洲)의 日
 本製鋼所를 爆擊하고 歸還途中 機關故障
 으로 부득이 「우라지브스둡쿠」 부근에 不
 着하여 소련人 手中에 들어가게 되었

다. 소련은 곧 이것을 모방하여 TU-4
 型 爆擊機를 제작하였으며 一九五二年에
 이르러 소련은 正式으로 十臺의 TU-4
 型機를 사용하여 하나의 長距離爆擊中隊
 를 조직하게 되었다.

二次大戰後 小空軍은 陸海軍에 隸屬
 되었던 地位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독립되
 었으며 民主陣營의 優勢한 空軍力에 對抗
 하여 모든 人力 財力을 新型 TET機의
 研究와 生産에 집중시켰다. 또한 東部獨
 逸境內의 飛行機工業 航空機專門家 및 誘
 導彈 로켓工廠設備 등을 掠奪 拉致해 占
 으로서 그 空軍發展에 加一層 박차를 加
 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侵略근성은 비록 우수한
 戰術空軍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만
 으로 만족하지는 않았으며 近年에 와서는
 계속적으로 長距離空軍 발전에 전력을 傾
 注함으로써 많은 類型의 噴射式爆擊機를
 世上에 내놓게 되었다. 현재 소련의 各種
 의 戰術機 爆擊機의 성능은 모두 西歐 民
 主陣營의 그것과 比하여 遜色이 없는 것
 이다. 近年 소련은 더욱 積極的으로 로켓
 動力 原子動力 飛行機의 研究 및 長距離

誘導彈 생산에 착수하고 있다. 蘇聯의 이와 같은 행동은 모두 世界平和를 不斷히威脅하는 것이며, 오늘날 세계각국으로 하여금 치열한 空軍力競爭을 하게 만드는 직접적 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空軍力

第一次大戰時 蘇聯空軍은 극히 落後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空軍力은 一躍 세계 第二位를 占有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空軍力 국가의 하나로 臨하고 있는 것이다. 그 飛行機의 量과 性能에 있어서도 民主陣營에 比하여 손색이 없는 것이다. 種類에 있어서 蘇聯空軍은 軍用空軍 長距離空軍 陸軍航空隊 海軍航空隊 空輸 및 民用航空 等 六大部門으로 區分되어 있다. 그中 長距離空軍과 軍用空軍이 가장 크며, 이것은 美國의 戰略 및 戰術兩大空軍에 該當한다.

蘇聯空軍總司令官은 「우시닝」이며 그組織으로 보면 또 이것을 空軍部隊 航空地上部隊 通信部隊 空軍基地 氣象 및 防空 等 部門으로 구분된다. 그作戰系統은 軍, 軍團, 師團, 聯隊, 中隊로 되어 있으며, 每

個軍에는 三個軍團, 每個軍團에는 三個師團, 每個師團에 三個聯隊가 있으며, 每個聯隊 밑에 三個中隊가 있다. 또한 每個空軍聯隊는 通常 五十臺의 飛行機를 保有하고 있다.

蘇聯空軍은 總十五個軍을 가지고 있으며 每個軍은 각각 約一千五百臺의 飛行機를 保有하고 있다.

美國의 蘇聯관계 전문가의 推斷을 본다면 가 또는 美國合同參謀本部 議長 「트와이닝」大將이 去年 蘇聯空軍記念日에 參席하였다가 歸國하여 보고한 바에 依하면 蘇聯은 約三萬二千臺에 達하는 各種飛行機를 擁有하고 있다 한다. 그中 第一線에 約二萬臺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에 是 約一萬三千臺의 戰鬥機가 包含되어 있다. 第二線에는 約一萬臺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中 約二千臺가 遊擊機이다.

모든 飛行機中 噴射式은 百分之九十을 占하고 있으며 空軍總兵力은 八十萬에 達하고 있다. 操縱士들의 作戰經驗과 비행 기술 또한 매우 熟達되어 있으며, 電子레이다 計器飛行 레이다 阻止 및 爆擊方面에 있어서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蘇聯의 戰略長距離空軍은 近年에 와서 刮目한 정도로 進展을 보았으며, 總司令官 「아라딩스키」大將의 總指揮下에 爆擊機基地는 北歐의 「거른」半島에서 極東의 「베링」海峽에 이르기까지 北極圈에 鍊刀(나)型의 孤型線을 加하고 있으며, 全球各地에 分布되어 있는 美國의 戰略空軍基地와 서로 對峙하고 있는 것이다.

소련 航空工業

蘇聯 航空工業은 몇몇 部門에 있어서 이미 美國과 어깨를 겨누고 있다. 例를 들면 蘇聯의 IL-38型 爆擊機와 같은, 길고 尖銳한 機翼은 다른 어떤 나라의 工業으로서도 제작하기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蘇聯戰鬥機 翼面의 長度는 이미 그 機翼 厚度의 二十倍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高速度飛行機를 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蘇聯은 近年 一種의 扁薄機翼研究에 注意를 傾注하고 있다.

一九四七年 蘇聯은 航空工業學院을 설립하여 專的으로 航空機技術者를 양성하고 있으며, 各航空機工場에서는 一萬五

千噸級の 重型壓力機가 사용되고 있다.

飛行機 「레이다」 科學者의 수는 매우 적다. 그러므로 獨逸出身의 「레이다」專門家 및 기타 誘導彈系統의 科學者들은 극히 중요시되고 있으며, 한편 一九五四年 無線技術工業部를 새로 增設하여 이 方面 技術者양성에 血眼이 되고있다. 그러나 그 進展은 여전히 遲遲不振하고 있으며 眞空管의 國內생산은 그 需要에 부족하여 대부분을 外國産에 依存하고 있다. 蘇聯의 主要한 原子研究中心地는 「모스크와」 「레닌그라드」에 위치하고 있다. 一九三〇年 이래 蘇聯은 飛行機發動機研究機構를 「모스크」에 설치하고 그 지에는 實驗分室을 설치하여 新式噴射動力의 발전을 同中央發動機研究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 미 생산된 後燃器로는 新型의 MIK-209와 M-1012發動機等 數千臺에達하고 있다.

로켓發動機의 대부분은 모두 獨逸제를改良한 것으로서 推進力 三千八百磅의 BMW-718과 推進力 五千七百磅의 HWK-509 로켓發動機等은 이미 생산이 개시되고 있다.

裏海(內海) 以東地區에서 蘇聯은 一千一百磅의 壓縮空氣爆彈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Gordi 부근의 Deszhan과 公場에서는 細菌武器의 研究제작이 진행되고 있다.

裏海東部の 「아마르」湖 西部地區에서는 化學爆彈에 대한 實際試驗이 있었으며, Kharov의 某 公場에서는 정식으로 落下傘兵을 위한 各種 投擲彈을 생산하고 있다. 「스타린그라드」 東北部 四百哩지점이며 「사마라河」와 「볼가江」의 合流處인 「쿠비체푸」는 蘇聯飛行機생산의 중심지이다. 同地에서는 一九四六年부터 六百名의 獨逸航空設計師 및 科學者들이 蘇聯의 航空機研究와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며, MIG-15와 MIG-17 등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新型의 爆擊機 輸送機 「레티콜라」 噴射엔진 로켓엔진 爆擊照準器 및 各種口徑의 航空機用砲 등이 또한 이곳에서 大量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地區의 많은 飛行機공장들은 蘇聯領土內에 散在하고 있는 기타 飛行機공장들에 대하여 領導的인 지위에 있으며 이들 공장은 서로 다루어 各種新型機

를 생산해 내고 있다.

「쿠비체푸」의 스타린工場은 蘇聯에서 가장 많은 噴射式飛戰機의 生産公場으로서 一九五〇年 이래 同公場이 MIG-15 및 MIG-17 生産량은 每月 평균 六十八臺에 達한다. 또한 同公場의 主要生産지點은 모두 「쿠비체푸」市 郊外의 地下에 築造되고 있다. 蘇聯의 TYPB-37 爆擊機도 또한 이곳의 어느 地下公場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또 다른 Kindpp 光學工場과 飛行機 武器公場에서는 機關砲와 爆擊照準器 遠距離照準器等을 생산하고 있다.

航空機設計

蘇聯은 大戰後 獨逸의 科學者와 設計者를 이용하여 그 航空工業 발전에 全力을 傾注하여 왔으며, 科學者들에게 연구를 強要하고, 智慧를 착취하고 또 一方 國際間諜을 이용하여 타국의 研究成果를 盜用함으로써 그것을 模倣 제작하였다.

國內의 航空機專門家들에 대하여는 이를 重視 厚待하였으며 航空機에 대한 소진을 가진人材에 대하여는 모든 費用과

便利를 제공하여 이를 양성하고 新型機設計 작업에 종사시켰다. 絲聯은 이와 같이 國內 모든 科學者와 비행기 設計家들에 대하여 엄밀한 統制를 加함으로서 絲聯空軍으로 하여금 今日的 발전이 있게 하였던 것이다.

絲聯의 비행기 설계는 각각 個別的의分野로 專門家와 專門小組에 依하여 분담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비행기의 설계가 개시될 때는 반드시 絲聯軍 高級將校와 秘密警察이 이에 派遣되어 監視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특별한 성공이 있었을 때는 巨額의 賞金이나 勳章을 수여하여 이를 獎勵한다. 그러나 만약 그 설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곧 投獄되어 懲罰을 받게 되며 獄中에서도 연구를 계속시킨다. 이와 같은 獄中에서의 연구는 그가 죽는 날까지 계속되며 만약 獄中에서 어떠한 특출한 發明이나 貢獻이 있었을 때는 그 功罪가 相殺되어 出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絲聯이 人類에 對한 剩餘價値이 용수단이 얼마나 惡辣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一種의 新型機 설계가 완성되면 그것은

最高航空主管部門에 제출되어 심사받으며 그 심사에서 통과되면 生産안이 개시된다. 또한 그것은 설계자 혹은 設計小組의 명칭으로서 命名되고 다시 番號가 부여된다. 絲聯 비행기의 番號는 生産年次에 依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戰鬪機는 대부분 奇數를 부여하고 爆擊機 輸送機 偵察機 連絡機 등은 흔히 偶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예를 들면 戰鬪機는 MIG-17 또는 YAK-25 등과 같이 奇數를 부여하고 爆擊機는 IL-28 TU-10 등등 偶數를 부여하고 있다.

絲聯 航空機專門家

絲聯의 航空機專門家로서 비교적 著名한 人物로는 「로푸허루」 「이무신」 「야키리루」 「미코양」 「거티비치」 등이 있다. 여기에 간단히 紹介하면……

(一) 로푸허루……絲聯人으로서 勞務者出身이며 「모스코」工業學校 氣體動力科를 졸업하였다. 성질은 침착하고 研究熱이 강하며 비행기 설계에 우수한 소질을 가졌다. 그러므로 絲聯 「空軍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일찌기 勞動英雄의 칭호를

받은바 있다. 一九一八年에는 「모스코」中央空氣動力學校院長의 職을 歷任하였으며 그가 TU-2 雙發「푸르페라」爆擊機의 설계를 監督시켰을 때는 「스타린」 특별賞金 및 「메이팅」勳章이 수여되었다. 그후 그는 또한 美國의 B-29가 「우라지브」에不時着하였을 때 그를 모방하여 TU-4 爆擊機를 제작하였다.

一九三八年에는 某種사고로 投獄되었다가 一九四三年에 出獄하였으며, 그翌年 空軍少將으로 승진하였다. 一九四七年에는 航空設計局 局長으로 임명되었으며 航空技術中將에 승진하였다. 그후 다시 中央空軍水動力研究所 所長 飛行機製造學校教育長을 歷任하였다. 현재 絲聯의 TU-104 噴射式 輸送機 및 TU-200 型 爆擊機는 모두 그의 傑作中의 하나이다. 또한 그는 一九五〇년에 絲聯最高소베트會議代表로 被選된바 동시에 科學院의 會員으로 임명되었다. 一九五三年 絲聯은 그에게 「스타린」 상금十五萬루블과 「메이팅」勳章을 부여하였다.

(二) 「이무신」……現六十二歲 農民出身이다. 年少할 때부터 기계에 대하여 중

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貧困하여 進學할
 드리가 없었다. 一九一〇年 飛行機공장의
 노동자로 취직하였으며 一次大戰時에는 空
 聯陸軍으로 入隊하였고, 그후 다시 空軍
 으로 들어가 飛行교육을 받았다. 空聯十
 月革命후에는 「모스크」 空軍學校에 入校
 하여 飛行機 기체원리를 전공하였다. 그
 리고 一九二六年에 그는 中央航空液體動
 力學院에 雇用되었고, 다시 空軍實驗공장
 理事와 主任設計師를 歷任하였다. 그의
 存在는 이로부터 점차 두각을 나타내어
 登用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그는 IL-
 4 中距離 夜間爆擊機를 설계함으로써 勞
 動英雄의 칭호를 받았다.

(詩) 窓 (창)

文官 梁 昌 淑

얼마나 안타까운 가슴이었습니까

—이리로 나오십시오

一九四五年에는 또다시 IL-110 型の
 설계를 성공시킴으로써 「스타린」 상금 十
 五萬루블을 받았다. 그는 近年에 와서 命
 令하고 있으며 IL-28 中型爆擊機는
 바로 그의 손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다.
 (三) 「타부시킨」……猶太人の 後孫으로
 현재 五十七歲이다. 그는 처음 飛行機공
 장의 技術工으로 취직하였으며 후에 비행
 기 설계사로 승진되었다. 그가 LA-7
 型戰闘機를 설계하였을 때 空聯은 그에게
 勞動英雄의 칭호와 아울러 十萬루블의 「스
 타린」 상금을 수여하였다. 空聯에서 가장
 우수한 「푸로페타」戰闘機라고 말하는 IL
 A-111은 바로 그의 설계에 의하여 제

작된 것이며, 현재 그는 命命을 받고 噴
 射式戰闘機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四) 「야키리푸」……五十一歲 현재 空
 聯에서 가장 名聲을 날리고 있는 飛行機
 설계가이다. 그는 一九二四年 空軍學院에
 들어가서 發動機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후에 다시 飛行機설계과로 轉科하였으
 三年후에는 一躍 總設計師로 승진하였다.
 현재 空聯에서는 가장 高速度인 YAK-14
 21 型 로켓動力 비행기는 바로 그가 제
 작한 것이다.

(五) 「미코양」 및 「거리비치」……이 두
 사람은 同一 小組의 비행기 설계자로서 一
 九一八年 MIG-3 「푸로페타」式 單座 전
 투기를 설계한 후부터 이 小組는 空聯에
 서 重視되었다. 一九四六年 이들은 空聯에
 서 최초로 제작된 噴射式 전투기 MIG
 -9 型을 설계하여 「스타린」 상금을 받았으
 며 그후 다시 MIG-15 型 噴射式 전투
 기를 설계하여 韓國戰에 내놓은 바 있다.

機 種

空聯은 많은 종류의 新型機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新型機를 소개할 것

하늘보다 더 푸른
여기 우리의 창이 있습니다

무수히 일렁이다가

사라져 간

끊임없는 삼의

행렬.....

모든것이 깨끗해진 우리의 창입니다

피빛의 고뇌도

한낱 그리움이 까닭

그처럼도 많은 밤과

눈부신

천만번의 태양이 지나가고 뒤이어

빠져린 가난이 물러 왔어도

창은 끝내

아름답기만 하였읍니다

—이리로 나오십시오

하늘보다 더 푸른

여기 우리의 창이 있습니다

잡으면 대략 다음과 같다.

(一) TU-104 噴射式 輸送機 : (1)

二個 噴射엔진裝置(後退翼에 붙어있음)

(2) 推進力—二萬封度 (3) 時速—五百

五十哩 (4) 航速距離—二千哩 (5) 塔乘

員—六名 (6) 積載人員—六十名 (7) 最

高上昇度—四萬五千呎 (8) 後退翼機身

長—二〇呎 (9) 翼長—一百一十八呎

(10) 垂直尾翼高—三十二呎 (11) 四輪主

降着裝置式(12) 機首雙輪降着裝置式.

(二) TYPE-39 中型 噴射爆擊機 :

(1) 性能, 美國의 B-47 과 類

似함, (2) 二個의 Turbo 噴射엔진裝置

(後退翼에 붙어있음), (3) 推進力—三萬

封度 (4) 時速—六百五十哩 (5) 最高

上昇度—四萬五千呎 (6) 翼長—一百呎,

(7) 航速距離—三千哩 (8) 彈藥積載量

—九萬磅 (9) 電子裝置 (10) 強力한 火

力保有 (11) 現 在 保 有 臺 數 一 千 二 百 臺

(三) IL-38 噴射式爆擊機 : (1)

四個 噴射엔진裝置 (2) 時速—四百八十

哩 (3) 航速距離—三千八百哩 (4) 最

高上昇度—五萬呎 (5) 機長—一百三十三

呎 (6) 翼長—一百六十八呎 (7) 搭乘

員一八名.

- (四) TYPE-37 噴射式爆擊機……
- (1) 四個 M209 噴射엔진 裝置 (2) 推進力—六萬磅 (3) 時速—六百三十哩 (4) 最高上昇度—五萬七千呎 (5) 全量—二十四萬磅 (6) 翼長—一百八十呎 (7) 機長—一百五十呎 (8) 中翼後退角度—三十五度 (9) 航續거리—六千哩 (10) 彈藥積載量 七萬磅(水素彈積載可能) (11) 性能—美國의 B-52와 恰似함 (12) 現保有臺數—約二百臺.
- (五) TYPE-105 中型噴射機……
- (1) 二個 噴射엔진 및 後退翼 裝置 (2) 機尾 T字型 (3) 塔乘員—三名 (4) 時速—六百哩 (5) 最高上昇度—四萬五千呎 (六) BIRTH-22……(1) 三角翼—全天候噴射式戰鬥機 (2) 最高上昇度—五萬呎 (3) 時速—八百哩 (4) 裝備—二十三吋口徑 機關砲 六門 (5) 機長—四十呎 (6) 翼長—四十六呎 二吋 (7) 電子設備.
- (七) YAK-21 로 噴動力 遊擊機……
- (1) 時速—九百十哩 (2) 上昇率—每分一萬六千呎 (3) 全重—一萬二千一百

封度 (4) 翼長—三十一呎 (5) 機長—二十一呎 (6) 機翼—方形 (7) 裝備—三十吋口徑 機關砲 二門.

(八) YAK-25 噴射式遊擊機……(1) 時速—一千一百一哩 (2) 翼長—三十二呎 一吋 (3) 機長—三十八呎 七吋 (4) 全重—一萬九千八百封度 (5) 上昇率—每分 一萬二千八百呎 (6) 機翼後退度—六十度.

(九) MIG-19 全天候 噴射式戰鬥機……(1) 時速—九百哩 (2) 翼長—三十三呎 六吋 (3) 機長—三十七呎 (4) 性能—美國의 F-100型 超音速機와 恰似함.

(十) MIG-21 噴射式戰鬥機……(1) 時速—一千二百哩 (2) 性能—美國의 F-101 超音速戰鬥機와 恰似함.

(十一) AN-110 프로페타식 輸送機……(1) 四個 發動機(一萬六千馬力) (2) 全重—十二萬磅 (3) 最高上昇度—三萬呎 (4) 時速—四百六十哩 (5) 積載人員—八十五名 (6) 翼長—一百四十二呎 (7) 機長—一百九十呎 (8) 機高—三十七呎 六吋.

(十二) Sukhoi 超音速 噴射式戰鬥機……(1) 三角翼 (2) 機身—長管型 (3) 時速—一千四百哩 (4) 裝備—機身兩側에 二個 大口徑 機關砲 (5) 性能—美國의 F-104와 恰似함.

結 論

總體적으로 볼 때 蘇聯空軍은 그 程度에 있어서 美國보다 약간의 遜색이 있다고는 하나, 量에 있어서는 오히려 美國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蘇聯空軍의 實際力量을 볼 때 그것은 실로 美國과 더불어 雌雄을 決할 趨勢에 있는 것이며, 비단 그 비행기의 성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그 航空工業의 規模 또한 雄壯한 바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만약 民主降營국가들이 더욱더 奮起함이 없다면, 현재 狀況하고 있는 制空權은 언제까지나 保證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現勢力에 있어서 蘇聯이 만약 民主진영의 全體 空軍力量과 對결을 試圖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無謀한 것이라 할 것이다. (國防叢刊第六十八號台灣發行에서)

旅客機를 타는 새

「카나다」의 「온타리오」州에 사는 「유호오른」夫人은 얼마전에 그의 邸內의 잔디밭에 쓰러져 있는 美國西部産의 귀여운 「타나저」란 새를 發見하였다.

이 새는 季節새의 一種으로서 甚한 空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隊列에서 落伍된 모양이었는데, 夫人은 自己의 親舊인 「아마추어」鳥類研究家 「마쿠도·플」夫人에게 附托하였더니, 그의 親切한 看護의 보람이 있어 「타나저」는 마침내 建康을 回復하였으므로, 이 새들의 集合地帶인 「아리조나」州 「타쿠손」地方에까지 가져다가 놓아주려고, 于先 旅客機에 依하여 美本國까지 送還하게 되었다 하는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二十世紀의 興夫傳이 아닐 수 없다.

電燈線을 利用하는 電話

「오지리」에 사는 洋國人 두 사람은 電燈線을 利用할 수 있는 革命的인 電話器를 發明하였다.

그런데, 이 電話器는 그 「프로그」電燈 「스켓」에 꽂기만 하면 電燈線을 通하여 언제든지 通話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太陽熱로 움직이는 時計

—— 一年以上도 充分? ——

「유유」의 時計會社인 「제네랄·타임」社에서는 이번 「프라미온」이라는 太陽熱利用時計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時計의 特點은 다만 그 時計를 太陽이나 或은 普通家庭電燈에 몇時間 쬐기만 하면 그 時計頭部에 붙어 있는 十個의 「太陽熱細胞」의 作用에 依하여 電氣를 일으켜 電氣時計로 되어 約 三週間은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蓄電池를 完全히 充電한다면 一年以上을 放置하여도 充分히 움직인다는 데 그 價格은 時計를 알아서 한 個에 二百五十弗(約十三萬韓)이라고.

宇宙時代의 日氣豫報

—— 美空軍 每分 千單語로 ——

美空軍에서는 現代飛彈 및 航空機의 步

調를 맞출 宇宙時代의 日氣豫報를 考慮中에 있다. 이것이 實現되면 日氣豫報는 巨大한 共同線을 通해 每分 千單語의 速度로 美國 全域에 報道될 것이며, 普通測候器에 裝置된 電子器具는 될 수 있는데도 많은 資料를 蒐集할 것이다.

空軍 測候計劃 責任者 「조지·A·가이」中領은 지난 一月二日 全國氣象學協會會議에서 前記 測候方法에 關하여 報告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의 空中武器는 보더 말리, 호이, 그리고 밀리 날으며 十乃至十五年 前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地球의 여러 地域으로 갈 수 있다. 이런 高速의 空中武器에 對해서 오늘날의 日氣豫報는 危險스럽게 짝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 새로운 測候方法이 一九六三年까지에는 사용될 것이라고 報告하였다. (完)



베스트리플포 (1)

(Your Best Golf)

토미아우터 著

著者紹介

著者 토미아우터 (Tommey Auchter)는 英國「스콧트덴트」의 「에던바라」에서 出生하였다. 當地의 大學에서 修學中 그 世代的 모든 英國青年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는 第一次大戰에 從軍하기 爲하에 學窓을 떠났었다.

機關銃兵으로서 「로얄 스코트」隊에 編入되었었고 後에 新設支隊의 將校가 되었다. 戰車隊에 從軍中 毒瓦斯로 因하여 失明하게 되었었는데 後日 右眼만은 視力을 回復하였다.

그는 歐羅巴의 許多한 아마추어 選手權과 全佛오픈 등에서 優勝을 하고 休職이 된 後 美國으로 건너가 一九二五年에 職業選手가 되었다.

一九二七年에는 全美오픈과 加奈陀오픈의 選手權을 獲得한

바 있으며 繼續하여 全英오픈, PGA (Professional Golf) 選手權, 웨스턴, 에도로포미탄 등 大選手權大會, 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數 많은 賞金이 걸린 토나멘트 등에서 連勝한 바 있다.

一九二九年 후로미타州的 「보가 페이론」俱樂部의 푸로펠 쇼날의 地位를 얻게 되었다. 그는 現在도 同俱樂部에 있으며 그의 指導는 「下手인 골퍼」(duffer)도 하여금 一〇〇을 넘도록 指導하는 데서부터 一流의 토나멘트 푸도라도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境遇라도 훌륭하게 指導해 나갈 程度에까지 이르렀다. 自己의 골부經歷中에서 現在의 「보가 페이론」의 그것은 最良의 그리고 가장 즐거운 時代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第一章

이 책은 왜 이와 같이

짧고 단순한 것인가

나는 「골프」의指導에關해서 책을 쓰는 해야될 수 없을 程度의 請托을 받으면서도 그때마다 이를 拒絕하여 왔는데 지금에 와서 비로소 그와 같은 宿題을 붙들고 이와 같은 冊을 만들었다.

이 責任을 完遂하기 爲해서 는 내가 練習場의 (Co.)에서 指導하고 있는 것과 同 같은 것을 이 冊을 通해서 가르치면 된다. — 卽 基本的인 訓練을 進行하기 爲해서 는 基本에서 벗어난 것을 附加치 않고, 또 相手方을 混亂에 빠뜨릴 餘리가 細心한 點을 省略한다는 前提下에 서게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冊의 簡潔함은, 골프의 훌륭한 技術은, 冊의 두꺼움이나 時間 또는 金錢으로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幾百回에 達하는 教習을 받았던 것이고 그 授業料만 해도 적지 않은 것이었다. 바아—본, 당장, 부테

야드, 웨이더—, 그 위에 에드가—等— 모두가 偉大한 選手였고 才能있는 教師였다—은 나에게 골프의 基礎를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如何히 배워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美國에서의 一流選手들과 交際하는 동안 나는 더욱 인연이 많았다. 이 사람들과 試合을 한다든가, 가볍게 라운드(Round)를 하고 또는 그들간의 試合을 따라 다니며 구경했을 때 恒常 나에게 는 가르쳐 주는 것이 있었다.

單純한 것, 精神集中, 그것과 時間과 努力의 節約이라는 것은 이들 一流選手나 教師들이 하는 일에 特殊으로서 내가가 가지고 있는 技術의 知識에 더욱 보탬이 되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이 冊에 쓴 것 외에 數百페이지에 達하는 材料가 있었으나 그것을 最初의 草稿에서 削았다. 또 스윙(Swing)의 中間狀態를 表示하는 幾十枚의 插圖도 削除하고 다만 가르치는 데 必要한 略한 文章이나 插圖는 大體로 골프를 하는 사람에게 實用的이 아닌 微妙한 技

巧를 그린 것으로 讀者도 하여금 必要한 點에 머뭇들 集中케 함을 妨害하는 것으로 確信했기 때문이다.

第二章

當身이 Best Golf Club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여기에 讀者로 하여금 눈에 볼 수 있는 體制로 原稿을 整理하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 冊에서 表示한 것과 같은 훌륭한 골프를 爲한 簡單하고도 不可缺한 要素를 納得만 하고 있으면 大部分 많은 사람들이 大選手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은 「細部의 迷路」에서 헤매고 光榮의 길을 잃고 失望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지금껏 나의 生徒에서 初心者이던, 全國選手權을 獲得한 사람이 있었던 間에, 決코 생겼던 일도 없고 또 將來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讀者는 나의 練習場의 (Co.)에서 는 代身나의 冊을 읽고 있다. 이것은 相手方의 能力範圍內的 훌륭한 골프를 가르치려

(11)



아드레스 (address)

고하는 나의 노력에 對해서는 不利한 것
이다.

가장 效果的인 指導를 하기 爲해서는
生徒와 教師와의 努力이 必要하며, 그것은
兩者의 密接한 個人的 接觸에 依하여 充
分히 達成되는 것이다.

그러나 多幸히도 나는 이 冊을 通해서
自己가 分擔해야 할 責任을 거의 다할 것으
로 생각한다. 나머지는 讀者의 責任이다.
職業選手中에는 가르치는 方法을 모르
는 者가 있다고 말한다. 나는 職業選수로
서 有能한 同僚를 辯護하기 爲하여 골프
를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敎習을 받는다

리는 方法을 모른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
을 수 없다.

이제 이와 같은 事實에 關하여 若干 指
導를 해보기로 한다.

于先 첫번에 讀者는 이 冊을 읽고난 後
에 競技에 나간다면 十五스로크(Score
5)를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좋
은 스코어를 내기 爲해서 必要한 것이 무
엇인가 確實히 握把했다는 點에서는 進步
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 冊은 훌륭한 功夫를 爲한 安易한 길
을 說明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諒解해 주
기 바란다.

그러한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
것을 말하고 있거나, 또는 功夫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와 讀者를 接觸시키는 이 冊에서는 讀
者에게 相當한 頭腦를 쓰도록 要求하고 있
다. 讀者에게 萬若 그러한 생각이 없다면
어기서 헤아리지 않으면 안된다. 훌륭한
功夫를 하기를 願하는 주제에 頭腦가 없
든가,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을 爲해서 나
는 時間을 浪費한 적이 없다. 또 이제와
서 浪費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有能한
敎師로서의 自己의 일이나 聲價를 尊重하
기 때문에 게으른 者를 爲해서 그것을 더
덜하고 損을 보게하는 것은 하기 싫기 때
문이다.

生徒의 滿足한 進歩를 가져오기 爲하여
내가 盡力한 것은 于先 完全한 單純化
는 方針에 있다. 이것은 좋은 結果를 가
져왔다.

우리의 目的은 複雜한 人間에 對해서
훌륭한 功夫를 爲한 姿勢나 動作을 可能
한 限 單純化 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理解하면 讀者의 功夫는 進歩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설명은 할 수 있으나, 實際로示範해서 보일 수는 없다.

讀者는 或時 諷프에 關해서 迷惑狀態에 빠져 그 解決은 諷프의 基本的인 知識을 習得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秘訣에 依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 모르나,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장난삼은 空想的인 꿈」에 따른다는 것에는 協力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 冊을 通하여 效果的인 指導를 다하기 爲하여——

諷프에는 單純하면서도 더욱 正確한 形의 되어야 할 姿勢와 動作이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것들을 特別한 欄과 活字號數로 表示하기로 한다.

이렇게해서 表示된 文章이나 字句는 讀者의 肉體的 精神的素質이 許諾하는 限 가장 完全한 諷프를 만드는 데 特히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이다. 換言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면 恒常 當身은 가장 훌륭한 諷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열심이다」

말하자면 이 冊은 教科書로서 萬若에 讀者가 「코스」에서의 試驗에 合格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賢明하게 學習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諷프·크라부(Golf club)를

영에 놓고 工夫해야 할 冊이다.〉

冊을 읽고 있는 途中이라도 暫間이 停止하고 크라부(club)를 들고 教科書가 表示하는 要點을 實際로 해보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方法에 있어서 讀者는 文字 따른가 插圖을 自己의 筋肉이 直接 읽고 의울 수 있는 말로 續譯한다.

이와 같은 方法에 依해서 또 이와 같은 方法으로서만 讀者는 思考와 動作을 一致시킬 수 있고, 나의 敎習을 깊이 體 得할 수 있는 것이다.

不然이면 讀者는 다음 코스에 이 冊에 쓰여져 있는대로 打球를 하려는 努力과, 冊에서 읽은 것을 想起하려는 努力間에 重 要한 注意力을 分散시킬 것이 틀림없다. 빠른 것을 想起하는 때는 筋肉이 이 冊 도와 주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이 冊을 읽을 때 筋肉에도 같이

(2)



스윙(Swing)의 톱(top)

工夫할 機會를 주지 않고서는 막상 實際의 境遇 도음이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이冊의 練習場의 讀者가 해야 할 것〉

내가 練習場의 鐵(鐵)에서 生徒에게 시키는 것과 똑 같다. 井8아이언(Iron)을 잡고 筋肉과 頭腦와를 같이 工夫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이冊은 讀者로 하여금 『가장 훌륭한 팔 프의 確實한 基礎를 打기 爲해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를 될 수 있는 대로 簡單明瞭하게 表示하였다.

나는 여러가지의 試合이나 또는 指導를 한 後에는 크라부(Club)를 들고 鏡(鏡)合(앞에서 그 姿勢나 動作을 反覆하여 이를 反省하고 研究하였다.

나는 讀者가 반드시 完全하게 理解하도록 說明되어 있다는 自信을 얻기 爲하여 이렇게 해온 것이며, 讀者들이 내앞에서 直接 課目을 보지 않아도 내가 親切히 生徒에게 가르치는 것을 文字를 通해서 正確하게 傳할 수 있다는 自信을 얻었다.

읽으면서 實地의 研究를 하라. 戶外에 나가기까지 放置해서는 안된다.

井8「아이언」의 샤프트(Shaft)는 짧으므로 벽(壁)이나 천장(天井)·家具 방바닥에 操心을 할 것 같으면 自己의 理性이 納得코자 하는 것을 身體로서 隨時 체크나갈 수 있다.

한卷의 남은 雜誌라도 바닥에 놓으면 라브레드(Club Head)로 때려도 바닥은 傷하지 않을 것이다. 工夫하는 課程에 따라 부드러운 合成 고무나 毛糸의 練習球을 使用해 보고 싶으면 雜誌위에 놓고 때리는 것도 좋으나, 이 練習球은 반드시 必要하다는 것은 아니다. 或者는 有益한 것 이라고도 하고 或者는 無益한 것이라고도 말한다. 그것은 確實히 趣味의 問題이다.

그러나 重要한 點은 工夫를 해나가면서 姿勢나 動作을 實際로 操作하는 習慣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實際의 感이 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充分히 納得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決코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로 가르치고 싶지는 않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特別히 더한 警告를 하지 않으므로 讀者는 大部分 틀린 것을 많이 할 것이다. 大部分의 사람들은 理論의 單純한 팔프를 不學하게도 實際以上으로 複雜하게 만드는 傾向이 있다.

頭腦와 筋肉을 使用해서 프라스가 되는 方法을 使用함이 좋다. 充分한 時間을 들여 細部를 正確하게 工夫하는 것이다. 나는 그 細部の 인 것을 最少限 實用的인 것으로 줄였다.

讀者가 自己의 姿勢나 動作을 研究함에 있어 그것이 이冊의 插圖에서 表示된 諸點에 完全히 一致하는 것을 確認해 주기 바란다.

나는 抱負를 가진, 팔프를 하는 大部分의 사람들이 모두 標準以上의 技術力이 있는 팔프인들의 連續寫眞에서 일러주는 眞實을 理解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冊中の 插圖를 線畫로 해서 細部를 正確鮮明하게 焦點에 맞추고, 이에 文字의 說明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寫眞과 같이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容易하게 消化되고 理解될 줄로 생각한다.

高速度의 카메라로서, 골프를 하는 사람이
이 샷(shoot)하는 寫眞을 撮影하면 大
部分의 골프指導書에서는 그 스윙(swing)
의 瞬間 瞬間의 動作으로 分解해서 이것
을 並列하는 것이 通例이다.

드라이버(driver)로부터 #8 아이언까
지의 크라부(club) 全部에 對해서 샷트(shot)
의 全動作을 大概 十五로부터 三十까
지의 段階로 分別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
렇게 되면 讀者는 한卷의 冊에서 數百
枚의 寫眞을 봐야 되고 더욱 그것을 重
複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이다.

그와 같은 寫眞은 보기에 자미스러운
지 모른다. 그러나 나의 敎習方法은

「正確하게 해야 할 少數의 것」
을 說明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見地
로서는 너무 많은 寫眞은 意味가 없을뿐
더러 混亂한 것이 되는 것이다.

重重要な 것——正確하게 배우는 데 必要
한 姿勢는 別表에서 表示하는 것뿐이다.

「說明을 爲해서 여기에선 헤이·웨이(fair-
way—tee와 Putting-green 間의 잔디
가 잘 整頓되고 짧게 깎은 部分)에서의
우드·샷트(wood shot)를 引用했다」.

여기에서는 스윙(swing)에서 研究해
야 할 插畫을 四箇만 表示했다. 各各의 瞬
間에는(後에 仔細히 說明하듯) 그 瞬間에
正確해야 할 決定的인 事實이었다. 이와
같은 事實들이 萬若에 正確하게 行하여지
면 各己의 姿勢의 中間, 또는 그에 따르
는 事實의 모은 것도 正確한 길로 들어서
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讀者는 내가 完全한 필로·
스루—(follow through)에 關해서 言及치
도 않고 畫面으로서도 表示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방카·샷트(Dunker shot)
을 論할 때는 別途이지만—근심이 될
것이다. 나는 훌륭한 寫眞을 插入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것을 割愛했던 것이
다. 골프를 가르칠 때 필로·스루—(follow
through)를 強調하는 것은 生徒로서는
「알려주면 된다」라는 程度의 것으로 그다
지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는 確信

한다. 이는는 무가지의 理由가 있다. 하
나는 「필」은 正確하게 맞기만 하면 如何
間에 正確하게 날아가는 것이므로 어떻게
「필로·스루—」를 하는냐에는 關係치 않
으며, 또 正確하게 打球만 하면 自然 필

로·스루—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무가
지에는(奇妙하게도) 필로·스루—에 格別
한 念頭를 두고 있는 사람은 失望 빙빙·
에리아(hitting area)에 들어섰을 때 오
히려 힘이 빠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서 나는—이 冊에서는 讀者에게 골
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므로—無難한
文句라든가 插畫로서 內容을 裝飾하여 觀
로 하여금 쓸데없이 混亂의 따드러려고
는 하지 않는다. 가장 經驗이 豊富한 職
業人만이 標準以上을 技術力量이 많은
사람의 連續寫眞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 冊에서와 같이 線畫를 使用하는 것은
于先 讀者에게 必要한 事實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將來 골프의 眞寫
을 研究하는 境遇의 基礎를 닦는 것으로
確信한다. 上手인 사람의 個個의 特性이
나 一般의인 特徵을 吟味한다는 것은—아
베레이지·골퍼—(average golfer) 標準
의 인力量을 가진 골퍼에 있어서는—且
무엇이 重要한가를 알고난 然後가 아니면
所用이 없다.

그러면 讀者는 이 冊의 研究, 理解, 使
用法에 關해서 確實한 土台를 가졌다요

생각한다. 내가 忠告한 것처럼 課目과 抽
 齣에 關해서 研究를 하고 또 行動化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讀者는 나의 보가.
 데-론의 練習티-(golf)에서의 個人教授
 의 利益을 缺席의 贊은, 熱이 없는 生徒보
 다 답이 享受할 것이다. 그위에 내가 責
 任과 樂으로서는 個人教授의 相手가 支
 拂하는 것과 比較하면 料金は 數百弗이나
 덜 들이고도 된다.

第三章



當身の 테스트·플프는
 어떠한 할 것인가

나는 답은 「푸르」나 아마추어 選手權試
 合에 出場 選手로서 또는 立會人、見學者
 로서 臨해 왔는데 그곳에서 發見한 것은
 讀者의 「스코아」를 줄이는데 疑心할 餘地
 가 없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簡單한 事實
 이 있다. 그것은 이렇다.

△選手權을 獲得하는 것은 훌륭한

히팅·에리아 (hitting area)로
 드러가는 瞬間

숫트(slot)를 할 수 있다. 能力뿐
 만 아니라, 나쁜 숫트(shot)를 거의
 내지 않는다는 重要な 素質에 依하
 는 것이다. >

은 「로나멘트」가 있을 때 練習場에 가 보면
 大部分의 選手들이 發 속의 어떤 크라부
 (club)로서도 거의 完全한 숫트를 하고
 있다. 그러나 試合에서 볼 것 같으면 그들
 은 훌륭한 숫트도 하지만 一方으로 나쁜
 숫트를 지나치게 내고 있다.

그 좋지 못한 숫트라는 것은 때리는 方
 法이 틀렸든가 或은 더 以上 酌量의 餘
 地가 없는 判斷이 좋지 못했든가 或은
 할는지도 모른다. 그 原因이 어디에 있던
 지간에 그 사람은 許容될 수 있는 誤謬
 의 限度를 넘은 것만은 事實이다. 選手權
 試合에서는 失策의 限度는 좁은 것이다.
 렌디(Inedicap)는 誤謬(一論(誤謬)與(誤謬)가
 많은 사람들의 하는 俱樂部의 競技에서는
 失策의 限度에 幅이 있는데 그러한 境遇
 에도 標準力量 以上の 技量을 가진 사람
 들의 競技와 같이 優勝者는 他人보다 나
 쁜 숫트를 적게 냈다는 것을 認定하게 될
 것이다.

選手權을獲得하는 사람은 나쁜 샷으로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事實을 내가 最初로 뚜렷하게 알게된 것은 「윌타·테리겐」과의 試合에서였다.

「윌타」와 나와는 노스·앤드·짜우스·오—문의 決勝다운트를 하고 있었다.

그 第四라운트에서 파인하—스트·코—스 출發했을 때는 내가 티—드라고 있었다.

나는 그 라운드의 最初의 3홀(Total)을 4—4—3으로 올랐다. 헤—젠은 6—6—5이었다. 四番티—를 向해서 같이

걸고 있을 때 헤—젠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믿 수 있는 限의 미쓰를 내고 말았다.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을걸—」

그는 잘하기 始作했다. 나도 큰일이었다. 그는 그 라운드에서 그 以上の 미쓰를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티—드를 挽回하고 오히려 68이던 스코아로서 그 試合에서 優勝했던 것이다.

이 敎訓은 나로서 貴重한 것이었다. 나는 나로서 充分에 相當한 熱心한 研究生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때운 것과 같은 것은 지금껏 때워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優勝하는 길은 나쁜 샷로

문적게 때린다는 것이라는 秘密을 내가 發見한 것은 이때였다.

그러면 보—가·테—론에서 내가 이 敎訓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說明하기로 한다.

나의 生徒中에 著名한 鐵鐵業者가 있다. 學課에서나 實習에서 그도 훌륭한 샷트를 많이 때린다. 그는 훌륭한 打者이지만 下手의 選手이다.

그는 그릴·폼에서 大膽한 氣焔을 올려서 自己는 90을 끝낼 수 있다고 斷言했다. 周圍로부터는 여러가지 異見이 나왔다. 스포—스에서 勝負에 關한 意見이 區區한 境遇에 結末은 定해는 바와 같았다.

나는 生徒에게 大膽하게 걸었기 때

에 助言者로서 함께 따라다니는 功도록 되었다.

그는 一番티—서부터 크고 強力한 드라이브(Drive)를 했다. 그것은 右側 타우트(Traut)안의 물이 갔다. 그는 그것을 치려고 #5 아이언을 고집이 내어 그린—(Green)이로 겨누었다.

「그런데 크속으로 물러보내는 편이 좋다고 나는 말했다.

「나는 「버디」(Birdie)의 찬스가 있는데」 하며 그는 抗議를 했다.

「너는 그것보다는 미쓰 찬스의 便이 더 많어. 그렇게 하면 그린—(Green)까지 올러놓는데 또한 強力한 샷트를 해야 돼.

左側의 花道(openin or apron of green)

(4)



임팩트(Impact) 1499

물겨우고 8 아이언으로 치러부나. 그 다음에는 花道로부터 아부루치(approach)로서 완·푸팅(ons putting)으로 넣으면 標準打數가 된다」고 說明했다.

그는 내가 說明한대로 했고 그대로 가 드에는 파—(Par)—4 라고記入되었다. 이러한結果에는 그도 나도 놀랐고, 한편 기쁘기도 했던 것—그리고 특목이 없었을 뻔했던 것—이나, 그는 79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홀—(Hole)마다 그와 議論을 하고 千中九百九十九의 境遇 適用할 수 있는 스크아短縮의 確實한 法則이 두가지 있다는 것을 說明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두가지 法則—— 또는 實用的原則이란 **△ 좋은 찬스가 가장 많을 슷트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음의 슷트를 容易하게 할 수 있는 슷트를 하라

自己보다 못한 스윙(swing)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은 스크아를 내고 있는 것이 異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두가지의 戰術上的原則을

本能的으로 또는 頭腦를 慎重하게 使用해서 實行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별로 異常스러운 것도 없다.

讀者는 이 敎訓을 뚜렷하게 머리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큰 스크아의 短縮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슷트를 하는 때는 其他 배워야 할 點이 많은데 이것은 順次的으로 取扱하기로 하고, 가장 重要的 敎訓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說明한 것이다.

實際의 競技에서는 이 敎訓은 變化가 있다. 그 變化는 二人 또는 二組試合(mat-chplay)이나 스트로크·푸팅이(stroke-play)에 依해서, 또는 그 사람의 熟達程度에 따라서 틀린다. 標準 以上の 技量을 가진 사람은 標準力量을 가진 사람(Average golfer)이나 初級程度의 사람보다는 危險을 犯함이 없이 많은 찬스를 잡을 수가 있다.

一部分의 사람들은 自己能力에 符合하는 型의 競技를 할 줄 모른다. 나는 普通의 사람이 最高의 才能을 가진 사람과 똑같은 技量을 必要로 하는 方法으로서 코—스를 물려주고 하는 사람을 자주 보았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립프(Bird)를 잡는 것이란

가 打球의 姿勢를 取했을 때의 두발의 位置(스탠스—stance) 스윙(swing) 등에 關해서는 얼마간 알지는 모르나, 팔코를 하는데 있어서의 最初의 重要的 事項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것을 大選手는 하지 않는다. 「윌타·로대비스」는 自己의 弱點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리 긴 距離를 낼 수 없다. 同時に 正確함과 짧은 距離의 技術에 있어 優秀함을 自覺하고 있었다. 그의 戰術은 自己의 技量을 各其의 코—스에 適合시키는 것이었다.

「로—스, 디로부」는 내가 그를 만날 때까지도 優秀한 打手이었으나 勝利할 수 있는 데서 勝利를 못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가르친 것은 거의 戰術에 關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獲得하고는 繼續해서 二年間에 全美·全英 아마추어 選手權을 세 번이나 獲得했고 後에는 全美. 오—론 또는 其他 大職業試合에서도 勝利를 했다.

「유리아스·보로스」도 大試合에서 頭角을 나타내기 前부터 매우 좋은 슷트를 하고 있었다. 그는 自己의 技量에 알맞은 戰術이 없었기 때문에 勝利에의 望을 놓

치고 있었다. 그는 自己의 才能이나 氣質에 符合되지도 않는 操心스러운 競技를 하고 있었다.

그는 방카 · 샷트(bunker shot)에서는 내가 본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샷트의 方向을 너무 생각해서 치지 말고, 大膽하게 쳐도록 忠告를 했다. 샷트가 萬若에 그런(reen) 볼테의 방카(bunker)도 들어간다 해도 그에게는 어떤 걱정까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에 있어서 一打로서 넣을 수 있는 程度로 샷(cup)에 보내는 것은 손쉬운 것이었다.

그의 푸팅(putting)은 不自然스러운 程度로 慎重하였다. 그런데 自己의 「푸팅」이 「샷」의 兩 옆으로 미쓰하는 것은 極히 드문 것으로 正確한 「라인」 위에 있으면서 「홀」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後부터는 더욱 自信을 가지고, 오히려 오버(over)시킨다는 氣分으로 「푸팅」을 하게 되어 「푸팅」에 顯著한 造境을 보여 주었다. 「보로스」는 힘이 強하여 통-샷트(tonny shot)가 거칠어진 것을 두려워해서 몸이 굳어지는 傾向이었다. 그래서 통-샷트의

方向에 마음을 끌리지 않고 靜안한 「스윙」을 하는데 操心한 然後엔 쇼-로, 쟁(hort game)의 正確함에 依持해야만 한다는 것을 納得하고서 비로소 選手權을 獲得했다.

△골프를 하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自己의 能力을 깨달음으로서 비로소 才품이 스며들어 낼 수 있다. >

나는 生徒들에게 가장 價値가 있다고 確信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말했다. 나는 生徒에게 가르치기 前에 그들에 關係를 研究를 한다. 그리고 나는 「各自에게 可能한 限의 훌륭한 골프」란 무엇인가를 比較的의 을바르게 判斷한다.

體格이나 氣質, 거기에 生活條件에 制約이 있는 사람이 標準의인 競技라든가 그 에 가까운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全히 理致에 맞지 않는 것이다. 何人이라도 單只 學課나 實習에 依해서 繪畫나 彫刻, 바이올린, 피아노의 大家가 될 수 있다든가 發明家나 또는 富豪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나는 才能이 몇 사람의 最高級 골프에

게 完成에의 細部點을 조금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될 수 있는 限 完全에 가까운 것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그들이 習得할 수 있는 素質 確實한 基礎의인 能力을 自體의인 資格을 具備하고 있었으므로 比較的의 容易하였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教師로서의 能力을 가장 要求한 것은 大部分이 85로부터 三桁까지를 데리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테스트-골프」인가를 看破하고 그 能力의 最大의 것을 堅實하게 履行로 목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골프는 比較的인 「쟁」이다. 이것은 헨더캐일(Hendrick)方法이라는 굉장한 利點이다.

「헬스워스 · 바이안스」가 才能이 나에게 달란 것이지만 그가 庭球의 大選手였을 때는 그가 相對로해서 深刻하고도 자미스러운 「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單只 사람도 없었는데 골프에 있어서는 「헨디 · 캐일」의 德分으로 아주 下手인 사람하고도 또는 標準 以上の 技量을 가진 사람하고도 다 같이 훌륭한 接觸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팔프로 있어서 이 「헨디·캐일」方式의 魅力를 特히 指摘하고 있다.

確實히 「헨디·캐일」때문에 모든 相對 是은 對等한 스카—르에 셀 수 있는 것으로 全美의 數萬이라는 사람들이 大選手 를 相對로 試合을 할 수 있는 팔프로는 단 곳에서 볼 수 없는 獨特한 風格을 갖는 「쟁」이다.

나는 겨울 동안은 「보카·테—론」에서, 其他의 季節에는 北方의 코—스에서 平均 스코아가 85로부터 110 程度の 사람들과 몇 번이고 試合을 하는데 「헨디·캐일」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接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極甚한 打者(batter)와 試合을 한다는 것은 氣分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는지 모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첫째로, 그 相對는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對장한 것을 해서 나를 웃긴다. 그는 또 몇 개의 훌륭한 突트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영터리로 맞은 것인데 나는 나대로 그와 같이 영터리로 맞은 것을 어떻게 하면 正常的인 것

으로 할 수 있는나 하는 것을 研究하게 된다.

大多數의 팔프로들의 思考의 主眼 誤謬는 그들이 萬若에 自己의 能力으로 할 수 있는 水準으로서 試合을 한다면 그 後의 것은 「헨디·캐일」이 擔當해준다는 것을 理解하지 못하는 點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들은 職業選手나 아마추어의 名手들로 부러 도리어 돈을 딸는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名手들의 헨디·캐일은 그 미쓰의 限度가 極少하게 밖에 許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自身에게 素히 그 能力이 없는데도 모두가 名수가 되고 싶어한다. 詩人의 말을 引用하면 「野心은 슬피 해야할 過失이며, 打者(batter)는 슬피 하면서도 그것을 支拂한다」는 것이다.

普通 95 스코—크(stroke)를 걸리는 사람이 푸팅 25와 幸運의 킥(Kick) 10에 依해서 82로 올랐다고 할 때 더부나 없는 野心이 보기에 도 容하게 움직인다. 實際는 最上의 條件으로서 우선 87 程度이면 自己로서는 82의 實力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번 82의 成績을 올리면 自己의

힘으로서 87의 스코아는 名수가 68로서 是에 比하여 相對的으로는 相當한 것이 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教師로서의 나의 責任中 가장 困難한 點은 生徒가 通常的으로 낼 수 있는 배스 트·스코아는 어느 程度인가를 勘酌하는 것이다. 그리고 勘酌이 들면 그 勘酌대로 가르칠 수 있다. 萬若 生徒가 그 目標에 到達하고 더욱 期待했던 以上의 可能性이 있으면 다음의 높은 段階를 向하여 進行할 수도 있다.

나는 어떤 生徒라도 사람의 힘으로 可能한 限 熟達시키고 싶은 마음은 泰山 같으나 가장 現實的인 나의 實力은 相對가 自己의 實力보다 몇 개의 스트로크(stroke)라도 더 때리지 않도록 固定시키는데 있다.

數百萬의 팔프로—中 적어도 九割까지는 90 幕의 스코아—換言하면 各幕에 있어 標準 打球數보다 하나식 더 많다—를 내 고 있다는 事實은 極히 意味深長하다. 이 것은 大多數의 사람의 先天的인 限界를 率直하게 表示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限界에 滿足하고 있는 사람은 極少數의 사람

를 쓴다. 그들은 모두 自己能力이 許諾 하는 限標準으로 1-크에 近接하고 싶으나 많은 欠點 때문에 그것이 阻止되고 있다. 그러나 多幸히도 그 欠點을 減縮한 것은

○性轉換한 「유고」의

少女 入隊

男子로 性轉換한 「유고」의 一 少女는 「유고」陸軍에 入隊하게 되었다. 「보스니아」出身인 當年二十歲의 「마리아·드요단」은 最近病院에서 性轉換手術을 받았다.

手術을 받고난 同戀은 이름을 「마리아」으로 바꾸었다. 그는 男子바지를 입고 部落到에 돌아와 男子들이 하는 일을 하기도 작하였다.

그러나 部落民들은 尙전한 집안일군이었으며 다른 少女들과 같이 羊을 돌고 있던 「마리아」의 性轉換을 믿지 않았으나, 그가 最近 徵集을 당하자 비로소 部落民들은 그의 性轉換을 믿게 된 것이다.

○美 「니켈」 販賣規則強化

一 防衛用生産維持策으로

美政府는 增加하고 있는 防衛用生産에

實際로 배울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때는 그들이 즐겨 그것을 배우려는 意志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공포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 一人에 對

必要한 補給을 維持하기 爲하여 「니켈」의 出荷에 對한 規則을 強化하였다.

商務省은 同新規則은 萬若 民間工業 때문에 「니켈」不足이 發生하는 境遇 政府는 警告를 받도록 規定하고 있다. 「니켈」은 「렛트」機 및 모든 武器生産을 爲한 高熱 高速合金에 使用되므로 韓國戰爭以來 相當히 그 補給規則이 嚴厲된 것이다. 商務省發表는 「니켈」鋼鐵 및 그 他 合金製造者는 防衛用注文을 充足시키기 爲하여 必要할 때 「니켈」購入에 優先割當을 주어 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安全飛行에 記錄

57年은 가장 奔忙하였던 해

美, 戰略空軍司令部(SAC)는 말하기를 「一九五七年度는 가장 奔忙하였던 해였을 뿐 아니라, 또한 가장 安全하였던 해였다」고 하였다.

SAC本部는 隸下 飛行機의 飛行時間 十萬時間當 主要事故와 些少한 事故를 합하여 단 五件에 不超過했다고 말하였다.

해서 單只 가르치기만 했으면 하는 사람이 적어도 六人은 있다. 이 여섯사람에 對한 나의 일은 最初로 그들이 到達할 수 있는 目標과 그 目的을 達할 수 있는 合理的인 方法 및 敎習中에 있을 그들과 나와의 關係를 理解해 주는 데 있다.

△ 내가 그들을 爲해서 — 또

만 어떤 人들을 爲해서도 — 할 수 있는 最善의 것은, 進歩를 爲한 確固하고도 永續的인 基礎위에서 正確하게 出發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그 基礎위에 自己로서 到達할 수 있는 最良의 技量을 쌓게 될 것이다▽

내가 이册의 活字와 挿話를 가지고서 讀者의 마음과 筋肉에 納得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을 스스로 어떻게 取扱하고 있는가를 알게끔 하기 爲해서 보카·테이론의 나의 練習場에 있는 氣分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때문에 내가 어떻게 敎習하고 있는가를 이제부터 말하려고 한다.

<軍人과 家庭生活>

「아이젠하워」大統領과 그의 令息「존」少領

—「드와이트·아이젠하워」는 그가 世界的 英雄이 되기 훨씬 前부터 非凡한 아버지였다—

플로라·R·슈레이버

「존·아이젠하워」는 十八세 때에 제갈대장에 서 있었다. 그 자신은 저술가(著述家)나 혹은 신문기자가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뛰어난 변호사(辯護士)인 그의 백부(伯父)「에드가아」는 그에게 훌륭한 법률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존」은 또한 군인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 당시 중령이었던 그의 부친「드와이트·메이비드·아이젠하워」처럼——

「아이크」는 그의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중요한 시기에, 그의 본심(本心)은 언젠나 아들이 군인이 되기를 은근히 바랬지만 「존」에게는 앞으로 갈 길을 신중히 고려해서 결심하라고 타일었다. 그 몇해 전에 그는 「존」에게 그의 약(弱)한 발을 든돈히 하는 특수한 운동을 하라고 권하였는데 그것은 장차 있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신체검사에 합격하도록 하라는 생각에서였다. 그 一년전(一九三九)년에 「필립핀」의 군사시설을 시찰하면서 그는 마치 아들이 이미 군인이나 된 것처럼 「존」에게 그 여러 섬의 방위(防衛)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존」이 그의 갈 길을 결심하게 된 동기

는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워싱턴」주「포오르·루이스」에서 그의 아버지와 주고받은 대화(對話)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五〇세였던 「아이크」는 중령으로서 부연대장(副聯隊長)을 지내고 있었으며 그의 이름은 전연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는 소령을 十六년 동안이나 하다가 겨우 진급되었던 것이었다.

「아이크」는 아들에게 자기는 앞으로 더 출세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자기는 그것으로서 충분히 만족한다고 설명하였다. 육군은 자기에게 훌륭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한 자기를 존경하는 여러 친구를 사귀게 해주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상 더 바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이크」는 그의 아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존」은 「웨스트·포인트」에 들어갈 것을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 결심과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게끔 한 「아이크」의 역할이 바로 「아이젠하워」 대령과 그의 아들간의 보기도문 이해

의 길을 열게하였던 것이다.

후일 공적생활(公的生活)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내게된 이 특수한 의무감(義務感)을 가지고 「드와이트·아이젠하워」는 자기 아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方向)을 지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陸軍士官生徒時節의 「이이크」左와 「존」 「아이크」는 一六四名中 六十一位, 「존」은 四七四名中 一三八位로 卒業하였다.<



히 자기의 강변한 감정을 억제하였다. 군대와 정부의 부하들에 대해서도 「아이젠하워」는 흔히 직접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일 없이 언제나 이 점에 있어서 성공하였다.

이 매력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몇달동안에 걸쳐 백악관(白雲館)에서의 면담(面談)과 「스코필드」를 통해서, 「아이젠하워」집안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크」, 「메리」 「아이크」의 夫人) 및 「존」이 세상에 유명해지기 전부터 그들을 잘 알고 있는 자담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살펴 보았다.

「아이크」가 아버지로서 성공하였다는 한 자신은 과거 十三년 동안에 — 「드와이트·아이젠하워」가 아무런 특별한 장래성도 없는 일개 주령으로부터 갑자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때까지 — 그의 아들로 하여금 독립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이크」의 작로(閣僚)의 일원(一員)인 「해롤드·스탯신」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것이었다.

『나는 「존」과 그의 부인 「바아바라」가 대명령의 영식(令息)과 자부(子婦)로서 의

그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예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자녀(子女)들은 강변한 백광(白光)을 지나치게 많이 맡으려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숨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존」과 「바아바라」는 이 두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둘이 다 문자(文字) 그대로, 군인은 아버지에 의하지 않고 독립하여야 한다는 육군의 전통(傳統)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은 대명령인 영식(令息)으로서의 어떠한 특전(特典)도 단호히 이를 받아드려지 않고 있다. 그와 그의 부인과 자녀 넷 — 「드와이트·데이비드」(二世世), 「(八歲), 「바아바라·앤」(七歲), 「수잔·엘레인」(五歲), 「메어리·지인」(一歲) — 은 보통 육군장교의 가정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존」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일이 없으며 수없이 많이 날아들어오는 「워싱턴」의 사교 초대장을 자동적으로 사양하고 있다.

그는 사교를 그의 친구와 동료(同僚)에게 국한하고 있고 간소한 만찬회와 잔이식당(簡易食堂)에서의 저녁식사로 그들을 때

접하고 있다. 그의 소명으로서의 기본일
 급은 四〇〇「탈라」十四「센트」이며 그밖
 에 약간의 수당(手當)을 받고 있을뿐이
 다. 그의 부인「바아바라」는 어린애들의
 옷을 손수 만들기도 하고, 자기 집에서
 다니며 일하는 한 청소부(淸掃婦)의 도음
 을 받는 이외에는 집안일을 혼자 맡고
 있다. 최근에 그의 시아버지(總父)가 그
 에게 세탁기(洗濯機)를 하나 사주겠다고
 했으나 「존」이 이불「노오」(否)하고 거절
 하였다. 그리고 자기돈으로 하나 샀다.

그리고 어린애들을 위한 잔치를 할때에
 도 간소하게 하도록 「존」은 주의하고 있
 다. 그는 또한 어린애들이 값비싼 선물을
 받고 「아이젠하워」집안에서는 이런 것을
 갖는단다 「하고 자랑하는 일이 없도록 하
 고 있다.

「아이크」와 그의 영식의 이야기는 一九
 二二年十一月, 「파나마」 운하지대의 「장
 갈」 전초기지인 「캠프·제일타아트」에서
 시작된다. 「매미」는 셋째형제의 「존」을
 낳고 「핀버어」로부터 물아 오고 있었다.
 저봉밀 분방에는 박쥐가 후다닥거리고 마
 부박들에는 독(毒)「거미」가 기어다니는

숙사(宿舍)로 그는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오는 중이었다. 「존」은 그곳에서 야채
 (野菜)를 조림과 가구우유(粉末牛乳)로 자
 라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있었다.

「아이크」가 「물론」부주(埠頭)에서 그의
 부인과 잤단 아이를 맞이하였을 때 그 부
 부는 감개무량(感慨無量)하였다. 왜냐하
 면 그들의 첫아들 「다우드·드와이트」
 그들은 그를 「익키」라고 불렀다—「존」
 이 출생하기 十九개월전에 生熊(猩紅
 熱)로 죽었던 것이다. 「아이크」와 「매
 미」는 둘다 몹시 다감(多感)한 사람들이
 다. 「매미」는 오늘날 아직도 남아조각으
 로 만든 인형(人形)을 소주히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익키」가 가지고 놀던 것
 이다. 그리고 「매미」의 요청으로 「존」을
 비롯해서 「존」의 네 아이들은, 「매미」가
 「익키」의 세례(洗禮)를 위해서 만든 옷과
 락받기를 입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첫아들을 잃은 쓰라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였던 「매미·아이젠하워」는 자연
 「존」의 집장을 몹시 염려하는 어머니가
 되었다. 「존」은 집장한 어린애였으나 「매
 미」는 언제나 큰 병에 걸리거나 앓을가,

혹은 다치지나 앓을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는 「캠프·제일타아트」로 그들을 따라
 온 보모(保姆)를 「존」이 세살 조금 넘을
 때까지 두었다. 그리고 그 집안의 한
 옛날부리의 친구의 말에 의하면, 「존」이
 十대(代)의 소년이 되었을때까지도 그가
 비를 맞은 후에는 의례히 안사적으로 「아
 스피런」을 머을가요?」하고 물었다는 것
 이다.

「존」이 어렸을때 「아이젠하워」부처는
 빈번히 이사(移舍)를 다녔다. 「존」이 두
 살때 「아이크」는 「발티모어」에 체육장보
 로서 변변치 못한 자리로 전속(轉屬)되었
 다. 「존」이 아직 국민학교에 들어갈 나이
 도 못되었을때 「아이크」는 다시 「워싱턴」
 으로 전속되어 가족은 「와이오밍·아파아
 르」에 옮겨 되었다.

부모가 여러곳을 전전(轉轉)하는 다른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존」은 의로운 아
 이처럼 보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대해
 서는 잘 알고 있었으나 물론 다른 어른들
 파도 알게 될 필요가 있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은 「와이오밍·아파아트」의 청소부
 (淸掃夫)인 「케네스·화이트」라는 사람이

었다. 그들은 서로 『관』이라고 불렀으며 「존」은 흔히 「와이트」가 일하는 뾰물 꼴 아다였다.

「와이트」는 이렇게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어느날 「조니」는, 당의 먼저 앉은 사람이 이기는 놀이를 하려고 나의 물결배 위에 밀씩 주저앉았습니다. 엉뚱이가 물에 젖은 그는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서나는 「물면 엄마한대 이른대」고 그를 달렸읍니다. 그는 갑자기 울음을 그쳤읍니다

△頻繁한再會와離別은軍人の집안에依例히 있는 일이다. 第二次大戰後에「아이크」와「존」은 朝鮮을訪問한 것을 비롯해서 많은重要한訪問을 함께 가졌다



니다.』

『나는 그를 지붕위로 데려 올라가 「펜치」를 내놓고 그 위에 앉드리라 하고 하였읍니다. 그랬더니 그는 「내 엉덩이를 때릴터구?」하고 묻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네 「관」을 마르게 해 줄터구」라고 그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헛발에 그의 「관」은 감쪽같이 말라서 「데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존」은 가끔이 「케네스·와이트」를 만나고 있다.

「존」은 또한 그의 아버지의 동토 장례에게도 인기(人氣)가 있었다. 그가 어 첫살이었고 「아이크」가 전속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어떤 「존」은 몇사람의 장례에게 그들과 헤어지기 전에 자기와 「피블」 나눈 의형제」를 맺자고 하였다. 그는 바늘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어본물에게도 그들의 손가락을 찌르게 한다음 자기의 피를 그들과 섞었다.

이와 같은 일은 부자(父子)간의 어떠한 소원(疎遠)을 시자(示唆)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존」과 「아이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훈육(訓育)상의 소원(疎遠)이 아니라 육체적인 분리(離別)에 지나지 않았다. 「존」이 다섯살에서 열세살이 될 때까지 「아이크」는 직장을 가진 어떤 아버지와도 마찬가지로 그의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왔다.

「아이크」는 그의 아들을 때리는 일도 없었으나 그는 엄격한 아버지였다. 「존」이 어떻게 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고도 「아이크」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아버지의 결혼의 해에서 「이예스·프로드」(Yes, sir) 후안 「시익」(No, sir) 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것이 보통이었다.

「존」이 「十二」 세 되었을 때 「아이크」는 「더글라스·매카아더」장군의 부하로서 「필립핀」에 배속되었다. 예비학교의 박학 때의 어느 날, 「존」은 양친을 위해서 선물 을 사러 나갔다. 그는 「아이크」를 위해서 정과창(槍)과 「나이크」를 사고 「매미」를 위해서는 흰앵무새 한마리를 샀다. 「아이크」는 더나무도 된 새집안에 그 앵무새 가 힘없이 지쳐있는 것을 보고 애처롭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며칠 후 그는 그 앵 무새를 친구에게 주어 버렸다.

몇해 후에 「매미」는 이 앵무새의 이야 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때 그는 생각에 잠긴듯이 「아이크」가 그 새를 남 에게 주어 버렸을 때 얼마나 「존」이 쓸쓸해 하였는지 모른다고 설명하였던 것이다.

「존」은 오늘날 이야기기를 「집안의 한유 우모어」로 말하고 있다.

만일 「아이크」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엄격하였다면 그것은 물론 애정이 적어서 가 아니랴 그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존」이 혼자서 너비척 몸을 씻을 수 있는 나이나

되었을 때부터 그는 목욕탕에서 아버지와 여탕까지 순례를 가지고 는의하였다. 「존」은 몸을 씻고 「아이크」는 면도물 하 면서 그들은 전술(戰術)에서부터 윤리(倫理)에 이르는 여러가지 화제를 가지고 이 야기를 주고 받고 하였다.

「존」이 성장하는 동안 「아이크」는 아람 이 새로운 사실을 배우고 발전하도록 하 고, 나쁜 버릇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 그를 성실하게 지도하였다. 그리고 「아이크」의 방법은 언제나 간접적(間接 的)인 것이었다. 이를테면 「존」이 「웨스 트·포인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크」 는 아람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권한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담배의 해로운 점에 대해서 긴 강의를 늘어놓는 대신에 만일 「존」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담 배를 피우는 데 드는 돈만큼 용돈을 더 주 겠는다고 제의하였던 것이다. 오늘날까지 「존」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한편에는 엄격한 훈육이 있고 또한 편 에는 부모의 따뜻한 애정이 깃들여 있는 이 가정교육은 「존·셀든·다우드·아이 젠하워」가 갑자기 위인(偉人)의 아람로

변하게 되는 데서 생기는 그 어떠한 문제 를 어떻게 논리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총 분히 설명하는 것이다.

왜 하던 「아이크」는 꾸준히 애써 일 하는 참모장교로 부러 갑자기 뛰어난 군사 지도자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一九四二年 에 그는 「펜타곤」(美國防省)에 있는 많은 준장(准將)의 한사람이 되었으나 二年이 초 금 지난 후에는 원수(元帥)가 되어 「유은도 련」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연합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때 「존」은 「웨스트·포인트」에 들어 가 있었다. 그는 「펜사스」주의 응모자가운데 최고점(最高點)으로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성적은 「아이크」의 입학시험성적보다 우수한 것이었다. 「존」은 보통학생보다 약간 우수 한 편이었다. 그의 학적부에는 이렇게 적 려져 있었다. 「그는 또한나의四星장군(四星將軍)이 될 것인가? 그렇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저술가가 되기를 원한다. 그는 훌륭한 저술가가 될 수 있을 것이 다.」라고.

「존」은 사관학교에서도 인기(人氣)가



<「존」이 韓國으로부터 歸國하였을때 「아이크」는 이미 大統領이 되어 있었다. 「매미」(中央)와 「아이크」의 子婦 「바바라」>

「존」은 사관학교 졸업하였다. 바로 그날, 그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연합군의 「프랑스」 침공작전에 개시되었던 것이다. 그날 새벽 「매미」는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테이퍼·호텔」에서 아직 잠이 들어 있었다.

있었다. 다음의 심례(實例)를 보면 그의 유물 알 수 있을 것이다. 「존」은 사관학교에 있는 한 재봉사(裁縫士)가 「이태리」에 있는 그의 딸의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여 근심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두 주일 후에 「존」은 큰 미소를 띄우면서 그 재봉사를 찾아갔다. 그는 「아이크」에게 편지를 하였었고 그의 아버지는 그 재봉사의 딸을 찾아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무사히 잘 있었다.

一九四四年 설날에 북방에도 「아이크」가 소식도 없이 귀국하였다. 그는 기차(汽車)편으로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존」을 찾아갔다. 그는 아들에게 다섯명의 사관생도를 저녁식사에 데리고 오라고 초청하였다. 사관생도들은 그 최고사령관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말없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그 최고사령관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설명할 정도로 그들은 마음을 좋게 되었다.

아침 일곱시에 전차소리가 울리는 바람에 그는 잠을 깬다——한 기자(記者)가 그에게 「노트만디」상륙작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걸어들어갔다. 그날 오후에 그는 「존」이 졸업장을 받는 것을 보았다. 여섯 시간 후에 「존」은 호주머니에 비밀명령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적별인사를 하였다. 며칠 후 「타디오」의 「유우스」를 통해서 「매미」는 그 명령이 「존」을 어디로 데려갔는가를 알게 되었다. 육군참모총장「호오지·C·마아살」원수는 「존」으로 하여금 졸업유가를 「아이크」와 함께 영국에서 보내도록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이 무렵에 「존」은 영웅(英雄)의 아들로서의 여러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가 「아이크」의 전용기 B-17을 타고 졸업유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는 미국으로 가는 도중 잠시 「아이슬랜드」에 멈추었다. 그런데 그때 「존」을 꼭 만나보고 싶어한 대령 한 사람이 비행장으로 뛰어와 그의 손을 잡았다. 「존」은 그때 대령에게 자기는 일개 소위(少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우쳐 주었다. 그 후에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아이크」의 아들로써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대우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후 「년동안의」 「존」은 그의 아버지와 많은 중요한 순간을 함께 가졌다. 그들은 「유우령」 전쟁이 끝난날 함께 있었다. 그리고 「스탈린」이 「아이크」를 쓰련으로 초청하였을때 「존」은 부관(副官)으로 수행하였다. 추배를 물으라는 요청을 받자 「존」은 서로 술잔을 권하고 있던 많은 원수(元帥)와 제독(提督)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경범한 군인」을 위해서 추배를 물자고 말하였던 것이다.

전후(戰後)에 「존」은 「비엔나」 점령군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날 저녁 만찬회에 서 그는 「바아바라」·지인·류프슨이라고 하는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는 그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여성 十二명중의 하나였고 육군대령의 딸이었다.

키가 후리후리 크고 날씬한데다가 검은 머리칼에 담갈색(淡褐色)의 눈동자를 가지고 미소를 띄우는 그 처녀의 동근얼굴은 첫눈에 「존」의 마음을 끌었다. 그들은 서로 더욱 빈번히 만나기 시작하였다.

<「존」을 반가이 맞이하는 「바아바라」>



얼마안가서 「존」은 「매미」에게 정보를 치고 자기의 「웨스트·포인트」 반지를 작은 것으로 하나 주류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존」의 양친은 그가 편지에서 「바아바라」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요청이 무엇의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었다. 「아이크」도 일찌기 「매미」를 위해서 그러한 반지를 주문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몇주일 후에 「아이젠하워」부처는 「존」한테서 대서양 횡단 장거리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존」은 그들에게 그들의 장래의 자부(子婦)를 소개하였던 것이다.

一九四七年 여름에 「존」과 「바아바라」는 군용수송기편으로 귀국하였다. 「유우령」에서 「바아바라」는, 세계적 영웅의 가족은 언제든지 신문기자와 「카메라맨」과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어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바아바라」의 아버지가 배속되어 있는 「버지니아」주 「포오트·먼로우」의 교회에서 六月 十일에 거행되었다. 「바아바라」는 전통적인 결혼의상을 입고 기도책(祈禱冊)과 백난초를 들고 서 울었다. 신랑의 들러리에는 「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조오지·호오칸」이 섰



다. 식이 끝난 후에 「존」과 「바아바라」는
진지(陣地)의 주변을 말과 마차(馬車)가
달리는 전통적인 육군의식(儀式)을 참관
하였다.

그후 몇해동안에 「아이젠하워」부자(父
子)는 그 신분에 급격한 변화를 보았다.
「아이크」가 「폴덱비아」대학총장에 임명되
었을때 「존」과 「바아바라」와 그들의 첫아
들 「데이비드」는 「뉴우유」에 살고 있었
다. 「존」은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
교에서 영어교관의 임명되기 전에 그들
비밀하기 위해서 「폴덱비아」대학에서 공
부하고 있었다. 「존」이 「뉴우유」를 떠나
기 전 한달동안 그와 「바아바라」와 「데이

비드」는 「매미」와 「아이크」와 한집안에서
살았다. 「존」과 그의 처자가 「웨스트·포
인트」근처의 「하일렌드·홀스」로 이사한
후에는 주말(週末)에 양친이 자주 그들을
찾아갔다.

「웨스트·포인트」에서 「존」은 열심히
일하였다. 그것은 「아이크」가 참모장교로
서 일할 때 보여주던 것과 똑같은 성실
성이었다. 「하일렌드·홀스」에서 「존」이
들어있던 집의 주인이며 바로 옆집에 살
고 있던 「프랭크·에이글」은 이렇게 나에
게 말하였다.

「우리는 흔히 밤늦게까지 「조니」의 「타
이프」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때는 그
소리가 밤새도록 들
려올 때도 있었습니
다」.

<「아이크」의 心臟麻痺는 그의 司令「존」에게 큰 衝擊을 주었다>

「존」은 一九四五년
一월 二十三日에 임
시 중위로 진급하였
고, 一九五一年 五月
十四일에 정규대위가
되었으며 一九五一年
八月 十六일에 임시

소령이 되었다.

一九五二年 「포르트·누스」의 탱크부대
에 근무하고 있었을때 「존」은 한국전선으
로 갈것을 지원하였다. 그가 一九五二年
七月 十八일에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와
「바아바라」는 「하일렌드·폴울스」의 「미
안스」(街)에, 방이 여섯개 있는 흰색
목조 가옥(白色木造家屋)을 빌려 살고 있
었다.

어떤때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하였다.
「바아바라·앤」은 네번째 딸이하는 그의
생일에 「아파」만을 찾았다. 어느날 저녁
에 「바아바라」가 의술을 하게 되어 「머일
·그래지아노」라고 하는 이웃 부인이 어
린애를 보아주고 있었다. 그때 그 부인은
「데이비드」에게기도문을 말해보라고 하
였다. 그랬더니 「데이비드」는 「오케이」하
는 거예요.」하고 말하더니 침대에 기대어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주어, 제발 우리 아파를 한국에서 불러
보내 주소서」라고.

「존」이 해외에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다음달에 「아
이크」는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존」은

제 3사단, 제 15보병연대, 제 1대대에
있었는데 그는 「마아크·클라아크」대장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의 부관에 임명되어
임선으로 부러 날아왔다.

「바아바라」와 이런애들은 「모오닐사이
트·드라이브」에서 그 해의 「크리스마스」
를 맞이하였다. 훌륭한 「크리스마스」였
다. 그러나 「매미·아이젠하워」는 그의
자부(子婦)와 손자들은 한지붕 밑에 있지
만 아를 「존」은 한국에 가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었다. 아들이 떠나간 이후 그
는 항상 마음이 아팠다. 그는 아들에게
한주 제던씩 꾸 편지를 하였다.

그는 「크리스마스」날에 기어코 병이 나
고 말았다. 대령명취임일이 가까워 왔는
데도 그는 운박을 입을 할 수 있을만큼 충
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는 「르루만」대령명의 명령으로 「존」이 十
일간의 휴가를 얻어 비행기편으로 귀국중
에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회복하였다.
대령명취임일에 「존」과 「바아바라」는
백악관에서 잤다. 「매미」는 그들에게 「장
미의 방」을 제공하였다.

九월에 「존」은 「하일렌드·포울스」에

있는 처자(妻子)에게로 돌아왔다. 이번
는 진정한 재회(再會)였다. 전쟁은 끝났
던 것이다.

그후 그는 「포오지아주」 「포오트·베
닝」에서 一년동안 제 30보병연대 제 1대
대의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一九五四年
七月에 그는 백악관으로 가서 한달동안
그의 아버지의 「임시부관」노릇을 하였
다. 八月 十일에 그는 「켄사스주」 「포오
트·리노워어스」에 있는 육군대학으로 배
속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一九二六년에
우등으로 졸업한 그 대대이었다. 그후 一
九五五年 五月 三日, 그는 현재 있는 「포
오트·벤보어」 공병학교에 보병표관으로
배속되었다.

제 2년 여름에 「존」은 아버지의 특별부
관으로서 「바아바라」와 이런애들을 남겨
두고 「제네바」회의에 양친을 따라갔다.

호수(湖水)앞에 있는, 땅이 열다섯이나
되는 별장에서 아버지화 어머니와 아들,
이 세사람은 단단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들을 수행하였던 「아이젠하워」
부인의 비서 「메이티·제인」씨는 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행복스럽게 복유함으로써
질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밤에는 「존」이 「피아노」를 치고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령명은 손자들의 생각을 잊지
않았다. 그는 「제네바」에서 그들에게 주
려고 장난감을 샀다.

「아이크」는 「존」이 어렸을 때보다도 손
자들과 더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존」 자신도 지난날의 「아이크」와 마찬가
지의 아버지이다. 그는 이런애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그 반면에 구식의 엄격한 아
버지이다. 그는 결혼전까지는 장교표신
자였지만, 감리교 표지에 따라서 이런애
들을 존속해오고 있다.

모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러하듯이
「매미」와 「아이크」도 손자들이 흔히 오듯
동안 그들을 찾아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런애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은 백악관이요 백악관이란 곳은 이런애
들이 자랄곳이 못된다고 깨우쳐주고 있는
「존」은 그들이 백악관을 찾아가는 것을
신중히 조절하고 있다. 「존」의 내제 아이
인 「메이티·제인」이 출생하게 되었을 때

한 기자는 「존」에게 「월터·레이드」병원
 보답도 백 판에서 어떤애를 남도록 하기
 를 취하지는 않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때
 「존」은 약간 화가 난듯이 「백악관은 산과
 시설에 있어서 도저히 「월터·레이드」병
 원은 못담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던
 것이다.

獨科學者 一部成功

水素彈 平和轉用研究에

獨逸科學者들은 그들이 水素彈力을 平
 和的인 方面으로 轉用하는 試圖에서 部分
 的으로 成功을 거두었다고 말하였다.
 西獨 「아헨」 工科大学 研究班 責任者 「벨
 레를, 욱크스」 博士는 一秒의 百萬分之 一
 동안에 百萬 「암페어」의 電流를 產出 할
 수 있었다고 報告하였는데, 同研究班의
 目標은 水素彈 物質의 溶解를 制禦하는
 데 必要한 極高度의 熱을 產出하는데 있
 다고 한다.
 「욕크스」 博士는 萬若 制禦된 水素核反

그러나 백악관에 「존」의 자녀가 존재하
 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三층의 일부는 아이들의 방으로 개조까지
 되어 있다. 남쪽 뜰에는 「놀웨이」산이라
 고 하는 단풍나무에 아롱송 그네가 매달
 려 있다. 토요일에는 가끔 어떤애들이 백
 악관의 수일 「루울」에서 놀고 있는 것을

應으로 부터의 「에네르기」의 生産이 經濟
 的으로 附合되도록 實現될 수 있다면 앞
 으로 動力不足에 關한 問題는 完全히 解
 消될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佛機、北極經由

飛行에 成功

파리—東京間 29時間

佛蘭西 航空會社의 一旅客機는 이번
 「파리」를 出發하여 北極經由 實驗飛行에
 成功하였다. 同機는 「파리」에서 東京까지
 四千七百八十哩의 距離를 二十九時間
 四十五分에 飛行하였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중명이 백악관에 서
 나 혹은 단 곳에서 휴일을 보낼 때에는 손
 히 손자들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가장 공식적인 라식에까지도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느낌을 준다. 一九五五年
 一월에 국회를 위한 백악관의 연례연회
 (年例宴會)가 열렸을 때 일이다. 잠옷을
 입은 「바아바라·엔」과 「수잔·엘레인」이
 가족식당판 뒤에 숨어 안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손님들은 그들을 보고 손으로
 「키스」를 보내는 시늉을 하였다.
 「아이크」는 「존」에 대해서 가질 수 없
 던 특수한 정을 혼자 「레이비드」에게 가
 지고 있다. 「레이비드」가 백악관에 머물
 어 있을 때에는 손자와 할아버지는 특특
 한 「스타일」의 동작을 하면서 아침에 만
 난다. 서요일을 즐려다 보고 걸어 오면
 서 그들은 몹시 딱딱하고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그들이 「피이르」쯤 떨어진 곳에
 도달하면 갑자기 발을 멈추고 짙이 고개
 들 숙이고 질문을 한다음 악수를 한다. 그
 다음 「레이비드」가 일종의 기상나팔을 부
 는 시늉을 하면 그의 할아버지는 손자를
 두팔로 힘차게 일사안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물을 얹아서 그날의 「테이비드」의 예정을 로의하는 중요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럴때면의 폐회 「테이비드」는 자기 자신—— 그가 흔히 불고 있는 작은 「아이크」——는 물론 「콘」 「아이크」도 관련되는 어떠한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 활동이란 「콘」 「아이크」같은 것은 그를 물만의 원유회(園遊會)같은 것이다. 할아버지는 시간약속을 하고 자기 일을 보러 간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어질 수 없는 것이며 대령은 오후 늦게 면담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저명한 표인들이 찾아왔을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외러분, 미안합니다. 나는 손자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해놓았읍니다.」

一九五四년의 부활제(復活祭)에 「표오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신문 기자들은 「바아바라」엔 「수잔」이 입고 있는 옷을 칭찬하고 야단법석이었으나 그들은 「테이비드」에 대해서는 동한시하였다. 아무도 그의 손자에게 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은 대령은 곧 「테이비드」에게 몸을 꾸부리고 일부터 정색을 한 어조로

말하였다. 「아이젠하워」씨, 당신의 옷차림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라고.

할아버지의 집에서 완전히 마음놓고는 「테이비드」는 사람들에게 「나는 배악관에 살고 있어요.」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때에는 사진사에게 「내가 「휴먼」을 담고 있는 것을 찍어 주세요.」하고 부탁하는 것이다.

얼마전에 대령이 병환이었을때 그의 손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 혹은 만선물을 보내왔었다. 왜냐하면 「콘」 「바아바라」는 선물이라는 것은 자기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수술후 대령이 「윌터」 「티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때 그의 손자들은 「아버지의 날」을 위해서 화분에 심은 식물(植物)을 가져왔었다. 그리고 심장병을 앓고 있을 때에는 「할아버지의 심장술 고지도독」 「휴먼」을 그에게 주었다. 한편 「포오트」 「벨보어」에서 이틀어린 애들은 군인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 「테이비드」와 「바아바라」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인트」 「아그네스」 학교에 다니고 있고 「수잔」은

「콘」의 배속지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일요일이 되면 그들은 주일학교에 가고 또한 부모와 함께 교회에 간다. 밤에는 그들의 「아빠」가 노래를 불러주고 「키라」나 혹은 「아코디온」을 연주해주고, 혹은 「문베슈」이 점점 들어가가는 고전음악과 유행가의 「데코오드」를 들려주기도 한다. 여름에는 동네의 다른 아이들과서도 물웅덩이를 뛰어 다니면서 「호오스」를 가지고 뛰기도 하고 집앞에 있는 수영 「루울」에 뛰어들어가 장난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젊은 「아이젠하워」가(家)의 생활광경은 「아이크」가 아버지로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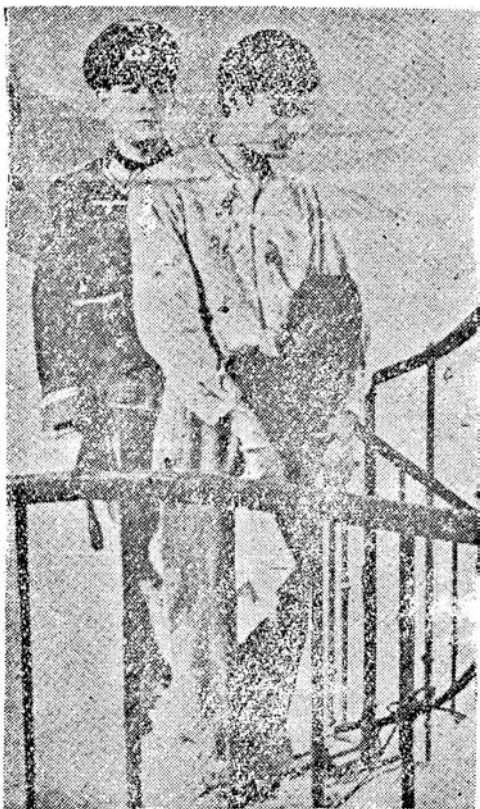
「콘」 「아이젠하워」는 그가 아무리 엄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엄친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던 잔에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뚜렷한 개성을 가진 하나의 인간인 것이다. 「포오트」 「벨보어」에 있는 젊은 「아이젠하워」가의 이웃사람 하나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흔히 나는 「콘」 소령이 배악관에 그의 일가친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답니다.」

△名作映畫鑑賞▽

抵抗

傍題 〓 死刑囚의 手記



佛·S N E·고 1 몬製作
 로페르·부렛손 監督

△解說▽

「스토리의」 힘을 거의 떨리지 않고 오직 카메라를 통하여 人間行動을 緻密하게 分析함으로써 「生命」 또는 「生命力」이라는 抽象의 概念을 具體化시켰고 그림으로써 이 映畫의 純粹性和 映畫라는 藝術形式의 本質을 完全히 맛볼 수 있게끔 살려 놓았다.

이야기는 第二次大戰當時 「나치스」占領下의 佛蘭西에서 獨逸軍刑務所에 監禁된 젊은 佛蘭西將校가 綿密한 計劃으로 脫獄에 成功한다는 것으로 畫面은 始終 死刑囚인 主役을 쫓고 있으나 이처럼 人間生命의 實體를 生생하고 具體적으로 느끼게 한 作品은 아직 없었다.

「나치스」占領下의 森嚴한 雰囲気、拷問、不安한 獄中의 하루, 목이 타는 듯한 自由에의 渴望、이 모든 感覺을 담은 畫面에 適確히 새겨 놓은 이 映畫에서는 安易한 感激이란 一切 排除되고 觀客은 어 느덧 畫面에 끌리어 主役과 함께 監房에서 呼吸하고 죽음에 對한 不安을 느끼며 脫獄의 一念에 사로잡히고 마는 錯覺에

파지게 한다.

監督인 「로베르·부렛손」은 佛蘭西十大監督者 中에서도 가장 藝術의良心이 強한 監督으로서 絕對의인 尊敬과 信賴를 받고 있다. 그는 一九四三年에 處女作을 發表한 以來이 「抵抗」으로서 겨우 네번 祇라는 寡作家이며 하나하나의 作品에 慎重을 期하고 있다.

이 映畫에서 「부렛손」이 主役의 行動을 보는 눈은 恰似 大手術을 하고 있는 外科 醫처럼 沈着하고 冷靜하다는 것을 悉사리 알 수 있다. 그는 既成의 모든 映畫技術 形式을 無視하면서 가장 映畫다운 作品을 만들었다.

主役을 擔當한 「프랑소아·푸테리」는 이 映畫를 撮影하기 얼마前 「모독극」에서 二年間의 兵役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學窓生活을 繼續하고 있던 哲學科 學生이라 한다. 그의 演技는 實로 初出演임을 殊히 느낄 수 없을만큼 놀랍다. 모든 것을 잃어 버리는 限이 있더라도 自己自身만은 잃지 않겠다는 이 映畫의 主人公 「몬테」는 「中尉」의 無言의 抵抗精神을 그의 聡智의인 눈동자 하나하나의 움직임

으로 表現하고 있다.

그리고 이 映畫에서 特히 注目되는 것은 音樂效果의 놀라운 點이다. 門소리만 자취 소리, 그리고 속삭임 등 映畫에서 到底히 찾아볼 수 없는 가는 소리를 이 重要한 心理的 役割을 充分히 다하고 있다.

「몬테」- 「中尉」

「이것으로 반달쯤은 조용하겠지」
딱딱 할 것 없이 온 얼굴이 피루성이 인채 반심신(失神)된 청년을 좁은 감방(監房)에 끌어 넣으며 「계슈다프」(秘密警察員)는 온갖 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물바닥에 쓰러진 청년의 몸에 옷저고리(上衣)를 던져 주고는 바깥으로 자물쇠를 채우고 사라졌다.

탈주(脫走)하다 실패한 청년——「몬테」는 「푸테리」(중위는 발자취 소리가 덜 어지자, 살며시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다.)

이 「몬트록」(정무사의 감방은 길이三尺, 넓이二미터, 그리고 복도(複道)쪽의 육중한 출입문을 제하고는 사방이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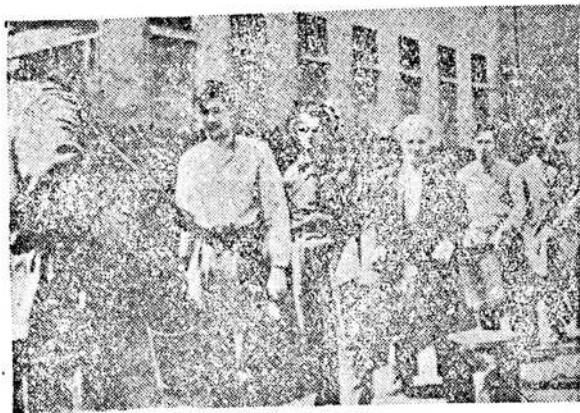
치른 몽크리-로베이다. 방안에는 나무장대(木製寢臺)에 담요가 두장, 출입문 옆에 용변공통이 하나, 그리고 한쪽 벽에는 들로된 삼각형의 좁은 선반이 있어 그것을 타고 올라가던 적은 철창 밖으로 겨우의 부가 보일까 말까하다.

이러한 곳에 투옥된 죄수의 대반은 「몬테」는 중위처럼 「나치스」군에 대한 저항운동에 참가 하였던 탓으로 할 수 없을 한자는 용서없이 추살되었다.

호송도중(護送途中) 탈주하려다 재포된 「몬테」는 중위도 물론 그에 의는 아실 것이다.

다음날 아침 간수병은 그불 호술하러 왔다. 「몬테」는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 쓰러져 있었다. 얼굴에서 가슴에 이르기까지 말라붙은 피루성이는 보기에 도 흉칙스러우나 그러나 사지(四肢)는 멀쩡하였다. 사실 일각(一刻)이라도 사형의 시기를 연장시키기에는 중상(重傷)을 가자하는 것이 유일의 방법이였다. 간수병은 발견된 한 번 더 물어 보고는 그냥 나가 버렸다.

그 순간부터 「몬테」의 가슴에는 살



야 보겠다는 욕망이 지열하게 양공하였
다. 누구나 궁극상태(窮極狀態)에 놓이게
되면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맹렬히 반발
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일제를 단념하고
무기력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용기가
이처럼 귀중한 때는 없을 것이다.

「몬테－느」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선반으로 기어 올라 철창에 매어달렸다.
이 감방 바로 밑은 형무소의 가운데 뜰로
되어 있어 이곳에는 죄수로 보이는 세사람
의 남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나는 「몬테－느」란 자인데 바깥으로
출입할 수 있을까?」

「난 「페티－」다. 방법은 있지」

백발에 가까운 가운데 노인이 얼굴도 볼
지 않은채 이렇게 말하고는 여전히 걸고
있다. 그리고 다시 돌아 왔을때 그 노인
은 손수건에싼 끈을 전장으로 던져 주
었다.

「몬테－느」는 비란잔 삶에 대한 희망을
얻었다. 그는 아직 절망한 것은 아니었
다. 「몬테－느」는 몽크리－트 벽을 두들겨
엿망 사담과 연락하였다. 바로 옆 감방에
있는 사람은 독일병을 죽였다는 十九세
의 직공(職工)으로 추상될 난관기다린다는
것이 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몬테－느」
는 그 청년이 원하는대로 하룻밤을 「용사
의 노대」로 세우며 가련한 그 젊은이를
위로하였다.

「테리－」老人의 幫助

「페티－」(드레루는) 노인과 두 사람의

동반자들은 매일 오후 일정한 시간이면 가
운테 뜰로 산책하러 나온다. 「몬테－느」
는 얻은 끈에다 손수건을 매달아 그것으
로 연필과 종이를 쓰일었다. 그 다음날
엔 가족들에게 자기의 정황(情況)을 알리
는 편지 한통과, 그 지방에 잠복해 있는
상급자에게 올리는 보고서를 같은 방법으
로 「테리－」에게 전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의 산책까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페티－」노인은 비요적
정리한 죄로 이곳에 수감된 듯 하였으며
이러한 노인과 연락으로 「몬테－느」는
여수(女囚)의 방으로 부러 안전편과 편도
갈날에 이르기까지 무난히 얻을 수가 있
었다. 여수의 방으로부터 전해져 온 편과
편도 칼날을싼 신문지에는 「성공 하세
요.」라고까지 쓰여져 있었다.

「몬테－느」는 편지를 자물쇠 구멍으로
밀어넣어 것처럼 단단하던 수갑을 드디어
풀었다. 수갑을 풀기는 하였으나 그것으
로 끈 말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복도
에서 감시병의 발자취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급히 또 양손에 채우지 않으면 안되
었으나 비록 한 때만일 망정 자기의 힘으

로 팔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
어떠한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이 감방에
있어서 이에 대한 수 없는 즐거움이였다.
사형수의 처형(處刑)은 이 감방 창으로
는 보이지 않는 뜰에서 행하는 듯이 따금
씩 총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온다.

「몬테-느」가 이곳에 수감된지 보름째
되는 날 간수장이 들어서면서 나오라고 명
명한다. 「사형일까!」 순간적인 전율
(戰慄)이 그의 전신을 번개처럼 스쳐간다.
저고리를 들고 간수장의 뒤를 따르자

「수건을!」 하고 간수장은 침대머리에
걸려있는 수건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리
고 그 건물의 뒷층에 있는 一〇七호 감방
으로 그를 데려다 놓고 비르소 수갑을 풀
었으며 옥중신문을 바깥으로 잠그고 다
시 계단을 내리갔다. 이리하여 「몬테-
느」의 생명은 보며 필한 연장되는 것이
다.

근기있는 脫走準備

아침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수병의 신호
로 감방의 수인(囚人)들은 자기 변기(便
器)를 끼고 밀제히 복도로 나온다. 그리

고는 일렬이 되어 가운데 들로 내려가 변
기를 치우고 세수를 한 다음 다시 열을
지어 자기의 감방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그들의 입과중에서 유일한 활동이었다.

「몬테-느」는 주일 아무런 하는 일도 없
이 침대에 올라앉아 「도어」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여섯장의 두꺼운 판자와 그
것을 싸고있는 테두리의 재질(材質)이 서
로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세로로 여섯장
씩 겹쳐진 판자는 튼튼한 참나무로 되어
있으나 날 일자형(日字型)으로 그것을 싸
테두리는 beech가 아니면 Poplar인 듯하
였다.

이 판자 세로의 홈을 잘라내고 테두리의
상하를 조금씩만 끊어 낸다면 어쨌든 복
도까지는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
나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의 도구가
필요하다.

어떤날 그는 식기를 들며 들때에 술잔
을 아무위에 떨어뜨린척하고 구두 밑에 감
추어 버렸다. 간수병이 무심코 철제(鐵
製)철만 발아가게 되자 술잔을 콩크리-
트 바닥에 갈아 날라롭게 만들었다. 그리
고 판자와 판자사이를 훑어 내는 근기있

는 작업을 매일밤 계속하였다.

다행히도 옥안의 감시는 거의 없었다 싶어
되어 야간의 순찰(巡察)마저 볼 수 없었
다. 그러나 언제 어느때 무슨 일로서 받
작 될는지 단언할 수 없는 일이다.

「몬테-느」는 심중히 하나하나의 나무
부스러기까지 치워버리며 조용히 판자사
이를 긁어갔다.

어느날 밤 역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
을때 복도에서 나즈막한 발자취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바깥구멍같은 문틈으
로 감방안을 들여다 본다

「몬테-느」있나? 그것은 「테리-」의
목소리였다.

「테리-」인가, 참 오래간 만이네」

「나는 더나게 되었어」

「석방(釋放)되는 건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애」

「아때층 내 옆방에 있던, 그 젊은 친구
는?」

「추살 되었다」

「테리-」가 어떻게 하여 복도로 나올 수
있었는지 「몬테-느」에게 알 수 없는 일
이었으나 그처럼 친정하던 이 노인이 되



나게 된 것과 일곱도 모르는 젊은 친구가
 총살되었다는 이러한 소식들은 그로 하여
 금 심방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렇게 판자
 를 닫고 있지만 어찌면 그의 처형이 내일
 도 방두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집행의
 명령만 떨어지면 지금까지의 노력이란 한
 날 보람없는 허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잡념을 일소하고
 오로지 작업에만 전념하였다. 「몬테-느」

가 탈옥을 꾀한다는 것은 같은 상층에 있
 는 모든 감방수(監房囚)들에게 차차 알려
 지게 되었다. 그의 바로 앞 감방에 있는
 「오르시니」(작크·엘도-)는 밤마다 「몬
 테-느」의 일이 계속되는 동안 자기 방문
 의 적은 물구멍으로 복도를 감시해 주어
 전보다 일하기에 훨씬 편하여 졌다.

오직 한쪽 열방의 침묵만이 그를 불안
 케 하였다. 어면날 그는 열방의 「부란슈」
 (비-어부룩)에게 말을 걸었다.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면 도와 드릴께』

『아무 것도 없네』

라고 「부란슈」는 통명스럽게 대답하고 이어
 『그렇다면 제발 그 문 닫는 일을 그만
 두어 다오. 발과 되면 전원이 처벌돼.』
 그로부터 삼주일간 「몬테-느」는 더욱
 소리를 죽이고 작업을 계속하여 드디어
 석장의 참나무 판자를 세로로 짜르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끼여있는 테
 두리의 일부를 부수려던 때 손같은 가운
 테로부터 물로 부러졌다.

廊下까지의 自由

다음날 아침 세수하며 잤을 때 「오루시

니」는 성서(聖書)를 한권 읽수하였고 「몬
 테-느」는 식기선반에서 새로운 손칼 하
 나를 포출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석장
 의 판자를 떼어내고 나니 그의 몸은 충분
 히 그곳을 빠져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테두리의 상부는 예기한 것보다
 훨씬 크게 쪼개졌다. 그는 떨어진 조각을
 주워 처음대로 붙이고 물에 젖은 종이로
 조심히 덮고 그 물을 빼냈다. 그리고 보
 엄필로서 프나지 않게 칠하였으나 그리고
 도 안심이 안되어 그위에 적은 바늘을 박
 고 수건을 걸어 두었다.

「몬테-느」는 누구든지 버란간 문을 열
 거나 닫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 어느
 판자가 떨어져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이
 다. 그래서 배식(配食)때도 문을 열고 단
 는 것은 꼭 자기 손으로 하였다.

그날밤 「몬테-느」는 조용히 판자들을
 어내고 복도에 나왔다. 어름침침한 진동
 불이 켜진 좁다란 복도에는 순찰도 감시
 도 없었다. 「몬테-느」는 실금살금 열 감
 방으로 가까이 가서 감방안을 들여다 보
 았다.

「나다, 一〇七호다」

「정말!」 감방안의 사나이는 울란듯이
감탄하였다.

「잘 자. 내일 또 오지!」

「몬테!」는 그 감방 문에 백머(白墨)로
키다랗게 써어진 \wedge 의 줄 및 쇠사자
지 \vee 란 글을 지우고 다시 자기방으로 돌
아왔다. 불과 빛분통안 문때 북으로 빠져
나갈 수 있었던 것뿐이나 열방 사나이의
부드러운 듯한 목소리가 그를 퍼기쁘게
하였다. 그날 밤은 이곳에 수용된 이후
처음으로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탈주 계획을 세우
지 않을 수 없다. 세수하러 나갈때 마다
이곳의 감시상황(監視狀況)을 조사해 본
결과 간수장과 상사는 이층에서 자고 아
랫층에 있는 하사가 문 열쇠를 맡아 있음
을 알았다. 감방으로 부터 계단을 타고 아
랫층으로 탈주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옥상으로 따
져나가 지붕을 타고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또다시 북으로 따
져나왔다. 두꺼운 몽크리-트 처마끝에
얇판을 걸고 옥상으로 기어 올라갔다. 옥

상은 그라스로 되어 있어 「적!」하고 발밑
에서 금이 나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숨이 막히는 순간 가까이서 들려오는 기
차소리가 위험의 침나를 모면케 해주
었다.

「오르시니」의 계획

어느날 아침 「몬테!」는 「오르시니」
로부터 쪽지를 한장 받았다. 감방으로 돌
아와 되보니 거기에는 「오르시니」의 탈
주 계획이 상세하게 써어 있었다. 백주(白
晝)에 간수병의 눈을 피하고 탈출한다는
것이다.

\wedge 이것은 심대하다! \vee 라고 「몬테!」는
는 직감적으로 생각되었다. 아나나 다음
까 「오르시니」는 세수하러 나갈때 저코티
밀에 줄과 갈구리를 감추어 두었다가 간수
병 문때 담벽을 타고 넘었으나 몽크리-
트로 된 높은 벽은 四에 1의 정도의 잔격
을 두고 이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곳에서 곧 체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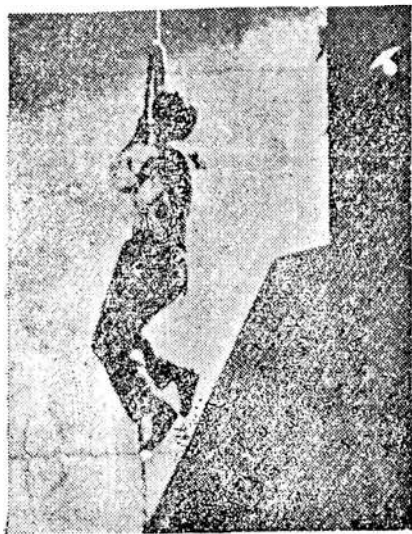
줄(綱) 끝에 달 갈구리는 감방벽에 붙
어있는 각등(角燈) 테두리의 철재를 사용
하도록 「몬테!」에게 알려고 「오르시

니」는 형장(刑場)으로 끌려나갔다.

「오르시니」의 심책은 「몬테!」의 계
회를 일층 심중케 하였다. 그후 「몬테!
」는 각등 테두리로 지붕을 모서리에 맞
도록 새개의 갈구리를 만들었다. 하나는
이전 불로 부터 타고 내리기 위한 것이고
다른 두개는 바깥 벽과 벽사이를 줄로 이
울때 쓰기 위한 것이다.

「몬테!」는 겨우 갈구리를 다 만들었
을 무렵, 비상호출(非常呼出)이 있어 죄
수일동은 가운데물로 정벌되었다. 죄수한
사람이 용역으로 나서서 하는 말이 편지
를 낸 죄수가 세사람이나 있어 그들은 총
살되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연필을 가진
사람은 잠시 후, 순찰때 빠짐없이 내놓으
라는 명령이따 왔다. 만약 그때 내지않고
실내검사시(室內檢査時)에 발각된다면 지
체없이 총살하겠다는 것까지 부연하였다.
대사를 치르기 직전의 생가지 못하던
인이다. 사소한 연필 하나 때문에 지참까
지의 노력을 허사로 물리서는 안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날 오후 간수가 감방을 돌아다
니며 연필을 모았을 때 「몬테!」는 부



지중 없다고 말해 버렸다. 이제는 내 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곤경에 빠진 것이다. 커다란 계획을 목전에 두고서도 사소한 반항심 때문에 일체의 노고는 무너졌다. 만약 감방을 수색(搜索)당한다면 영원불변 인가 탈옥의 도구전부가 발각될 것이다. 그때 다시 발자취소리가 가까이 들려왔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얼굴을 들었을 때 간수는 그의 가족으로 부터 차입(差入)된 커다란 상자 하나를 주고갔다. 이리하여 그는 다시 힘을 얻어 작업을 계속하였다. 이제는 투장의 모로

까지도 모루「로오프」로 변하였다. 아침 일과때 간수병의 눈을 피하여 옆 방「부란슈」가 자기 모루를 던져 준 것은 「몬테」는「에게 있어서 생가지도 않던 기쁨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주위의 사람 들을 백안시(白眼視)하고 자기방에만 틀 어박혀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부란 슈」까지도 어느새 「몬테」는「의 탈주에 자기의 꿈을 마가게 되었던 것이다.

알 수 없는 少年罪凶

이리하여 탈옥준비는 다 되었다. 그러

나 「몬테」는 그것을 혼자서 결행(決行)할 용기가 나질 않아 一〇호의 사나에게 권하였지만 그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 하면서 고개를 돌렸다.

철사 그물이 석방은 되지않는 다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유예(猶豫)되고 있는 동안에 연합군은 이 「티온」을 탈환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면 몇몇의 출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날 「몬테」는 심판소로

호출되어 스파이행위와 음모기도(陰謀企圖)라는 죄명으로 사형연도를 받았다.

사형의 날자는 알 수 없으나 이상 더 주저할 수는 없다.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호출되어 집행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리한 때에 의외의 일이 일어났다. 그의 감방에 동거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독일병의 옷저키리틀입은 아직 어린애같은 이 소년은 「프랑소아·프스트」(샤무루·프그랑슈)라고 하며 불란서 소년 이면서 나치스군에 협력하고 있었으나 두 일 군으로부터 탈주하였다 체포되어 온 것이다.

「몬테」는 처음, 비밀경찰에서 자기 들 감시기 위하여 이 소년을 동거케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탈옥하기 전에 이 소년부터 처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고있는 순진한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 볼때 「몬테」는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몬테」는 이들 중안이나 망서리다 못해 드디어 소년에게 그의 계획을 이야기 했다. 「프스트」는 처음 주저

하였으나 연결 한자루를 잠꾸어 두어도
총살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작스러이 마
음이 움직였다. 더우기 이 어딘 소년에게
는 그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도 있었다.

그날밤 다들 잠들기를 기다리 「몬테」
는 「와」 「조스트」는 준비된 도구를 자기
에게 걸치고 판자를 뜯어 내고는 갑작같
이 북도로 해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의 그라스창은 두사람의 재중으로
찍적하며 금이 갔다. 그들은 한발한발 조
신스럽게 옮겨나가 겨우 그라스창과 장벽
간의 모래를 깔은 좁은 공간에 이르렀다.
신발은 벗어 들고 발 뒷꿈치부터 가만히
밟아가는 것이나, 밤의 정숙에 아무래도
모래알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부근으로
통과하는 기차소리에 맞추어 걸어가
기도 했다.

교회의 종이 열한시를 쳤다. 장벽으로
부터 내려다 보니 건물 정면의 외동(外
窓)이 하나 커져있고 그 밑을 자동차축을
뿜는 동조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조
명은 고정된 위치만을 왕복할뿐 건물의
모퉁이 이상으로 더 나가지 않는다.

교회의 종은 열두시를 쳤다. 「몬테」
는 장벽 위에서 머리를 숙 내어 밑고
기계적인 동조의 주위를 살폈다.

드디어 自由를 찾다

지중(時鐘)은 밤 한시를 알린다. 새로
운 보츠가 나타나야 때를 한다. 하반보츠
(下番步哨)가 건물 저쪽으로 사라지자 상
반보츠는 외동 밑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부었다.

「몬테」는 「조스트」의 어깨를 흔들
며 조용히 장벽을 난간에 걸구리를 걸고
정자로 묶은 줄을 아래로 내려드렸다. 그
리고 우선 자기가 그 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 건물 모퉁이에서 동조의 동정을
살폈다. 동조는 이미 담배를 다 피우고
일정한 지점을 왕내하고 있으나 전 보츠
와 똑같이 불빛이 닿지 않는 건물의 측면
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몬테」의 약
1메터 앞에서 보츠병은 다시 돌아섰다.
그는 걸구리를 땅에다 놓고 기회를 노렸
다.

보츠병 가까이까지 와서는 다시 돌아선
다. 순간 요란한 기차소리가 울려왔다.
「몬테」는 보츠병의 동 뒤로 부터 뛰어
들었다.

얼만가 지난 뒤 「몬테」는 다시 줄 밑
에 나타나 옥상의 소년 쪽으로 향하여 크
게 팔을 흔들었다. 「조스트」도 조용히 지
상으로 내려왔다.

두사람은 쓰러진 보츠병 옆으로 해서
가운데를 지나 몽크리트로 된 턱 밑벽
밑에 이르렀다. 벽을 타고 올라 갈만한

손잡이만 아무것도 없었다. 「몬테」는
「조스트」를 어깨에다 올려 담배를 타
오르게 했다. 그리고 소년이 내려준 줄을
타고 자기도 기어 올랐다.

담벽위에 몸을 착 붙이고 정면을 바라
보니 三, 四미터의 간격을 두고 똑 같은
담벽이 보하나 있다. 그 중간의 동도 모
퉁이에는 작은 초사(哨舍)가 있으나 보츠
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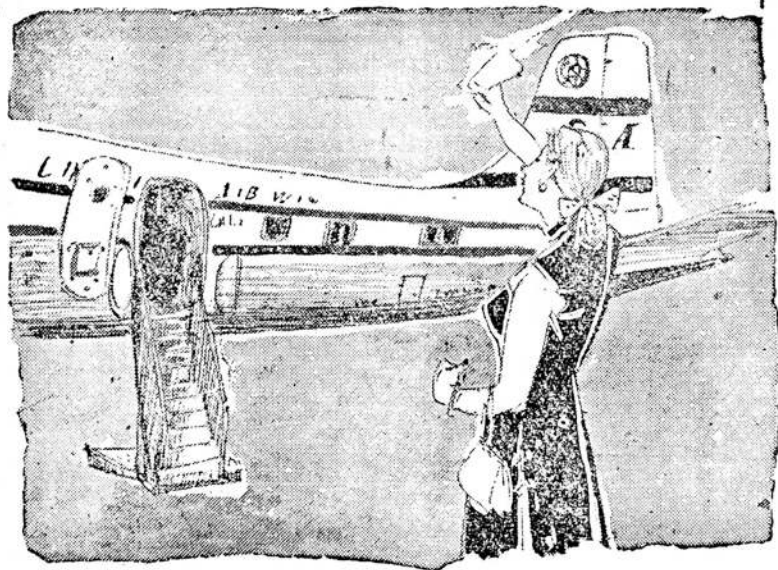
「몬테」는 「조스트」가 두개의 담벽을 뚫고
나갈 공리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울려오
는 교회의 종이 새벽시를 알린다.
벌써 어두움이 사라질 때가 되었다.

베다루 소리를 떠안고 내려 자전거를
타고 오는 보츠병이 지나는 것을 기다려
「몬테」는 곧 걸구리가 탈던 줄을 저
쪽 담벽으로 던졌다. 쟁! 하고 전선(電
線)이 울렸다. 그러나 이제 조금도 지체
할 여유가 없다. 줄을 팽팽하게 잡아 놓
고는 타고 진졌다. 그가 저쪽 담벽에 이
르자 이번은 「조스트」가 진졌다.

「몬테」는 먼저 담벽 밖으로 뛰어
내렸다. 그리고 「조스트」는 자기 어깨를
디디게 하여 땅에다 내리 놓았다. 자
유스런 세제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저항운동의 임무
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三角野人



△ 小説 ▽

陳小姐

李 無 影

一

아홉시란다면 짐도 간밤에 다 꾸러 놓았겠다 여덟시에 만나
 간대도 삼십분 여유는 넉넉히 있으련만 학교가는 아이들 보다
 도 먼저 일어나서 세수물을 놔라, 와이셔츠를 가져오너라, 양
 말은 어쨌느냐 법석을 대다가 아내한테

「꼭 상림이 같으시구로. 합승을 타면 二십분이면 갈텐데 뭘
 그렇게 서둘르세요.」

하고 웃음감이 되면서도 마음부터가 바빠지는 것을 혼은 어쩔 도
 리가 없었다. 상림이란 올해 유치원에 들어간 막내 계집애였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혼은 올해 꼭 한
 오십이었다.

「그렇게 두 좋은 시우?」

타이를 매고 있는데 아내가 거울 뒤에서 웃고 있다.

「좋은 뒤 그렇지?」

「그래 두 좋은 신 모양 이신데? 저 옷은 입 좁 봐!」

「나쁜 것도 없잖아?」

훈도 할 수 없이 자백을 하고 말았다. 나이는五십이지만 처음 유치원에 들어간 막내딸이나 친배 없기도 했다.

왜정 때는 외국여행이라면 기껏해서 일본이나 만주였지만 해방이 되고 부터는 미국이다 구라파다를 투 하던 갔다 오고, 그의 동료간에는 두, 세번씩 외국여행을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소극적인 그한테는 한번 것에 돌아오지를 않던 것이다. 그것이 지금 어쩌다 뭉에 돌아 온 것이다. 구, 미 각국을 하도 많이 다니는 세상이라 남들은 「그까짓 「대만!」

하는 눈치였지만 훈은 「대만」 아니라 울릉도라도 좋으니 타 했었다. 첫째, 비행기라는 것을 타보지 않느냐?

이렇듯의 국여행, 아니 비행기를 탄다는 사실앞에서부터 마음이 달든 훈이 있던지라, 막상 비행기 새다다리를 올라갈 때는 가슴까지 울렁댔었다. 이 육중한 몸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가며, 자동차 보다도 안전도하고 동요도 없다는 것인가. 그러나 역시 들던말 같았다. 비행

기가 들 무렵에는 처음 미끄럼대에 올랐을 때처럼 겁까지 났지만 뜨고 나니 정말 방에 앉아있는 것 같다. 허한한 노릇이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보아서 비행기는 하늘 높이 나는 것이 상식이니라 해 왔었지만 이렇게 一만 二천척 상공을 날아가며 생각하니 상식이라는 것이 되려 비상적인 것만 같다. 이렇게 많은 구름을 상상해 본적도 없었다. 안하가 그대로 구름이었다. 그것은 마치 흰 우주를 폭신 폭신한 당태숨을 짚아는 것 같아서 사뿐 뛰어나리던 속속에 폭 파물힐 것만 같다. 금방이라도 뛰어나리 보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가 없다.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걸어간다면 一년을 걸지도 모르는 만리길을 단다섯시간에 날아간다는 것도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다.

「에아·쩐!」이 한구말과 영어로 통과지며 시속, 현재 의 시간 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훈한테는 또 이상해지던 것이다. 어떻게 인간들은 자기네만의 말을 따루 따루 가지고 있게 되었으며 그 다른 말로서로의 의사를 통하는가? 어느것 하나 허한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가 새롭고 신비하다. 훈은 비행기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또 이상해지던 것이다. 어떤 사람을 보아도 눈이 들에 귀도 들인데 모두가 코와 입은 하나씩이다. 눈에는 눈썹이 나고 코에는 구멍이 누구나가 들썹이요 입안에는 꼭같이 이들이 조욱 박혔다. 벗기고 보면

배꼽도 같은 것이오 발가락도 다섯개씩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삼십억이나 된다는 인간의 하나 하나가 어딘지 모르게 다 다른 것이다. 음성은 그만두고 하다 못해서 방귀 소리까지도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젖은채 혼은 구름, 바다, 바람, 사람들의 말소리에 신비를 느끼고 감탄을 하고 있다가 박군은? 하고 옆을 보니 석불처럼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이다. 잠이 든 것이 아님은 그가 무로할때 늘하는 버릇으로 왼쪽 아랫턱밑을 쥐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마치 그 무슨 티를 매는 형상이다.

『박군은 이 모든 신비에 조그만 경이도 안 느낄까?』
『혼은 이렇게 생각해 본다.』

혼이 아는 한 박군도 분명 비행기를 타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었다. 작년봄에 공군기로 사천까지 몇몇 문인 파교수들이 전학을 간일이 있었지만 혼도 그랬거니와 박군도 공교로이 상치되는 일이 갑자기 생겨서 동행을 못했던 것이다.

『비행기 한번 타볼랬더니 기원 놓쳐 버렸어.』
박한테서 혼은 분명 이런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그후 부산등지쯤 군용기로나 간 일이 있었던지는 몰라도 이렇게 장시간 여행을 하지 않은 것만은 혼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박군이 면서도 단한번 창밖을 내어다 보자는 말도 없고 지상이나 해상을 내려다 보려고도 않는다.

『수양의 덕분인지도 모르지...』

혼은 이렇게 생각했다. 박군은 과거 오년간이나 영오의 생활을 한 일이 있다. 복경을 중심으로 중경요인들과 긴밀한 연락을 하다가 발작이 되어 십二年 징역을 받고 일본 「나가사키」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해방이 되는 통에 겨우 석방이 되었던 것이다. 겨우 사십대에 접어든 나이로서는 한학에 관한 조예(造詣)도 깊었다.

『원 생각에 그리 깊숙히 잠겼소?』

혼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감동을 나누지 않고 전될 수 없어서 박군한테 이렇게 말을 전었다. 남이 들으면 유치한 감동이라고 할지 몰라도 혼한테는 그대로 「경이」였다고 「신비」였던 것이다. 그가 어렸을적 처음으로 동물원 구경을 갔을때나 진배없는 감동이 었었다.

깊은 공상을 방해당한 박군이면서도 그는 별로 불쾌해하는 눈치 같지는 않았다. 좋고 나쁜 감정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내어 보이지 않는 것이 그의 특징이기도 했다. 수양이라면 그것도 수양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은 역시 진치않은 눈치로

『내가 잠이 들었었나?』

혼자말로 증얼거린다.

『자긴 열성 육만 끌고 있던데 자?』

『그랬던가.』

열성게 웃고 만다. 그러고 나니 혼도 객적은 짓을 했
다 싶어져서 장난의 말로

『자유중국엘 가게 되니까 북경서 맺었던 로만스가 추
여되는 모양이지』

이렇게 농을 걸라니까 박군은 눈이 둥그레진다. 무심
코 한말이 그대로 들어 맞았던 것이다.

『아니 내가 혼장한테 그런 얘길 한적이 있었던가?』

혼장이란 혼의 별명이다. 성명인 장훈을 거꾸로 불
여서 좌난삼아 붙은 것이 벌써 십년내 별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혼이 학교에 관계하고 있다는데서이기도 했었
다.

『박형이 한적은 없지만 난 들은적은 있지. 거 「진소
저」 아니었수 꿈속의 애인 이름이지?』

물론 친부가 나오는대로 한 이야기다. 혼은 박한테서
그런 이야기 들은적이 없고 보니 더우기 이름을 알까
닭이 없다.

그렇지만 박군은 감개무량이었다.

『아, 진소서…… 진미연…… 아름다울 미자에 제비연……
아름다운 제비……』

마치 시나 암송하듯 한다.

『아니 그럼 정말 성까지 맞았나보오그러? 그렇지?』

『아니 그럼?』

『거참 허한한 일두 많구로. 만주서는 눈을 감고도 장
대만 후두르면 평이 잡힌다더니 마치 그적이 됐구로.

이야긴 언제 박형이 그런 이야기 빌치기나 했었소?
북경가서 청년시대를 보냈으니까 그런 로만스의 하나
들 짬은 있었겠거니 해서였지.』

『그럼 진소서란!』

『춘음성이 이가 아니면 박가라구 중국사람의 성이야 왕
가 아니면 진가겠기에 허청대구 해본 소리지.』

『허 별일두 많군. 아마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연의 합
치라구 하는지 모르지…… 허허허』

그는 이렇게 허망한 웃음을 웃더니만

『기왕 말이 났으니 우리 이야기나 하며 갈까.』

『좋지!』

혼도 맞장구를 치고 마침 옆을 지나가는 에아·결한테
위스키 한잔씩을 부탁했다. 이야기의 흥을 돋구기 위해
서였다.

一一

사람이란 메양 자기본의의 동물이다. 자기가 옳고 자
기만이 아름답고 자기만이 가장 장하니라 믿고 산다. 그

라면서 인간은 또 자기를 비판하는 맛에 사는 동물이기도 하다. 자기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리라 생각하기가 쉽다. 박군도 그랬다.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불행한 로만스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사상운동에 투신하면서부터 평론가가 되고 말았지만, 내가 소설을 쓸 줄 알았다면 정말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었을 것이요. 공으로 들어선 안 되요. 이 소설 고로만은 반반 나누어야 해. 약속하지?』

이런 서두를 해놓고 한 박군의 이야기란 항간에 얼마든지 데굴 데굴 굴러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였다. 하나 특수하다면 그것이 쿠내가 아니고 또 동쪽끼리의 로만스가 아니라는 것 뿐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것이 특징 될 것도 없는 것이 그 많은 일본유학생들 간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있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북경에 유학중인 한 조선청년이 모녀가 사는 집에 하숙을 했다. 그 딸이 아름다웠다지만 가까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처녀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처녀는 없는 법이다.

『그 진소저가 여간 날 따르지 않았거든……』

하고 박군은 그것이 무슨 큰 기적이거나 한 것처럼 이야기할 하고 있었지만 그런 경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려 부자연 할 뿐 조곰도 신기한 이야기도 아니다.

『언젠가는 내가 몸살이 나서 누워 있자니까 어느 틈에 가서 약을 지어다 다리가 되고 들어와서 눈물이 글썽해 가지구 먹으라는 거야.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꼈었다요. 소저의 애원에 못 이기어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 효과가 통나지 않았으면 했었지요. 병이 더 오래 끌었으면 싫었어……』

하고 박군은 춘향전 한권도 읽지 못한 사람처럼 진소저만을 내세우지만 애인이 없는데 약도 안 사다주는 여성이라면 무척이거나 그렇지 않음 악마였을 것이다.

『진소저는 나와 생을 같이할 것을 결심하고 우리 둘을 열심히 배웠었소. 처음에는 지렁이 처럼 그려놓고는 제라서 팔팔대고 웃더니만 한년지나더니 제법 편지도 썼고 간단한 말들은 애교삼아 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일이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일본 유학생들에게는 얼마든지 있던 이야기였고 춘원과 백남의 소설에도 나오는 장면이다. 아니 혼자서 그런 로만스를 갖고 있기도 했던 것이다. 「K코」라는 주인공 사촌이었다. 물론 「K코」밖에 없었고 보니 혼의 눈에는 둘도 없는 미인이었었고 결혼도 약속했고 보니 쿠문도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소설은 미엄 미엄 읽기도 했다. 그러다가 헤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로만틱한 추억이란 혼의 것이 훨씬 감격적이었고 정열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무사시노」별판의, 저 유명한 달밤의 「스스끼」발을 산책하던 일이며 「다마가와」강변에 나란히 앉아서 돌을 던지고 꿈을 그리고 사랑을 주고 받고, 웃고, 울고……. 얼마든지 있던 것이다.

그러나 박군의 「로만스의 크라이막스」만은 혼을 깊이 감동시켰었다. 어떻게 하면 우수한 성격으로 고문파스를 하고 취직을 해서 한몸의 영달을 누릴까에만 눈이 어두웠던 혼 자신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학생의 몸으로서 조국의 광복운동을 꿈꾸었다는 것은 확실히 박군만의 특이한 사실이 있었다. 꿈을 꾸는데 그친 것도 아니다. 그는 직접 운동에 참가 했었고 비밀결사의 맹원이었고 나중에 중경과의 연락원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 박군의 비밀이 발각이 된 것이다.

「몸들한테 체포되어 내가 압송을 당하던 날, 진소저는 어느 틈엔지 벌써 단정히 예복을 챙겨 입고 내뒤편 따라섰었소. 나는 진소저가 예복을 입은 의도를 잘 알았지요. 소저는 내가 보는 데서 마음의 혼례식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한마디도 교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소저의 눈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박선생 전 지금부터 당신의 아내입니다……」

여기서 박군은 잠시, 아니 오랜동안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이런 때는 대개가 눈을 감는 법이지만 박군은 눈을 똑바로 뜨고서 혼만 쳐다 보던 것이다. 박군이 자기의 본만이라도 일러준 것은 대륙에서는 오직 진소저 한 사람 뿐이었던 것이다.

얼마 후에야 박군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놈들의 차에 실리어 특무대 앞에 이르러서 놀란 것은 진소저는 어디로 어떻게 왔던지 벌써 정문옆에 와서 서 있던 것입니다. 중간에 오다가 한오분씩 두 건물에 들른 일은 있지만 자동차 보기가 힘들던 그때 어떻게 용케도 면제와 있었더라오. 나는 지금까지도 진소저가 나보다 특무대에 면제될 수 있었던 경로를 모르고 있지요.

「그럼 그후론 동?」

「만날 길이 있던가? 벌써十五년이나 되었군요…….」
「누가 아오. 다만 비행장에 딱 내리거나면 진소저가 손을 써 내어 밀든지……」

십오년된 일이지만 지금의 박이 당하고 있을 가슴의 통증에 동정이 가서 농경 이렇게 위로를 하려니까 박은 천천히 고개를 흔든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띠어 조용 조용 이렇게 말하던 것이다.

「그런 꿈이라도 남겨 주었다면 오직이나 좋겠소. 진소저는 그후 나를 한번 면회라도 해 보려고 왜현병과 접근한 것이 잘못 전해져서 간첩의 혐의를 받고 총살을

당했다고 들고있지요…… 그리고 보니 만五년간이나
나를 구출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지요…… 그 결과
총살형이구……』

三

「타이페이」 공항에 내리니 봄비 같은 가는 비가 부을
거린다. 영화 十五, 六도를 오르 내리던 서울을 떠난지
다섯 시간만에 이곳에 내리고 보니 완정히 봄 기운이
다. 서울의 四월중순 기후라 할까, 또는 추석 보름계 정
도의 흠도 덩도 않은 기후였었다. 다섯 시간 동안에 거
의 반년을 경중편 셈이다.

대만은 겨울이 없는 나라니까 여름옷에 파나마를 쓰고
가야 한다는 친구의 농담을 고지 듣고서 파나마를 비행
장까지 들고 나왔던 생각을 하고 혼은 자꾸만 웃으워지
던 것이다.

그런 귀뜸을 해주던 친구도 마침 전송을 나왔다가
『아니 이 사람 정말 파나마 말 쓰구 잘 작정인가?』

하고 꺼얼 꺼얼 웃어 대어서 혼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던 것이다. 파나마에 여름옷을 입고 나온 것은 혼한
사람 뿐이었다. 마침 전송 나온 차가 있어서 옷을 가져오
게 한다. 찢차속에서 갈아입는다. 법석을 땀던터라 혼은
지금 절후에 대한 관념이 전혀 뒤덤벼이 되어 있었다.

공항에서의 도에 지나친 환영대문도 있었던지 모른다.

「환영 한국교육, 문화방문단」이란 어마어마한 프랑카이드
앞에 모여섰던 백여명이 넘는 그들이, 우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물격부대처럼 기습해 왔었다. 프랑슈가 여름
밤의 만뎃불처럼 번쩍인다. 중, 영, 한의 세나라말이 한
데 마구 뒤섞였다. 대만에 있는 교포와 유학생 일단을
이였다. 우리 일행중에는 유학생들의 은사도 있었고 친
척도 있었다. 대사관에는 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악수, 합성, 꽃다발의 세례, 一십여명 기자들의 비빨치
듯하는 질문, 한동안은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적이었
었다. 이러한 중국측의 융성한 접대는 그들이 대만에 머
문 보름동안 한결같이 정열적이었지만 그것도 외국사절
단이니 환영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라기 보라도 수천년
동안 친교를 맺어온 국가간이었으니만큼 마치 운명에
희롱되어 본의아닌 이별을 해온 가족들을 맞는 그런 정
성이였었다. 수천년간 같은 글을 쓰고 같은 풍습에 같은
도덕과 같은 학문을 닦아 오고 있을 뿐이 아니라 二차대
전의 종전을 계기로 다 같이 공산주의라는 세기적인 괴
물한테 들볶이다가 하나는 그 큰 대륙을, 또 하나는 국
토의 북반부를 지키한테 내어주고 있는 동병상련의 정의
도 있던 것이다.

어쨌든 혼은 一생애를 통해서 처음 받아보는 융성한 대

접이었다. 호텔에 들어 복욕을 하고 찬과인쥬스를 한 잔들이키기까지도 이 한시간 동안에 겪은 혼란이 꿈속 일 같기만 했다. 호텔 봉투를 보고서야 『참 내가 중국에 왔지』 했을 정도다. 복욕을 하고 나오니 벌써 다음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무장관 예방에 뒤이어 장관초청의 만찬이 있다. 대만이라면 고사족(高砂族)과 그들의 원두막 같은 주택, 파나나——이런 정도의 지식밖에는 왜놈들한테 물려받은 것이 있었던 혼은 먼저 요리점의 규모에 놀랐고 전 중국의 학자, 교육가 예술가의 거물들만의 주최측 성의에 놀랐고 말로만 써오던 「산해진미」에 기암을 할 정도였다. 역시 전통이 있는 대국이란 인상이 있었다. 접대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혼은 처음 경험했다. 열시나 되어 숙소에 돌아온 때에는 파김치처럼 피로해 있었다. 복욕은 고사하고 자러 옷갈아입는 것만도 대전스러웠을 정도였다.

四

명부는 「교육, 문화, 사절단」으로 되어 있었지만 스케줄을 보니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전반에 걸친 시찰이었다. 예방만도 십여곳에 초대요, 만찬이 스물다섯 번, 산업기관 시찰이 여섯군데, 교육기관이 여섯 학교, 육, 해, 공군, 농촌에서 사이 사이에 티·파티, 좌담

회, 장학회, 원고의뢰——이 빈틈없는 스케줄에 정신없이 날이 갔었다. 그것도 대부한 도시만이 아니라. 비행기로 가다가 하면 장거리 자동차여행이 있었고, 기차도 타야 했다. 대중, 대남, 고옹, 일월담 등 남쪽으로 돌아보면 이른날은 북부 끝인 기룡이었다. 정말 숨 돌릴 겨를도 없는 여행이었다.

이렇듯 공적인 일만에도 눈, 코, 뜰 사이가 없는 데 박군은 또한가지의 사무까지 있었다. 대만에는 대륙시대의 요인은 물론 저명한 학계, 교육계, 문화계의 거물들이 겨울 미꾸리처럼 한곳에 모여 있어 그중에는 북경대학시대의 은사로 있었고 동창도 있었다. 그런 친구들을 찾고 맞고 해야 했다. 말 풍속 기타 여러가지로 도음을 받기 위해서 혼은 박군과 한방을 쓰기로 했던 터라 혼도 완전히 박군과 행동을 같이 해야만 했던 것이다. 남의 나라 국민으로서의 예의절차를 차리자니 신경도 몹시 썩어진다. 거기에 언어불통까지 덮치니 영어단어, 필담, 표정——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자니 몇갑절 피로했다. 그러다가 열한시나 되어 겨우 해방이 되어 누웠으랴면 누크다.

『박선생…… 손님 오셨읍니다.』

모두가 십五年만에 만나는 사람들이고 보니 친구의 수면부족쯤 개의할 마음에 여유가 생길 리 없다.

『아 이게 누구요? 몇해만 오! 죽지 않으면 만나누구
보.』

약수가 아니라. 그대로 포옹이었다.

『남아하쳐 불상용……』

너무 잠적해서 박은 옛날 서당에서 처럼 소리들 내어
읽기도 한다.

『그때 말이요——』

이렇게 십오년전으로 돌아가면 이야기가 끝이었다. 십
오년이란 공간을 이 짧은 시간에 메꾸어야만 하는 것
이다.

그러니 혼의 피로나 잠잠 문제가 아니다. 혼도 그랬다.
옆에서는 극적장면이 벌어졌는데 태화탕처럼 잠만 꿀꿀
잘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다툼 보내고 나니 혼은 피로할대로 피로하고 말
았다. 좌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듣는데 보다 엄습해
오는 잠과 싸우기에 더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어느날 저녁—— 이라야 열시가 다 되어서였다.

마침 박이 북경대학 시대의 동창생으로부터 초대를 받고
나가서 들어 오지 않고 있었다. 혼은 구원이나 받은 듯싶
어 무욕을 하고 막 자리에 들었는데 또 푹푹 누크다. 짜
증이 났다. 그렇지만 그럴 도리도 없다.

『들어 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 온 것은 보이었다. 손에 쪽지물 하나
들었다.

『아니 이 사람이? 부인네 지?』

서투른 영어였다.

『에스, 에스, 에스! 마담! 마담!』

보이가 더 신바람이 나서 수선이다.

뜻밖에도 그 쪽지에는 다음 석자가 써어 있던 것이다.

『진 미연——』

확실히 총살을 당했다고 들은 진소저가 살아서 찾아온
것이였다.

『진 소저!』

혼은 자기 애인 이름이거나 한 것처럼 이렇게 입밖에
까지 내어보고 밖으로 나갔다. 삼십四, 五세의 부인이다.

『박선생을 찾아 오셨습니까?』

『네.』

『그럼 저 북경시대의 진소저 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잠간 들어 오시지요. 난 박선생의 친구입니다. 동창
생과 나갔는데 못 들어오리라 생각 됩니다.』

혼은 진소저를 방으로 안내했다.

『피곤 하실텐데 방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은 천만에. 어서 들어와 기다리시지요.』

박군이 그렇게 일찍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진소
 저를 문관에서 그대로 돌려 보낼 수는 없었다.

『일본말 하십니까?』

『네 조금은——』

하고 웃는다.

훈은 할 수 없이 일어를 써 보았지만 진소저의 일어는
 훈의 영어만도 못했다. 일어, 영어, 필답—— 이런 구차
 한 방식으로 훈은 진소저가 총살형을 받기 직전에 뜻밖
 에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가 나타나서 오해가 풀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소저는 눈 한번 흐리우지 않
 았다. 무섭게 앙그라진 여자나라 싫다.

열한시가 지나자 진소저는 자리를 일어섰다.

『난 상관 없으니까 좀더 기다려 보시지요. 진여사를

그대로 보겠다고 박군이 야단을 치면 어쩔니까?』

훈이 이렇게 권하니까 그럴듯이 듣는상 싶더니 역시 일
 어선다. 그는 내일 아침이 고 저녁에 다시 오겠다는 것이
 있으나 이튿날은 아침 여덟시에 대남으로 떠나게 되어 있
 었다. 대남 일대를 보고 사흘만에 다시 대북으로 돌아오
 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아침 일찌기 오겠다고 기
 어이가 버린다.

박군이 돌아온 것은 한시가 지나서였을 것이다. 자리

에 눕기전에 간단히 써 놓고 잠이 들었다가 박이 잡아일
 으키는 통에 질점을 해서 일어났다.

『뭐타구! 뭐타구!』

주기도 있었지만 마치 실신한 사람이다.

『아니 진소저가 살았다구! 진소저가? 지금 박 진소
 저가 죽은게 확실하다는 이야길 들구 온 길인데 진소
 저가 날 찾아왔단 말이지?』

통 믿이지지가 않는 모양이다. 그는 꼭 같은말만 되풀
 이 하면서 방안을 분주히 걷고 있었다. 그통에 훈도 아
 주 잠을 설치고 말았다. 박군도 얼마 후에는 자리에 들
 기는 했지만 통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잠이 울리
 없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둘은 뜬눈으로 새고 말았다.

五

날이 밝기전부터 박은 훈을 들거울터 깨우고 방을 소
 제시키고 범석을 했으나 일곱시 반이 되도록 진소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늑름하던 티도 없이 초조해하는 빛
 이 얼굴에도 나타난다.

『나 고응은 그만 두겠어!』

이런 소리로 꺼리낌없이 하고 있다.

주희축에의 체면도 체면이거니와 첫째, 박군이 이번
 멤버중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를 박군도

아닐 것이다.

물론 단장은 아니었지만 「중구 통」이었고 또 중국어에 가장 숙달한 것이 박이었기 때문이었다. 주희측에서도 모든 것을 박과 상의를 해오던 것이다.

「나 고응은 그만 두겠어.」

「아니 당신이 돌아오구로.」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닌 것을 알자 혼도 어이가 없어
쳤다.

「돌진.」

「그럼 돌아오지 필요. 나 같은 사람이 빠진다면 몰라도 당신이 빠지면——」

하는 말에 박군은 성을 벌켜 내고서

「그러시구로. 그럼 당신이 진소절 만나구로!」

이쯤이면 또 좋았다.

「말두 모르면서……」

이런 소리까지를 태연히 하는 그날의 박군이었었다.

끝내 진소저는 나타나지 않았고 박군도 일행에서 떨어져
지지 못했다. 첫째, 단원들이 맹렬히 반대를 한 것이다.

박은 주희측에도 그런 의사를 비취 보았던 모양이다. 주
희측에서 좋다 할 리가 만무였다.

이날부터의 사흘간이 얼마나 박군한테 지루했던가는
그의 짜증으로 짐작이 된다. 태화탕처럼 늘어지던 박군

이었다. 비락이 멀어져도 눈도 짐벌 앓을 박군이였다.

그의 성질이 얼마나 녹진가는 六·二五때 변연히 남하
한 기뢰가 있었지만 반죽이 녹진 탓으로 서울에서 三개
월을 치렀으니 一·四후퇴에는 서둘렀어야 했을 것이었
다. 그러나 一·四후퇴 때도 맨 마지막 떠난 것이 그들
동료중에서는 박군이었던 것이다.

그런 박군이 마쳐어린애였다. 대남, 대중, 고응, 一대
의 교육, 산업 시설을 시찰하고 일월담에서 하루를 묵고
났을 때는 박군은 보기에 딱하리만큼 초최해 찼었다. 그
날밤은 달까지 밝았다. 열이엿달이었다. 구라파나 미
국어느 명승지의 관광호텔을 연상시키는 일월담 호수가
의 근대식 호텔 발코니에서 박은 혼자 「금문도」 소주를
마시며 새우뚝 싫이 했었다. 보다 보다 못해서 혼이 떠
살을 잡아 끌다싶이 해서 겨우 들어오게 까지 했던 것
이다.

이런 박군이었고 보니 대복으로 돌아와서는 진소저를
기다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가 된 것은 무리가 아니
다. 정발 피치 못할 회합 이외에는 두통을 빙자하고 호
텔에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어쩔일인지 「진소저」는 전화 한번이 없던
것이다.

「아니 그래 이상반아 나이 五십이 넘은 양반이 고만

생각도 못한단말요!

하루는 밖에 나갔다 오더니만 혼한데다 이렇게 들어
된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진소저의 주소도 알아 두지 않
았다는 것이다.

『내일 아침에 온다는 사람 주소 알아서 뵈하겠소!』

혼도 별척 소리를 높였지만, 실은 혼이 그런말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연락장소라도?』

하는 말에 진소저는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마치 거북해 하는 눈치였던 것이다.

혼은 그런 경과까지도 박한데 보고를 했을 세음이었다.

『진소저가 총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박군한테 했다는
그 사람을 찾아보지?』

딱해서 하는 말에

『죽은줄 아는 사람한테 뭘 알아 보라는 거요? 화장장
명부를 두저 보란 얘긴가? 그때 번연히 이렇게 될줄

알면서 주소하나두 안 적어 두다니요!』

이것은 정말 생트집이다.

『아니 박군! 그게 어떻게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
던 말이오?』

터무니가 없어서 한 소리였다.

그렇건만 박군은 태연하게

『그대 소설을 쓴다는 양반의 눈이 그렇게도 무디단말
씀요? 취한번 보기만 해두 짐작이 가지 않느냐 말에

요? 현재 환경이 외로운지 괴로워 하는지 주술 숨기려

는 눈치지 그걸 그때 눈치 채지 못했단 말요? 그러니

까 당신 소설이 그조야……』

『말 조심 하라구!』

혼도 언성을 높이었다.

그러나 박도 지지 않았다.

『관찰력을 가져요!』

하마트면 두잡이라도 놀렷했다.

그러는 동안에 한장 한장 스케줄은 넘어갔다. 앞으로

일정은 떠나는 날까지에 사흘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동안에도 소저한테서는 단 한번 전화연락도 없었다.

알만한 친구, 동창, 낯이 익어진 몇몇 고관한테까지도

진소저의 행방을 찾는 모양이었으나 누구하나 아는 사람

이 없었던 것이다. 벌써 박은 시찰을 위한 시찰이 아니

라 혹시나 진소저가 나타나 출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위

한 시찰이었다. 대만 신문에는 그날 그날의 일정도 발표

가 되었거니와 그날의 행정도 이른날이면 보도 되고 했

던 것이다.

진소저가 만나려고만 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던 것이
이다.

「금분이 난젠가?」

「바은 이런 소리도 했다.

「이사람이? 병이 났기루니 전화두 못한단 말인가?」

「의식을 잃었으면 그럴 수도 있잖소?」

사람 앞에서는 사람은 열마든지 영리해 질 수도 있지
만 또 열마든지 어리석어 질 수도 있는 모양이었다.

「기름」의 하루 일정도 끝나고 금분도 전선 시찰만 마
치면 이른날 아침에는 대만을 떠나야 했다.

박군은 금분도를 따라 가느냐 마느냐로 밤내 고민을 하
는 모양이었다. 주희측 사람말이 지금도 적의 포탄이 매
일 수십개씩 날아든다 했다. 혹시 안 간다면 포탄이 무
서워서 떨어졌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금
분도만은 일반 사람의 여행이 금지되어 있으니만큼 그의
시찰목적의 전부처럼 되어 버린 진소저와의 해후는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지금의 박군한테는 진소저가 나타
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금분도 시찰이란 전혀 무의미한
노릇이었던 것이다.

갖은 핑계를 해서 박군은 호텔에 남기로 했다. 대만에
서의 마지막날을 가만히 누워서 진소저에 대한 추억으로
보내려다 했을 것이다.

흔 등의 금분도에서 돌아온 것은 저녁 일곱시였다. 일
곱시에 비행장에 내리는 길로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일
정이 끝났으므로 작별 만찬회가 있었던 것이다. 예의 우

람수려운 「일본관점」이 있었다. 정치, 경제, 문화, 방공
진반에 걸친 교류, 친밀을 강조하는 회합이 있었다.

흔은 그날만은 술도 마음놓고 많이 마시었다.

회가 끝나자 대사관 「문영사」한테 카바페르 끌러 갔
다가 한시가 지나서 호텔에 돌아오니 박군은 옷을 입은
채 침대에 큰대자로 잠이 들어 있다. 취한 정도가 아니
라 그대로 알뜰에 걸린 것같았다. 혹시 괜사해서 살며시
베개를 베워주고 흔은 자기의 이불을 덮어 주었다. 이불
을 덮다 보니 자리밑에 편지 한장이 깔려 있다. 무심코
집어보니 이런 문면이다.

「역시 만나 뵈지 않는 것이 저의 지금의 불행감을 덜
어주리라 믿고 단념 키로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도
그러면 원로에 안녕히 돌아가소서. 미연」

단지 이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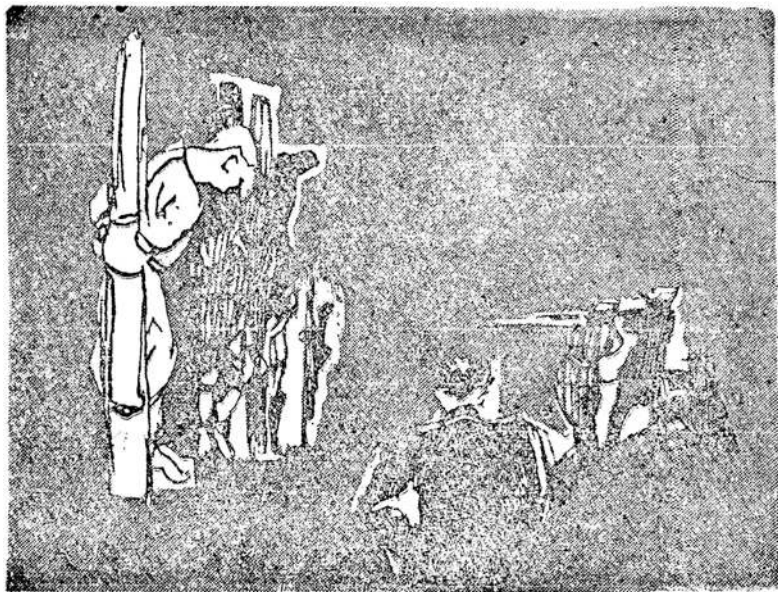
이튿날 예정대로 비행기는 「타이페이」를 이륙하여 귀
국의 도에 올랐다. 맨 마지막으로 비행기에 오른 것은
물론 박군이였다. 임구에서 최후로 손을 흔들다 말고 박
은 새다다리를 되 뛰어 내리려다가 탑승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명칭하니 서있다.

진소저를 그때서야 전송객 속에서 발견한 것이였다.

「어서 타십시오.」

「에어 편」의 재촉에 못이거여 들어서자 문이 덜컥 닫
힌다. 이어 발동이 시작 되었다.

박군의 심장은 정반대로 고통이 멈추어졌을지도 모
른다.



△小 說▽

노을이 쓰러질 때

孫 素 熙

1536

1950년 6월 27일 밤이다. 끊임없이 울려오는 대포소리에 뒤를 이어 사망에서 기둥들이 들썩 들썩 흔들리고 덩달아 창이란 창과, 문이란 문은 와르릉 와르릉 하고 울어대기에 바깥 지경이었다.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걸들여 새까만 공간에는 비바람이 출기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은경이는 이불과 자리들을 있는대로 부엌바닥에 깔고 아이들을 차례로 눕혀었다. 호순네도 기어코 이층에서 불러 내렸다. 삼만해도 아랫층보다 윗층이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문이다.

「아즈머니 인제 좀 산것 같아요, 이층에선 꼭 죽는 것만 같더니요.」

은경의 성화에 이부자리들을 있는대로 깔고 내리외 부

얼바닥 한켠에 그것들을 깔고 들어 누워서 하는 호순네의 처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내려 오랬지 뭐요.」

「호순 아버지 때문에 그랬지요, 선생님이라면 모두 어떡하시다가, 그냥 좀 더 이층에서 전디어 보자구 하잖아요.」

「원 별소릴 다 하는군 어렵진 뭐가 어려우? 이런 덴 모여 있어야 겁두 덜나구 서로 힘이 돼서 좋은데.」

「정말 그건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은 방에 계신가요.」

「이부자리루 유리문을 막구 앉아서 잠이 무너지나 지킨다더니, 지금 아마 안 계실거야, 망보러 밖으로 나간냈으니까, 호순 아버지는?」

「호순 아버지두 나가구 없어요.」

금시에 지붕을 뚫고 대포알이라도 쏟아져 내릴것만 같아 두꺼운이불 속에서 밤을 벨벨 흘리며 간신히 얼굴을 내밀고 여지로 말을 주고 받고 하는 그들 들레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무서움처럼 휘덮여 있었다.

이때였다. 밖에 나갔던 은경의 남편, 석하가 뛰어 들어왔다. 말인즉 밀려가는 국군을 따라 남대문까지 갔다가 돌아 왔노라는 것이다. 국군이 자꾸 남쪽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보니 서글프고 불안해서 따라 갔다는 것이다. 따라가다 생각하니 은경이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고

생에 전디어 내지 못할 것만 같아 되돌아 왔노라는 것이다. 그러나 쌀 몇말만 준비한 것이 있어도 그냥 가 버렸을 것이라고 하였다.

「아이구 맘시사, 그렇게 소리두 없이 혼자만 가 버렸으면 난 아주 꿈작없이 죽었을 거야.」

하고 이불 속에서 머리를 쳐들고

「집과 세간들을 두고 가다니 어딜간단 말예요? 사내들이란 참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인가봐... 인제 곧 국군의 반격이 있을 것 안에요?」

하였다.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걸릴지도 누가 알아?」

「.....」

하는 석하의 혼자말 같은 질문에 은경이는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님 저 우리 호순 아버지 밖에 없던가요?」

하고 호순네가 묻는다. 어두워서 잘 모르기는 하겠으나, 골목 앞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석하의 대답에

「아이고 우짜요? 국군하고 함께 가버린진 아니겠지요.」

하고 또 일어나 앉는다. 호순네는 경상도 태생이긴 하였으나 여태동안 서울 주변에서 살고 있었으니 만치 비교적 사투리가 거세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급한 경우에는 몇마디씩 사투리가 뛰어 나오곤 하였다.

「모르긴 몰라도 대체로 안짱을 거의다.」

석하는 이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좀 뒤였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호순 아버지의 발자취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현관에서 안방 쪽을 향하여,

「여기들 내려 왔나요?」

하고 물었다. 그렇노라고 호순네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한즉, 자기는 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이다. 부엌 문에다 첩첩히 담요를 치고 있었던 판계로 은경이네는 날이 밝는 줄도 모르고 그냥 부엌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사이 석하도 「오시이께」 안에 서 잠깐 잠이 든 모양이었다. 이때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마구 두들겨 대더니 날이 다 셋는데 왜들 이려고 있느냐고 고향을 질렀다. 은경이 조카의 목소리였다. 그제서야 은경이네는 이불 속을 빠져나와 식구대로 집 앞 길목에 서 있었다.

아스팔트의 길 위에는 탱크의 바퀴자국이 무수히 패어 있었고 전선이란 전선은 모조리 끊기어 전선대 주변에 가득 가득 흩어져 있었다. 마치 머리 술이 많은 피물이 그 많은 머리 술을 한가닥씩 느르르리고 앉아 하루밤 사이에 변해버린 처참한 서울의 모습을 조상하는 듯,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애석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떨게 하였다.

탱크는 그제도 하나 둘 지나갔다. 그리고 누더기같이 현 옷을 걸친 피뢰병사들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은경이네

헤에 입을 벌린채 아이의 손목을 쥐고 서 있는 남편을 돌아다 보는 순간, 끊기어 들어진 전선줄 모양 팔다리가

매시시해지며 전선이 온통 무엇에 얻어 맞은 듯 맥이 풀리는 것을 깨달았다. 은경이네는 다시 길 저편쪽을 바라다

보았다. 문과 창은 온통 첩첩히 닫혀 있는데 골목에서 서 행길을 내다 보는 사람이나 행길까지 나와, 어실프고

낯선 풍경을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모두들 꼭 같이 표정 두 말두 잊은 듯이 그저 그렇게 서서 행길 앞을 지켜 보

고 있었다.

은경이네는 남편의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때마침 이층에서는 무엇을 잔직하는지 못박는 소리가 요란스레 울려 왔다.

그날 저녁 무렵이다. 호순 아버지가 쌀 한가마를 들여 오는 눈치더니 호순엄마의 말인즉, 피뢰군 트럭이 고장 난 것을 고쳐 준 보수로 받아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뒤 이어 자기는 그만 냇이 빠져 버려서 앞으로는 도저히 안 집(은경이네) 부엌일은 볼 수 없노라는 것이다.

다시 그 다음날이다. 호순 아버지가 반에 반장이 되었다고 호순네가 웃으며 말했다. 참 잘 되었다고 한 집안 사람이 반장이니까 아무래도 남보다야 나을 것 아니냐고

은경이도 이것을 여간 다행으로 여기지 않았다.

호순네는 두해전부터 은경이네 윗층 두칸짜리 방에 서 살고 있었다. 본래 호순 아버지 직업은 트럭 운전수였다. 그러나 군에서 트럭 운전수를 기술자로 징집한다는 소문이 돌게되자 그는 즉시로 운전수 노릇을 그만두고 놀았던 것이다. 식구라야 컷먹이인 호순이까지 셋뿐이니 당분간은 그대로 견딜 수 있으리라는 계산인가 보았다. 그러나 막상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보니 생계가 막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방세 대신 자신이 은경이네 부엌일을 보면 어떠냐는 것이 호순네의 의견이었다.

이리하여 호순네가 은경이네 부엌 일을 보게 된지도 벌써 한해 가까이 되었고, 호순 아버지가 무직으로 세월을 보낸지도 어느덧 한해하고 다섯달이나 되었던 것이다.

그래도 가끔 호순 아버지가 묵돈을 들여오는 눈치기는 하였다. 말인즉 때로는 남의 대리 운전도 하여 주고, 또 고장난 차를 고쳐준 보수로 조금씩 얻어 온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호순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놀고 있다고 이웃에서는 모두들 걱정을 해주었다. 본래 사람됨이 말수가 적고 무던한데가 있는 때문인가 보았다. 더우기 은경이는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남편을 보고 수위로라도 좀 취직을 시켜 주라고 졸랐던 것이다.

「나이기도 삼십을 넘었으니 징집되어 나가기 싫겠지 뭐

애요!」

하고 그녀는 호순 아버지를 두던해 가며 남편에게 그의 취직 알선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자리관계로 취직도 여의하지 않은채 호순 아버지는 그대로 놀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 호순 아버지가 피뎌치의 동회에서 선출된 반의 반장이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무산자의 조그만 대표자로 임명된 것이다. 그의 반장으로서의 첫 과업은 그릇과 술가락을 공출 받는 일이었다. 은경이는 술갈과 양재기를 호순엄마에게 전내며 호순네가 반장이 되어 여간 편하지 않다고 거듭거듭 치하했다. 호순엄마도 방그레 웃으면서

「아무개도 아주먼네게 해되는 일이야 안하겠지요.」 하고는 좀 더 현 양재기를 골라보라고 하였다. 뿔여지지만 아니하면 그만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 꼬마였다. 그런 인정다운 말 한마디나마 다른 사람들이 반장이었다면 들어볼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다. 다음번에 무슨 동원인 가에 나오라고 했다. 그것도 호순네에게 사정을 하고 돈 오백원으로 무사히 해결을 지웠다. 다른 집이면 절대로 안되지만 안집 부탁이니까 그렇게 둘러맞쳐 보겠노라고, 쾌히 승낙을 하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반장덕을 톡톡히 본다고 은경이는 남편에게 호순네 꼬마

음을 치하하기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열흘쯤 되었다. 연필을 귀뿌리에 꽂은채 무슨 종이장
을 펼쳐든 호순 아버지가 「이 석하」라는 문패를 눈여겨
보며 은경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근무처와 소속단체를 동회에서 적어 오라는 데
요」

은경이는 잠시 반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가

「근무처는 그저 거기구 소속단체는 과학자 동맹이라나
보던데」

한즉, 반장은

「요즘 안나가지지 않아요?」

하고 이맛살을 찌프리고 힐끗 은경을 바라다 보더니,

「과학자 동맹이라는 것두 있나요. 꽤나 잘못 적어 가면
반장이 혼납네다.」

하고 머리를 비끄는 품이 몹시 의심스럽다는 눈치였다.

「그럼 있지 않구요. 의사랑 약제사랑 그밖에 과학부문
사람들이 모두들 나가나 보던데」

은경이는 어쩐지 후두두 가슴이 떨렸다. 그녀는 그 후
두두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기 위하여 호순네에게 했고
추장 한 단지를 퍼서 주었다.

석하는, 처음 사흘동안은 직장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전과 다름없이 병원에 나갔다. 덕분에 피뢰군이 발행한

신문 증명서 한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신문 증명서
를 얻어 권석하는 다시 병원에 나가지 않았다. 그대신
잠깐 거리를 기웃거리 보기도 하고 처가에 들러서 한 두
시간 보내기도 하다가 곧장 집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속
으로는 전전긍긍 하면서도 길으로는 태연하게 이웃간에
도 꾸며냈다. 그 무렵의 어느날 아침이다. 은경이는 오
래간만에 이층을 소제할양으로 먼지떨이와 빗자루와 쓰
레받기를 들고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층에는 예
상하지 아니하였던 이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
것은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랐다. 은경이네 응접실로 쓰고
있던 남향 네간짜리 방에는 호순네 이부자리가 모조리
 옮겨져 있고 북향 세간 방에는 너저분한 호순이 기저귀
와 장난감들이 마구 널려져 있었다. 다만 취사 도구만이
그전 자기네 방에 놓여 있을뿐, 호순엄마와 호순이는 남
향 방 마루에 앉아 있고, 호순아버지는 남향 방 한 가운
데 큰 멧자로 드러누워서, 조반뒤의 식곤을 푸는 한잠을
달게 자고 있었다.

「덜다코 호순 아버지가 한 이틀째 여기서 지냈어요.
아침마다 회의를 한다고 다섯시며는 나가니까 잠을 옮겨
못자요, 그때 아침되며는 저렇게 한잠씩 자는 거래요.」
하고 호순엄마가 열जे게 웃었다. 은경의 가슴은 이러한
뜻밖의 사태를 발견한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그저 뒤고

있었다. 그럴뿐 아니라 무슨 죄를 저질른 사람모양 여지
로 웃음을 짓고

「터 놀기 잘 했구려, 요즘같이 더운때에 편히 놀던 어
른이 동원이니 공출이니 하는 일 때문에 주야로 쫓아
다녀야 하니까, 오죽이나 고단 할까, 게다가 아침이면
꼭 두 새벽에 일어나서 회의에 나가야지, 찻찻……: 아
이구 참 파리가 있구려, 약이라도 좀 뿌려 드리구려,
아랫층에 파리약 들은 뽀뿌가 있따우!」

미운놈 딱 한개 더 준다는 격으로 집과 울화를 삼켜가
며 은경이는 종도록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 동회에서 아주 먼배 배급 쌀 좀 타다 드리랬더니 선
생님 직장 배급이 있을게라구 그러드군요!」

호순네는 파리약을 얻어다 쓰겠노라는 말 대신에 동만
지 같은 생색을 내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이다. 석하는 어쩐지 집에 있기를 불안 하다면
서 은경의 친정에 가서 숨어 있겠다고 하였다. 아는 두
기에 발등을 찍힐 수도 있는 법이라고 부연도 했다. 그
러나 아이들하고 은경이만 있는 것도 역시 불안하여 석
하대신 은경이는 자기의 조카를 집에 와서 있게 하였다.
은경의 조카 역시 의과 대학의 학생으로 처음 한 이삼일
간 학교에 나갔던 덕으로 위생 요원이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가졌던 것이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이층 호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어서다. 현관문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스레
났다. 은경이는 침착해야겠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루
에서 자고 있는 조카에게로 갔다. 조카는 깊은 잠에 덜
어저 있었다. 은경이는 우선 한손으로 조카의 입을 틀어
막고 다른 손으로 조카의 귀를 잡아 다녀서 잠을 깨
웠다.

「애 얼른 마루 밑이든지 마루 밑 합실에라도 숨어라,
아니면 독안에 들어가 있든지,」

하고 잠을 깨 조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조카의 야광
시계는 정각 열두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소리가 날텐데!」

「그럼 저 앞 담장을 넘어서 달아나 보려무나, 넌 잡히
면 큰일야, 학생인데다 아저씨 대신 잡혀가는 것두 문
제구……!」

「그렇지만 밖에 온 사람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지 않아
요?」

「누구긴 누구야, 이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누굴 수 있
겠니, 어서 달아나 쥐, 벽돌 담이니까 넌 녀히 넘을 수
있을거야!」

「문 소리를 모를나구? 그러구 이집 식구가 뱃으로 등
륙이 됐을텐데 식구 하나를 내 놓라면 어떻게 해요?」

「……그야 병원에 가서 숙직을 한다면 되겠지」

「아냐, 고모, 어쨌든 누가 쫓아서 왔는지도 몰라, 그러되면 병원에도 두 조사 갈거야…… 조사해 보구 없으면 고모가 잡혀 갈거야…… 그러다간」

밖에서는 좀 더 세차게 문을 두들기며

「문 열어요, 여보세요!」

하고 끊임없이 독촉이였다.

「고모, 얼는 문을 열어요, 고모가 잡혀가면 애들 까단 데 더 야단이지, 차타리 내가 잡혀 가는 편이 나을거야…… 혹시 운수 좋으면 이 증명서 두 무사할지도 모르구」

은경이는 험용할 수 없는 참담한 심경으로 그녀나 지금히 줄리는 음성으로 문고리를 잡고 누구냐고 하였다.

「보안서에서 왔어요. 얼른 문 열어요, 문」

밖에서는 여전히 문을 두들기며 발을 굴러댔다. 보안서에서 오밤중에 무엇하러 왔냐고, 또 혹시 보안서원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이라도 시간을 얻기 위하여 은경이는 시침이를 따고 도랑도랑 말뚝이를 했더니

「러허, 요즘이 어떤 세상인줄 알구 합부로 대결이질이요, 얼른 문 열어요, 문」

하고 다시 요란하게 문을 두들겨 댔다. 문을 열었다. 저우의 사자라도 하는 수가 없다고 입을을 깨물고 들어오

는 사람을 바라다 보았다. 소총을 메고 정복을 입은 보안서원 한 사람과 전에 분명히 뵈충 호순네 집으로 놀러 오군 하던 청년 한 사람이 문 앞에 들어섰다. 그들은 조그만 접시불을 치켜, 은경의 얼굴을 비춰보며 숨겨둔 사람이 있나,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족이 몇이나, 어디 나가느냐 하는 따위 질문을 하면서 은경이네 아이들을 비춰보고 조카의 가짜 증명서를 자세히 불에 비춰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둘이 다 글눈이 어두운 모양으로 자기들 편에서 그냥 어물어물해 버리고는 이층을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은경이는 깊이 숨을 마서가며 이층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남향 방에는 호순 아버지가 그제도 잠을 자는 채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안서원들은 그렇게 잠을 자는 채하고 있는 호순 아버지를 보고도 누구냐고 묻지조차 않았다. 다만 접시불을 쳐들고, 방 구석과 오시이레 속만을 전성으로 뒤져보고 나더니, 군소리 없이 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밤을 계기로 하여 비록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경계를 게을리 말아야겠다고, 은경이는 좀 더 조심할 것을 명심했다. 그럴뿐 아니라 호순네의 비위를 맞추는다고 애를 썼다. 아닌게 아니라 그무렵부터 차츰 호순 아버지 입버릇도 나빠져갔다.

「흠, 그렇게 옛말에 열흘 붉은 꽃이 없다더니, 전에 동당 거리고 잘 살던 사람들은 혼살나는 세상이 온거야, 어떤 늙은 한잔 방도 없는가 하면, 어떤 늙은 집을 몇채씩 가루채 가지구 있었으니까.」

하고 은근한 눈짓으로 은경의 표정을 살피며 비꼬기가 일수였다. 한번은 잡자코 들고만 있기가 먼구스러워

「누가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하고 은경이가 오금을 박아 주었더니 그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단 두세식구가 방 네댓씩이나 되는 집을 독차지하고 살던 사람들 하고, 같은 두세식구가 조그만 방 하나에 처박혀 살던 사람들 하고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편이 잘 살았나 알 수 있지 않아요?」

하고 밋살스럽도록 은경을 쳐다보며 반문하는 것이었다. 은경이는 왈카 역증이 났다. 그러나 참아야 했다. 아님께 아니라 호순 아버지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은경의 속에서는

「그야 뭐 어느 사회엔들 그러한 현상이 없을 나구요, 왜 호순 아버지는 그전엔 잘 못 살았나요? 내가 보니 호순 아버지 팔자 종계 놀구만 지내시던데」

하는 따위 가슴속에서 끓고 있는 말들을 내뱉지도 못하고 다만

「그런 세상에선 그저 그렇게 살도록 마련이겠지요.」 하였다. 호순 아버지는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밤에 동원을 나갈 차례라고 했다. 은경이는 좀 전에 시계를 팔아 온 돈 중에서 오백원을 주며 또 부탁한다고 했다.

호순 아버지는 머리를 흔들며 인제부터는 팔백원을 주어도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다시 은경이가 내민 팔백원을 받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알다싶이 동원 나갈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재삼 부탁을 했다. 그럼 동회에 나가 알아 본다고 나가더니 이내 되돌아와서 꼭 사람이 나가야 한다고 도로 돈을 돌려주는 것이었다. 은경이는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친정에다 맡기고 동원을 나갔다가 밤이 들기를 기다려 중간에서 도망을 쳐 친정으로 돌아왔다. 밤도 친정에서 밝혔다.

이튿날 아침이다. 은경이가 집에 돌아왔더니 호순네가 아랫청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이층에서 밥을 지으니 파리가 펄뽀뽀 울음냄새에 입맛이 가신다고 호순 아버지가 짜증을 낸다는 것이었다. 은경이는 잠자코 호순엄마의 입 언저리를 바라다 보고서 있다가, 그렇거라고 날씨가 더운데 진작 아랫층에서 지을 것을 그랬다고 혼연히 대답했다. 호순엄마는 해서시 웃으면서

「인제 며칠 있으면 모두들 소개를 해야 한대요, 워낙 폭격이 심하니까 서울엔 아주 일꾼들만 남는다나 봐요」

하였다.

「소개라니」

은경이는 놀라는 눈치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심상한 표정으로 나직히 물었다.

「짐을 비우고 온통 시골루 가는건가 봐요.」

「그럼…… 호순네도 가나!」

「……우리아 반장인데 어떻게 가나요.」

「……반원이 없는 반장도 있나?」

「글쎄 그때두 몇사람쯤이야 없을나고요?」

은경이는 대답대신 멍하니 서 있다가 그만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말할 중순째부터였다. 그 무렵부터 사방에서 소개난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중 은경이네는 제일차 소개난리 걸려 들고 말았다. 별 도리가 없었다. 떨치고 앉아 강제 소개를 당하니 보다 제손으로 집이라도 꾸러 두는게 상책일상 싶었다. 그때 그녀는 짐을 매장 정리해서 더러는 친정에 옮기고 더러는 복도 합실 아궁지 안에 숨겨 두었다. 여름인 것만이 다행이었다.

「그럼 호순엄마, 짐 좀 잘 봐줘요, 우리는 가까운 시골루 소개하기로 했다우!」

하고 친정에 와서 있었던 것이다.

친정에는 오라범 부부가 늙은이들이니만큼 이웃에서

도 별반 엿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친정 헛간에는 은경의 조카 들하고 석하가 숨어 있었다.

한 열흘쯤 뒤였다.

은경이는 자기네 집을 찾아가지 아니치 못했다. 궁금 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짐을 비울때 생각에는 간새는 물론 장아치까지도 꺼내서 팔아 먹든가 지저 먹든가 맘대로 하라는 토라진 뱃장이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렇게 범연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열흘만에 자기의 집을 찾아가 은경의 눈앞에는 또 한번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랫칭복도에서 비롯하여 온통 낫선 장동과 옷 보따리가 놓여 있는가 하면 앞 마루에는 큰 참대 술통이 네댓개나 놓여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뒷층은 오르내리기 불편해서 당분간 집도 지킬걸 아랫층에서 기거하노라고 했다. 새삼 놀라울 것도 없었다.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짐들의 출처였다. 호순엄마는 이러한 은경의 눈치를 챘는지

「호순 아버지 친구가 양주장을 경영 했는데요, 그때에 서 소개를 떠나게 되어 우리집에 짐을 맡기고 잔거예요.」

하였다.

또 열흘쯤 지났다. 은경이가 다시 자기네 집을 둘러 보러 왔더니 그사이 술통을 위시하여 복도와 방안 가득

하 놓여 있던 낫선 대부분 짐들이 없어지고 장농 한 짝과 의결이만이 땡그맣게 남아 있었다. 짐은 시골에 소개 시 키고 술은 술 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팔아서 현금하고 바 꿔다 주었노라는 호순 엄마의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호 순 엄마가 권하는 대로, 호순 엄마도 알고 있는 자기의 썩빛 유통치마를 주기로 하고 그녀는 수숫쌀 서 되를 안 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다시 며칠 되었다. 그녀는 호순 엄마에게 주기로 한 썩빛 유통치마를 꺼내서 보재기에 싸 놓고 있었다. 내일 즈믄가져다 쥐야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랬는데 뜻 밖에 호순 엄마가 은경을 불러 찾아 왔지 않나! 행여나 자기네 가 시골로 소개를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왔는지도 모른다고 은경이는 유통치마 를 짚 보자기를 흔들어 보이며

「나 아침에 왔다우, 지금 호순네 집에 갈려는 중이야」 하고, 자기네 집을 호순네 집이라고까지 박아서 말했던 것이다. 호순 엄마는 얼핏 반가운 표정으로 보재기를 반 아 무릎 위에다 놓더니, 배시시 서글픈 표정을 짓고

「아즈머니, 저 선생님이 혹시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저, 그 청년 동맹에?」

하는 것이었다. 아는 사람이 있을 턱이 있느냐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은경이 되물었더니

「글쎄 청년동맹인가, 하는데서 와 가지구 술 판 돈을 내노락해요, 그리구 집두 말짱 실어 간대요」 하였다.

「돈은 양추장 주인이 가져 갔다면서?」

「구개, 암만 옥여도 듣지 않아요, 꼭 내노락해요, 그런데... 돈이사 있지요, 하지만서두 그제 우리 돈인 가요? 어디... 이리될 줄 알았더면 아즈머니한테나 말걸걸...」

「얼마나 되는데」

「아무캐도 이십만원이상 될꺼로요.」

「저런, 큰돈이구만, 그러면 동회장에게 말해 보구려, 남의 돈이라구, 반장 청이니까 들어 출데지」

「동회 반장요 벌써 고만 들걸요.」

호순 엄마는 이를탈에도 또 은경을 찾아 왔다. 집을 몽땅 실어갔다 는 것이다. 그러나 실어간 집에 대하여 미련이 있는게 아니라 장동숙에 너어둔 돈이 아깝다는 것이었다. 눈들이 지키고 있어서 돈을 꺼낼 짬이 없었다는 것이다.

「암만해도 그돈은 우리가 갚어줘야 해요, 그렇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갚나요? 아즈머니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돈만이라도 찾두록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있다면 말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케……」

자기네에게 그런 힘이 없는 줄을 알기는 하지만 찾아오지 아니치 못한 것은 잡잡하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심경과도 같은 것이리라 고, 은경은 위로물 아끼지 않았다.

호순 엄마는 다시

「그케, 이제 세상이 바루 쟁히면 그 청년 동맹님들을 한 놈두 남겨는 안둔다고 호순 아버지가 아주 이룰 갈 구 있어서, 이놈들 두구 보자, 두구 보자, 너의 놈들 세상인을 알고 있지만……해 싸요.」

구월 스무이튿날이었다. 은경이는 방공호 속에서 나아가 우연히 자기네 집 있는 쪽을 바라다 보았다. 자기네 집 바루 근처 같이 보였다. 점은 연기가 오르고 있었다.

그날은 다른 어느 날 보다도 폭격이 심했다. 그러나 은경이는 그냥 그 불길을 바라다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불을 뒤집서 썼다.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달려 갔더니 아나나 다들까 불은 바로 은경이네 이웃집에서 시작하여 은경이네 집 연목에까지 연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이 합력해서 급히 서둘렀기 때문에 그녀가 집에 이르렀을 때에는 불은 이미 꺼지고 단자 타다 남은 연목에서 부지직 부지직 김이 오르고 있었다. 장독대는 벗겨던진 기왓장과 삽 가태에 맞아 거기 진렬 되었던 독

은 물론이요 단지 새끼하나성한 것이 없이 깨어진 파편으로 그득 차 있었다. 놀라웠다. 그러나 그보다 놀라운 것은 호순 아버지의 절손한 자세와 웃음이였다. 자기네가 말아 둔 남의 짐과 단칸 방이나마 장만 하려던 돈 봉치를 뺏아간 팔경이 도적놈들이 혼란이 나구 마는 날이 가까워 온다고 그야말로 이를갈고 있는 그의 모습이였다.

그것은 바로 구월 스무 다섯날 아침이었다. 누루 텅팅하게 부운 얼굴을 하고 호순네는 호순이를 업고 은경이를 찾아 왔다. 간밤에 특별히 지명되어서 동원을 나간 남편이 이제 몸을 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마 실없는 말을 하구 다닌게, 놈들의 귀에 들어 갔기 때문에 어디 간혀 있는 눈치니, 선생님께 말해서 알아 봐 달라는 것이었다. 애처로운 노릇이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친정 헛간에 숨어 있는 석하로서 도시 알아 불길 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구군이 입성한 다음날 아침이었다. 그러나 구월이 십구일 아침이다. 은경의 남편 석하는 이웃사람들과 함께 삼을 들고 국립 박물관이 있는 남산으로 올라 갔다. 거기에는 호순 아버지를 위시해서 옛, 아홉이나 되는 동민들의 학살된 시체가 어지러이 누워 있었던 것이다.



△連載長篇▽

붉은 밤 (2)

林 玉 仁

1547

어디 가까운데를 내리치고, 또 날아간 모양이다. 비행기가 사라진 뒤에도 사위는 그대로 취죽은 듯이 고요했다. 월달이 중천에서 불투명한 빛을 던져 망위는 첫빛으로 무겁게 갈앉아 있었다.

『자 저리로 갑시다.』

「다」짜의 어미를 강하게 울리는 이복사투리의 젊은 군인이, 우리뒤에서 외치며, 저어편 언덕으로 달린다. 연장을 들고 무겁게 움직여가는 무리들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희끄무레한 일색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모래를 날라서 여기에 방축을 쌓아야 합니다. 한 사람 두 놀지말구 열심으로! 자아 어느 편이

더 많이 쌓나 봅시다.』

감두인은 새끼로 경계를 하고 수백명을 두 편으로 갈라 놓는 것이다. 나는 서쪽 출에 서게 되었다. 모래사장의 모래를 가마니에, 삼으로 피담아서 운반하는 일이다. 새벽이 가까워지니까 공기가 싸늘해 오는데도, 원몸에서는 땀이 자꾸 배어났다.

또 한차례 배가 비틀린다. 나는 모래를 삼으로 피담다 말고 그 곁에 있는 버드나무가지들 부여잡고 애를 썼다. 진땀이 방울방울 이마에 솟았다. 찻질한 땀방울이 입술을 적시는 것이었다. 어디 잠깐 주저앉기라도 했으면——하고 나는 주위를 살폈다. 그때였다. 나와 함께 짝을 지어 가지고 모래를 피담던 젊은 여인이, 날카롭게 툭쏘아 부치는 것이었다.

『왜 이러세요.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누군 무슨 손줄 아나 봐! 참!』

나는 그 말을 듣자 다음 순간에야 어떻게 되는가에 마주 육을 퍼부어 주고 싶었다.

『그러나 너는 두구 보자——』

이 한마디를 속으로 증얼거렸을 뿐이다. 삼일천하(三日天下)일시 빠른한 노릇을 가지고, 네년은 소견머리도 없다, 하며 비웃었다. 나는 갑자기 전신에 어떤 힘을 의식하면서 이마에 방울방울 내뿜은 땀을 훔치고, 눈을 닦

았다. 그리고 배에다가 있는 힘을 다 주며, 천천히 일어서 모래를 날랐다. 그래도 전신에 무슨 철사나 뿔뿔이 뚫려나고 아팠다.

몇차례 쉬면서 또 기어이 판에 박은 듯한 연설을 듣고, 모래를 날라 꽤 높고 기인 제방(堤防)을 만들고, 하는 사이에 날이 섰다.

다섯시 직전에 우리는 노동에서 풀려났다. 단 오본도 눈을 붙여보지 못하고 완전히 하루밤을 뜬눈으로 센 것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부녀들은 서로들 얘기하는 것이었다. 『이번엔 그래두 쉬운 셈이지, 저번에 마포강에서 무거운 총알을 밤새 여날랐는데……』

『어이구 말씀마세요. 뜬눈으로 새다니……. 이런 짐승의 고역이 어디 있어요. 원……!』

한참후 뒤에서 고향을 질렀다.

『빨리들 가세요. 날이 아주 밝은문 공습이 더해지니까……!』

우리는 쫓기다싶이 걸음을 빨리 했다. 아닌게 아니라, 열마를 안가서 바루 백미터 이내에서(그렇다고 짐작한 다) 기관포소리가 땅을 찢는 듯이 들렸다. 그 찢구 북는 소리가 멀어져가자 우리는 어느 으쓱한 좁은 골목이 뻗 무너진 벽돌담에 막 붙어 있었다. 용산 지대였다. 바루 열마전에 대공습이 있던 부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

다. 밥을 푸다가 주걱을 쥔채 사지(四肢)가 날아난 부녀의 애기 주인이 시내에서 불일을 보구 집에 돌아가보니, 시구들도 집도 다 날아갔다던 애기, 수만금의 돈보따리를 고스란히 날려보낸 애기로 무시무시한 파괴의 지역인 것이다.

『이 사지(死地)를 면해야지!』

나는 가카스로 걸음을 옮기느라 했다. 그러나 이렇게 걸어서 언제 집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녁에 돌아갈 출만 알고 서훈은 꿈뻑꿈뻑 기다리고 있을테지! — 나는 어서 집에까지 가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가 용산인 바에야, 동대문에서도 무척 걸어야하는 우리집까지는 몇 시간을 가야하나 하고 나는 막연했다. 아프고 무거운 다리로 피곤이 전신을 휘감아 촌보를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 보다는, 어제 아침에 보리죽물을 마신 이래 그 대로 공복인 것이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았다.

『안녕히 가세요!』

내옆의 여인이 중간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면서 말했다. 나는 무거운 고개만을 끄덕였다.

조금 뒤, 나는 내 뒤에서 무시무시한 발걸음소리를 들었다. 습기를 먹음은 새박걸이 음션음션 흔들려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무

서운 공습소리가 땅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다. 나는 열결에 걸려 우동집에 뛰어들었다. 「우르르팡팡!」 「우르르탕탕!」 빗발치듯 일체를 부수고 삼킬 듯한 굉음(轟音)이 지나갔다.

나는 내가 꾸그리고 앉았던 옆에 피투성이가 된 군복의 두 사나이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습전에 내 뒤에서 땅을 굴으며 달러오던 바루 그 사나이들인 모양이었다. 겁에 질린 두 눈. 갈기갈기 찢어진 군복, 그리고 어디를 다쳤는지 뺨과 손등에 피를 활짝 묻치고 있었다.

『아주머니! 여기가 어디오?』

고향 사투리였다.

『용산이죠!』

『자꾸 가문 어디루 가오?』

『곧장가면 서울역, 그리구 남대문이 나타나죠!』

『남대문이라?』

그 중 하나이 중얼거렸다. 동인지 서인지 서울지리물 분간도 못하는 인민군, 그들은 나의 고향 근처의 청년들 입에 틀림 없었다. 공습을 당하고 그냥 도망쳐 달아나는 모양이었다. 나는 이제껏 느끼던 내몸의 피곤과 배고픈 것을 잠시 잊은 듯했다. 쉼한 두 눈을 깜빡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면 무엇인가? 아니

그들은 꽤고픈 일보다도 더 절박한 공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앉았을 동안, 그 중 하나가 모자를 저어편 구석에 구겨박고 웃고코리를 벗어 던지더니, 또 다른 하나도 그렇게 했다.

『동무! 아즈바이! 바지 좀 빌려 주시오.』

우동집 주인은 어안이 빙빙해서 그들의 거동만 살피다가,

『빨리 나가 주세요. 누가 들어오면 큰 일이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발걸음을 옮겼다. 조금뒤 내 뒤에서 또 땅을 구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사나이들이 앞을 질러 달려간다. 때물은 반쯤액, 샤쯔바람으로 사뭇 앞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나는 걸다가는 쉬고, 쉬다가는 또 기를 쓰고 일어나 걸었다. 나와 함께 걸던 사람들은 이미 아무도 길에 없었다. 해가 따갑게 바른편 땀에 쏘인다. 햇빛때문에 내시장과 피로가 더 심해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다가 길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걱정은 하면서도 차라리 이 피로운 시간들을 잊기 위해서는 길에라도 쓰러져 의식을 잃는 편이 좀 나을 것 같기도 했다. 쓰러진 내 몸을 안아 일으켜 줄 수 있는 아무도 이 거리에는 없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

각하면서 그래도 남은 의지(意志)전부를 기울여 걸고 있는 것이었다. 나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라기보다, 나는 최후까지 목숨껏 버티어야 할 하나의 이유(理由)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석훈이 때문이다. 석훈의 목숨은 내게 달려있는 셈이다. 나는 그를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다. 쿠가도 자기의 가정도 그를 보호할 길이 없는 지금이다. 그는 최후의 은신처(隱身處)를 내게 구한 것이다. 일체의 자유를 빼앗기고 햇빛을 등지고, 말과 돌자를 끌고 산송장처럼, 나의 처소의 어두침침한 다락소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밤을 주면 밤을 먹고 죽을 주면, 다나 쓰나 그것만을 먹고 연명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감정 가운데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 듯, 다만 공포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듯했다. 어떤 순간에는 나까지 의심스럽다는 뜻의 아한 눈으로 나를 건너다 볼 때가 있다. 사실 나는 석훈의 신변이 아니라면, 혼잣말에 어느 친지의 집에 숨어 있는 편이 훨씬 간편한 일일 것이었다.

나는 의지(意志)로 의지(意志)로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음산하고 처참한 빈 거리, 남하지 못한 남은 시민들은 버림받은 자의 명예를 고스란히 져야 하는 것이다. 나도 그 명예를 지고 간다. 약자의 명예를 지고 간다. 무능자의 설음을 안고 이렇게 앞으로

머저꾸러지며 걸고 있는 것이다.

일작이라도 빨리 집으로 가야한다. — 나는 그런 의지로 겨우 서울역을 지나 남대문에 다달았다. 동대문밖까지는 아직도 아득하다. 전차는 오구가전만 내 수중에는 한푼도 없는 것이다. 이때로는 촌보를 옮길 수가 없었다. 남대문을 지나 시장옆을 걸으면서 나는 이제 곧 길에 쓰러져 실신해 버리리라는, 그것도 몽롱한 의식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가는 사람의 무리가 허수아비처럼 보였다. 모든 물체가 뚱뚱 뿔다가 날아가 버리고, 모든 소리(噪音)가 아득하게만 들리는 것 같았다. 불길한 붉은 빛만을 발산하는 햇빛이 시름겨워서 내 눈거울은 자꾸만 감기려한다. 그런 상태가 얼마나 계속 되었을까,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진다. 나는 이미 촌보도 옮길 수 없었던 것이다.

남대문시장 옆 인도(人道)였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아니면 잠깐이었는데가량 할 수가 없었다. 두팔 위에 머리를 파묻고 한없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 조금 의식이 돌아오는 모양인지 사람들의 지나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더러는 어깨를 흔들며 보고 더러는 머리를 짚어보여도 내가 꿈쩍을 안하니깐 그대로 지나쳐 버리기도 했다.

얼마 지난 뒤였다. 나는 귀에 익은 정다운 속삭임을

들었다.

『이봐요. 웬일야, 정신채려 나야 나!』

나는 무거운 눈을 떠서, 그 정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이 영란여자였다. 나는 꿈속처럼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서 좀 정신채려요. 자 일어나요. 내 부축할게!』

나는 옷소매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일어섰다. 마치 더운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허전거렸다. 『이』여사는 내팔을 끼고, 조심조심 발을 옮기면서

『글쎄 어떻게든 피를 부려서라도 그 근로보국대라는 걸 면하지 글쎄, 약한 몸에 그런 노동이 당키나 해요? 난 우리동네에서 여러번 모던했는데…… 피가 없어서……』

나는 그 피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봐 김선생! 너 어저께 문화가동맹에 나가 보았어. 현대 난 참 놀랐어. 그들이 모두 야단이란 말야.』

『그이들이 누군데?』

『나중 말하죠! 어때 좀 정신이 들어요. 자 이제 곧 우리집이냐요? 아침 먹구 좀 쉬면 편찮을까야!』 편찮아요. 사날 양식은 있으니까요. 언니네가 잠자한말

갖다 주어서 아이들은 그걸 삼아 먹구 좋아해요.』
「이」여사의 집 때문에 들어서니, 어떤 젊은이가 편지를 들고 서 있다가

『이걸 장선생께서 보냅니다. 꼭 잘 전하라고요. 내일 아침 이맘때에 제가 들릴텐데요. 그때 회답을 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는 덜레덜레 나가 버린다. 「이」여사는 옥색한나치마를 묶었던 허릿바를 끌르고 옷을 잘아 입고 밤에 젖은, 버선을 빼어 마루에 던지며, 내가 누운 침대에 털썩 걸터앉아 그 편지 피봉을 뜯었다. 잠시 들여다 보더니

『홍, 이것 좀 봐요. 내가 남편을 어디다 잡혀온 줄만 아나 봐. 두리워말구 자수(自首)를 시키라구……. 허지만 그이는 남하(南下)해서 편히 지낼걸릴……. 나만 여기서 꼴탕을 먹지!』

그렇게 넋두리하면서 「이」여사는 그 편지를 내손에 넘겨 주었다. 발신인은 나도 잘 아는 문단인이었다. 얼마 전까지 보도연맹(報道聯盟)에서 활약하던 문단 중견이었다.

『서형(徐兄)! 「이」여사 남편을 시간바빠 자수(自首)하도록 하십시오. 소설가 ○○씨도 시인 ○○씨도 어찌까지 다 자수 했습니다. 신변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책임을 지지요. 시간바빠 권고 하십시오.』

어제 아침 정치가 ○○씨의 방송을 들었다. 그 전날엔 시인 ○○씨의 시 낭독을 들었다. 모두가 붉은 정치에 협력자는 것이었다.

버림받은 시민은 이렇게 해서 본의아닌 거짓말로 목을 이어야 하는 모양이다.

『여성동맹에 두 나가봤다우! 대단해 모두들!』

「이」여사는 감자를 벗기면서 애기삼아 했다.

나는 「이」여사의 꽃송이같은 흰 귀뿌리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가만 계세요. 삼일천하(三日天下)야. 비행기가 피나는 줄 아시우? 염려없어! 죽지않고 연명만 할 수 있으면, 만드시 서울은 탈환(奪還)될 거야!』

『글쎬 답답하니까 그러지. 아이들은 굶기지 말아야잖아? 여성동맹에 나가면 배급이 조금 있거든!』
나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한참만이었다.

『자어서 좀 들어요.』

내 머리맡 탁자위에는 쌀밥에 호박씨게와 오이김치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정신없이 다 퍼 먹었다. 먹고 나니 식곤(食困)이 나서 또 잠들어 버렸다.

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오징어 훨씬 지나 있었다. 나는 「이」여사와 헤어져 남대문으로 걸어나왔다. 제대로

간다면 한시간 이내에 집에까지 갈 수 있으리라. 나는 전차속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에 명멸하는 음산한 거릿길을 바라보구 있었다.

동네어구로 들어오는 데,

『아니 어디 다녀오세요. 난 한사날 후에 공장에나 나갈가 하는데요!』

넋들같이 얼얼이 등글고 반들거리는 강춘희라는 중년 여인이 알은체를 하며 걸던 발걸음을 멈추고 있다.

『대에서 두안나가 보실래요?』

『무슨 공장인데요?』

나는 궁금히 여기며 물었다.

『피복공장(被服工場)이죠. 뵈, 군부만드는 공장말예요!』

『내애……………』

나는 애매히 대답하며, 고개만 천천히 아래위로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중년여인은 일제시대엔 국민학교 교원을 오래 했는데, 지금은 어느 부자의 소실(小室)이 돼있으며, 이때 벌써 수탄 액수의 계(機)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큰 저택에서 딸과 단둘이서 칩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뵈는 영악하기로 이름난 여인이었다. 일제 때에는 애국부인회의 간부로 활약했으며, 해방후엔 대한부인회의 간부로, 그리고 공산군이 들어오자,

언제 저하운동을 하고 있었다의 심을 품을 정도로 여맹간부로 활약하는 모양이었다.

바로 며칠전 일이다. 동네 경찰관 내외가 피신간후, 그집을 이 강춘희가 뒤져서 쌀네가 마니를 찾아냈다.

그리고 동네에 배당한 일이 있었다. 나도 그때 쌀한되를 얻어온 일이 있었다. 그때 그 집은 할머니가 어린애

여럿을 데리고 있었다. 칠십이 넘는 병약한 딸하나 밖에 없는 경관의 장모였다. 강춘희가 대문앞에 명석을 깔고,

집안 여기저기에 숨겨둔 쌀가마니를 뒤져내어 쫓는 것을 보며, 화들화들 면면서 말 한마디 못할 형편이었다.

『아뵈는 이렇게 혼자 배매기를 채우자니 어떻게 해요. 인민정권이야 공명정당하죠. 이렇게 골고루 논아 먹어야는데 글썽! 이러니 쌀값두 올랐잖았어요?』

이렇게 뉘뉘리하면서 자기손으로 쌀을 퍼두던 강춘희의 입을 생각하며 우리집 대문앞에 다달았다.

여전했다. 밖으로 잠근 누런 자물쇠가 햇빛에 번쩍이고 있다. 나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몸뚱이 주머니에 간직했던 열대를

고내 열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서 안으로 빛장을 질렀다. 안에서 여전히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부엌문을

열어 보았다. 내가 어제 나갈때의 모양 그대로였다. 손

뚜정을 열어 보았다. 역시 그대로였다. 나는 잠시 가슴

이 절령했다.

『도망은 못 쳤을테구……. 그렇다구 죽은 것은 아닐텐데……』

다락문을 조심조심 열어 보았다. 석훈은 내 얼굴을 보자 없드린채 그 자리에서 메꿀때글 구울렀다. 어련애 모양 두발로 장단을 치면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조금뒤 종이쪽지에

『영나없이 죽고 못들어 오는줄 알았읍니다. 발생자두 없구! 어떻게해서 빠져나가, 어떻게 어디루 찾아가 나하구, 궁리하던 참입니다.』

『죽을뻔 했죠. 몇차례나!』

나는 곧 부엌에 달려나가 우선 찬밥이라도 들여왔다. 석훈은 일어나 앉아 꾸벅꾸벅 손걸을 나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면 문을 도로 닫고, 석훈은 그 안에서 낮잠도 자고, 책도 읽고, 어학공부도 하고 있었다. 가끔 꺼질듯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낮에 내가 집안에 있는 것은 석훈을 위해서 위험하므로 별로 불일이 없어도 밖으로 외출을 삼가고 외출했다.

대개는 사람이 들끓는 중앙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나가서 길가에 벌려놓은 상품들을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만 저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촌 아낙네처럼 굵은삼베나 모시옷에 새까만 나무비녀를 찢르고, 세수초차 아니하고

나가 해매일 때가 많았다. 어떤 때는 옷보따리를 끌어서 필요없는 것을 챙겨가지고 나가서 팔아서는 그돈으로 식량을 위해서 아까운 물건들을 들고 나온 것들과 바꾸기도 했다. 보석단추, 찻잔, 골동품, 식기등 꽤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다. 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거나, 갖고싶어서라기보다, 그저 그렇게라도 해야만 해가 기우는 것이다. 늦게 돌아가는 길에는 대개 석훈의 식사준비를 해가(가루) 국수를 사들고 들어가서 냉면을 만들어 들여보내면 석훈이는, 참으로 좋아했다. 무에나 맛이 있는 모양이었다. 손걸을 뻔 뒤에도 빈 손걸이 험와 이에 그냥 묻어서 전득거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민망할 정도였다. 그러나 겨우 연명하는 정도였지, 맛있는 것을 장만한다는 일은 도저히 실력부족이다.

어느 이른 새벽이었다. 팔에 잡았던 봉대를 끌르더니, 『내 좀 다녀오게요.』

하고 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다. 석훈은 노오타이에 회색 즈봉을 입고 있었다. 풀었던 봉대를 도로 감는걸 보니, 왼쪽 팔꿈치에 손걸지죽 만큼한 피발라붙은 자리와 그 언저리에 시뻘장게, 마아크로뿔을

발라 얼듯보기에 대단한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며칠 전 일이었다. 석훈은 六二五날 공산군이 남침해서 서울에 진주한 후 미쳐 남하못해서, 다니던 출판사에 며칠 그냥 나가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위원장으로 뽑히고, 그 자리에서 의용군(義勇軍) 모집운동의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에 결심했다고 한다.

『도망치자, 그리고—』

그길로 도망쳐를 나의 처소에 구한 것이었다. 석양이었는데, 그는 오자마자 부엌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무심히 알고, 방안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탕—』

무슨 소리가 들렸다. 도마위에 칼이 내리지는 소리였다.

『에그그.....』

나는 부엌 속에서 석훈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낮으나, 절박한 부르짖음을..... 신음 소리를 듣고 부엌문을 세웠다.

피투성이가 되어, 석훈이는 쓰러져 있었다. 칼이 무디었기만정이지, 석훈의 왼쪽팔은 끊길만한 노릇이다. 무숨을 잃는 것 보다는 차라리 왼쪽팔을 잘라 버리자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팔꿈치를 몹시 다쳤을 뿐이다. 다행한 노릇이었다. 조금 뒤 그는 다시 일어서서, 주머니 속에

서 날카로운 돌을 꺼내더니 그것으로 피흐르는 팔꿈치를 자꾸 긁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상처를 더 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어 주면서

『이렇게까지 할거야..... 차라리 의용군이라는 걸루

나가지쇼. 이렇게까지 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구.....』

다음 말은 잊지를 못했다. 석훈의 시선이 날카롭게 원망스러운 듯이, 나를 쏘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순간, 여성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남성들의 큰 생명의 불안을 생각해 보았다. 저 건너 낙산(洛山)꼭대기에서도, 청개천가에서도 미처 남하하지 못한 국군이 총살당하던 광경! 그리고 하루 그 전날, 길에서 만난 의용군으로 나가던 그 젊은 사나이의 얼굴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천광목 아태위를 입고 붉은 완장을 달고 머리에 꽃으로 엮은 화관을 썼었다. 자진(自進)해서 나가는 모양으로 꽤 기운차게 노래도 부르고 만세도 부르며 지나가는 때 왜 그렇게 구슬퍼 보였을까?

얼큰한 얼굴에 뒤편을 돌우고, 『연설하며, 붉은 기발을 흔들며 흔들며 지나가는 사나이들이 도살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내눈에도 비치는 것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는 것같이 보였던 것이다. 흰옷에 화관을 쓰고 붉은 것발을 흔들며, 흔들며, 떠

나가던 그 사나이를 만난 것은 정동(貞洞) 골목길에서였다. 「와아, 와아!」 소리지르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도별로 없이, 지나갔던 것이다. 남에게 시범(示範)하기 위해서 머나는 헛개비——,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석훈이가 내짐을 빠져나간지 반시간도 못 되어서였다. 밖에서 누가 안방 영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혜 어머니였다. 발돋음을 하고, 천망으로 무릎 내민 내릿가에 속삭였다.

『이 동네에서 어젯밤부터 의용군을 잡아간대요! 알려 드릴려구……』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길에서 막 붙잡는대요!』

나는 「앗차」하고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석훈의 신변은 위험을 자오해야 했다. 잠깐 다녀온다고 했으니까 어두운 새벽에 나갔다가 무사할 수만 있다면 밤이 되면 오겠지—— 하면서도 우선 걱정이 앞섰다. 정혜 어머니에게 석훈이를 감추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온지 얼마 안되는 이 동네에서 나와 사귀는 유일한 부인이었다. 그의 남편도 집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으로는 어디 머언데로 장사하

러 떠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정혜 어머니는 나보다 나의 몇살 아래인 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얼누어간되는 집을 깨끗하게 가꾸고 어린 오뎁을 기르는 내가 보기에는 행복한 주부였다. 그의 남편은 어느 상사(商事)의 사무원인 대학출신이었다. 그 정혜 어머니는 혼자 사는 여자인 내가 동네에 이사를 온 뒤, 늘 드나드는 석훈이에 대해서, 동네 다른 부녀자들처럼 호기심에 찬 눈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중 얘기가 났지만,

『사람집에 사람이 안 드나들겠어요, 호호호……. 외로우신데 그러실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네 부처간의 연애사실을 재미있게 얘기해주는 것이다.

『손님이예요!』

어쩌다 동네 다른 부인들이, 석훈이가 다니가는 것을 보고 물어보면 나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명목이 없는 것이다. 내가 글을 쓰니까 출판사 관계의 그와 알게된 것이었다. 그는 고로(稿料) 같은 것도 가장 신용있게 전해주었으며, 얼마전 내가 견책으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엔 지나치게 수고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곳에 오막사리를 장만한 것도 그의 주선이 컸던 것이다. 사실 명목(名目)이 없는 서로의 관계였다. 그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들렀다가

돌아간 뒤면, 나는 잠시 공허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공허란 —, 오랜 방랑과 고독과 병고에 시달린 끝에 느끼는 일종의 허탈감인지 모르겠다고 느끼면서, 나는 그가 다녀간, 빈집 주로마루 끝에 앉아서, 머ल्ली 바라보이는 시내의 밤거리에 눈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시간이면 어머니 생각도 났다. 벌써 이복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리운 어머니, 불쌍한 그 어머니의 생각이 가슴을 저밀 때도 있었다. 두 다리가 없는 불쌍한 오빠와 마돈나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율케의 일이며, 귀여운 조카말들의 생각이 떠올랐다. 해란이, 해구, 해선이... 그것들이 얼마나 컸을까? 이른 고무신을 사다가 달라던 해구, 운동화를 사다 달라던 꼬마 해선이... 모두 보고 싶었다. 그리고 큰 오빠의 유복자인 「금철」이는 어디 군인으로 나와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고향 무덤속에 두고 온 그이... 그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외롭고 슬픈 것이리라. 나는 여자의 불행을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여

자의 행복의 정체가 무엇인가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미고, 그와의 소풍장난 같은 생활에서 감득(感得)했던 행복의 나날을 알고 있다. 남성이란, 가정에서는 처정(稚情)이 환원(還元)되어, 전혀 애기처럼 번거송이의 심정으로 자기전부의 무장(武裝)을 풀고, 쉬는 것 —.

나는 나의 과거 칠년의 가정생활이 칠십년의 세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리만큼, 나의 행복의 중량(重量)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개인생활도 사회생활도 없는 나의 생활 속에, 서훈이는 유일한 나의 살아가는 빙거(憑據)였는지도 모른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서훈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길에서, 정거장에서, 일터에서 젊은 사나이들은, 의용군으로 자꾸자꾸 고을려 가는 것이었다.

나는 기다리다가, 막연히 길에 나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턱대고 서훈이를 찾아, 서울거리를 헤매이기 시작했다.

— 계속 —



△翻譯小說▽

「데저레」의 갓난애

케이트 쇼펜
李允熙譯

△紹介▽

Kate Chopin (1851—1904), 女流小說家. 「센트·루이스」에서 나서 스쿠알에 「루이지아나」州의 「오스카쇼펜」과結婚했다. 그때 남편은 「센트·루이스」銀行에 勤務하고 있었는데, 쿠라파드 新婚旅行을 다녀온 後에는 「뉴·오르테안스」에 綿花仲買商으로 定住하게 되었다.

「케이트 쇼펜」은 주로 「루이지아나」州에 移住한 불만서 사람이야기를 그 作品에서, 많이 다루었다. 여기 에 번역한 Désirée's Baby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마치 「모팻산」이 쓴 作品과 같이 힘겨지고 있으며, 오늘날 美國에서 일어나고 있는 人種問題의 깊은 뿌리와, 理性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人間の 本性 및 그 深刻性을 보여주고 있다.

날씨가 화창했으므로 「발몽데」부인은 「데지레」와 그
갓난것을 보려고 「라브리」로 마차를 물었다.

「데지레」가 갓난것을 안고 있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글썽 「데지레」가 갓난애보담 조금 더 컸던
것이 바로 어제와 같지 않은가 말이다.

그때 천양반은 「발몽데」저택을 들어서며, 커다란 돌
기둥 그늘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데지레」를 발견했었다.

어린것은 왼팔에서 깨어나, 「아빠」를 부르며 울기 시
작했었다. 고것이 할 수 있는 짓이나 말은 고작 그것이었
었다. 야장야장 걸어나가는 나이였으므로, 어떤 사람은
고것이 제발로 거기에 잘못 걸여 들어왔을 거라고들 생
각했었다. 그렇지만 거개 사람들은 바로 개척지 농장 밑,
「코우튼 메이스」가 가지고 있는 나무터울 그날 늦게 건너
간 포장마차 일행의 「텍사스」사람들이 부로 버리고 간
아이라고 믿고 있었다. 죽어 온 아이였지만 그리저럭 「발
몽데」부인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자식이 없다
는 것을 아시고, 그 애정을 쏟을 대상으로서 「데지레」를
보내 주신 것이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 그건 고 제집애가 자라가면서 예쁘고, 유순하고,
사람스럽고 착해서 — 「발몽데」집안의 총애물이 된 때
문이기도 하였다.

어느날, 「데지레」가 십 팔년 전에 쓰러져 잠이 들었던

그들의 그 돌 기둥에 기대어서 있었을 때, 지나가던 「알
망 오비니」가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것은 조금도 이
상한 일이 아니었다. 마치 권총알을 얻어맞는 것처럼 「오
비니」일족은 모두 그 모양으로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 그가 「데지레」를 전에는 사랑할
않았다는 것이다. 「알망」은 여덟살 때 「파리」에서 어
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가 짐으로 데려왔을 적부
터 「데지레」를 알고 지냈으니 말이다. 그날 문간에서 「데
지레」를 보았을 때 눈이 뜨인 정열은 마치 눈사태처럼,
또 요원(燎原)의 불길처럼, 또 모든 방해물을 때밀고 마
구 돌진하는 불전처럼 휩쓸어 나갔던 것이다.

「발몽데」바깥주인은 실제적이 되어가지고 일이 잘 풀
리기를 원했다. 즉 처녀의 애매한 소생이 말성되지 않거
를 바랐다. 「알망」은 그네의 눈을 들여다 보고는 누구
의 소생인가 짐은 문제시하지도 않았다. 「데지레」가 무
명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도 터놓고 말이 나왔다. 그러나
「루이지아나」에서 가장 유서 깊고 자랑할 만한 한 이름
을 그네에게 줄 수 있는 세계에 그것이 어떻게 말인가?
그는 「파리」에 함을 주문하고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 참
을 수 있는 한의 인내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며
기다렸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혼한 것이었다.

「발몽데」부인은 「데지레」와 그 갓난것을 녀 주일 동안

이나 보지 않았다. 「라브리」에 도착했을 때, 그네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저택을 첫눈에 보자 몸이 부르르 떨었다. 그곳은 슬픔이 서려 보이는 곳이었고 여려해 동안 안주인의 부르러움을 모르는 곳이였다. 그건 노(老)「오비니」씨가 불란서에서 결혼을 하고는 부인이 하도 그곳을 좋아해서 떠나기를 싫어했던 까닭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대로 거기에서 장사지내고 왔기 때문이었다. 누런 회칠을 한 집을 에워싼 넓다란 복도 위로, 강파르게 경사져 중의 두건(頭巾)과 같이 시커먼 지붕이 주욱 끝을 내밀고 있었다. 그 곁에는 늙은한 큰 떠갈나무들이 서 있는데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길게 뻗어 마치 판포(楮布)처럼 집을 그늘로 덮고 있었다. 집 모양도 그렇지만 또한 젊은 「오비니」의 범절도 엄격한 것이었다. 그때 그 이 밑에서는 잠둥이 머슴들도, 기락하고 관대했던 늙은 주인 시절의 웃음을 잊은 자가 오래였다.

나어린 애 어머니는 차츰 산후 몸을 회복하고 있는 중으로, 부르럽고 흰 옥양목과 레스 옷을 감고 침대 위에 주욱 다리를 펴고 누워 있었다. 잣난것은 그 옆 어머니 팔 위에서 젖꼭지를 향한채 잠들어 있었다. 얼굴이 누런 유모는 창 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발몽데」부인은 「데지레」몸 위로 비대한 몸을 구부리고 팔을 잠깐 살며시 부풀며 입을 맞췄다. 그리고서 어

린것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진 잣난애가 아니구나!」 그네는 놀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때 「발몽데」에서는 불란서말을 쓰고 있었다.

「전 어머니가 놀렐출 알았어요. 잣난애가 크는 걸 보구요.」 「데지레」는 웃었다. 「이 조그만 꿀꿀이! 다리 좀 봐요, 엄마. 그리고 손이랑, 손뼉이랑——정말 손뼉 같지요.」 「잔드린」이 오늘 아침 그걸 꺾어 주어야 했어요. 정말이지 그러잖아, 「잔드린」?

유모는 수건을 두른 머리를 대견스럽게 수그리며, 「그렇구 말구요, 마담」하고 대답했다.

「데지레」는 말을 이었다. 「그리구 우는 꼴이라니, 귀가 먹을 지경이에요.」 「알망」은 요진날 「라브랑슈」의 오막살이 집만치나 먼 곳에서까지도 잣난애가 우는 소리를 들었네요.」

「발몽데」부인은 눈을 감지도 어린것에서 떼지 않았다. 그네는 애를 안아들고 제일 흰한 창가로 걸어갔다. 그네는 잣난것을 익히 살펴보고 다음에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 얼굴을 돌려 들켜를 내다보고 있는 「잔드린」을 쳐다보았다.

「그때, 애가 자랐다. 아주 달라졌구나.」 「발몽데」부인은 천천히 어린것을 어머니 곁에 놓으면서 말했다.

「알망」은 무어라고 말하던?

「메지레」의 얼굴은 행복 바로 그것으로 가득 차 불그레 해졌다.

『정말. 「알망」은 이 교구(敎區)에서 자람이 여간 야닌야 버지래요. 전 그것이 주로 그이 이튿날이을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인 말은 않지만요—— 말도 배한가지로 귀여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 그전 정말이 아니라 는 걸 알아요. 저는 그이가 나를 기쁘게 해줄려고 말한다 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엄마』 그네는 「발롱데」 부인의 머리를 자기한테로 끌어당기고는,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다. 「그인 하나도 벌을 준 일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요—— 애를 난 후로는요.」 「네그린은」까지도, 일을 실행치고 다리를 떼쳐하는데—— 그이는 다만 웃기만 하면서 「네그린은」은 아주 못된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정말 엄마, 전 것처럼 행복해요. 까무라치겠어요.』

「메지레」가 말한 것은 정말이었다. 결혼, 그리고 그후의 생남은 「알망 오비니」의 존대하고 따지기만 하는 성질을 많이 부드럽게 해주었다. 이것이 완전한 「메지레」를 것처럼 행복하게 만든 것이었다. 그전 그네가 남편을 미칠듯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이 상을 켜드릴 때는 그네는 벌벌 떨었다. 그래도 그를 사랑했다. 남편이 웃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바라

지 않았다. 그러나 「알망」의 거무티티하고 잘난 얼굴은 그네와 사랑에 빠진 날부터 그다지 종종 찌프러지지 않았다.

жат란 것이 백날 쯤 되었을 때, 「메지레」는 어느날 자기의 행복을 위협하는 어떤 공기가 떠돌고 있음을 알아채게 되었다. 그것은 처음 너무나도 미묘한 것이어서 걸잡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다만 불안한 암시에 지나지 않았었다. 잠동이들 잔에 서려 있는 신비한 분위기, 도시오리라고 생각지도 않은 먼이웃이 뜻밖에 찾아 온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남편 행동에 야릇하고 무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네는 감히 연유를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는 「메지레」에게 이야기할 때는 눈길을 피했다. 그 눈에서는 옛 사랑의 빛이 꺼져버린 것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외출이 심했다. 비록 집에 있을 때라 할지라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내와 어린 것이 있는 곳을 피했다. 그리고 머슴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악마의 혼이 잡자기 그를 사로잡은 것같이 생각이 들었다. 「메지레」는 죽으리만치 가련했다.

어느 더운 날 오후, 그네는 화장복(化粧服)을 입은 채 어깨 위로 늘어진 길고 비단결같이 윤나는 갈색 머릿단을 뉘엿뉘엿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방에 앉아 있었다. 반벌거숭이의 잣난것은, 마치 화려한 용상(龍床)같이 양공

단으로 잤을 한 반묘계를 써운 큰 마호가니 침대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다. 「라 브랑슈」의 사분지 일 잠동이 아들이——역시 반벌거숭이로——공작털 부채를 들고 천천히 어린애를 부채질하며 서 있었다. 「데지레」의 눈은 멍하니 슬픔을 담고서 잤던 것 위에 고정된 채, 한편 자기 걸음으로 물러오는 듯한 질은 안개를 꿰뚫어 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네는 어린것에서 눈을 돌려 옆에서 있는 사분지 일 잠동이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어린것을 쳐다보고, 이렇게 몇 번이고 같은 것을 되풀이했다.

「아유!」 그네는 마침내 참지를 못하고 소리쳤다. 「데지레」는 자기가 소리친 것도 의식 못할 지경이었다. 피가 혈관 속에서 얼어붙은 것 같고, 얼굴에는 축축히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그네는 조그만 사분지 일 잠동이 아이에게 무어라 말 할려고 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잠동이 아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고개를 쳐들자 천 아주머니가 문을 가르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커다란, 부드러운 부채를 놓고 다소곳이 맨발 뒤꿈치를 들고는 윤이 번지르르한 마루 위를 소리 없이 걸어 나가 버렸다.

「데지레」는 어린것을 훑어지게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

고 머물러 있었다. 그네의 얼굴 상은 놀람에 질려 있었다.

이윽고 남편이 방에 들어 왔다. 그는 아내를 본체만체 채상쪽으로 가서 그 위에 뒤덮혀 있는 종이 층에서 무엇 을 찾기가 시작했다.

「알망!」, 만약에 그가 인간이었다면 쿵 쥘렸음을 들 림없는 무소리로 그네는 남편을 불렀다. 그러나 그는 들 은 체도 하지 않았다. 「알망!」, 그네는 재차 불렀다. 그 리고 일어나서 그에게로 비셀비셀 걸어갔다. 「알망!」 그네는 남편 팔을 움켜쥐며 다시 한번 헐떡이었다. 「어 린것을 봐요. 어떻게 된 셈이에요? 말 좀 해요!」

그는 냉냉히, 그러나 살며시 팔에서 아내의 손가락을 풀어 손을 내뻗리쳐 버렸다. 「말 좀 하세요. 어찌 된 셈 이에요!」 그네는 무가대로 부르짖었다.

「그것은 말야」하고 그는 가볍게 대답했다. 「어린애가 백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네가 백인이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하는 거지 뭐냐 말야!」

이러한 욕이 그네에게 의미하는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재빠른 한 생각은 그것을 거부하는 비상한 용기를 부 들어 주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맹탕 거짓이에요. 난 백인이 예 요! 내 머리를 보세요. 갈색이지요. 그리고 내 눈은 회

색이구요, 「알망」, 당신은 내 눈이 회색이라는 걸 안
지요. 그리고 내 피부 색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네
는 남편 손목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내 손을 봐요. 당
신 것보다 회잡아요, 「알망」. 「데지레」는 신경질적으
로 웃었다.

「라 브랑슈」 손만치나 회구만.」 그는 모처럼께 쓰아
부치고 아내와 어린것을 남겨놓고는 나가버렸다.

「데지레」는 손에 펜을 쥘 수 있게 되자 절망적인 편지
를 「발롱데」부인에게 썼다.

「어머니, 여기 사람들은 내가 백인이 아니라고 그런답
니다. 「알망」도 내가 백인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제발
그것이 정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세요. 어머니는 맹
탕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전 죽을 지경이
예요. 죽어야 할까 봐요. 전 그렇게 불행해가지고 살 수
는 없어요.」

온 답장은 간단했다.

「내 「데지레」야, 「발롱데」 집으로 돌아 오너라. 너를
사랑하는 어머니 걸음으로. 어린것도 같이 데리고 오너라.」

답장을 받자 「데지레」는 그것을 가지고 남편 서재로
가서 그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 퍼 놓았다. 그네는 거
기에 편지를 놓고서, 말없이, 연필이 하얗게, 흙적이지
않고 석상(石像)처럼 서 있었다.

목욕히 그는 차가운 눈으로 씌여진 말들을 훑어 읽었
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내가 가도 좋아요, 「알망
」.」 그네는 혹시나 남편이 불들어 주지나 않나 하
는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가.」

「내가 가버리면 시원해요?」

「그래, 네가 가버리면 시원하겠어.」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무참하고도 불공
평하게 처분해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것처럼 자기
아내의 혼을 찢어 주었을 때 하나님에게 제 나름대로 그
불공평한 처분에 대하여 얼마간은 앙갚음을 했다고 느꼈
다. 더우기 그는 이제 「데지레」를 조금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그네가 그의 집안과 가명 위에 세
운 아지 못하는 명예훼손 때문이었다.

일격에 실신한 사람처럼 「데지레」는 발걸음을 돌리고, 남
편이 자기를 되볼려들이기를 바라면서 문을 향하여 천천
히 걸어 나갔다.

「잘 있어요, 「알망!」 그네는 신음하는 소리로 말했
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운명에 대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데지레」는 어린것을 데리려 갔다. 「잔드린」이 컴컴한

복도에서 애를 안고 오라가락하고 있었다. 그네는 이렇다 말도 없이 유모의 팔에서 어린것을 빼앗아 들고 응응 대를 내려서 싱싱한 떡갈나무 가지 밑으로 걸어나갔다. 때는 시월 오후, 마침 해가 지고 있었다. 저어기 조용한 들에는 잠둥이들이 무화송이를 따고 있었다.

「데지레」는 엷은 흰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고 또 신도 스리빠를 신은 채 그대로였다. 머리에 도 아무것도 쓴 것이 없어, 그 갈색 머리는 햇빛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네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밭뭉데」 농장으로 통하는 넓고 탄탄한 길로 접어들지 않았다. 그네는 황무지를 옆질러 걸어 갔다. 거기 나무등걸은 연약한 발에 상처를 냈다. 것처럼 발에 걸친 것이 허술했다. 그네의 엷은 옷도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네는 느릿느릿 흐르는 깊은 강, 언덕을 따라서 삐뻔히 자란 갈대와 수양버들 사이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말았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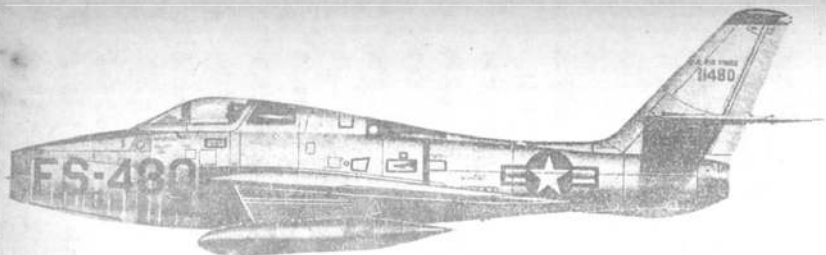
몇 주일 후에 「라브리」에는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다. 말끔히 치운 뒷뜰 하가운데에 커다랗게 모닥불이 타고 있었다. 「알망 오비니」는 일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

직한 원관에 앉아서 모닥불에 대을 물건을 데 여섯 명의 잠둥이에게 자신이 나누어 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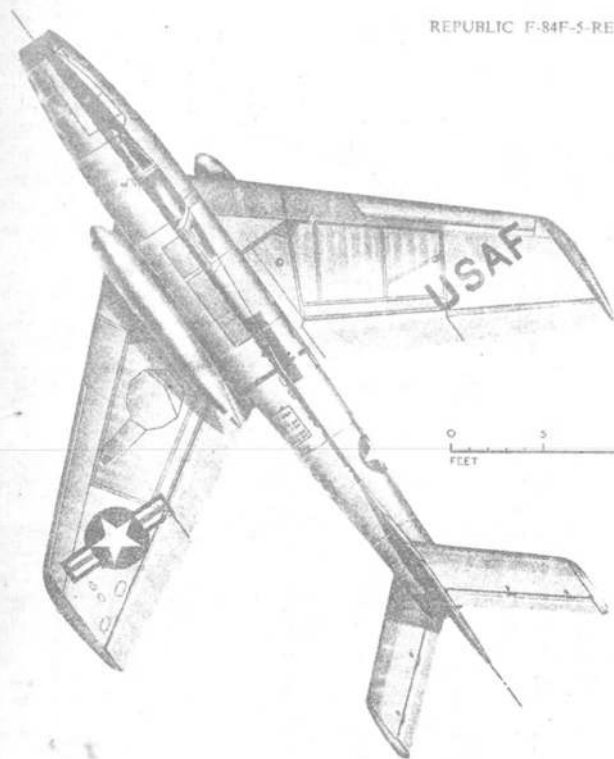
값진 잣난에 옷가지들이 한아름 이미 그득히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가지가지 장식을 한, 아름다운 버들가지요 람이 던져졌다. 그 다음에는 명주옷, 그리고 비로오드와 양공단 옷가지가 던져졌다. 테스역시 불속에 들어가고, 수 놓은 것도 던져졌다. 모자와 장갑도 던져졌다. 것처럼 결혼 함에는 귀한 좋은 물건만 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불밥이 될 것은 조그마한 편지 봉치였다. 그것은 약혼 시절에 「데지레」가 「알망」에게 보낸 자갈 한 글씨의 순정의 편지였다. 때달이 뒤켠에 또 편지나 머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알망」은 꺼내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데지레」의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옛날 편지 쪽이었다. 그는 그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는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축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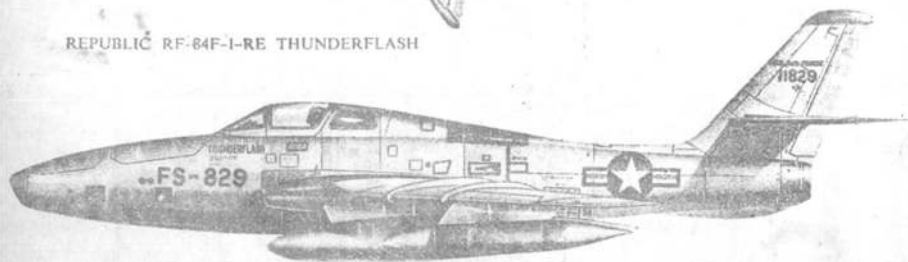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밤낮으로 나는, 우리 귀여운 「알망」이 그를 애지중지하는 어머니란 사람이 노예의 나인을 찌러 저주받은 인종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우리의 살림을 것처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라고.



REPUBLIC F-84F-5-RE THUNDERSTREAK



REPUBLIC RF-84F-1-RE THUNDERFLASH



코 메 트

發行處·空軍本部政訓監室
發行兼編輯人·空軍大領金基完
印刷處·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印刷人·空軍大領李繼煥

祝
發
展

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THE COMET

1966